



국립해양박물관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제1회 국제학술대회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해양 실크로드

각국의 인식과 미래전망

Perception and Perspective of Each Country
on the Maritime Silk Road



2016. 11. 29. ^{Tue} 10:00 ~ 17:00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
Main Auditoriu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미래전망

2016. 11. 29. / 화 10:00~17:00
국립해양박물관

심포지움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토론자
등록 및 개회			
09:00~ 10:00	등록		
10:00~ 10:10	개회사		
10:10~ 10:20	축사		
10:20~ 10:30	기념촬영		
1부 사회 : 김주식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본부장			
10:30~ 11:10	[기조강연] 해양실크로드의 개념에 관한 한·중·일 3국의 인식	정수일 /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11:10~ 11:50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张庆捷 / 중국 산서대학 교수	양은경 / 부산대학교 교수
11:50~ 12:30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이란문화와 예술의 번영 - 이란 국립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Shahram Heydarabadian / 이란 국립박물관 학예사	임영애 / 경주대학교 교수
12:30~ 13:30	오찬		
2부 사회 : 백승욱 /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3:30~ 14:10	[기조강연] 해양실크로드와 해양문명의 장기지속과 미래전망	주강현 / 제주대석좌교수 · 해수부해양 르네상스위원장	
14:10~ 14:50	해양실크로드 개괄 - 인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국(비인도계)유물을 중심으로	Yogesh Mallinathpur / 인도 뉴델리국립박물관 학예사	주경미 / 충남대학교 강사
14:50~ 15:30	부남과 해양실크로드	Ven Sophorn / 캄보디아 앙코르국립박물관 학예사	고정은 /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
15:40~ 16:20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교역	Nguyen Dinh Chien / 베트남 역사박물관 (전) 부관장	김영미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16:20~ 17:00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齐东方 / 중국 북경대학 교수	한성욱 / 민족문화유산원 원장
폐회			

개 회 사



가을빛이 우리 주변에 찾아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및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겨울 바다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추웠던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얼음 바다 위를 걸어 세계 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오늘 학술대회 주제인 바닷길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시대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예로부터 끊임없이 바닷길을 이용해오며 살았습니다. 내부로는 조운로를 통해 공물을 진상하였고, 외부로는 멀리 서역 상인들과 교역을 한 여러 흔적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바닷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런 바닷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선조들이 이용하였던 해양실크로드에 대해 조명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해양실크로드는 해상실크로드, 바다의 실크로드, 해양실크로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해양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닷길을 통한 교류에는 단순한 물자의 교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계화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문화권도 포함된 소통과 교류의 마당이 펼쳐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

식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가진 ‘해양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바닷길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획전시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교역사례 및 교역대상 지역들의 유적·유물에 대한 소개, 무역선에 대한 이야기, 수중발굴의 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해양실크로드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해양실크로드가 가졌던 국제적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참석해주신 국내외 발표자 및 토론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서 과거의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모습을 재현 하듯,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서로 간에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주최한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립해양박물관장 **손재학**

축 사



해양 르네상스의 거점이자 해양의 역사와 미래가 융합된 꿈과 희망의 공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해양실�크로드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학 관장님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양실�크로드는 인류문명의 교류가 진행된 통로로서 세계 주요 문명의 산과 역할을 하여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서·남해는 다양한 문명과 문물이 오가는 교류와 소통의 다리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삶의 터전으로서 해양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실�크로드에 대하여 국내외 여러 석학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해양실�크로드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인식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참석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거듭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석

해양 실크로드

각국의 인식과 미래전망
Perception and Perspective of Each Country
on the Maritime Silk Road

목 차

[기조강연1] 해상실크로드의 개념에 관한 한·중·일 3국의 인식	정 수 일 015
[발표1]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张庆捷 037
[발표2]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이란문화와 예술의 번영	Shahram heydarabadian 081
[기조강연2] 해양실크로드와 해양문명의 장기지속과 미래	주 강 현 119
[발표3] 해양실크로드 개괄 - 8 ~ 16세기의 인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국 (비인도계) 유물을 중심으로	Yogesh mallinathpur 167
[발표4] 부남(扶南)과 해양실크로드	Ven sophom 207
[발표5]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Nguyen Dinh Chein 249
[발표6]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齐东方 289
[논고] 8세기를 깨우다 - 16세기의 중국 침몰선	尤泽峰 333

기조강연1

해상실크로드의 개념에 관한 한·중·일 3국의 인식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서론

I. 해상실크로드의 명칭과 정의

II.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와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環球性)

III. 해상실크로드의 기능과 범주

맺음말

기조강연1

해상실크로드의 개념에 관한 한·중·일 3국의 인식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서론

문명교류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봄을 맞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 속에서 한자문명권에 속하는 한·중·일 3국은 실크로드 연구에서의 후발성을 털어버리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근간에 3국만이 연구를 집대성한 실크로드 사전(事典, 辭典)을 연이어 펴낸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중·일 3국을 비롯한 세계 실크로드학계는 여전히 진부한 통념에 사로잡혀 근본적인 개념문제에서조차도 학문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론(異論)이 분분하다. 특히 연구가 일천한 해상실크로드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숙명적으로 해양국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해양강국’의 꿈을 안고 비상하고 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문명의 통로인 해상실크로드를 제대로 알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실크로드의 학문적 연구에서 출발점이며 기초(基調)가 되는 주요한 몇 가지 개념문제에 관한 3국 학계의 다른 인식을 비교분석하면서 그 학문적 정립을 모색하려고 한다.

I. 해상실크로드의 명칭과 정의

한·중·일 3국은 같은 한자문명권에 속해 있지만, 해상실크로드에 상이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각이하게 쓰이고 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 1) 해상(海上)실크로드 : 중국, ‘海上絲綢之路’; 한국
- 2) 바다의 실크로드 : 일본, ‘海のシルクロード’; 일부에서는 ‘海上シルクロード’
- 3) 해양(海洋)실크로드 : 한국의 일부 학자

등 3가지다. 한자문명권에 속하는 3국에서 어원이나 어의로 이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길이라는 함의와 육로와의 대응관계, 그리고 바다와 대양의 구분 등을 감안할 때 ‘해상’이란 용어가 그나마도 적격한 성싶다. ‘바다의 실크로드’란 용어는 마치 ‘육지의 실크로드’와 구별되는 별도의 ‘실크로드’가 존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리고 ‘해양실크로드’에서 ‘해양(Ocean)’은 ‘5대양 같은 넓은 바다’란 뜻으로 이해되어 자고로 선박들이 많이 항행하는 여러 바다들(예컨대 지중해나 아라비아해 등)이 제외될 수 있으며, 라틴어계에서 ‘Ocean Silk Road’라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해양과 구별되면서 바다 일반을 지칭하는 해상(Sea) 일어를 차용해 ‘해상실크로드’(Sea Silk Road)로 명명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본다¹.

동양 3국은 이렇게 해상실크로드의 명칭에서 서로가 다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상실크로드의 정의(定義)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실크로드에 대한 이원론적(二元論的) 해석에서 출발해 해상실크로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2006년에 출간한 『실크로드 대사전(絲綢之路大辭典)』²에서는 ‘실크로드’ 제하의 제1편에서 실크로드를 “고대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지나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유럽 및 북아프리카로 통하는 육상무역통로”³로 정의하고 나서는 ‘해상실크로드’란 다른 제11편에서는 해상실크로드를 “중국이 고대에 연해의 성진(城鎮)으로부터 해로를 거쳐 오늘의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통하는 해상무역통로”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실크로드의 기능을 육상이건 해상이건 간에 오로지 하나의 무역통로로만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실크로드는 중국 비단의 유럽 수출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조어(造語)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크로드 개념의 부단한 확대 결과 원래의 단순한 하나의 비단 무역

1. 일부에서는 ‘해양대학’을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로 영역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면 ‘해양실크로드’는 ‘Maritime and Ocean Silk Road’로 영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번잡한 표현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라틴어계통에서는 대체로 ‘Sea(부분적으로 Maritime) Silk Road’로 ‘해상실크로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일어를 쓰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Maritime’은 해양과 바다를 동시에 뜻하는 단어로 애매모호한 반면에 ‘Sea’는 ‘바다’라는 개념이 뚜렷하다.

2. 周偉洲 丁景泰 主編, 『絲綢之路大辭典』, 陝西人民出版社, 2006.

3. 위의 책, “古代中國經中亞通往南亞、西亞及歐洲、北非的陸上貿易通道”, 1쪽.

4. 위의 책, “中國古代由沿海城鎮經海路通往今東南亞、南亞及北非, 歐洲的海上貿易通道”, 719쪽.

의 길, 즉 단선(單線) 개념에서 벗어나 복선(複線)으로, 내지는 망상(網狀)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정치·경제·문화·군사·예술, 심지어 인간의 왕래 등 다종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게 되었다. 이것은 실크로드가 이미 단순한 비단무역로 한 길만이 아니라, 인류문명교류의 여러 분야를 두루 포괄하는 다기적(多岐的) 통로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국은 해상실크로드를 실크로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무역통로로 인식하면서 중국 비단의 일방적 ‘외전(外傳, 즉 수출)’에 의해 형성된 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이론적 정초자(定礎者)인 천앤(陳炎)은 1991년에 발표한 글 「해상실크로드와 중외문화교류를 논함」(「論海上絲綢之路與中外文化交流」)⁵에서, 서로가 동서문명을 교류하고 소통시킨 바닷길 개념에서가 아니라, 중국 비단의 일방적 ‘외전’의 길이 바로 해상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외전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비단 수출의 시발과 흥행에 따라 해상실크로드의 발전과정을 당대(唐代) 이전의 형성기와 당송대의 발전기, 원명청대의 극성기의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천앤은 이 글에서 해상실크로드를 중국 비단의 일방적 ‘외전’에 의해 개척된 길로만 보고 있을 뿐, 비단 대신 다른 문물의 교류나 교역에 의해 이 길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유지되고 확대되어 온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그는 기원전 1112년 주무왕(周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면서 ‘그(조선) 백성들에게 잠종을 심어 천 짜는 법을 가르쳐주라’라고 명한 데서부터 이 길의 형성 기점을 찾고 있으며, 청대의 극성기로 이 길은 종말을 고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해상실크로드는 중국 비단의 ‘외전’ 여부에 따라 그 운명이 오래전에 이미 판가름 났다고 오관하고 있다.

사실 기원전 5세기경 서양에 비단이 ‘세레스(Seres)’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래, 기원을 전후한 로마제국 시대에 중국 비단이 월지(月氏)나 흉노의 중계로 로마에 대대적으로 유입되어 금과 맛먹는 귀중품으로, 사치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6세기 중엽에 양잠법이 비잔틴에 전해지면서, 중국 비단에 대한 서방의 수요는 점차 누그러졌으며,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비단이 교역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일본은 대체로 실크로드를 “태고로부터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아시아와 유럽 및 북아프리카를 연결해 온 동서교통로의 총칭”⁶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초원루트와 오아시스루트, 해상루트의 3대 루트가 포함된다고 설파한다. 그러면서 협의로는 오아시스루트만을, 광의로는 여기에 초원루트와 해상루트를 합쳐서 부른다고 주장한다⁷. 이것은 분명하게 실크로드의 정의에 관한 이원론적(二元論的) 해석이다.

단, 해상실크로드에 관해서는 주로 ‘바다(海)의 실크로드(海のシルクロード)’란 표현을 쓰는데, 이 용어

5. 『中國與海上絲綢之路—聯合國教科文組織海上絲綢之路綜合考察 泉州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福建人民出版社, 1991, pp.2~5. 이 논문은 베이징대학 ‘第1回科學研究成果1等價’과 ‘榮譽證書’를 획득하고 『北京大學哲學社會科學優秀論文集』 제 2집에 수록되었다.

6. 長澤和俊, 『シルクロードを知る事典』, 東京堂出版, 2002, p.3. : “シルクロードとは、太古以來、東アジアと西アジア’アジアとヨーロッパ’および北アフリカとを結んできた東西交通路の總稱である”.

7. 前嶋信次·加藤九祚, 『シルクロード事典』, 芙蓉書房, 1993, p.4. : “シルクロードとは、せまい意味ではオアシス・ルートを示すが、ひろい意味では、これと草原ルート, 海上ルートをあわせて呼ぶ總稱であるといえる”.

를 저서 『바다의 실크로드를 찾아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자임(自任)하는 미스키 다카도시(三杉隆敏)⁸는 해상실크로드를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홍해(紅海)에 이르는 ‘해상루트’⁹로 규정한다. 그런가 하면 나가사와 가쓰도시(長澤和俊)는 해상실크로드를 실크로드의 한 루트로 인정하면서도, ‘남해로(南海路)’라고 표현한다. 그가 말하는 ‘남해로’는 중국 광둥(廣東) 부근에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지나 홍해나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로(바닷길)를 뜻한다¹⁰.

이렇게 일본학계에서 각자의 표현은 비록 다르지만, 요체는 해상실크로드를 일반 해상교통로나 바닷길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금 세상사람들이 실크로드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길이야말로 인류문명의 교류와 소통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통로라는 데 있다. 사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길만을 언필칭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운수업으로서의 교통과는 엄연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오해를 반영해서 1980년대 초 일본 NHK가 제작한 대형기록영화 ‘실크로드’ (30편)는 실크로드란 이름은 취했지만, 실크로드의 오아시스로 내용만을 다루고 해상실크로드는 배제하였다.

한국학계는 사계(斯界)의 이러한 이론적 난립에 대응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실크로드란 인류문명의 교류가 진행된 통로”¹¹에 대한 범칭(泛稱)이며, “해로(해상실크로드)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태평양 및 대서양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에서 동서교류와 교역이 진행된 환지구적(環地球的) 바닷길”¹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시피, 이러한 정의는 애매모호한 이원론적 해석을 극복하고, 편파적인 유라시아 국한론이나 중심론에서 탈피함으로써 실크로드 본연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합리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와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環球性)

해상실크로드는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해상실크로드를 바로 이해하려면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실크로드는 인류문명교류의 통로에 대한 범칭이기 때문에 이 길의 개척과 변화는 시종일관 문명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장기간 객관적 실체로 문명의 발달을 위해 그 교유의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인류가 그 실체를 인지하게 된 것은 불과 130년 전 부터다. 그 동안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실크로드의 기능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개념의 확대다. 오늘날

8. 三杉 隆敏, 『シルクロードを求めて』, 創元社, 1968.

9. 三杉 隆敏, 『海のシルクロードを調べる事典』, 芙蓉書房出版, 1906, p.15. : “東南アジアからインド洋を経て紅海に至る海上ルート”.

10. 長澤和俊, 앞의 책, p.13.: “南海路とは廣東附近から南シナ海、インド洋を通り、紅海やペルシア灣に至る海路である”.

11. 雋저, 『실크로드사전(事典)(The Cyclopedic of Silk Road)』, 창비, 2013. 465쪽

12. 위의 출처, 887쪽

까지 실크로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단계를 걸치면서 단선 연장에서 복선 내지 망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¹³.

제1단계는 중국-인도로단계다. 독일 지질학자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은 저서 『중국』(China, 3권, 1877) 제1권 후반부에서 중국 중원 - 중앙아시아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 두 강 사이 지역) - 인도 서북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중국 고대 비단유물이 발견된 사실에 근거해, 이 3곳을 잇는 길을 최초로 ‘사이텐스트라센(Seidenstrassen, 즉 비단의 길, Silk Road)’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부터 실크로드 개념이 점차 형성되었다.

제2단계는 중국-시리아로단계다. 1910년 독일의 동양학자 헤르만(A. Hermann)은 제1단계에서 탐험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시리아 팔미라(Palmyra)에서 중국 한금(漢錦, 漢代の 비단)이 발견되자 이 길을 팔미라까지 연장하고는, 그 길이 바로 ‘실크로드’라고 다시 밝혔다.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개척된 실크로드는 주로 여러 사막들에 점재한 오아시스들을 연결한 길임으로 ‘오아시스로(綠州路, Oasis Route)’라고 따로 불렀다.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에서 보면, 제2단계는 제1단계의 단선적인 연장이다.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세 번째 단계는 3대 간선로(幹線路)단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크로드학계는 기존 연구성과의 기초 위에서 실크로드의 동서단(東西端)을 각각 중국의 동남해안과 로마까지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의 포괄범위도 크게 확장하였다. 즉 유라시아 북방 초원지대를 관통하는 초원로와 지중해에서 중국 동남해안까지의 남해로, 그리고 오아시스로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이것이 유라시아대륙의 동서를 횡단하는 3대 간선이다. 여기에 유라시아대륙의 남북을 종관(縱貫)하는 5대 지선(支線)¹⁴을 더함으로써 실크로드는 명실상부한 망상적 통로로 변모하였다. 실크로드 개념 확대에서 보면, 실크로드의 단선적 개념에서 벗어나 복선적 내지는 망상적 개념을 지니게 된 셈이다. 비록 그렇지만 실크로드는 아직까지도 구대륙(유라시아대륙)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며, 대부분 학계는 이에 안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실크로드는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제3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명교류 통로의 일대 간선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해로라는 실체는 인류의 해상이동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실존해 왔지만, 그것이 인류문명의 발달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바닷길로서의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가 등에 관한 심층적 탐구는 일반교통이 아닌, 실크로드란 교류와 소통의 통로로 자리매김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드디어 인류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그리스 정치가 테미

13. Jeong Su-il, "Expanded conception of the Silk Road", The Silk Road Encyclopedia, Gyeongsangbuk-do, Korea Institute of Civilizational Exchanges, 2016, pp. 810~814.

14. 南北5大支線是：① 由漠北的鄂尔浑河经和林(蒙古)和幽州(北京)至泉州或广州的马易路，② 由準噶尔盆地经拉萨(西藏)至印度恒河入口的唎嘛路，③ 由东印度佛教诞生地经白沙瓦(巴基斯坦)至中亚的佛陀路，④ 由米索不达米亚经帖必力思(伊朗)至黑海的米索不达米亚路，⑤ 由北欧洲的波罗的海经基辅(俄罗斯)和君士坦丁堡(土耳其)至埃及的琥珀路。以上五大支線的名称，是笔者暂定起名的。参见拙著，《丝绸之路学》(韩文)，创作与批评，2001年，第78 - 80页。

스토클레스 Themistocles)라는 역사의 경험과 바다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었다.

앞 3단계를 걸쳐 형성된 실크로드의 개념대로라면 실크로드는 여전히 구대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대륙’은 푸대접을 받고 인류문명교류권에서 소외 당하기가 일쑤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늦어도 15세기에 해로를 통한 문명교류의 통로는 이미 구대륙에서 ‘신대륙(아메리카주)’으로 연장되었으며, 전지구를 에워싼 환구적(環球的) 해로가 트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제4단계, 즉 환지구로단계다.

문명교류의 통로인 실크로드가 ‘신대륙’에까지 연장되었다는 데는 충분한 역사적 사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우선, ‘신대륙’을 잇는 해로가 이미 개척된 사실이다. 정화(鄭和)의 태평양과 인도양 7차 ‘하서양(下西洋)’(1405~1433)과 콜럼버스(C. Columbus)의 4차 대서양 횡단항해(1492~1504)에 이어 1519~22년 기간에 마젤란(F. Magellan) 일행이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 남단 → 필리핀 → 인도양 → 아프리카 남단 →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세계 일주를 완수함으로써 드디어 ‘신대륙’으로 통하는 해로가 개통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증거는, 신·구대륙 간의 문물교류다. 16세기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필리핀의 마닐라를 중간기착지로 삼고,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등 구대륙의 문물을 중남미로 운반했으며, 그곳의 백은(白銀)을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로 실어 날랐다. 급기야 신·구대륙 간에는 ‘태평양 실크로드’와 ‘백은의 길’을 따라 ‘대범선무역(大帆船貿易)’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 감자·옥수수·땅콩·담배·해바라기 등 ‘신대륙’ 특유의 농산물이 아시아와 유럽 각지로 반출되었다. 원(元)대 말엽에서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들어온 라틴아메리카의 농산물은 이것 외에 호박·고구마·고추·토마토·강낭콩·파인애플·파파이아·육지면(陸地棉) 등 14가지나 된다¹⁵. 16~17세기 태평양상에서의 ‘대범선무역’과 더불어 해상실크로드의 하나인 ‘백은의 길’이 열리면서 라틴아메리카산 백은(세계 산량의 60%)의 2~3분의 1이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의 물가와 기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¹⁶.

한마디로, 이러한 개념 확대과정을 통해 실크로드는 신·구대륙을 포괄하는 전지구적인 문명교류 통로로 변모하였다¹⁷. 문명교류의 바닷길로서의 해상실크로드는 결코 지구상의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구상의 모든 해양을 아우르는 전지구적인 해상통로이므로 의당 해양국가들과 지역의 공유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環球性)이다.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은 바다의 일체성과 연결성에 의해 생산된 필연적인 현상¹⁸으로서, 그 항로는 시종 일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수로(물길)는 서로가 연결되어 단절된 적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해상실크로드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한

15. 『飲食須知』(元末明初)：『花草譜』(明)：『植物名實圖考』(淸)；『中国与海上丝绸之路 - 聯合國教科文组织海上丝绸之路综合考察 泉州国际学术讨论会論文集』, 福建省人民出版社, 1991年, 第119页(‘国外传入农作物一览表’)等参考.

16. 全汉昇, 『美洲白银与18世纪中国物价革命的关系』, 『歷史语言研究所集刊』, 中研院 第28本下, 1957年.

17. 前掲書, 參見拙著, 『絲綢之路學』, 第35-81頁；參見拙文『海上絲綢之路與韓半島』, 『海上絲綢之路與世界文明進程, 國際論壇』發表論文, 寧波, 2011年.

18. 拙著, 『실크로드학(絲綢之路學)』, 창작과비평, 2001, 35~81쪽；위의 논문, 『海上絲綢之路與韓半島』참고.

환구성이다. 이 환구성은 일찍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의해 확증되었다. 특히 15세기 ‘대항해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출현한 전지구적인 교류와 교역은 환구성으로 하여금 점차 그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아울러 환구적인 원거리 항로를 통해 해상실크로드는 대륙 간, 즉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연장되었으며, 구역 간의 항해가 세계일주와 같은 환구성 항해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해상실크로드 고유의 환구성에 의해 이 해로는 그 전개나 이용과정에서 초원로나 오아시스로와는 다른 일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특성은, 우선 변화성(變化性)이다. 초원로나 오아시스로는 자연환경의 제약성 때문에 노정이 거의 불변하거나, 변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해상실크로드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 그리고 교역의 증진에 따라 노정이 끊임없이 확대 변화하며, 그 이용도도 줄곧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 특성은, 범지구성(汎地球性)이다. 초원로나 오아시스로는 주로 유라시아대륙(구대륙)에 국한되어 지리적으로나 교류 측면에서 국부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해로는 항로나 교역품 등 모든 면에서 신구세계를 두루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범지구적 교류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그 특성은 끝으로, 항구성(恒久性)이다. 초원로나 오아시스로는 대체로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문명 교류의 통로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발달된 조선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날로 활성화되어가는 해로에 밀려 불가피하게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해상실크로드는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일로를 걸으면서 항구적으로 문명교류 통로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III. 해상실크로드의 기능과 범주

한·중·일 3국 학계는 해상실크로드의 명칭과 정의 및 개념 확대에서 상이한 인식과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범주문제에서도 몇 가지 두드러진 오해와 편견을 노정시키고 있다.

- 1) 기능종결론(機能終結論). 구체적으로는 해상실크로드의 종결론이다.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해상실크로드를 “1840년 이전에 중국이 세계 기타 지역과 통행한 해상통로”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에 발생한 아편전쟁은 “중국의 대외관계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해상실크로드의 역사는 종결을 고하게 되었다”¹⁹⁾는 이른바 실크로드 기능종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해상실크로드의 “5단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한(秦漢)시대의 개척기, 위진(魏晉)부터 당오대(唐五代)까지의 지속발전기, 송원대 말의 변영기, 명대의 성쇠기(盛衰期), 청대의 정체 및 쇠락기(衰落期)의 5단계다. 이 주장대로라면, 200년 전에 해상실크로드는 이미 활동을 멈추고 ‘종결’을 고했어야 했는데, 사실(史實)은 정반대로 ‘종말’은 커녕, 오히려 날로 번영의 일로를 걸어왔다.

19. 陈高等, 『海上丝绸之路』, 海洋出版社, 1991年, 前言: “1840年爆發的雅片戰爭, 標志着中國進入半封建半殖民地社會, 中國對外關係的性質起了根本的變化, 海上絲綢之路的歷史至此也就終結了。”

2) 해상실크로드시종론(始終論). 이 담론은 해상실크로드의 시점(始點)과 종점(終點), 즉 동·서단(東·西端)에 관한 문제다. 작금 중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해상실크로드의 동단을 중국의 동남해안으로, 서단을 로마로 설정하는 것을 부동의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점에 관해서는 각인각설(各人各說)이다. 린스민(林士民)은 만당(晩唐)이래의 도자기로가 다름 아닌 해상실크로드라고 단정하면서 중국 동남해안의 밍저우(明州)를 그 출발점으로 지목하고 있으나²⁰, 리광빈(李光斌)과 천룽광(陳榮芳)은 취안저우(泉州)를 해상실크로드의 ‘동방기점’과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²¹. 그런가 하면 덩위링(丁毓玲)은 중세 아랍과 페르시아 무슬림 상인들이 구축한 망로(網路), 즉 무역네트워크의 종점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북상해 고려나 일본으로 가는 것까지 없었다고 주장한다²².

바로 이러한 편파적인 시종론 때문에 3면이 바다로 에워싸인 한반도는 줄곧 해상실크로드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문헌기록과 출토유물들은 해상실크로드의 네트워크가 중국에까지 와서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이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고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한때 실크로드의 시종점이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1,500년 전 비단이 단향식(單向式) 수출품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오늘은 21세기, 실크로드가 환지구적인 교류통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유의 시종론은 이미 때가 지난 진부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것은 분명 중화중심주의의 발상이다. 이 통설대로라면 한반도는 실크로드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과는 달리 무슬림 상인들이 신라로부터 11종의 물품을 수입했다는 아랍문헌 기록이나, 고려 초기에 상역차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고려에 왔다는 고려사의 기록,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에 의해 실크로드의 ‘망로’는 중국에까지 와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까지 이어졌었다는 것이 사실(史實)로 입증되었다. 중국 학계 내에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진부한 통설에 반기를 드는 징조가 감지되고 있다. 린스민의 ‘명주출발론’을 반박해 나선 똥이안(董貽安)은 해상실크로드야말로 고대 각국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교류시킨 ‘평화적인 교역 통로이며 문명대화의 길’이라는 정론(正論)을 펴면서 명주는 한낱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의 ‘주요한 항구’일 뿐, 결코 그 기점은 아니라고 명철한 반론을 제기한다²³.

3) 해상실크로드국한론(局限論). 중·일 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제학술계는 여전히 실크로드 개념

20. 林士民, 『海上丝绸之路的着名海港-明州』, 海洋出版社, 1990年, 第100~102页.

21. 李光斌, 『伊本·白图泰中国纪行考』, 海军出版社, 2009年, 第44页: “泉州地处中国东南沿海, 是一座具有悠久历史的古城, 是海上丝绸之路的东方起点.” 陈荣芳, 『古港新姿 - 一千年“海丝之路”再现辉煌』, 『泉州港与海上丝绸之路』, 中国航海学会·泉州市人民政府编, 2002年, 第1页: “泉州港是“海丝之路”的始发点, 也是宋元时期驰名世界的“东方第一大港”. 参见前掲拙文, 『论海上丝绸之路与韩半岛』

22. 丁毓玲, 韩国国立海洋文化财研究所和木浦大学岛屿文化研究所, 共同召开的‘古代东亚细亚丝绸之路’题下的国际学术大会上, 发表的论文『泉州宋元时期海上交通与伊斯兰网路』, 2009年.

23. 董貽安, 『從《漂海錄》到“千年海外尋珍”: 寧波與韓國“海上絲綢之路”的當代詮釋』, 『浙東文化集刊』, 上海古籍出版社, 2005, p.107.

확대의 제3단계에 안주하면서 실크로드, 구체적으로는 해상실크로드의 범주를 구대륙에만 한정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범주의 국한론(局限論)이다. 우리가 각국에서 제작한 실크로드 지도나 약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대륙상에만 표기하고, 기타 지구의 서반구(西半球)나 한·일 양국은 소외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의 『실크로드대사전』이나 일본의 『シルクロード事典』은 실크로드의 환구성이나 국한론 문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논급도 없다.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이러한 폐단은 주로 고루한 국한론에서 탈피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²⁴.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실크로드의 명의를 빌어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전지구적 전략구상을 내놓고, 그 실현에 진력하고 있다. ‘일대’는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유, 유럽에 이르는 실크로드(오아시스육로) 연변에 ‘경제대(經濟帶)’를 구축하는 것이며, ‘일로’,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역시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및 아라비아해를 지나 동아프리카 연안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 통로를 말한다.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서의 ‘일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 등 나라들을 배제한 ‘경제대’이며, 더욱이 ‘일로’는 15세기 전반 정화 선단이 단행한 ‘하서양’의 서단(西端)을 계선으로 해서 해상실크로드의 통로를 한정된 것으로, 모두 지구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동반구에 제한되어 있다²⁵. 이것은 분명 실크로드의 환구성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역행하는 일종의 편파적인 국한론인 것이다.

그러나 과문이지만, 중국 학계에서 비록 국한론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천뤼더(陳瑞德) 같은 몇몇 학자들은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공저 『해상실크로드의 친선사절—서양편』에서 “해상실크로드는 또한 조선과 일본으로 항행하는 동해항선(東海航線)과 태평양을 횡단해 아메리카대륙으로 항행하는 태평양항선(太平洋航線)을 포함해야 한다.”²⁶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해상실크로드는 남해항선과 동해항선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대륙에 이르는 태평양항선도 옹당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여기서 지적한 ‘태평양항선’은 바로 아메리카대륙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상의 하나의 환구적 해로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연사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014년 11월 4일에 개막된 ‘중양재경지도소조’ 제8차 회의에서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관통해 동변에서는 아태(亞太, 아시아 - 태평양)경제권과 접해있으며, 서변은 유럽경제권에 진입하고 있다.”²⁷고 언명하였다.

24. 세계실크로드학회 제2차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주제발언) 「絲綢之路概念的研討 - 以韓·中·日談論爲例」, 敦煌, 2016. 9. 27. 참고.

25. 拙文, 「论海上丝绸之路的环球性问题 - 以中国所提‘21世纪海上丝绸之路’为例」, 第11届海港都市国际研讨会及第5届世界海洋文化研究所协议会大会, 主题演讲文, 台北, 2016. 4. 24.

26. 陈瑞德等, 『海上丝绸之路的友好使者 - 西洋篇』, 海洋出版社, 1991年版, 第6页: “‘海上絲綢之路’還應包括駛向朝鮮、日本的東海航線, 以至橫渡太平洋駛向美洲大陸的太平洋航線。”

27. 习近平, 『加快推进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 “‘一带一路’贯穿欧亚大陆, 东边连接亚太经济圈, 西边进入欧洲经济圈.”, 百度百科, 2014. 11. 7.

여기서 시주적은 해상실크로드(‘일로’)의 동변은 이미 하나의 환구적 해로(태평양)를 통해 아-태경제권과 맞닿아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이미 전반적인 동반자관계와 운명공동체관계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실크로드의 국한성 소멸과 환구성 현실에 대한 명증이다.

맺음말

오늘 본인은 한·중·일 삼국 학계의 담론을 실례로 실크로드의 개념문제에서 나타난 몇 가지 오해와 편견에 관해 학문적 비견을 논급하였는데, 실크로드학의 학문적 정립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저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우리 3국 학술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전히 통설을 고집하고 있는 기타 여러 국가의 학계에도 공히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크로드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견(異見)이나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통설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창의성을 발휘해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것과 동시에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탐구를 통해 점차 이견(異見)을 극복함으로써 학문적인 합의와 정립에 이르는 것이다.

발표문 1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张庆捷

중국 산서대학 교수

발표문1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장경첩

중국 산서대학 교수

남북조 시기에는 세계 각 지역 간의 교류 증가와 이해로 육상실크로드가 발전하였고, 해상실크로드 역시 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많은 비단, 도자기 등이 멀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의 각 지역까지 수출되었고, 이 지역의 물자 역시 지속해서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교류가 촉진되었다. 본문은 각국에서 발견된 일부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중국 남북조시대와 당대(唐代) 해상실크로드에서의 물질문화교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위진남북조 시기 양쯔강 이남의 경제가 심도 있게 개발되어 농업과 수공업 경제 수준이 황하 유역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한, 당시 항해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변의 많은 국가가 해로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에서도 배를 이용해 사절들을 해외로 파견했는데, 이러한 교류는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들은 이 시기에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요 국가로는 일본, 백제, 신라를 꼽을 수 있다.

일찍이 동한(東漢) 시기 일본은 이미 동한의 조정과 교류를 하였는데, 『후한서·동이열전(後漢書·東夷列傳)』에는 “건무 중원 2년(AD57년) 왜국 사절이 자신을 대부라 칭하며 축하했고 광무제는 이들에게 인수(印綬)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인수가 1784년에 일본 북큐슈(北九州) 지역 하카타만(博多灣) 시카노섬(志賀島)에서 출토되었으며, 현재 후쿠오카박물관(福岡市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 형태는 사각형이고, 가장자리 길이는 2.3cm, 높이는 2cm이며, 순금으로 된 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한왜노국왕(漢倭奴國王)’이라는 다섯 글자가 전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실물 자료는

역사 사료와도 일치하여, 당시 일본과 중국의 초기 교류 역사를 보여준다.

위진시기에도 양국은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위나라에 예물(禮品)¹을 바쳤고, 위나라 또한 각종 방직물, 오척도(五尺刀), 동경 등을 하사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하사품 중에 방직물 수량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이 일본에서 매우 진귀한 하사품이었음을 설명해 준다.

남북조 시기에도 양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남제서·만 동남이전·왜국(南齊書·蠻東南夷傳·倭國)』기록에 따르면 “왜국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섬에 있으며, 한말(漢末) 이래로 여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풍속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건원 원년(建元元年)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등 6국의 군무를 담당하는 사지절, 도독을 새롭게 배치하고, 안동대장군을 보냈으며, 왜왕의 무호(武号)를 진동대장군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원 원년은 479년으로 이 시기는 일본 고고학의 고분시대였으며 AD 4-6세기로 남북조 시기에 해당한다. 왜국이 남조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 측면은 단지 부차적 이유였고, 중요한 것은 남조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사서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고분형태와 구조, 석실(石葬) 도구나 부장품의 내용 즉 병기, 생활용구, 마구, 도용 등에서 모두 남북조 시대의 문화 흔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군마현 관음산(群馬縣觀音山)에는 도구(刀具), 대구(帶具), 마구, 투구와 갑주, 동경, 구리물병 및 바퀴점토(輪埴)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백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일부는 북조(北朝)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 전형적인 수장품이 도금동병(鎏金銅瓶)이다. 도금동병의 외적인 형태와 내부 구조는 모두 태원시 북제(北齊) 고적회락(庫狄廻洛) 묘에서 출토된 도금동병과 일치한다. 고적회락 묘의 구리병은 얇은 목, 계란형 배, 둥근 바닥, 둥근 굽이 특징이다. 덮개에는 원뿔꼴 꼭지가 달려 있고, 덮개 안으로 두 개의 철 조각(鐵片) (핀셋추와 유사)이 연결되어 병 안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높이는 18.2cm²이다. 관음산 고분에서 출토된 동병은 얇은 목, 계란형 배, 둥근 바닥과 둥근 굽이 특징이다. 덮개에는 원뿔꼴 꼭지가 달려 있고, 덮개 안으로 두 개의 철 조각(핀셋추와 유사)이 연결되어 병 안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높이는 31.3cm이다³.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외부 형태가 같은데, 단지 크기만 다를 뿐이다. 주조기술과 도금기술도 같다. 일본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군마현 관음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동병은 북제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동병의 유래과정을 쫓아보면 중국에 들어온 일본인이 북조에서 기술을 배우고, 표본을 일본으로 가져간 후에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조의 역사서에는 일

1. 『삼국지·위서·왜인전』 기록 : 경초(景初) 2년 6월, 왜여왕(倭女王)이 대부(大夫) 난승미(難升米) 등을 보내 군에 예하여 천자에게 조공하길 구하였다. 태수(太守) 유하(劉夏)가 관리를 파견해 경도에 예했다. 그 해 12월, 조서로 왜여왕(倭女王)에 알리기를 친위왜왕 비미호와 대방태수 유하(劉夏)에게 제조해 사신(使臣)으로 너의 대부(大夫) 난승미(難升米) 차사(次使) 도시우리를...인견(引見)한 수고로 강지교룡 비단 오필, 천강(蒨絳) 오십필, 감청 오십필을 내게 돌려 보내 사(賜)함으로 네 헌공에 답한다. 또 네게 감지구문금(紺地句文鍔) 삼필(三匹) 세반화계(細班華鬪) 오장(五張), 백견오십필, 금팔방, 오척도(五尺刀) 2구를 내리노라.

2. 왕극림, 「북제고적형략묘」, 『고고학보』, 1979년 제3기.

3. 오키노도리시마 군마현역사박물관 : 『관음산고분과 동아시아 세계』, 상해인쇄공업주식회사, 평성11년, 59쪽.

본과의 교역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출토된 문물이 증명하듯 일본이 북조로 건너가서 주조기술을 배우고 북조의 금도금된 동병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빠진 역사적 사실을 보완한 것으로 해상실크로드 교역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본인들은 당시 금도금 동병을 좋아하여 북조시대부터 당나라시대 동병이 여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특히 정창원(正倉院)에는 많은 수당 시기의 동병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중국의 것도 있고,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있다.

관음산 고분에서는 동병 외에 명문과 동물이 새겨진 동경도 출토되었다. 지름은 23.3cm이며 거울 뒷면 중심에는 반구 형태의 꼭지가 있다. 주변에는 9개의 볼록한 작은 점(小乳釘)이 있고 ‘의자손(宜子孫)’이라는 세 개의 한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변에 세 개의 환형현문(環形弦紋)이 있다. 중앙의 띠 모양 문양에는 7개의 볼록한 큰 점(大乳釘)이 있으며, 이 점들 사이에 4신3수(四神三獸:사신상과 세 가지 짐승의 상)가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당초문, 횡문(橫紋), 톱니문(鋸齒紋)이 있고, 거울의 변은 넓고 풀잎바탕문과 명문이 있다. 명문에는 “상방에서 만든 거울의 기술이 정말 정교하고, 위에는 신선은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랜다.”라고 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동경문의 주요 띠 위에는 볼록한 7개의 큰 점(大乳釘)이 있어서, 이를 “칠자경(七子鏡)”, “칠유신(서)수문경(七乳神(瑞)獸紋鏡)” 또는 “칠유금수문경(七乳禽獸紋鏡)”이라고 한다. 유사한 문양의 수대경(獸帶鏡)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후쿠오카현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21호고분, 미야자키 모치다 1호무덤, 구마모토 고분, 나라현 후지노키고분, 미에현 키노고분, 아이치현 사사하라고분, 구마모토현 강전선산고분에서 모두 수대경⁴이 발견되었고 형식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명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관음산 고분에서 출토된 명문이 있는 수대경(獸帶鏡)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명문수대경과 매우 흡사하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은 총 3점이다. 첫 번째 동경은 수대경으로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8.1cm, 가장자리 높이는 0.6cm이다. 원뉴좌(圓紐座)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9개 볼록한 점이 있다. 중간에 있는 주요 무늬 장식 띠에는 7개의 큰 볼록한 점 사이에 4신3수가 배열되어 있다. 두 번째 동경은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으로 왕의 머리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23.2cm, 가장자리 높이는 0.7cm다. 원추좌로 되어 있고, 9개의 볼록한 작은 점이 있으며, 점들 사이에 명문 ‘의자손(宜子孫)’과 작은 동물 형태의 문양이 있다. 중앙 문양 띠는 7개의 점 사이에 신수(神獸)가 배치되어 있으나 부식되어 정확히 보이지 않으며, 바깥으로도 명문이 둘러져 있으나 식별하기 어렵다. 이 두 동경의 공통점은 거울 뒷면 유좌(鈕座) 주변에 작은 볼록한 점 9개, 장식 띠에 있는 큰 볼록한 점 7개, 신수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크기와 명문의 유무이다. 무령왕릉의 세 번째 동경 중 한 면은 사각곱자신수문경(方格規矩神獸紋鏡)이며 왕의 다리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17.8cm, 가장자리 높이는 0.7mm이다. 중심 원뉴좌(圓紐座)의 사각형 안에 볼록한 작은 점(小乳釘)과 소유정과 十二辰의 문

4. 오키노토리시마 군마현역사박물관, 앞의 책, 83쪽.

자가 있다. 주요 장식은 중국 한대 유행한 사각곱자문(方格規矩紋)으로 되어 있으며 땅을 표현하고 있다. 위에는 신선이 사냥하는 장면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는데, 4마리의 신수가 중심을 둘러싸고 질주하고 있으며, 신선은 창을 들고 추격하고 있다. 상체는 나체이고, 하체는 삼각형의 바지만 두르고 있으며, 머리는 상투를 하고 있다. 수렵하는 문양 바깥쪽으로 '상방에서 제작한 거울은 훌륭하다.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랜다. 수구는 금석이라' 라는 명문이 둘러 있다⁵.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 번째 수대경은 관음상 고분에서 출토된 수대경과 비교하여 문양이 비슷하다. 지름 차이는 1mm 정도라 거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두 유물은 같은 형태의 거울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대경의 명문이 잘 보이지 않아 관음산에서 출토된 동경 명문으로부터 추론해 보면, 내용도 분명히 같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세 번째 동경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상방에서 만든 거울은 정말 훌륭하다.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랜다. 수구는 금석이라.' 이는 관음상 고분의 동경 명문과 비슷하고 첫 구절의 '상방작경진대호(尚方作鏡真大好)'와 한 글자가 다르다. 이러한 '상방작경(尚方作鏡)' 명문의 첫 구절의 동경을 일반적으로 '상방경(尚方鏡)'이라 한다.

관음상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과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대경은 그 연원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대경의 연원을 고찰해보면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동경 문양과 명문을 보면 중국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한나라 동경 중에 '칠자경' 또는 '칠부신(서)(금)수경'이 자주 보이는데, 어떤 것은 '신수경(神獸鏡)⁶'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광주 동교사하(東郊沙河)의 권한(權漢)의 묘에서 출토된 한나라 동경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과 매우 비슷하며 신수경(神獸鏡)이라 한다. 양나라 간문제 〈망월시(望月詩)〉에는 '흐르고 돌아 화당에 들어가니, 처음에 비춘 것은 매화나무와 대들보라. 형태는 칠자경(七子鏡)이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가을서리고 계화는 떨어지지 않으니 부채는 누구와 장식하며, 적막한 가운데 북창에서 흘러나오는 연주소리 들려오니, 서원의 술잔을 들지 못하네.'라는 내용이 있다. 이 중 칠자경은 '칠부신(서)(금)수경(七乳神(瑞)(禽)獸鏡)'을 가리킨다. 이러한 동경은 출토된 예가 적지 않고 동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동경⁷이다. 상방경은 명문의 특징으로 분류된 명칭이다. 명문은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명문의 첫 구절에 상방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것을 '상방경'이라 한다. 상방 명문은 여러 종류의 거울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남(湖南) 익양(益陽) 전국(戰國) 양한묘(兩漢墓)에서 출토된 동경에는 '상방에서 훌륭한 거울을 만드시니,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래고 사해에

5. 가매선, 「조선남부무령왕묘소개」, 『고고학참고자료』 제6기, 문물출판사, 1983년.

6. 광주시문물관리위원회, 「광주동교사하권한묘발굴 간략보고서」, 『문물』 1961년 제2기.

7. 가상현문물관리소, 「산동가상현출토고대동경」, 『고고』 1986년 제10기 : 범평 : 「호북양번출토 1점동한동경」, 『문물』 1992년 제12기.

떠다닌다.’라고 되어 있다⁸. 1978년 광서 귀현북교한묘(廣西貴縣北郊漢墓)에서 출토된 동경명문에는 ‘□□□□不知老, 渴飲玉泉饑食棗, 孚由天下敖四海, 壽如□□’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귀주 청진 평패한묘에서 출토된 명문에는 ‘상방에서 훌륭한 거울을 만드시니,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래고 천하를 떠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⁰.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서교(西郊)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에는 ‘상방에서 훌륭한 거울을 만드시니,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래고 즐거움이 중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안에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¹¹라는 글자가 있다. 이러한 대동소이한 상방경은 남북 각지에서 볼 수 있으며 동한부터 남조시대까지 유행했으나 북조에서는 그 출토 건수가 매우 적다. 언급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관음산 고분과 한국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 양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나라 동경문에서 연원한 것으로 문양은 동한 위진시대의 동경¹²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한중일 삼국간의 밀접한 문화교류 사실을 증명한다.

일본 고분시대, 한자와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일본과 백제에 전해졌다. 1961년 일본 나라현 이치노모토 동대사 고분에서 출토된 ‘백련’ 철제칼(鋼刀)은 길이가 103cm이며 등 부분에는 34자의 “中平 五月丙上造作(支刀)百煉清剛上應星宿(下)辟(상세하지 않음)”이라는¹³ 명문이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중평은 동한 영제의 연호이며 164~189년).

중국 한대 도검의 명문양식은 대체적으로 연호(시간)+제작관청 또는 장인 이름+길상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서주한묘(徐州漢墓)에서 출토된 “건초2년검(建初二年劍)”의 검 자루 정면에는 “建初二年蜀郡西工官王愔造五十練□□□孫劍□”이라는 21자¹⁴의 예서체가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1974년 산둥성(山東省) 임기(臨沂)지구 창산(蒼山)에서 동한 영초 6년(112년)에 제조된 쇠칼(鋼刀)은 길이가 111.5cm이고, 칼고리 머리부분은 타원형이며 칼고리 내부 지름은 2~3.5cm이다. 칼의 몸통에는 화염문이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칼등에는 “永初六年五月丙午造卅涑大刀吉羊宜子孫”¹⁵이라는 글자가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칼은 한의 안제(安帝) 영초(永初) 6년(112년)에 30차례 접어서 두드리는(折疊鍛打)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라의 텐리시(天理市)에서 출토된 대도의 명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 1968년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 도하산(稻荷山) 고분에서는 각종 철기, 청동기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한 철검(鐵劍)은 길이

8. 호남성박물관익양현문화관, 『호남익양전국양한묘』, 『고고학보』 1981년 제4기.

9. 광서장족자치구문물작업팀, 『광서귀현북교한묘』, 『고고』 1985년 제3기.

10. 귀주성박물관, 『귀주청진귀주청진평패한묘 발굴보고서』, 『고고학보』 1959년 제2기.

11.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낙양발굴팀, 『하남낙양서교한묘발굴보고서』, 『고고학보』, 1963년 제2기.

12. 주옥흥, 『무령왕릉출토문물부석(2) - 동경을 예로한다』, 『백제문화해외조사보고서V』, 국립공주박물관, 2005년 12월.

13. 우메하라 수에지, 『나라현 낙분낙대사 산고분출토 한중평기년의 철편(구회재설)』, 일본 『고고학잡지』 48권 2호.

14. 서주박물관, 『서주에서 발견한 동한건초2년50련강검』, 『문물』, 1979년 제7기.

15. 류심건, 진자경, 『산둥창산에서 발견한 동한영초 기년 쇠칼』, 『문물』 1974년 제12기.

73.5cm, 폭 3.15cm이다. X선 검측 결과, 해당 검의 몸체에 “신해년 7월 중…” 등 모두 100여글자의 명문이 있어서¹⁶ 연구자들은 이를 신해명철검(辛亥銘鐵劍)이라 부르고 있다. 철검 명문은 다수가 한자이고, 적은 수의 글자지만 일본이 한자를 모방하여 새롭게 만든 글자가 보인다. 해당 고분의 연대는 5세기로 이 검은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분시대의 명문이 있는 도검이 다수 출토되었다. 명문에는 대부분 간지가 있는데, 이는 고분시대에 이미 한자와 간지기년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천간지지(天干地支)로 구성된 간지(干支)로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이 중국의 특수한 연도 표기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의 고분시대에 이러한 연도표기 방식이 출현한다는 것은 중일간에 일찍이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백제, 신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더욱 가깝다. 따라서 남북조는 백제, 신라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교류 예로 무령왕릉을 들 수 있다. 묘의 부장형태, 구조, 벽화는 남북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부장품에는 중국 양나라 왕조의 동경, 청자기명, 묘지, 철전 등이 있다¹⁷. 또한 수많은 남북조 시대에 유행한 문양과 백제왕의 봉인(封印)과 ‘양관와위사의(梁官瓦為師矣)’라는 명문이 있는 연화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는 남조의 양왕조가 백제에게 열반 등의 불교경전을 전해주고 모시박사와 화가, 장인 등을 파견했다는 사서 기록과 일치한다¹⁸.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불교경서, 기술, 기물 등을 도입했고 이후 일본에 이를 전하여 명확히 해상실크로드 문화 전파의 궤적을 형성했다. 일본 관음산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은 무령왕릉의 동경과 비슷하며 이를 통해 무령왕릉 동경이 남조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릉에는 부장품으로 90개의 철오주전(鐵五銖錢) 한 묶음이 발견되었다¹⁹. 크기는 모두 다른데, 철전으로 방형에 구멍이 있다. 지름 24mm, 폭 8mm이지만, 측량된 수치로는 지름 22mm, 구멍이 뚫려 있고, 폭은 7mm인 것도 있다. 이러한 동전 역시 남조(南朝) 소량(蕭梁)정권 시기 때 들어 온 것이다. 『통감·양기오(通鑑·梁紀五)』에는 “양나라 초기에 오주전을 주조했는데 테두리가 완전하다(肉好周郭). 테두리가 없는 것도 주조했는데, 여전(女錢)이라 했다. 민간에서 여전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거래에 이용하자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였다. 그러자 동전(銅錢)을 없애라는 의견이 거세졌고, 보통 4년(普通四年) 12월 무오년(戊午)에 처음으로 철전(鐵錢)을 주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량 시기 오주전은 중국에서 이미 발견되었지만²⁰ 해외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은데,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철오주전은 남조와 교류했다는 증거이다.

16. 기옥현교육위원회, 『기옥도하산 고분』, 1980년, 56~58쪽.

17. 김영애, 『무령왕과 그 출토유물』, 군마현역사박물관, 앞의 책, 103~107쪽.

18. 『남사·백제전』기록, 양무제가 중대통 6년(534년)과 대동 7년(541년), 여러번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아울러 열반경 등 경전과 모시박사와 수공업자, 화가 등을 청하자 이를 보내주었다.

19. 소리, 「백제무령왕릉에 함께 부장된 양철오주전에 관한 고찰」, 『중국전폐』, 2009년 제3기.

20. 남경박물관, 「남경시영산남조묘발굴보고서」, 『고고』 2012년 제11기 진고, 「절강성에서 1차례 발견된 5주철전」, 『중국전폐』, 1984년 제2기 범위홍, 「남경출토소양전범,전철초식」, 『중국전폐』 2000년 2기.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은 백제와 남조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 가지의 석물은 왕과 왕비를 위한 석물이고 모두 폐도(幣道) 중간의 석수(石獸) 앞에서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은 길이 41m, 폭 34m, 두께 5cm이다.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6행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는 해 계묘년(523년) 5월 병술 겨울 7일

(임진)에 봉어하시니 을사년(525년) 8월

계유 겨울 12일(갑중)에 잠시 안장한다.

뒷면의 음각선 위에 천간지지(신(申), 경(庚), 유(酉), 신(辛), 술(戌)자는 누락됨)가 새겨져 있다.

왕비의 지석 길이와 폭은 왕의 지석과 같으며, 두께는 4.7cm 이다.

뒷면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4행 새겨져 있다

병오년 십일월 백제국왕의 대비께서 수명을 다해

서쪽 땅에 모시고 기유년 2월 계미 겨울 12일 갑오에 개장하여 대묘로 바꾸다.

뒷면에는 6행의 다음과 같은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돈 일만문으로 오른쪽 1건에 대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송사로 토왕·토백·토부모·상하중관에게 2,000석을 주고 서남쪽 땅을 사서 묘를 세우고 문서를 만드니 율령에 따르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²¹. 해당 묘지의 형태, 내용, 서법방식 및 토지매입권 내용은 남북조에서 유행한 것과 비슷하다. 이 역시 남북조와 백제문화 교류의 물증이다. 특이한 것은 묘지석 글 중 첫 구절은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며 이 영동대장군은 남조의 관직이며 남조에서 백제왕에게 수여한 것이다. 『양서, 제이전(梁書·諸夷傳)』 ‘백제’ 항목에 전문으로 “보통 2년 왕여음이 사절로 파견되고…고조가 아뢰니…관리들을 이끌고 옛 규율이 있으니, 영화로운 이름을 수여하고 사신을 맞이하니 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 백제왕에 임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지석에는 ‘사대절 도독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 사마왕’ 이라고 기록되어 백제가 ‘영동대장군’ 직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조와 밀접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당 묘지에는 자기 15건, 분청자기, 흑유자와 백자 3종류가 출토되었다. 학계에서는 청자와 흑유자가 남조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없고, 백자를 구운 장소와 시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

21. 가매선, 「조선남부무령왕릉소개」, 「고고학참고자료」 제6기, 문물출판사, 1983년

다. 필자의 일천한 지식에 의거하면, 이것은 북조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남방에서는 지금까지 당대 백자도요지가 없었으나 북방에는 있었고, 이미 대량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백자는 북방요에서 들어온 것일 가능성은 아주 크다.

또한 송산리 고분군 6호 묘에서 발견된 벽화의 특이점은 벽화를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모든 묘지는 길이 4m, 폭 2.5m로 남북으로 긴 터널식이며 꼭대기는 타원형 천장이다. 석벽은 진흙을 발라 지장(地杖)을 만든 다음 위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가 있다. 사신도는 한대에 이미 출현했으며 양진남북조, 당대까지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경시 강녕구(南京市江寧區)장군산, 서진 “태강 7년”(286년)의 기년묘(紀年墓)²², 진강남교 동진 “건안 2년(398)년 기년묘²³, 하남등현학장남조벽화묘(河南鄧縣學莊南朝壁畵墓)²⁴, 하북자현동위여여공주묘(河北磁縣東魏茹茹公主壁畵墓)²⁵, 산서흔주구원강 부조벽화묘(山西忻州九原崗北朝壁畵墓)²⁶, 태원북제 누예묘(太原北齊婁睿壁畵墓)²⁷에도 모두 사신도가 있는데, 송산리 6호 묘지의 사신도는 남북조 묘지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한다.

기타 백제 묘지의 출토물은 백제와 남조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공주 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교외 용원리 일대의 백제고묘지군을 발표했는데, 이곳에는 토광묘, 석실묘가 있다. 350건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도자기, 철기, 금동귀고리와 옥기 등이 출토되었고 기물도 매우 다양했다. 한국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묘지의 연대는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기 전인 4~5세기 초기로 추정한다. 9호 석실묘에서는 1건의 흑유계수호(黑釉雞首壺)가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백제에서는 지금까지 완전한 청자계수호가 5점 발견되었다. 청주에서 출토된 후 원광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것 이외의 나머지 주전자의 출토장소는 불분명한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과 한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3년 공주 수촌리 제2지구에서는 6개의 백제 대형 묘지가 발견되었고 이중 4호 석실묘지에서 흑유계수호²⁸가 발견되었다. 계수호는 양진과 남북조시기에 유행했던 기물이다. 이를 계두호(雞頭壺), 천계호(天雞壺)라고 부른다. 주전자 어깨부분에 닭머리가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되고 있다. 북조에서는 청황유계수호가 자주 발견되고 있고 태원 북위 신상묘에서 계수호가 한 점 발견되었다²⁹. 담청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긴 목에 소반의 입구가 있다.

22. 남경시 박물관, 남경시강녕구박물관, 「남경장군산서진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2008년 제 3기.

23. 진강시박물관, 「진강동진화상전묘」, 『문물』, 1973년 제4기.

24. 하남성문화국문물작업팀, 『하남등현채색화상전묘』, 문물출판사 1958년.

25. 자현문화관, 「하북자현동위여여공주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1984년 제4기.

26. 산서성고고연구소, 흔주시문물관리처, 「산서흔주구원강북조벽화묘」, 『고고』, 1975년 제7기.

27. 산서성고고연구소, 태원시문물관리위원회, 「태원시누예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1983년 제10기.

28. (한국)조유재, 「한국백제고지에서 출토된 중국도자를 논하다」, 『고궁박물관원간』, 2006년 제2기.

29. 대존덕, 「태원북위신상묘」, 『고고학 집간』, 1981년 제1기.

용머리 손잡이에 닭머리가 주전자 어깨 부분 사방에 있고 주전자 높이는 27cm이다. 태원의 복제누예 묘에서도 5점의 청황유 닭머리 용손잡이 주전자가 발견되었다³⁰. 동진시기 남조에는 청유계수호(靑釉鷄首壺)와 흑갈색유계수호(黑褐色釉鷄首壺)³¹가 제조 되었는데, 흑유계수호는 주로 절강성 덕청요에서 발견된다. 항주의 동진흥녕 2년(364)묘(東晉興寧二年墓)³²진강의 동진건안 2년(398)묘(東晉隆安二年墓)³³에서 덕청요(德淸窯)의 흑유계수호가 출토되었다. 무석(無錫)의 적돈리(赤墩裏)의 한 동진묘에서는 2개의 덕청요 흑유계수호³⁴가 발견되었다. 백제에서 출토된 흑유계수호는 덕청요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한중 교류의 물증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므로³⁵ 본 논문에서는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와 남북조는 교류를 했었고 어떤 문헌에는 왕래한 경로도 기록하고 있다. 427년 백제에서 사절을 북위로 파견했다. 『위서』에서는 “8월 병진에 백제의 왕 여경(餘慶)이 사신을 파견해 표문을 올려서 고구려를 정벌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북위에서는 사자를 후대하고 백제 사신에게 봉책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권 7의 「고조기(高祖紀)」에는 “안등(安等)은 산둥반도의 동래(東萊)에서 배를 타고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래는 지금의 래주(萊州)이며 발해 항구 안에 있다. 동래에서 백제까지는 발해 항구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해안에 도착하여 연해지역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가 백제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양서』에는 “진나라가 장강을 건넌 후, 바다를 건너온 동방의 사신으로는 고구려·백제의 사신 등이 있었고, 송·제 시대에도 항시 직공(職貢)을 했으며, 양나라가 흥기하자 더욱 빈번히 내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백제와 남조가 거래했던 주요 경로이다.

5~6세기 신라는 적극적인 대외외교와 대규모 정복활동을 펼쳤으며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동시에 이방제(里坊制)를 기초로 왕도를 건설했다. 신라왕도의 건축양식 또는 자료는 남북조 시대의 영향이 보인다. 신라왕경 유적에서 출토된 수면와³⁶는 산서훈주구원강북조묘 벽화에서도 보인다³⁷. 진양유적지에서 발견된 실물들은 모두 장식성의 큰 기와로 건축물 너새 머리 위에 올린 장식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신라의 유적에서 발견된 이런 너새의 수면와를 북조의 것과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하며 시대와 지역적

30. 산서성고고연구소, 태원시문물관리위원회, 「태원시복제누예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1983년 제10기.

31. 남경박물관, 「강소단양현호교, 건산 2좌 남조묘장」, 『문물』, 1980년 제2기 ; 남경시박물관, 「남경사가산동진남조사씨가족묘」, 『문물』, 2000년 제7기 ; 양주박물관, 「강소한강감천육리동진묘」, 『동나문화』, 1986년 2기 ; 남경시박물관, 「남경남교육조사총묘」, 『문물』 1998년 제5기.

32. 절강성문물관리위원회, 「항주진흥녕이년묘 발굴간략보고서」, 『고고』, 1961년 제7기.

33. 진강시박물관, 「진강동진화상진묘」, 『문물』, 1973년 제4기.

34. 무석시박물관, 「무석적돈리동진묘」, 『고고』, 1985년11기.

35. 성경용, 이창주, 주옥흥, 「중국육조와 한국백제의교류-도자기를 중심」, 『동나문화』, 2005년 제1기 ; 조유재, 앞의 논문.

36.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총대발견 2002—2007』, 과학출판사, 2011년 제80, 104쪽.

37. 산서성고고연구소, 훈주시 문물관리처, 「산서훈주시구원강북조묘벽화묘」, 『고고』, 2015년 제7기.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당대, 특히 정관의 통치 이후 경제가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사회가 안정되었으며 무역이 흥성했고 해상실크로드가 발달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노선과 대외 무역항 도시가 증가하였다. 항해기술의 발달로 황해항로, 동해항로 및 남해항로를 오가는 상선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해국가들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다. 황해항로와 동해항로는 북선이라 칭했고 이 곳의 시발점은 주로 광주, 양주, 천주, 명주, 등주, 해주였다. 이 항구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했고, 많은 국가들의 내왕은 더욱 편리해졌다. 남해항로는 남선이라 칭했으며 출발항구는 양주, 광주, 복주, 명주로, 동남아, 인도양과 연결되어 페르시아만에 이르렀으며 아프리카로 이어졌다.
2. 당대 경제가 번영하고 기술이 발전했으며 상품의 품질도 우수했다. 특히 도자기 제품의 수요량이 많았는데, 각국의 상인들이 앞다투어 구매를 하였다. 광주는 해상실크로드에서 중국으로 입경하는 첫 번째 항구였다. 이 항구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당나라 최대의 상업항구가 되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당고종은 현경 6년(661년) 시박사(市舶使)를 광주에 설치하여 해로의 무역과 외교를 관리토록 했고 관세를 징수했으며 해외무역선박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였다.
3. 일본, 신라, 백제는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경우 성덕태자 섭정기간(7세기 초기)에 중국의 선진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4차례(600년, 607년, 608년, 614년)에 걸쳐 수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당나라가 세워지고 경제문화는 더욱 발전하였으며 일본은 630년 처음으로 건당사를 파견했다.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838년까지 10여 차례의 건당사를 파견했다. 사절단에는 대사, 부사, 관관, 녹사 등의 관원이 포함되었고 문서, 의사, 통역, 화가, 악사 등 각 분야의 수행원과 장인이 동행했다.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고승들이 당나라에 와서 불법을 배웠는데 유명한 고승 엔닌(圓仁)이 당에서 10년을 머무르면서 일기 형식으로 중국 각지 사찰의 풍속을 기록하고 모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펴냈다. 이는 당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민간 상선이 중국, 한반도, 일본 간의 해상항로를 활발히 왕래했고, 특히 한반도 신라국의 지방관원 장보고가 한중일 삼각 무역을 전개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당나라는 여러 차례 사자를 일본으로 파견하였고 민간에서도 학자와 고승들이 일본에 갔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감진화상(鑑真和尚)으로 그는 동쪽으로 건너가 불법을 널리 설교했다. 감진은 의학과 약초에 정통하여 중국의 중약을 감별, 제조, 배합, 소장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했다. 그리고 의학을 전수하고 초제사(招提寺)를 건립했다. 그는 당 광덕 2년(264년) 5월 6일 입적했으며 일본의 하야약사사(下野藥師寺)에서 장례를 치렀고 탑을 세웠다. 탑은 방형으로 정면에 감진대화상(鑑真大和尚)이라고 다섯글자가 새겨져 있다.

중국관료들도 배를 타고 해상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섬서성에서 발견된 당 양량요

묘비(楊良瑤墓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원 원년 4월 붉은색 물고기 그물을 하사 받고 국가의 사신이 되어 사라센제국으로 향하였다. 판관, 내검으로 국서와 조서를 받고, 먼 곳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명을 수행하였다. 남해에 이르러 육지를 포기하고 배에 몸을 실었다. 모험을 두려워함이 없고 모든 것을 이뤄낸다는 굳은 표정이었다. 그들의 충의와 열정은 귀신을 감복시켰고 공은 머리를 깎고 파도에 제사 지내며 해를 가리켜 무리에게 맹세하고 햇빛으로 파도를 모으고 바람을 조절하고 돛을 달았으며, 온 하늘에 물이 가득하고 노를 들어 망망한 바다를 가를 기세였고 밤에는 신비한 등을 켜 길을 표시하며 백주에는 신비한 짐승이 앞에서 나아갔다. 별과 서리가 돌아오고 만국을 경유하여 중국의 풍속을 다른 풍속에 퍼뜨리고 그 소문이 천하에 끝없이 전달되었다. 원래 정해진 날짜에 돌아와 왕명을 이루셨다. 이는 우리 공의 충성과 신의가 드러난 결과이다.”³⁸ 양량요는 빙국사(聘國使)의 신분으로 국서와 조서를 가지고 남해에서 배를 타고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거쳐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도달하였다. 해로로 인도양 연안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동국가 마지막으로 사라센제국(압바스 왕조 때의 사라센)에 이르렀다. ‘덕관여기!성명불추(德返如期!成命不墜)’라 하는데 이는 처음으로 중국인이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돌파한 기록이다.

일본에는 당나라 시기 중일문화 교류의 수많은 유적이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평성경(平城京) 유적이다. 평성경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과 북위의 도성 낙양을 모방한 것이다. 규모는 동서로 6.3km, 남북으로 4.7km에 달했으며 면적은 장안성의 1/4에 달했다. 중앙에는 85m의 주작대교가 있고 시를 좌우 양경으로 나눴다. 경성(京城)에는 평성궁, 수많은 기관, 사찰들이 있었다. 이 중 평성궁의 대지는 동서로 1.3km, 남북으로 1km로 주작문을 비롯한 12개 대문이 있었으며 정문의 주작문은 폭이 약 25m, 깊이가 10m였으며 기석을 포함해 높이는 22m에 달했다. 또한 약사사(藥師寺), 원흥사(元興寺), 대안사(大安寺), 흥복사(興福寺)와 새롭게 건립한 금종사(金鐘寺), 당초제사(唐招提寺), 서대사(西大寺), 서룡사(西隆寺), 법룡사(法隆寺), 향적사(香積寺)등이 있었고 도성에는 당나라 풍이 유행했다.

일본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나라와 관계가 있는 부장품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다카마스(高松塚) 고분으로 아스카(明日香村)의 2층식 원형고묘이다. 고중에 따르면 7~8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³⁹. 이 묘의 부장형식, 벽화배치, 그림은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당시 중일양국이 밀접하게 문화를 교류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해당 묘지 북쪽 벽에는 현무, 동서벽 중앙에는 청룡과 백호가 그려져 있고, 좌우측에는 각각 남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복식과 손에 들고 있는 물품 및 천장에 그려진 굉장히 정밀한 별자리를 통해 중국 당나라 시기 묘실 벽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신도는 당대 고분에서 매우 유행했다. 특히 태원초화창(焦化廠) 당대 고분에는 매우 잘 그려진 사신도가 있다⁴⁰.

38. 장세민, 「양량요, 중국 최초 항해 하의 서양의 외교사절」, 『함양사범학원학보』, 2005년 6월 제3기.

39.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자료실, 「일본고송총고분간략 소개」, 『고고』, 1972년 제5기.

40. 산서성고고연구소, 「태원시남교당대벽화묘 정리 간략보고서」, 『문물』, 1988년 제12기.

다카마스 고분에서 출토된 해수포도경은 지름이 17cm이며 (왕중주(王仲殊) 선생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실측은 16.8cm이다) 당대 유행했던 동경이다. 서안의 당대 독고사정묘(獨孤思貞墓)에서도 해수포도문동경이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6.9cm다. 이 동경과 다카마스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은 어떤 차이도 없이 완벽히 일치한다. 동물모양의 꼭지가 있으며, 안쪽의 문양은 6개의 동물이 포도, 잎과 짝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고, 바깥쪽 문양은 많은 동물, 새, 나비와 포도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 쪽과 바깥 쪽 사이는 볼록한 모서리로 나누어져 있고, 가장자리 부분은 안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이다. 운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독고사정묘의 해수포도경과 다카마스 고분의 해수포도경은 같은 거푸집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다카마스 고분의 연대와 독고사정묘의 연대가 아주 근접해 있음을 의미한다⁴¹. 다카마스 벽화에는 남녀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자는 홍록백회색의 채색치마를 입고 있다. 산서장치 양환당묘(山西長治襄垣唐墓)⁴²의 토용(陶俑) 가운데 여자 토용이 입은 치마와 매우 비슷하며 이는 바닥을 끄는 채색문양 긴 치마이다.

일본에서는 6-9세기의 묘지석이 출토되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태안만려(太安萬侶)의 묘지석으로 “좌경의 4조 4방에 살던 종4위훈 5등의 태조 신하 안만려(安萬侶)가 계해년 7년 6월 사망하여 양로(養老) 7년 12월 15일 매장하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 묘지석은 일본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많은 글자가 새겨진 묘지석은 아니다. 그러나 묘지주 태안만려(太安萬侶)가 일본사서〈삼국지(三國志)〉를 편찬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해당 묘지석에서 그가 “좌경 사조 사방(左京四條四坊)에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좌경이 당대의 이방제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 한자로 쓰여 졌으며 간지기년을 사용했는데, 이는 당대 일본과 문화교류가 여전히 매우 번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도 당나라 사절단의 묘지석이 출토되었는데, 일본인 정진성 묘지석이 그것이다. 묘지석에는 “공의 성은 정이요. 자는 진성이다. 국호는 일본이며 재주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하며 그래서 먼 나라로 가도록 명을 받고 상국으로 왔다.”고 언급되어 있다⁴³.

당시 일본에서 중국 고대 문물을 소장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 정창원인데, 동기, 금은기, 비단, 도자기, 사료 등을 소장하였고 품목으로는 구체적으로 회화, 검, 거울, 무기, 악기, 불구, 법기, 문방사우, 복식품, 찬구, 완구, 도서, 약품, 향료, 칠기, 도기, 염직물, 유리공예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비단은 다시 채색비단, 인화문비단, 사자당초주악문비단, 연화대문비단, 수렵문비단, 녹당초문비단, 연화문비단으로 더 세분화된다. 또한 많은 중국 장인들이 일본에서 당나라 양식과 일본색이 가미된 비단 직물을 제작했다. 이 중 수많은 직물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창원은 작은 해상실�크로드 박물관인 셈이다.

41. 왕중주, 「일본고송총고분에 관한 연대문제」, 『고고』, 1981년 제3기.

42. 산서성고고연구소, 양원현문물박물관, 「산서양원당묘(2003 M1)」, 『문물』, 2004년 제10기.

43. 왕건신, 「서북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당대일본유학생묘지에 관한 고찰」, 『서북대학학보』 제34권 제6기.

당나라 해상실크로드가 발전했던 증거 중 하나는 아랍 연해 국가들의 상인이 당나라에 와서 무역을 한 사례가 많았던 일이다. 상선 적재 화물량은 낙타부대보다 훨씬 컸으며 이로 인해 당조정과 아랍지역의 무역량이 전례 없이 증가했다. 북방지역에서는 육상실크로드가 주였고 남쪽지역에서는 해상실크로드가 주가 되었다. 거래 상품으로는 비단 이외에 도자기의 거래가 크게 상승했고 도자기의 무역량은 비단무역을 초월하는 추세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흑석호(黑石号)의 배가 침몰된 후 증명되었다. 흑석호는 아랍의 상선으로 광주를 출발하여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향했다. 침몰선박의 화물이 표명해 주듯 해당 화물은 당나라에서 온 것이다. 1998년 9월, 독일인 요트버는 흑석호 인양작업을 했으며 1999년 6월에 인양을 마무리 하였다. 2000년부터 인양 문물에 대해 정리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싱가포르 “센토사”가 이를 3,000여 만 달러에 구매하였다.

흑석호 선박 길이는 20m, 배수량은 약 150톤이다. 선체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며 밧줄봉합으로 선체를 묶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는 인도나 아라비아에서 건조한 외돛배 봉합범선이다. 이러한 범선의 선체 구조는 전형적인 아랍식의 외돛배이며 선체를 제작할 때는 철못을 사용하지 않았다. 측정한 바에 따르면 침몰한 배에 사용된 목자재 산지는 아프리카 동북부, 동부, 서부 및 중서부 적도 아프리카에 분포하며 수단과 자이르산이 최고로 평가된다⁴⁴.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인도네시아 벨리통섬으로 돌아가다 산호초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 상선에는 금, 은, 동, 철, 도자기, 뼈, 목, 석, 유리, 향료 등 각종 보물 67,000여 점이 실려 있었다⁴⁵. 이 중 98%는 중국의 도자기였다. 비교적 진귀한 문물로는 금기 10여점, 은기 24 점, 은정 18개, 동경 30개, 유리병 2개, 칠그릇 1개, 상아제 놀이도구, 벼루와 먹이 등이 있다.

침몰한 배에 실린 자기 중에는 장사도자(長沙窯瓷)가 약 56,500점이 있었으며 기형은 사발 모양을 띄고 있다. 이는 해당 선박의 가장 대표적 상품으로 이 배가 상선이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흑석호의 장사요 자기사발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입술 안팎으로 대칭이 되는 4개의 부채형 갈색점이 장식되어 있고 사발 안에는 유약 아래에 각종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문자가 쓰여진 것도 몇 점 있다⁴⁶. 사발 다음으로는 주전자의 수량이 많았고 그 중 인화문 주전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단지, 호로병, 물그릇, 유합, 유등, 잔, 향료, 접시, 쟁반, 사두, 자기로 만든 동물 공예품 등이 소량으로 발견되었고 가장 많은 것은 일상생활 용품이다. 중요한 점은 자기사발에 ‘보력(寶歷) 2년 7월 16일’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자기가 있는데, 보력 2년(826년)은 당 경종의 연호이다. 어떤 사발에는 차구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

44. 전강, 「페르시아인, 아랍상인, 보리불절제국과 인도네시아 Belitung 해저 침몰 선박으로 당대 해외무역에 관한 관찰 및 토론」, 『국가항해』 2011년 1기.

45. 진예, 「호남성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흑석호 침몰선박 장사요 자기 초기탐색」, 『호남성 박물관 관건』, 2010년 제7집.

46. 진예, 앞의 논문.

해 찻잔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어떤 자기사발에는 상품명칭이 쓰여져 있고 “호남도초시석제맹자유명 범가기(湖南道草市石諸孟子有名樊家記)”라고 쓰여져 있어 판매 제품에 이미 당대 상호(商号)가 홍보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발모양은 일반적이지만 문양은 특수하다. 꽃잎, 연근,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문양이 대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뚜렷한 아랍문화의 양식이다⁴⁷. 이는 아랍양식 도안이 장식된 자기이며 당대 장사요가 서아시아 시장 수요에 응하여 제품의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자기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제공한 도안이나 장식으로 주문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해외에서는 장사요 자기 또는 파편이 자주 발견된다. 학계에서는 장사요가 외국 수출용 자기를 중점적으로 생산한 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번 흑석호 침몰선박의 발견으로 장사요가 수출용 자기요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데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였다.

침몰선박의 자기에는 절강성에서 만들어진 월요(越窯) 청자가 200점, 하북 형요(邢窯)에서 만들어진 백자 350점, 하남 궁현에서 생산한 백유녹채도자기(白釉綠彩陶瓷) 200점, 광둥지방요에서 구워진 청자 700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기들은 대부분 당나라 양식이었는데, 이는 주문 생산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전적으로 외국 도자기를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당나라의 일상용 그릇들을 구매하여 가져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하남 궁현 백유녹채자기도 아랍 양식을 띠는 것이다. 흑석호를 인양할 때 용머리 얇은 목마개 주전자(龍首細頸蓋壺)가 발견되었는데 높이 120cm, 구경 37cm이다⁴⁸. 태원 복제 누예묘에서도 용머리 손잡이의 주전자가 발견되었으나⁴⁹ 용머리는 주전자 손잡이 가장 윗부분에 있고, 덮개는 없어서 이 주전자와는 차이가 있다. 양주에서는 당삼채 용머리 주전자가 출토되었는데 용머리가 흘러내리고, 손잡이 부분이 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⁵⁰. 오직 이 주전자의 용머리만 덮개가 있을 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주전자 배 부분의 문양에는 마름모의 장식이 있고 바깥을 향하는 방사형 꽃잎 문양이 있어서 아랍의 양식과 비슷하다. 이러한 마름모 문양도 일부 그릇에서 보이는데, 만약 이 자기들도 주문 제작되었다면 이는 하남 궁현에서도 수출용자기를 생산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대에 수출용 도자기를 제조한 요는 단지 장사요 한 곳 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백유녹채자기 중에는 그릇쟁반 밑 부분의 다리 중앙에 각각 ‘영(盈)자’와 ‘진봉(進奉)자’가 쓰여진 자기가 두 점 있다. ‘영’자의 자기는 예전부터 많이 발견되었다. 하북의 구성관 형요 유적에는 ‘영’자가 새겨진 사발 20개가 발견되었다. 서안 대명궁 유적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발들이 출토되었다.

47. 사명량, 「흑석호(Batu Hitam)침몰선박 중의 중국도자기를 기록」, 『무역도자와 문화사』, 윤신문화산업주식주식회사, 2005년 출판.

48. 임역추, 「당대보장 — “흑석”호 침몰선박」, 『고도자과학기술: 2005년 국제토론회논문집』, 상해과학기술문헌출판사, 2005년, 141쪽.

49. 산서성고고연구소, 태원시 문물관리위원회, 「태원시복제누예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1983년 제10기.

50. 고건, 「양주에서 출토된 당대황유녹채용수호」, 『문물』, 1982년 8기.

하북 역현에서는 당 함통(鹹通) 5년(864년) 손소치(孫少矩)묘에서도 ‘영’ 자가 새겨진 백자주자(白瓷注子)가 출토되었다. 당 장안 유적지에서는 ‘영’ 자가 새겨진 백자기가 출토되었다⁵¹. 학계에서는 이것들이 하북 형요와 하남 궁현요의 제품⁵²으로 여기고 있으며 황가대영고(皇家大盈庫)에서 구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흑석호 침몰선박에 적재된 자기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당청화 자기 3점이며 오늘날까지 발견된 중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청화자기이다. 고증에 따르면 해당 청화쟁반 3점은 하남 궁현요 제품⁵³으로 문양은 양주에서 발견된 당 청화주전자, 사발, 베게 등의 파편과 유사하다. 당청화는 중국 국내에서 현존하는 작품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흑석호 침몰선박의 당청화 자기쟁반은 늦어도 826년 전후로 청화자기제조기술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특히 수출용 제품 중 소형자들이 특히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003년 이후 하남성 문물 고고연구소와 중국문물연구소가 하남 궁의시(鞏義市, 원명 궁현) 황치요지에서 새로운 발굴작업을 진행했다. 출토된 상품 중 백유녹채자기와 당청화 주전자 조각을 통해 당청화자기의 산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청화자기를 만드는 코발트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청화자기를 만드는 코발트는 틀림없이 아랍지역에서 온 것으로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침몰선박에는 장사요 자기가 가장 많으며 학계에 따르면 양주에서 구매한 자기로 추측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양주 당성(唐城)에서는 대량의 도자기와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중국 남북 각지의 주요 도요지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⁵⁴. 전적으로 수출용만 공급하는 장사요의 제품은 명주에서 대량 출토된 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드물게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양주에서 발견한 장사요 도자 파편은 출토된 자기 파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토 수량면에서 산지에 버금간다.

그러나 침몰선박에 생활자기가 담겨있던 곳은 영남(嶺南)에서 생산한 큰 항아리이다. 적재방식을 보면 큰 항아리에 사발, 쟁반 등을 넣고 새끼줄로 묶은 후 틈이 있는 곳은 찻잎이나 향료 등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물품으로 밀봉했다. 영남 큰 항아리를 통해 흑석호 선박이 양주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양주에서 최종 포장을 하여 중국에서 출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해당 선박이 광주에 갔다가 이후에 다시 양주로 왔다고 판단한다⁵⁵. 어떤 설이 맞든 모두 흑석호는 광주와 양주를 경유했다.

침몰선박 중 꽃무늬가 새겨진 금은그릇은 31점에 달하며 이 중 꽃무늬 조각 금 그릇은 11점, 도금한 은

51. 상민걸, 정림천, 「서안남교에서 새롭게 발견된 당 장안 신창방 “영” 자관 자기 및 관련문제」, 『문물』, 2003년 12기 ; 적춘령, 왕장기, 「청룡사유적에서 출토한 “영” 자관 진기한 백자기」, 『고고와 문물』, 1997년 6기.

52. 진극륜, 「당대 “흑석호” 침몰선박에서 발견된 백유녹채자기 연구」, 『상해박물관집간』, 2012년.

53. 임역추, 「흑석호 침몰선박의 당 청화자기」, 『수장』, 2008년 제1기.

54. 남경박물관 발굴작업팀 등, 「양주당성유적 1975년 고고작업간략보고서」, 『문물』, 1977년 제9기 ; 중국사과원고고연구소, 「강소 양주시 문화궁 당대 건축기지 발굴간략보고서」, 『고고』, 1994년 제5기 ; 이죽빈, 「양주에서 새롭게 출토된 당대 문물」, 『고고』, 1995년 2기 ; 서충문, 주장원, 서인우, 『양주출토 당대 장사요 자기연구』, 문물출판사, 2015년.

55. 사명량, 앞의 논문

기는 20점이다. 금 그릇에는 금 술잔, 금 쟁반, 금 주전자 등이 있다. 은기에는 은쟁반, 은 주전자, 은합, 은화병 등이 있으며 다수가 쌍을 이루고 있다. 최고의 금은기는 1970년대 서안 하가촌 당대요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가운데 팔각기악인물금잔(八棱伎樂人物金杯)은 10cm이고 하가촌에서 출토된 팔각인물금잔의 기형과 문양이 비슷하지만 부피는 더욱 크다. 하가촌에서 출토된 팔각인물금잔의 높이는 6.7cm이나, 이 잔의 높이는 10cm로 하가촌의 것 보다 3.3cm 높다. 은합의 문양은 매우 정교한데, 대부분 꽃문양이고 기법이 화려해서 매우 진귀하다.

배에는 200여개의 동전과 30개의 동경이 있었다. 동전은 당대 동전 화폐로 이중 199개는 “개원통보(開元通寶)” 이고 나머지 9개는 “건원중보(乾元重寶)”이다. 면이 매우 정밀하고 문자가 명확하며 품질이 우수하다. 개원통보는 당대에 발행한 화폐 중 그 양이 가장 많으며 사용시간 또한 가장 긴 화폐로 당 초부터 당말까지 사용되었다. 『구당서·식화지상(舊唐書·食貨誌上)』기록에 따르면 “무덕(武德) 4년 7월 오주전을 폐하고 개원통보전을 발행했다. 개원전의 문자는 구양순이 썼으며 글자는 웅장하고 수려하며, 힘이 있어 당대의 최고 글씨라 칭해졌다. 서체는 전서와 예서의 중간 서체이다.” 건원중보는 당 숙종 건원 원년(肅宗乾元元年)에 주조되었다. 건원중보 한 냥이 개원통보 10냥에 해당한다. 육상실크로드를 따라 가면 중국의 역대 화폐가 자주 발견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前) 우즈베키스탄 고고학 연구소 소장 Kazim Abdullaev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당대 동전이 서역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동전 위에 서역의 지명을 새겨 놓아 더욱 편리하게 유통하였다. 흑석호 침몰선박에는 당나라 동전이 발견되었고 이는 해상실크로드상의 국가들이 사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외부로 유출된 동전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었고 실크로드에 있는 국가에서 수집한 일부 동전들은 중국에서 사용되었다. 신안 침몰선박에는 28톤의 동전이 있었으며 학자들은 주조한 청동불상에 동전이 사용되었음을 고증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수집한 중국 동전들을 샘플로 삼아 중국 통화 형태를 모방하여 본국의 통화를 주조했다. 사각형 구멍의 원형 통화는 이미 수많은 국가의 표본이 되었으며 일본의 화동개진(和同開珎), 만년통보(萬年通寶), 신공개보(神功開寶) 한국의 해동통보(海東通寶), 삼한통보(三韓通寶), 삼한중보(三韓重寶)가 이에 해당하며 베트남의 태평흥보(太平興寶)도 중국 동전을 모방했다. 이들 모두 중국 동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한자가 한 면에 쓰여져 있고 모두 자국에서 주조되었다.

흑석호 침몰선박에 동경이 30점 발견되었는데, 한대 양식의 동경(漢式鏡)과 당대 양식의 동경(唐式鏡)으로 구분되며 원형, 해바라기형, 능화형, 방경 등의 모양이 있다. 한대 양식 동경은 사유경(四乳鏡)이며 당대 양식 동경으로는 진자괴상문경(真子飛霜紋鏡)과 강심경(江心鏡)이 있다. 강심경은 아주 보기 드문 동경으로, 황실 진상품이다. 이를 “강심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뒷면에는 사신팔괘문양과 명문이 장식되어 있다. 명문은 “당 건원 원년 무술 11월 29일 양주(揚州) 양자(揚子) 강심(江心)에서 백 번을 구워서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당 건원 원년은 758년이다. 동경 명문은 이 동경이 양주에서 제조되었다는 사

실과 침몰연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동경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역품이며 여러 나라에서 환영 받는 고급물품이었다. 해상 및 육상실크로드의 여러 국가에서 전국시대부터 당나라까지의 동경들이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다.

흑석호 침몰선박은 해상실크로드를 따라 전문적으로 왕래하고 무역했던 아랍 상선이며 해상실크로드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흑석호 침몰사건과 해당 화물 분석을 통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침몰선박의 화물은 모두 당대의 특징을 띠고 있는데, 이중 연대를 기록한 기물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사발로 “보력 2년 7월 16일”이라는 명문이 있다. 보력 2년은 당 경종의 연호(826년)이다. 다른 한 점은 강심경으로 “당 건원 원년 무술 11월 29일”이라는 명문이다. 건원원년은 758년이다. 유적 기물에 있는 많은 연도에 의거하고, 후자시간관정 원칙에 따라, 해당 선박의 화물적재와 침몰 시간은 826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박에서 적재된 화물에는 금, 은, 동, 철, 도자기, 찻잎, 뼈, 목, 석, 유리, 향료 등이 있으며, 찬기(食具), 다기(茶具), 주기(酒具), 생활용기, 사치용품 등으로 나뉘며, 수량이 방대하고 대다수는 중국에서 페르시아만 아랍제국에 판매하는 일용품인데, 이는 해당 선박이 아랍선박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3. 해당 선박화물 중에는 대량의 비단이 있었으나 비단은 보존이 어려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으므로 잠시 보류해 둔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물만으로 분석하면, 수출용 자기가 가장 많은데, 아마 예약 주문된 제품이었을 것이다. 이는 자기가 이미 비단과 함께 또는 비단의 수요를 초월하여 중국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수출한 주력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4. 선박에 적재된 대량의 자기에는 아랍 양식의 도안이 장식되어 있다. 이는 당나라의 수많은 도요지에서 수출용 자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장자요와 궁현요는 방대한 수요의 국제시장을 겨냥한 요이다.
5. 해당 선박에는 황가영자고의 자기와 고급 금은기들이 실려 있고, 전적으로 황실에만 공급한 강심경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기물들이 흑석호 침몰선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가영자고의 자기와 강심경은 시장 판매용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고급 금은기들도 뛰어난 정교하여 마치 황실용 제품 같다. 따라서 이러한 기물들은 시장에서 매매 됐을 가능성은 없고, 황실에서 선주에게 위탁하여 아라비아의 한 나라에 선물하는 예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당시 선주는 국가의 사신 혹은 통신사의 신분을 겸하면서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정보와 사례품을 전하기도 한 사실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예는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6. 배에는 수많은 다기와 찻잎이 있었다. 찻잎은 이미 실크로드의 중요한 상품으로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로 전해져 아랍 여러 국가들에서 인기 있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또한 아랍지역에서는 당왕조가 생산한 다기도 좋아하였는데, 이는 음료제품(차)이 음료용기와 함께 전파된 가장 전형적인 예

이다.

7. 배에 적재된 물자의 수량으로 해상실크로드 대외무역의 주요 제품과 부차적인 제품을 알 수 있다.

해당 선박에 적재된 상품 중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자기이고 그 다음이 찻잎과 동경이다. 따라서 자기가 당시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량한 바에 따르면, 흑석호 침몰선박의 선체길이는 20m, 배수량은 150톤이다. 몇 년 전에 일본 각천 문화진흥재단(角川文化振興財團)은 일본 아스카시대부터 헤이안시대(7세기~9세기)사이의 “당나라 사절단 선박(遣唐使船)”을 표본으로 하여 당시 사이즈와 구조에 따라 당나라 사절단 선박(遣唐使船)을 모방하여 제작했다. 선체 길이는 33.6m, 폭은 9.2m로 선두와 선미가 높고, 모두 3층으로 이뤄졌다. 길이와 폭은 “중국 남해1호”인 송대 침몰선박과 비슷하다. 당나라는 조선기술이 매우 발달했지만 사서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반면 북송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북송관료 서긍은 선화 5년(1123년)에 명을 받아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직접 본 기록들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라는 책에 기술했다. 이 책의 “해도(海道)”편에는 사절단이 타고 온 선박 두 척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하나의 객주(客舟)인데, 이 객주는 길이가 10여장이며 깊이는 3장, 폭은 2장 5척으로, 조를 2천말(斛) 실을 수 있다. 제조방식은 통나무를 중첩시켜 만들었다. 상평은 평형하고 하측은 날카로워 파도를 헤치고 가기 쉽다.”⁵⁶ 복건 천주에서 발견된 송대 침몰선박은 길이가 30m이다.

다른 한 종류는 신주(新舟)로 “신주는 크고 넓으며 물품과 사람 수는 모두 객주(客舟)보다 3배 크다.”⁵⁷ 3배란 의미는 무엇인가? “객주는 10여 장, 깊이는 3장, 폭은 2장 5척이며 2만 조를 싣고 있다.” 즉 3배란 것은 객주가 30여장이며 깊이는 9장, 폭은 7장 5척, 6천말(斛)을 적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1장은 3.3m이며 30여장은 100m로 흑석호보다 훨씬 크고 남해 1호 침몰선박과 일본 건당사보다도 크다. 당연히 이는 송대의 수치이며 당대보다 100여년이 늦다. 그러나 이는 당대 선박을 계승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송대 선박의 길이를 30m에서 100m로 추정한다면, 당대의 대해선의 길이는 송나라 선박의 중간 수치일지라도 50m보다는 작지 않을 것이므로 규모는 매우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무역 물자의 내용은 고고학자료에만 근거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사료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에는 당나라의 물자가 해로와 육로를 통해 서쪽으로 옮겨갔으며 이 중에는 비단, 자기, 동경, 정철, 살바, 생강, 검, 금은 등이 주를 이룬다. 아랍지역은 유향, 마노, 타조, 대추야자나무가 주를 이룬다. 인도는 후추, 카다멈, 울금향, 침향 등이고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진귀한 제품인 용연, 상아, 무소뿔, 대모, 사자, 얼룩말 등이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중국 비단방직 기술은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흑석호 침몰선박의 화물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소하르 고성과도 연관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반도

56. (송)서긍저, 박경휘 주석, 『선화봉사고려도경』 제34권, 70쪽.

57. (송)서긍저, 박경휘 주석, 앞의 책, 제71쪽.

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지역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러나 소하르는 아랍에 미리트 북부해안의 주요도시로 바티나 지역의 최대 도시이며 예전부터 걸프만 지역의 유명한 항구이다. 소하르 고성 성벽 내에서는 수많은 당대 도자기 조각 편과 하남 낙양에서 생산된 당삼채가 발굴되었다. 심지어 당대의 청화자기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국학자들의 해당 지역 조사에 따르면 “소하르 고성 성벽유적지의 문화퇴적층에서 중국 당대 도자기 파편이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스카트 아랍에미리트 국립역사박물관 내에서도 중국 하남에서 생산된 당대 삼채도자기, 유하채자기와 하북에서 생산된 당대 백유자기 및 표본을 볼 수 있었다.”⁵⁸ 흑석호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고 이 곳은 분명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곳은 아랍국가들로 향하는 필수 경로이자 동아프리카와 인도를 향하는 중간지점이기도 하다. 아랍의 초기 지리지인 『세계경역지(世界境域志)』의 기록에 따르면 “오만은 해안 상의 대도시였고, 이 곳에는 상인이 많으며 전세계의 상업중심지였다. 도시 내의 상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으며, 동서남북 사방의 상품이 모여드는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각지로 물품이 운반되었다.”⁵⁹ 오만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으로는 주로 유향, 장미수, 상아, 대추나무 야자, 말, 목재 등이 있으며 중국이 오만으로 수출하는 제품으로는 주로 도자기와 비단이 있다.

이 외에도 일본학자는 이집트 조사 중, 알푸스타트 유적에서 수많은 당대와 오대(五代) 시기의 자기편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기편은 형요, 월요, 장사요에서 온 것이다. 또한 이 곳을 중세기 이슬람 세계와 중국이 서로 도자기 무역을 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였다⁶⁰. 이를 통해 당대에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와 함께 무역을 전개했으며 고정된 항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 이러한 무역이 직접무역인지 간접적인 중간교역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해상실크로드의 발전은 남북조 당대 항구도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당시의 유명한 항구도시로는 광주, 양주, 천주, 등주, 명주 등이 있었다. 외부무역의 발달로 인해 이 항구들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남제서(南齊書)』에서는 “남이의 여러 종족이 각각 갈라져 나라를 건설하니 사방에 진기한 짐승이 있고 이런 곳이 처음이라. 산과 바다에 숨어있고 보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없노라. 상선은 먼 곳에 이르고 남주로 운송하고 오랜 친구는 부유하고 왕부에 물자가 그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해, 동해, 황해의 여러 항로에서 온 선박들에게 몇몇 항구들은 가장 좋은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었다. 이조(李肇)의 『당국사보(唐國史補)』에는 “남해의 배는 외국선박으로, 매년 안남, 광주에 이르고 이중 사자국의 배가 가장 크며 사다리도 몇 십 척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이고, 보화가 가득 실려 있다. 본도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리면, 군읍이 떠들썩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자국은 지금의 스리랑카를 가리킨다. 『당대화상동정전(唐大和尚東征傳)』에는 광주의 해수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8. 주강, 「중국 양주와 오만의 소하르」, 『아랍세계연구』, 1991년 4기.

59. (아랍)실명저, 왕치래역주, 『제3장 아랍국 및 여러 성진』, 『세계경역지』, 상해고적출판사, 2010년, 170쪽.

60. (일)공장기지, 「포스타트유적에서 출토된 중국도자-1998-2001년 연구성과소개」, 『고궁박물관원간』, 2016년 제1기, 120-132쪽.

“강 중간에는 파라문, 페르시아, 곤륜 등의 배가 있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향료와 약물,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선박의 깊이는 6~70척이다. 사자국, 사라센제국, 골당국, 백만, 적만 등에서 왕래하고 거주하였으며 종류가 매우 많았다.”⁶¹

광주에서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사라센 제국인(大食人) 수는 양주보다 더욱 많았을 것이며, 이는 사료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건원 원년(758년) 페르시아와 사라센제국이 광주를 공격하고 창고를 약탈하며 초가를 불태우고 바다를 건너 떠나더라.” 자세히 분석해보면 페르시아와 사라센제국이 광주를 공격한 이유는 관부의 과중한 세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과 관련된다. 광주를 약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쟁을 의미한다. 대력(大歷) 6년에 사신이 조정으로 왔으며 진주 등을 진상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페르시아 인제가 와서 조정에 공헌을 했으며 이는 예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건 이후에 해상실크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 정부는 외국상인에게 정책을 완화했으며 외국 상인들은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광주로 왔고 흑석호는 이 중 1척의 상선이었다⁶². 수많은 외국상인들이 격랑을 헤치고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양주에 도착했다. 최근에 발견한 당대 <당고이부군묘지병서(唐故李府君墓誌並序)>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묘지석의 기록에 따르면 묘주의 성은 이씨이며(중국으로 들어와 중국의 풍속을 따르며 주도적으로 한족화 되었으며 황족의 성인 이씨를 자신의 성씨로 삼았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호록’ 이고, 묘주의 이름은 ‘마호록’ 즉, 페르시아 사람이다. 초년에 배를 타고 양주에 오게 되었으며 후에 안거하고 75세에 사망했다. 사망일자는 당문종 대화(大和) 9년 2월 16일⁶³로 835년 3월 22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흑석호에서 양주로 왔을 때(826년) 묘주는 생존해 있었다. 두 사람 간에 상업적 거래여부는 고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곳 양주에서 사는 페르시아 상인들은 소수가 아니었다. 묘주 마호록의 묘지석만으로 고찰하면 그가 혼자서 양주에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산 사람으로는 두 조카가 있었다. 따라서 양주에는 페르시아 상인이 많았기 때문에, 흑석호가 중국으로 들어온 첫 번째 항구는 양주였다고 할 수 있다. 양주에는 외상이 아주 많았는데, 그 외상 중에 페르시아 상인들은 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풍속도 비슷하여 사업협상을 하기에 편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구당서·전신공전(舊唐書·田神功傳)』에는 “신공이 양주에 오자, 거주하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채찍으로 때리며 끝까지 과हे치니 사라센과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수천 여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묘지석의 내용과도 맞아떨어지는데, 당시 양주에 외국 상인이 많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국상인이 양주에서 벌인 사업 내용은 아주 다양한데, 해상 대외무역이 그 중 하

61. (일진인원개 저, 왕양형 주석, 『당대화상동정전』, 북경, 중화서국, 2000년, 74-75쪽.

62. 김상범, 「당대 후기 양주의 발전한 외국인 사회」, 『대만사대역사학보』 제44기, 2010년 12월, 37-66쪽.

63. 정양, 진덕용, 「양주에서 새롭게 발견한 당대 페르시아인 묘석 의의에 대한 초기탐색」, 『중국목사림』, 2015년 제3기.

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상실크로드나 해상실크로드를 막론하고, 호상인 사라센제국 상인이나, 페르시아 상인은 빠 속 깊이 “이익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전통적 상인 정신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⁶⁴. 그들이 양주로 모인 이유는 바로 해상실크로드 교역을 하기 위해서였다. 양주의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양주에서 전국 각 도요지의 자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페르시아 도자기도 있었다. 이는 페르시아 상인이 양주에서 판매한 본국 도자기임이 분명하다. 여러 정보가 보여주듯 양주는 확실히 번성한 항구도시였다.

천주는 복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였으며 고고학자료와 문헌자료 모두 이를 증명한다. 천주만의 송대 침몰선박 잔해의 길이는 24.4m이고, 잔해의 폭은 9.15m이며, 인양된 화물은 향료, 약품, 자기, 필수 제품 등 모두 14종류 59품목에 이른다. 화광초송대(華光礁宋代) 1호 침몰선박에서 나온 유물은 1만 점에 이른다. 도자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자기의 산지는 주로 복건과 강서성 경덕진이다. 도자기 제품은 유약색 분류에 근거하여 청백유, 청유, 갈유, 흑유 등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형은 사발, 쟁반, 접시, 합, 주전자, 잔 병, 관, 항아리 등이 있다. 남해 1호 침몰 선박은 남송시기 복건 천주의 특징을 가진 목선으로 광동 양강시 동평항(廣東陽江市東平港) 이남으로 20해리 떨어진 곳에 침몰하였다. 길이는 30.4m, 폭은 9.8m이며 선체(돛대는 계산하지 않음)는 높이 4m, 배수량은 약 600톤에 달하며 적재중량은 800톤에 근접한다. 선창 내에는 6만점이 넘는 남송자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자기는 주로 중국 복건(福建), 절강(浙江), 강서(江西) 등지의 자기이다. 이중 자기의 절반은 복건 천주 덕화요와 자조요에서 만들어졌다. 천주 해저고고유물조사에 따르면 천주는 남조부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상술한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술한 남북조~당대시기 중국은 일본, 한국 및 아랍해(페르시아만) 주변 지역과 무역 및 문화 교류를 했으며 중국 남북조~당대 해상실크로드와 여러 나라의 문화교류는 상당한 규모와 깊이가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각국 간의 이해와 발전은 교류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각국의 사회문화 발전을 촉진하였다.

둘째, 남북조~당대 해상실크로드 발전은 예전의 실크로드가 북방 육지에 편중된 현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육상실크로드 이외에 해상실크로드가 외국과의 연계에 큰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해상과 육상실크로드는 그 지위가 대등하여 더욱 많은 국가들이 거래와 교역을 하도록 했으며 시야를 넓혀 더욱 많은 상품들의 유입이 가능하였다. 당대 장안은 국제적인 대도시로 해상, 육상실크로드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셋째, 문헌기록에 따르면 남북조~당나라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도착한 사절에게 수많은 비단을 하사했다. 그러나 해상실크로드 연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무역제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대가

64. 『서용전·강국』, 『구당서』 권 198, 중화서국표점본.

변함에 따라 도자기 제품이 점차 비단을 초과하여 외국으로 파는 주요제품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자기 생산 기술도 점차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기 실크로드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또한 중국 도자기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국제시장에서 자기가 잘 팔린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거래에서 볼 수 있듯 동아시아 간에 여러 항로가 있고 이러한 항로는 이미 발전되어 있었다. 남북조-당대에는 한국, 일본, 동남아 각국에 이르는 항로가 있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인도양, 서아시아를 경유해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항로도 있었다. 이러한 항로는 각 국을 연계시켜 해상 교통망을 형성하여 각 국의 거래를 촉진시켰다.

항구도시 유적과 침몰선박 자료는 해상실크로드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상실크로드는 수많은 국가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항구도시 유적과 고대 침몰선박의 수량은 방대하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이 침몰선박을 인양한 지점으로 정식으로 등록한 곳은 현재까지 118곳이며, 대다수는 1980년대 이후 발견되었다. 이중 필리핀이 가장 많은 41곳, 인도네시아 27곳, 태국 23곳, 말레이시아 17곳, 베트남 10곳⁶⁵이다. 만약 항구도시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와 침몰한 자료 계통을 정리할 수 있다면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생, 발전 심지어 구체적인 과정연구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5. 정강, 「해상실크로드 증거 — 동남아침몰선박이 소장하는 보장고사」, 『인민망』, 2011년 12월 7일.

토론문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양은경

부산대학교 교수

장경첩교수님은 오랜기간 중국 산서성일대의 선비족 관련인 북위, 동위, 북제 무덤, 궁전, 불교사원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신 고고학자이십니다. 남북조시대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며 이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조와 북조과의 영향 및 교류관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경첩교수님이 손수 발굴하신 북조 평성궁, 벽화묘, 불교사원지는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해양실크로드 학회에서는 저희가 장경첩교수님이 손수 발굴하신 방대한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힘들지만 남북조시대부터 당대까지 해상 노선을 통한 중한, 중일간의 고대 교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는 평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 남북조간의 교류와 영향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기회를 빌어 발표자에게 평소 궁금하게 생각한 내용과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중국과 일본의 해상을 통한 교류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삼국지 위서 왜인전>, <南齊書·蠻東南夷傳·倭國>전의 기록을 통해 고대 일본과 중국 북조, 남조 국가와의 교류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왜인들은 중국으로의 사절단 파견을 통해 특히 중국의 무덤과 관련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일본 고분시대 무덤에서는 중국의 묘제, 상장의례, 부장품 등에서 중국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례로 群馬縣 觀音山에서 출토된 금 도금한 구리병을 예를 드셨습니다. “외부형태와 내부구조는 모두 태원시 북제 고적회락(庫狄廻洛)의 묘에서 출토된 금도금 구리병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북조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샘플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생산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만 기술을 배운 장인들의 이동이나 교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7세기대 백제 부여, 익산에서는 복제와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복제 유물은 백제를 통한 전파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 (2) 일본 古松塚古墳의 부장형식과 벽화배치, 그림은 모두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당시 중일 양국문화교류가 밀접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덤 속의 사신도, 인물들의 복식, 손에 들고 있는 물품, 천장의 별자리는 당나라 시기 벽화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였고, 특히 해수포도경의 동경은 당나라 동경과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 고송총고분의 벽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신도, 여인의 주름잡힌 색동치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위 벽화고분을 많이 발굴하신 발표자는 평소 중국 벽화고분과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북위 벽화고분과 고구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지역과의 해상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남북조시대와 당대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슬람지역과의 해상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광동성의 광주입니다. 광주는 당시 가장 큰 해상실크로드의 무역항이었었습니다.

발표자는 광주지역에서의 이슬람인들의 활동과 거주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남북조시대, 당대 승려들 중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온 경우와 중국에서 구법활동을 위해 인도로 향한 승려들은 대부분 광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거나 혹은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지역에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당대 양주, 광주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사람들과 도자기 등 유물이 확인되고 그들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상실크로드의 거점 항구도시에서 확인되는 이슬람 계통의 문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당시 수도 장안지역에서 景教가 아주 성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해상실크로드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문2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이란문화와 예술의 변영

Shahram Heydarabadian

고고학 박사/이란 국립박물관 역사관 책임자

서론

이란과 한국 간의 문화 및 역사적 관계

Siraf 항과 Kharg 섬에서의 고고학 발굴

실크섬유

미니어처

유약을 바른 도자기

에나멜 도자기

청화백자

타일

발표문2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이란문화와 예술의 번영 -이란 국립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샤흐림 헤이다르 어버디언

이란 국립박물관 고고학 및 역사 국장/책임자

서론

오늘날 “실크로드”가 역사적, 정치적으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들은 한때 활발한 상업 활동이 고대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란의 많은 민족들이 세계의 동서국가들과 교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란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긴 국경 지대를 통해 국경 통행세를 징수하였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이 국제적 길을 오갔기 때문에 이란인들이 세계를 보고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기초적 번영의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이란인들 역시 풍부한 문화와 예술적 가치로 동양과 서양 여러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중국 국경에서부터 로마 국경까지의 국가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로 편입되었으며 이란인들의 예술적 가치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국제 무역은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케메니아 제국(Achaemenid Empire)”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고 메흐르더드2세때(기원전 87-122년)의 파르티아 제국은 극동 지역과도 교류를 맺었다.

역사적 증거에 의하면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란의 북부 지역을 거치는 “육상실크로드” 뿐만 아니라 “해양실크로드”였는데 이를 통해 귀중한 물품들이 전달되었다.

“해양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점은 오만 만(Gulf of Oman)과 페르시아 만(Persian Gulf)이며, 과학적인 고고학 발굴에 의거하여 “시라프 항 (Siraf Port)” 혹은 “타헤리 항로”는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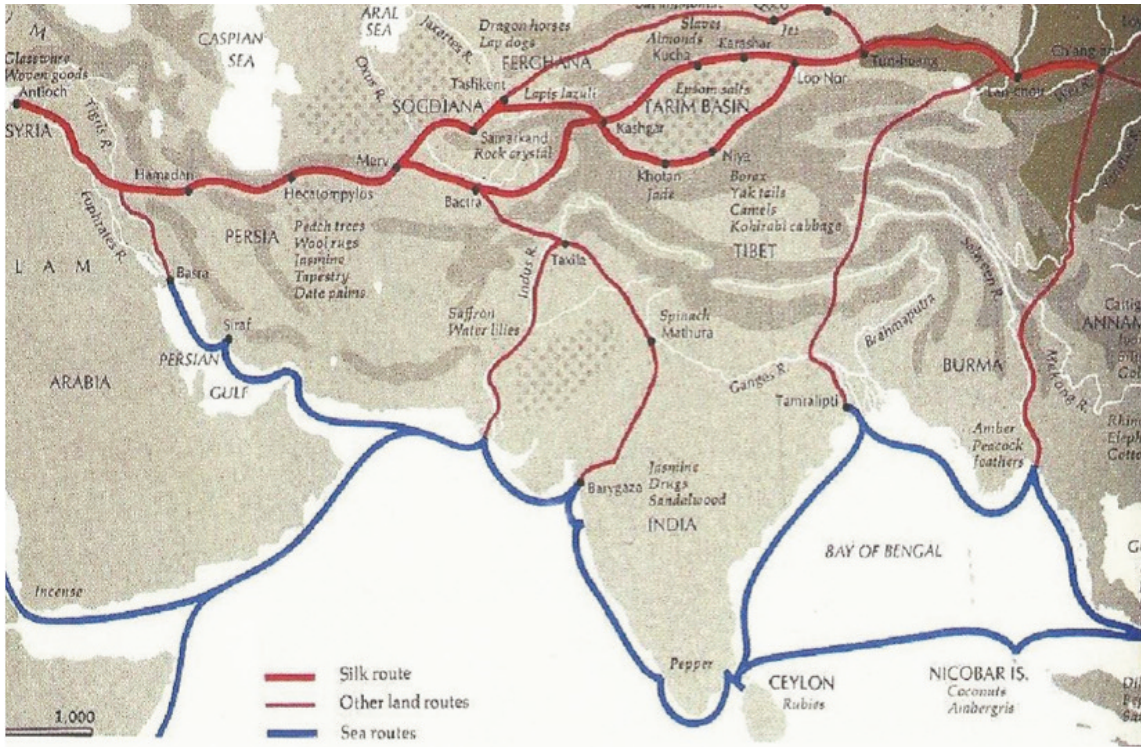


사진 1 실크로드의 주요 해상로 및 부차정 항로와 실크로드 육로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란”이라는 국가 명은 중국 사료에 기술된 An-Shi/An-Si (출처: 중국) 일본어 An-sok의 뜻은 “파르티아 제국” (Parthian Empire) 에서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Zurcher: 1972, 32). 역사적 자료들의 증거에 의하면, “파르티아” 왕자들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는 An Hsuan 이라는 유명한 상인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까지 가기도 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한” 왕조 때에는 파르티아의 녹색, 청색, 갈색 등의 유약을 바른 도자기 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Zhongshu: 1982, 44). 또한 중국 신장 자치 지구에서 출토된 파르티아 제국 시대의 동전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고대 “사산 제국”시대의 문헌을 보면 “소그드어 (Sogdian Language)”, “마니교” 문헌에도 “중국(china)” 과 “Chinestan”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슬람 역사 학자들 역시 “중국” 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극동 지역”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 또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였다(Messina: 1939,50).

프랑스 고고학자인 Ghirshman은 예술의 융합과 “사산 제국” 과 중국의 문명간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산-중국의 예술”이라고 표현하였다(Ghirshman: 1962, 324).

일부 연구자들은 “Shosyen”의 보물은 사산제국 시대 말기의 보물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산 제국 말엽의 통치 흔적이 극동지역, 즉 일본에 남아있다고 믿었다. 사산제국의 예술성은 일본의 나라(Nara) 지역에서 발견된 실크 직물에 있는 전사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 혹은 식물과 동물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산 제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Sheng: 2005,140).

한편, 중국의 투민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에 이어, 중국어-파흘라비어 비문이 확인되었는데, 마니교인, 소그드인들이 그 곳까지 진출해 언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산의 유리 공예 문화와 이란의 악기는 극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소그드 상인들은 직물, 도자기, 돌, 다양한 유리 용기를 극동에 전파시켰다. 또한 소그드인들이 중국에 실크, 계피(Cinnamon), 다양한 직물, 종이, 잉크와 펜을 전파시켰다(Vassiere: 2004,98).

소그드 지역에서는 중국 동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극동 지역과의 교역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소그드 상인들의 그림이 일본 “미호박물관(Miho Museum)”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Museum: 1997,252 Miho).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이란인의 이름은 “터쉬”이고, 그 뜻은 “상인” 이라는 기록이 있다 (Akbarzadeh: 2010,140). 소그드인들은 영적인 종교적 유산인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으로 가져갔다. 중국에서 최근에 발견된 그림에서 “정화 의식을 위한 불”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로아스터교 (Zoroastrianism)”를 볼 수 있다 (Lemer:2005,24).

이란에 세워진 중앙 아시아의 역대 정부들은 중국의 상인 및 정치인 사절단들에게 좋은 대접을 하였다. 최근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대표가 “아프 라시 아브 (사마르 칸트)”의 서쪽 벽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Grenet:2005,10).

이후 중국에서 파견된 정치인과 상인들은 서 아시아 지역에 친숙해진 후에 이 지역을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소개 하였다(Giles:1981,2-5).

일본 고고학자들은 서아시아(이란)에서 한반도를 통해 일본까지 말(Horse)이 수입된 것으로 보고있다 (Egami:1967,6).

이란 학자들은 이란 이슬람 시대의 예술과 문화가 극동에 전파됨과 동시에 역으로 자신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Albaqyh 작품 1352, 270). 대부분의 이란 학자들이 작성한 기록들을 보면 이슬람 시대는 “사산-소그드 (Sodgian)”의 영향을 받았다 (하그 바르 자다 1389, 8-10).

이란과 한국 간의 문화 및 역사적 관계

한국 역사학자 홍원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당 제국의 영토는 중국해부터 이란 국경까지 이르렀으며, 야즈데게르드 3세 (Yazdegerd III)는 나하반드(Nahavand) 전투에서 아랍군에 패한 후 자신의 아들 피루즈를 중국까지 보내 군사 원조를 받아 아랍인들을 물리쳤다고 한다(Wontack Hong: 1994,295). 또한 고고학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란의 농업 문화가 중앙 아시아를 통해 동 투르키스탄과 중국에 출현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반도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Jeong:1978,27). 기원전 206년 중국 한나라 통치 시기, 영토는 더욱 확장되고 정부의 탐험은 잦아졌으며 그로인해 다양한 지역과의 문화 교류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였다. 특히, 한반도 및 기타 동남/중앙 아시아 통치 지역들에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다(Backus:1981,3). 인도 학자들은 페르시아 만부터 메소포타미아 마크란(Makran) 해안을 따라 구자라트까지 이르는 해상 무역이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그 후 100년동안 점차 각국의 상선들이 벵갈 만(Bengal)을 통해 동남 아시아의 해역 방향으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Ray:1994,2).

한국의 역사 학자들은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서 만주 (Manchurai) 지역에서의 스키타이, 중국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의 통합이 점차 한국에 영향을 주었고 청동의 유입이 결국 한국을 통해 일본까지 이동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Lee: 1984,14). 훈족은 빈번히 중국 국경을 공격했으며 그로인해 파르티아 제국과 중국 간의 광범위한 관계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르티아 영토민들의 대승불교(Mahayana)에 대한 관심으로 이란 문명에 속하는 소그디아나, 호탄, 스키타이, 파르티아 그리고 기타 지역의 승려들은 중국과 중국 불교에서 호의적인 처우를 받았다(Zurcher: 1995,67-86). 중앙 아시아의 불교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전해졌고 한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Kim: 1974,49). 역사학자들은 파르티아의 상징적인 예술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광대한 파르티아 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최소 서기 7 세기까지 중앙 아시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중국의 불교역사상 첫 번째 승려가 파르티아 왕자였다고 주장한다(Lloyd: 1911,56-177).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파르티안 활쏘기(Parthian Shot)와 승마 스타일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여진다고 설명한다. 그 벽화에는 한 사람이 말을 타면서 머리와 몸통을 말

뒤쪽으로 돌리면서 사수하고 있다(Wontack Hong: 1994,6).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중앙 아시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Kim: 1983,45).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대 한국과 사산(Susianian) 제국 영토 간의 충돌을 말해준다(Kim: 1983, 46-49).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한반도에는 “샤머니즘”이 존재했다고 한다. 한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믿음은 시체 위에 돌을 놓으면 죽은 자로부터 악령을 쫓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권력 행사에 이용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샤머니즘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연결을 시도했으며 마녀들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로 부터 나쁜 영과 재난을 쫓아 내기 위해 노력했다(Lee: 1984, 7).

아케메네스부터 사산조 후기까지의 고대이란과 극동 사회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다른 이론들과 증거들이 존재한다. 즉, 아케메네스 시대의 무기 및 기술들이 이란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지금의 일본까지 전해졌다는 이론이며 그 결과 일본의 아이누(Ainu) 도구와 금속은 중앙 아시아 쪽에서 전래되었다고 본다(Munro: 1911,413-415).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파르티아와 사산조의 특성을 같은 시기에 가지고 있는 반면, 청동기 시대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극동을 넘어 인도, 이란, 인도유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페르시아와 중앙 아시아의 소중한 유산이 문화, 전통, 언어, 문학, 예술, 음악, 종교적 신념의 구조에서 보호·유지되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가 전해져 내려오듯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지금 시대에서도 볼 수도 있다(Bom Lee: 1981,1-16). 사산시대에는 이란 선박들이 페르시아 만을 통해서 극동 지역으로 물자를 이동시켰고 이란의 해상 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산시대의 이란-베트남간 수로를 언급한 중국 문헌이 존재한다. 아마도 사산의 해양 사업은 중동에서 서기 4세기때 시작했을 것이다. 즉 그때 이란 상인들이 이란과 인도에서 중국과 베트남 항으로 물품을 운송하였을 것이다. 그 때부터 서기 589년 소이(Sui) 통치 시기까지 이란 선원의 베트남 항구 출현이 보고되었다. 왜냐하면 선원들의 출입국이 당나라 통치 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란 선원들의 얼굴과 큰 코에 대한 언급이 중국문헌에 적혀있다. 그들은 단단하고 질이 좋은 베트남 목재를 사용하여 집과 선박의 제작 및 수리에 사용하였다(Schafer: 1967,180198,174). 사산조 때의 이란 선원들은 참파(베트남의 항구 이름) 지역인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랍인의 침략으로 인해 이슬람 출현 후 이란을 떠나 참파에 가기로 결정하였을 거라 추측한다. 이슬람 기록에 의하면 이란인들이 서기7세기에 참파로 이민 간 것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Bruce: 1996,8).

파르티아 시대, 페르시아 만의 무역은 이란인과 아랍인들의 영향 하에 있었고, 스키타이가 인도를 지배했을 당시 스키타이 상인의 인도항 출현은 파르티아인들의 인도양 해상 무역 강화를 가능케 하였다. 스키타이 왕국이 인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 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발루치 스탄(Balochistan), 칸다하르(Kandahar), 스키타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였으며, 결국 인도-스키타이 곤도파레스(Gondophares) 왕정이 시작된 후 서기 1세기 때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파르티아 선원들이 무역 수로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후에 사산 선원들이 페르시아 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

으며, 그 시대의 무역 즉,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시작되었다. 파르티아 사람들은 중국 계피, 약초, 잎 오일, 동물 가죽, 보석 등을 사고 팔았으며 실크 거래는 서기 3 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Warrington: 1974,2,30,55). 한국 사람들 역시 중국을 통해서 고대 이란의 고원식물인 카프카즈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식물의 라틴명은 “Medicago”로 개자리속이다. 신라 시대 때 한반도에서는 이를 말의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왕국에서 직접 관리하여 재배까지 하였다. 한국어로 “윤자목수스”라고 불렀다. 언어학적으로 그 이름은 이란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란어로는 “무수(Musu)”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말 먹이뿐 만 아니라 약초,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 식물과 다른 문물들이 고대 이란에서 한반도로 전래되었다고 한국 역사책 삼국사기에 기록되었다(Lee: 1981,1-16).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서기 9세기 중엽에 무슬림 상선이 한국항에 정박했다고 언급했고, 아마도 서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성(Yesong) 강쪽에서 오고 개경 근처에 최종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Nahm: 1993,76). 역사 기록과 고증에 따르면, 사산 시대 이외에도 중국에 도착한 적이 있었고, 서기 8-11세기 사이에 이란 사람들은 파르스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으로 계속 이동하며 양주, 루양, 광저우, 항주 등과 같은 무역 대도시에서 주요 소수민족을 형성했다(Schafer: 1985, 1320).

Siraf 항과 Kharg 섬에서의 고고학 발굴

Siraf 또는 Taheri 항은 페르시아 만 Bushehr에서 남동쪽약 230 km, Abbas 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 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Siraf 유적은 제임스 모리에르 (James Morier)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Morier: 1812,51).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Siraf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서기 850년에 “이븐 파기”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그 보고서에는 이란과 인도간의 무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한다.

솔로몬 왕국의 대교역 시기에 쓰인 보고서에는 중동의 물자와 생산품들이 siraf를 통해 중국으로, 무스카트를 통해 켈론과 말라바르로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그로부터 50년 후 Siraf 상인인 “아부 사이드 시러피”는 Siraf 상인들을 제다, 홍해 그리고 잔지바르 등지에서 보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중국 동전으로 거래했다고 언급하였다. Siraf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은 화이트 하우스 박사의 주도로 1966~1973년에 이루어 졌다(White House: 1966, 18).

사산조 말엽부터 약 11세기까지의 잔존 건축물들을 통해 당시의 설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발견은 과거 Siraf항이 “해양실크로드”의 주요 핵심 채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량의 주화들 (총 949개)이다. 이는 멀게는 아케메네스부터 11세기 후대까지의 이란의 광범위한 교역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부사이드의 일 칸국(Ilkhanate Empire) 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보물인 7-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청동 주화들이 발견되었다. 주화 중에서도 중국 주화들은 특히 상당히 주목할 만

한가치가 있다. 이 주화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발견된 지역은 주거지 F이며, 발견된 보물 중에는 60개의 청동 주화를 포함해 당제국 621년때의 역사를 보여주는 두 번째 보물인 “가이유언 (Kaiyuan)”, 그리고 송 나라 1265년의 주화들이 있었다(White House: 1969,48). “위안” 제국 시대의 어떠한 주화도 발굴되지 않을 정도로 주화 생산이 급격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기 15세기 초 명나라가 중국 화폐 유통성 감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공식적으로 주화 생산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구리 주화는 중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동전이었다. Siraf에서 발견된 동전들은 주로 가장 강성했던 당, 송 시대의 동전들이다. 당 나라는 서기 618년 세워졌다. 당 나라는 중국 역사 상 최고의 제국이었다. 가장 유명한 통치자인 “당 태종” 때는 여러 민족을 통합한 통일왕조를 이루었다. 소수 알려지지 않은 인종과 무굴 족은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동 투르크스탄까지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이후부터는 서 투르크스탄에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중국과 이란 국경은 그리 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나라는 서기 907년 멸망하였다. 정치적 혼돈으로 중국 왕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북부 “황 호” 지방까지 점령당했다. 송나라 태조는 강력한 제국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점차 다른 지역들은 독립을 선언했으나, 결국엔 제국을 안정시켰으며 이로써 송 시대의 막이 열리고 그는 서기 976년에 세상을 떠났다. 발견된 대부분의 주화들은 마지막 시대의 주화들이었다. 주화는 중앙에 한 개의 구멍이 뚫린 둥근 모양이다. 이런 주화의 모양은 극동에도 있었으며 이란에서는 오직 술타니에 잔전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의 일 칸국 주화에서 발견된다.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중국인들이 술탄 주화를 편하게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으며 자국의 주화처럼 만들었다. 이런 주화들을 아부자이드는 펠루스라 명칭하며 이들은 일반 구리 주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던 것이었다. 아부자이드의 “시라피 술레이만의 여행기”에는 당시 중국에서 통용되던 이 구리 주화에 대해 적혀 있다: “펠루스는, 일국의 화폐를 말한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어떤 왕국도 펠루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또한 주화 중앙에 실을 넣어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각 펠루스의 1세겔(4.6875g)의 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며, 중국어가 새겨진 펠루스들은 Siraf에도 있었다고 했다(Qasim Begloo: 1385, 133-135).

또한 페르시아 만의 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은 고대 동서양의 문명이 주목한 Kharg 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섬은 “실�크로드 해로” 상에서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길이 8km, 폭 4km의 이 섬은 위치상으로는 Bushehr시 서북부 76km, Gaveh 항에서 35km 떨어져있으며 영토적으로는 Bushehr시에 속한다.

지리 연구에 따르면 약 백만년간 산호섬이던 Kharg섬은 약 1400년전 바다위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부분의 역사 및 지리학자들은 이 섬을 “아라키어” 라고 불렀으며 그 섬은 진주채취, 어업 및 해양 무역으로 비옥한 섬으로 알려졌다. Bushehr 시에서 프랑스 고고학 학자들의 발굴과 4000년 전의 엘람 실험 문자의 발굴은 이 섬의 발굴 가치를 높여주었다. 1950~1959년 Girsham 박사의 관리 하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의 실사 발굴이 시작되었고 아케메네스 시대부터 카자르 조까지 이 섬이 실�크로드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혀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아래의 유물들을 성공적으로 발굴해



내었다: 고대 아케메네스 사원 (시리아 팔미라 건축 양식), 고대 아케메네스 네스토리아스타(Nestorianism) 교회 (사진 2), 이슬람식 건물 및 묘지. 이를 통해 해상 무역로에서의 이란의 예술과 문화가 어느 정도의 역사적 계몽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다(Girsham: 1960, 11-3).

사진 2. 십자의 조각, 하르크 섬, 서기 7세기-8세기
(등록번호: 3307)

이란 국립박물관은 실크로드에서 만들어진 풍부한 예술 작품들과 극동 예술을 담은 하나의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청화백자, 미니어처, 섬유, 다양한 질그릇, 귀중한 유물 조각들을 예로 들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본 논고에 게재된 모든 유물 이미지들은 이란 국립박물관 아카이브 센터 소유의 이미지이다.)

실크 섬유

전해오는 자료들에 따르면 사산제국 시대 말기 경, 사산 제국의 동부 지역인 “무루” 라는 곳에서, 이란과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실크가 생산되었고 이슬람의 지리학자들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이브니 아콜: 1366,171; 아스타흐리: 1368,208). 실크는 (이슬람력 4세기) 북부 지역, 고르건과 다일람에서 생산되었다(여코트 아마위: 1965,49; 지히니:1368,148; 이브니 피키아:1349,78; 코주니: 1366,178). 이슬람력 4세기 이후에도 이슬람력 10세기까지 이란에서 실크 생산이 활발했으며, 위에 언급한 지역 이외에도 몇몇 지역에서 실크가 생산되었다.

이슬람력 7세기에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이란 방문 목적 중 하나는, 일한제국과 협정을 맺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베니스 상인들이 실크를 중국과 이란에서 매입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버르

타와로드: 1308,9; 프트로오프이스키: 1346,64).

베니스 상인들의 이란 진출 이후에, 실크로 된 소중한 직물들이 유럽 전역 및 전세계에 수출되었다. 사파비시대 (Safavid dynasty) 때 정치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실크무역은 더욱 많은 지원을 받아 융성하게 되었다. 실크 무역 붐은 이슬람력 12세기를 전후로 쇠퇴했지만, 실크는 이란 사람들의 삶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3).



사진 3. 실크 카펫, 타브리즈, 이슬람력 10세기 말
(등록번호: 3305)

미니어처

이란 지역의 몽골 지배가 시작되면서, 특히 일한 제국 시대에는, 중국의 미니어처 예술이 이란의 미니어처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삼서르: 1357,15). 중국 회화의 영향도 울퉁불퉁한 형상을 한 나무의 몸통과 열게 드리운 구름을 통해 알 수 있다(라즈완이안: 2536,4).

이렇게 자연주의자들은 나무와 산으로 그림을 채웠고, 이는 회화의 다른 세부사항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ice: 1971,83).

티무르(Timurid Empire)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란에서는 서체 예술과 미니어처 예술이 꽃 피웠다. 서기 1506년, 우즈베크인들이 헤라트를 정복하였고, 이후 이스마일 사파비 왕이 헤라트를 정복하면서 이란 예술의 중심지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사진4).



사진 4. 사냥 모임, 타브리즈 학파, 이슬람력 10세기
등록번호:4208

유약을 바른 도자기

이란 학자들은 유약을 칠한 도자기를 중국 “당” 시대 예술인들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이 도자기들 중 사만 시대의 예술작품이 ‘네이셔부르’에서 발견되었고(할라이: 1345,6-10), 이 도자기들은 이슬람력 2세기 혹은 3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다.

이 종류의 도자기의 기원은 중국의 “Tang sancai”라 할 수 있으며, 당나라 시대(서기 618 ~907) 때 만들어졌다.

이 시대에는 세 가지 빛깔의 도자기들이 중앙 아시아로 수출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중동 지역으로 유



사진 5. 유약을 칠한 도자기 그릇, 네이셔부르,
이슬람력 3세기와 4 세기 (등록번호: 22114)

입되었으며, 특히 실�크로드를 통해 이슬람 세계로 소개되었다. 두 지역의 도예가들은 두 지역의 특징을 섞어 다른 형식의 도자기를 만들었고, 유약을 바르기 전 그림을 덧대는 형식(이 때 이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도자기 요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란의 유명한 도시들 리, 쇼쇼, 시럽, 크로칸 그리고 네이셔부르에서 발견되었다 (사진 5).

에나멜 도자기들

이 도자기들은 (이슬람력 7세기) 셀주크 왕조 (Seljuq dynasty) 시대에 주로 만들어 졌고, 그 시작은 일한 제국(Ilkhanate Empire)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셀주크 왕조”의 영토는 대략 중국 국경에서 지중해(Mediterranean sea)까지였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간의 중개 무역을 활발히 하였다. 셀주크 왕조 시대 도자기 종류 중 하나는 에나멜 도자기 였고, 몇몇 고고학자들은 커션, 레이, 서베를 에나멜 도자기 생산 중심지라고 생각한다 (사진 6).



사진 6. 에나멜 도자 그릇, 커션, 이슬람력 7세기 (등록번호: 22157)

청화백자 그릇

청화백자의 생산과 발전은 일한제국(Ilkhanate) 시대에 이루어졌고 특히 티무르(Timurid) 와 사파비(Safavid) 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로 마샤드(Mashhad), 이스파한(Isfahan), 카산(Kashan), 고르간(Gorgan)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로히 파르: 1381, 49).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는 “명”나라 시대, 티무르 시

대와 사파비 시대때 관계가 좋았으며 그 결과 중국의 청화백자가 다량 수출 되었고 이란에서 유명해지게 되었다 (사진 7, 8).

중국과 이란의 도자제조 기법에는 유약이 사용되었고, 유약을 바르기전 그림을 그려넣었다 (사진9). 명나라 시대 때, 이란인과 아랍인들은 명의 코발트와 도자기 생산 방법을 전수 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청화백자를 만들었으며 이를 “마흐무디 청자”라고 불렀다. 디자인 면에서 10세기와 11세기 때 이란의 도자기 디자인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을 상징하는 모든 작품들, 둘째, 중국과 이란의 문화를 반영해서 디자인한 그릇, 셋째 이스파한 예술 학교의 학풍을 살려 이란 문화를 완전히 반영해서 만든 그릇이다.

압바스 왕은 중국 상인들을 초대해서 중국산 도기들을 가져오라고 독려했다. 그 스스로도 육로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스스로도 많은 그릇을 수집했다. 자신의 도자기 컬렉션을 아르데빌에 있는 사이크사피 무덤에서 발견하였고, 현재 대부분 이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사리커니:1389, 12-15).



사진 7. 중국 청화백자 도자 그릇, 아르데빌, 이슬람력 9세기 (등록번호: 22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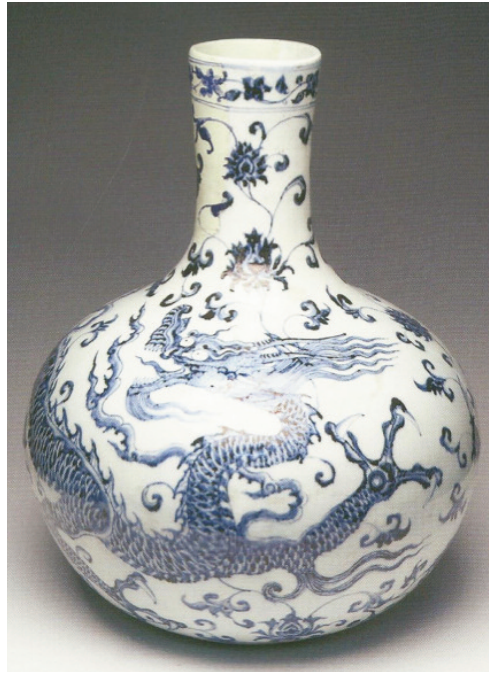


사진 8. 용 그림이 그려진 청화백자 도자 꽃병, 아르데빌, 이슬람력 9세기 (등록번호: 22510)



사진 9. 중국 그릇을 모방한 극동 지역 작품, 이슬람력 10세기 (등록번호: 3615)

커쉬(타일)

일한제국 (Ilkhanate) 시대와 티무르 시대에 걸쳐서 이란인들은 극동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커쉬 (타일) 라는 예술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역사 연구에 의하면 “커쉬”라는 명칭은 커션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따왔을 확률이 높는데, 왜냐하면 커션, 레이, 서베 그리고 네이셔부르는 이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유약을 바른 아름다운 타일들은 일한제국 시대와 티무르 시대에, 인간과 동물, 식물, 명문, 별, 십자형 등의 모양이 새겨졌으며 이슬람 개념과 결합하여 주로 건축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사진 10).



사진 10. 자리인 펴م 그릇, 카산, 이슬람력 8 세기 (등록번호: 22243)

이 시대 작품들은 특히 용 그림 등을 통해 대부분 극동 지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한제국 (Ilkhanate) 시대, 그리고 특히 티무르 시대에는 파란색과 금색 타일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한 제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궁전 중 하나인 ‘타크테 솔레이먼’의 위치는 타간 북부 50Km 거리에 있는 이란 서북 지역이다. 이곳에서 명문이 새겨져 있는, 중국 풍의 귀한 타일들이 발견되었다(사진 11).



사진 11. 파란색 타일, 타크테 솔레이먼 (Takht-e Soleyman), 이슬람력 8 세기 (등록번호: 21723)

페르시아 참고문헌

1. 아부리언 비로니: 1352, 알버키아 작품, 번역 더너 스프샤트, 테헤란: 이브니시나.
2. 이브니 오콜: 1366, 사파르너마, 번역 자파르 샤하르, 지 2, 테헤란: 아미르 카비르
3. 이브니 피키야: 1349, 모크타스르알바던, 번역 아.마수드, 테헤란: 이란 문화 센터
4. 아즈타크리, 아블서이크 이브라이마: 1367, 마셜리크 오 마머리크, 바이트멈, 테헤란: 문화 지식.
5. 하그 바르 자다, 다리요슈; 마지드 서리커니: 1389, 이란 물품 박람회와 실�크로드(이란 국립박물관 자료), 테헤란: 이란 국립박물관.
6. 버르타와로드: 1380, 이란 지리학 역사, 번역 잠자 사르더드와르, 테헤란: 테헤란 조합.
7. 프트로프이스키, 이. 프: 1344, 무굴 시대 이란의 농업과대지의 관계, 번역 카림 키셔와즈, 마슈하드. 아스탄 코드스 라자외.
8. 지허니, 아브카숨 이브니 아마드: 1367, 아슈켈 일엄, 번역 알리 이브니 압들살람 피로지 만소리, 마슈하드: 아스탄 코드스 라자외.
9. 커숨 박로, 모르타지: 1385, 사피 동전, 테헤란: 이란 석유공사.
10. 키르 샤민, 로만: 1339, 카르크 섬, 테헤란: 이란 석유공사.
11. 라즈완이안, 마아드 아산: 2536, "이란 미너처: 시리 가장 좋은 작품", 예수 잡지와 사람들, 51년, 번호179.
12. 할라이, 알리 아크바라: 1345, "아슈나이 버 마주마하이 샤크시", 고고학 잡지, 번호32.
13. 로히 파르, 자라: 1381, "타지아 유약을 바른 Blue-white 도자기 피크시 근거에 의하면", 고고학과 역사 잡지, 번호32.
14. 아우외, 여코트 이브니 모하마드 이브니 마아모드: 1353, 알발라드 와 알하바드의 작품, 테헤란: 파로키.
15. 카조니, 지크리아 모하마드 이브니 마아모드: 1353, 알발라드 와 알하바드 뉴스, 테헤란: 파로키.
16. 화이트 하우스, 디외드: 1384, 사피 항에서 고고학 연구 (터히리 항), 번역 콜람 리자 마수리, 테헤란: 슈로.

라틴 참고문헌

1. Akbarzadeh,D. :2010, "silla, paradise of Ancient Iranians " , Seoul, Korea Republic.
2. Backus, chales: 1981, The Nan-chao Kingdom And Tang Chinas Southwestern Frontier,Preface, p.x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Bruce, A. : 1996, Notes On Early Mosques of the Malaysian Peninsula, Journal of the Malaysian-Branch of the Royal Asia c Society, Volume LXIX, Part 2.
4. Egami, N: 1967, " Na on of a Horse – Riding People", Tokyo.
5. Ghirshman, R. : 1962,Iran Parthes et Sassanides, Gallimard.
6. Grenet, F. : 2005, " The self – image of The Sogdians" Les Sogdiens en Chine, sous la direction de e Vassiere, pp. 13 – 140, Netherlands.
7. Giles, H. : The Travels of Fa- hsien (399 – 414 A.D.) or record of the Buddhistic Kingdom, 1981, Re-Translated, Greenwood Press.
8. Hong,Wontack:1994,Paekche of Korea And The Origin of Yamato.
9. Kim, chewon: Lena Kim Lee: 1974, Arts of Korea,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10. Kim, Jeong-Hak: 1978, *The Prehistory of Korea*, Introduction, p. XXVII, XXX,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1. Kim, Won-Yong: 1983, *Recent Archaeological Discove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nesco, Seoul: The center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12. Lee, Ki - Baik: 1984, *A New History of Korea*, Seoul: Ilchokak Publishers.
13. Lee, Yong - Bom: 1981, *Historic Influences of Arabia and Persia On Korean Culture*, A Symposium on Islamism in Korea, Oriental History Department, Dongguk University.
14. Lerner, J. : 2005, " Aspects of Assimilation: The Funerary Practices and Furnishing of Central Asians in China" , *Sino- Platonic Papers* 168, Philadelphia.
15. Lloyd, A. : 1911, *The Creed of Half - Japan* , London: Smith - Elder.
16. Messina, G. : 1939, *Ayatgar I Zamaspi*, Roma.
17. Miho Museum (Catalogue): 1997, Japan.
18. Morier, J. : 1812, *Journey Through Persia, Armenia And Asia Minor to Constantinople in the Years 1808 and 1809* , London.
19. Munro, N. : 1911, *Prehistoric Japan*, London: Johnson Reprint Corpo (1971).
20. Nahm, A. : 1993,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And Culture* , Seoul: Hollym
21. Ray, Himanshu: 1994, *The Winds of Change, Buddhism And The Maritime Links of Early*
22. *South As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2- Rice, t. : 1971, *Islamic Painting*, Edinburg University Press.
23. Schafer, E. : 1967, *The Vermillion Bird: Tang Images of the sou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4. Schafer, E. : 1985,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2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5- Sheng, A. : 2005, " From Stone to Silk (: Intercultural Transforma on of Funerary Furnishing Among Eastern Asians Peoples around 475-650CE), *Les Sogdiens en Chine*, sous la direc on de E. Vassiere, pp.140-179, Netherlands.
26. Vassiere, E. : 2004, *Histoire des Marchands Sogdiens*, Paris.
27. Warmington, E. : 1974, *The Commerce Between The Roman Empire and India*, London: Curzon Press.
28. White House, d.: 1966,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ies*, V.6. London: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y.
29. White, D.: 1969, *Journal of the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ies*, V. 9. London: British Institute of Persian study.
30. Zhongshu, W: 1982, *Han Civilization*, translated by: K.C.Chang and Collaborators, Yal University Press.
31. Zurcher, E. : 1972, *Buddhist Conquest of China*, Vol. I-II, Leiden.
32. Zurcher, E. : 1995, *Aliens And Respected Guests: The Role of Foreign Monks in Early Chinese Buddhism*, *Trans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astern Studies*, Vol. XI, Tokyo: Toho Gakkai.

토론문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이란문화와 예술의 변영

임영애

경주대학교 교수

1. 이란과 신라의 관계 관련 기록 문제입니다.

이란의 문화가 중국에 전해지거나, 거꾸로 중국의 것이 이란으로 전해진 것은 여러 정황상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지나 더 동쪽으로 신라와의 교류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을 거쳐 다소 ‘중국화된 이란의 문화’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란과 신라의 직접적인 접촉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가 적지 않습니다.

신라와 중국 서쪽 지역의 나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은 9세기 후반부터 보인다고 합니다. 즉 9세기 후반부터 14~15세기까지 17명의 무슬림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20편의 신라관련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이븐 쿠르다드비(Ibn Khurdhādhbih 820~912)의 것으로, ‘중국의 맨 끝 광주의 맞은편에는 많은 산과 왕이 있는데, 그 곳은 바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들어가면 그곳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하고야 만다. 이 나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Ibn Khurdādhbih, Kitābu'l Masālik wa'l mamālik(886), ed. de Goeje M.J., Leiden, 1889, p. 70).’라고 적고 있으며, 9세기 아랍인 사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 마수디(Al Masūdī ?~965)는 신라에 간 아랍인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보석이 일품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문헌기록들은 신라에 대한 소식이 멀리 아랍지역까지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기록으로 인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주된 내용들이 지리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전설적이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많고, 또 신라멸망 후에도 여전히 ‘신라’라고 부르고 있는 점 등에서 체험에 의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왕래하던 아랍상인의 傳聞을 기초로 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연 이 기록을 두고 그들이 신라에 직접 왔고, 나아가 직접적인 왕래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사하람(Shahram)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사시 쿠쉬나메에 언급된 신라 관련 내용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쿠쉬나메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서사시들을 모아 11세기 한 이란학자가 필사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에는 신라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신라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하람(Shahram)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사하람(Shahram) 선생님의 발표문 가운데 3쪽 “한국 최초로 입국한 이란 사람을 “터쉬” 뜻은 “상인”이라는 기록이 있다(Akbarzadeh: 2010,140).”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언급이 어떤 문헌에 어떤 맥락에서 서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초강연2

해양실�크로드와 해양문명의 장기지속과 미래전망

주 강 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해양수산부 해양르네상스위원장

1. 비단 · 도자기 · 향료 · 노예의 융복합적 루트
2. 남중국으로부터 동인도까지의 해양실�크로드 권역
3. 스리랑카로부터 동아프리카까지의 해양실�크로드 권역
4. 해양실�크로드 문명의 미래전망

기조강연2

해양실크로드와 해양문명의 장기지속과 미래전망

주 강 현

제주대 석좌교수 · 해양수산부 해양르네상스위원장

1. 비단 · 도자기 · 향료 · 노예의 융복합적 루트

한국의 경우, 육상실크로드에 비하면 해양실크로드는 덜 주목받았다.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의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 고조는 북방 대륙 침략, 즉 만주 · 몽골 등 유라시아 대륙의 침략과 중앙아시아로의 영토 야망이 계기였다. 그 결과, 일본의 탐사대가 수집한 유물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10년대에 일본인 서역 탐험가 오타니 고이즈(大谷光瑞)가 위구르 지방을 돌면서 수집한 유물이다. 전후에 일본에서 다시 실크로드 붐이 일어난 것은 NHK 방송의 다큐멘터리 방영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도 그 이후에 대중적 관심이 일어났으며, 학술적으로는 본격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육상보다 무역 총량에서 비할 바 없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실크로드는 연구성과가 제한적이다. 동서해양실크로드의 총체적 면모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드물다. 극동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중해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해양실크로드의 방대한 노선은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가 해낼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부아프리카, 지중해,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벵골만, 동남아시아¹, 남중국해 등 권역별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실크로드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는 각 권역이 이루어놓은 연구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축적시킴으로써 해양실크로드의 글로벌적 차

1. Lynda Norene Shaffer, 'Maritime Southeast Asia to 1500', Routledge, London, 1996.

원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사는 흔적을 두루 남기는 육지와 달리 유사무서(有史無書)이기 때문에 역사는 있으나 기록이 제한적이다. 남아 있는 결정적 증거도 오히려 해저에 숨어 있다. 오기는 항구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각 시대를 달리하면서 항구 위치도 변동된다. 중간 기착지가 많을뿐더러 해상루트 자체가 복잡하여 텐산 남북로 식으로 명료하게 그려내기 어렵다. 반면에 도굴꾼 손에 유린당하는 유적과 달리 박물관을 차릴 만한 양질의 물적 증거물이 실린 난파선이 느닷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중고고학의 발달로 탐사가 불가능하던 해역에서도 발굴이 되기도 한다. 파선 재질과 크기, 조선기술, 무역 상품의 종류, 출항 항구 등을 통하여 시대와 지역이 밝혀진다. 선박에서 화물표, 편지 등 문헌자료가 발굴되어 연구사적으로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여러 난파선을 비교 연구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글로벌적 해양실크로드 연구의 끊긴 고리를 하나로 연결한다. 세계사적으로 수중고고학은 아직도 시작 단계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나 지금이나 박래품은 인기 품목이다. 인간은 호기심 많은 동물이고, 그 욕망의 서사는 바닷길을 끝없이 이어지게 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무역선 왕래를 해양실크로드라 명명했다. 로마 귀족이 중국비단을 선호했음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졌으며, 실제로 중국비단은 로마뿐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널리 거래되었다. 비단의 물질적 속성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반면에 해양실크로드에는 상당량의 중국도자기가 남아 있다. 자기의 특성상 난파선에서도 고스란히 발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크로드 대신에 ‘도자의 길’이라고도 부른다. 배에 실린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근거로 볼 때, ‘세라믹 로드’가 비단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무역 총량을 보면 중국의 도자기 수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박래품은 비단, 도자기를 뛰어넘어 매우 다양하다. 향료 무역의 관점에서는 ‘스파이스 루트’이며², 노예무역이 이루어진 인도양에서는 ‘슬레이브 루트’이기도 하다. 고급나무가 거래되는 관점에서는 중국 광둥성-하와이의 백단루트도 존재한다. 문학적으로는 문순의 바람이 만들어낸³, ‘바다의 서사시’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인류문명이 바다에 수놓은 서사의 대하드라마가 바로 해양실크로드였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 해양실크로드라는 명칭을 씀은 이와 같은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한 결과다. 만약에 국제사회가 해양세라믹로드라고 도자기를 내세운다면, 이 역시 틀린 합의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서해양실크로드, 즉 동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와 지중해 초입까지의 노선을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노선은 동서 해양교류의 지극히 고전적인 루트다. 각각의 노선은 각각의 역사를 지닌다.

2. John Keay, ‘The Spice Rou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06, p. 18.

3. Anthony Reid, ‘South 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London, 1988, pp. 1-16; ‘The Message & The Monsoon’, Islam Arts Museum, 2005.

2. 남중국으로부터 동인도까지의 해양실크로드 권역

제1권역. 남중국해권역으로부터 베트남 해역권

동서 해양문명교류에서 양적 질적 중심은 역시 중국 남부다. 난징, 양저우, 닝보 등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푸젠성, 광둥성이 특히 중요하다. 다른 도시들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양실크로드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두 성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광저우의 ‘난하이(南海) 해양실크로드 박물관’은 해양실크로드의 상징이다. 송나라 무역선이 통째로 발굴되어 수중 유물이 쏟아져 나와 해양실크로드박물관 ‘1호 박물관’이란 간판을 달았다. 침몰선에서는 귀걸이·목걸이·반지 같은 귀금속, 은제그릇, 푸젠요(福建窯) 술병과 주발·접시 등 7만 여점의 유물이 나왔다. 푸젠에서 도자기, 금은 세공품, 비단, 차 등을 가득 싣고 양릉도 앞바다를 관통하여 광시성 북해(北海)를 거쳐 오늘의 통킹만을 거슬러 내려가 말라카 해협이나 인도양, 페르시아 등지로 향해하다가 침몰하였다. 선박 재질이 남중국해에서 자라는 소나무임이 밝혀져 광저우·푸젠·광시 등 남중국해에서 건조된 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수중고고학적 성과는 동서 무역선 왕래가 생각 이상으로 활발했음을 말해준다. 남중국해에 당도한 무역선은 내륙운하나 연안해운을 통하여 전 중국으로 이어졌다.

남중국 취안저우·푸저우·샤먼·광둥 등은 중국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지이며,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무역선의 관문이다. 남해무역의 최대 거점으로 이슬람 문명, 기독교 문명 등도 교차하던 무역항이다. 취안저우의 교통사박물관에 소장된 경교나 이슬람 유물은 남방을 통한 국제적 문명교류의 직접적 증거물이다. 취안저우 개원사(開元寺)의 돌기둥은 힌두 양식의 문양이다. 돌기둥에 시바상·코끼리상 같은 인도 문명의 강력한 흔적이 각인돼 있다. 취안저우박물관에는 시바 여신의 남근이 기다리고 있다. 불교는 물론이고 힌두, 이슬람, 기독교 문명이 시차를 달리하면서 남중국으로 스며들었다.

취안저우는 송대 이후 최대의 무역항으로 급부상했다⁴. 수출품은 비단·도자기·문방구 등 광범위했지만 도자기가 으뜸이었다. 동남아시아·인도는 물론이고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자기를 수출했다. 원(元)대에 들어와선 취안저우 상인이 아라비아반도,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동부와 인도대륙과 동남아 일대로 진출했다. 해상무역이 번성하던 남송(南宋)시대 조여괄(趙汝适)이 지은 지리서 『제번지(諸蕃志)』엔 “대식인(大食人)이 취안저우 서북에 산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식인은 아랍인을 뜻하는 말로, 당시 아라비아 상인을 비롯해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무슬림 상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돼 있었음을 환기시킨다. 훗날 명(明)에 의해 바닷길을 통제하는 이른바 ‘해금(海禁)’ 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송·원대까지 취안저우는 글로벌 해양문화가 꽃피웠던 중심지였다.

4. 中國航海學會·泉州市人民政府 編, “泉州港與 海上絲綢之路”, 北京, 2002.

푸저우 창리 시내에 일명 정화공원이 있다. 해양실크로드 대원정(1405~1433)에 나섰던 명나라 환관 정화(鄭和)가 제4차 항해 중인 1412년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정화는 놀랍게도 1405년부터 28년간 7차례나 대항해에 나섰다. 인도양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아프리카 동부 연안까지 다녀왔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보다 90여 년을 앞선 대항해 성공 기록이다. 정화는 서역에서 중국 윈난(雲南)으로 이주해 온 무슬림 출신이다.

푸젠성은 오늘날 동남아를 비롯,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화교의 뿌리’ 격이다. 진(秦)·한(漢)시대 월(越)족이 푸젠 지방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민월(閩越)이라 불렀다. 월의 수도였던 푸저우 박물관 전시물 중 상당부분은 민월인의 풍습과 관련된 유물들이 차지한다⁵. 민월인은 북방에서 내려온 한족과 다르다. 배를 능숙하게 다루고 바다로 무서워하지 않아 끊임없이 바다로 진출했던 민족이다. 오늘의 베트남을 월남(越南)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 월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중국 대륙의 남쪽 변방엔 한족과 다른 강인한 해상세력이 웅거했음을 증명한다. 화교의 다수는 민월 지방 출신이다.

항구도시의 장기지속과 단기지속이 번갈아 진행되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오늘날은 한가롭게 변한 광시 자치구의 북해(北海)는 한나라 때 베트남해역으로 진입하는 중요 항구였다. 마조신앙의 메카로 불리는 푸저우성의 메이저우섬(湄州島)은 오늘날은 신앙의 성소일 뿐이다. 그러나 해양무역이 번성하던 송나라에서는 주요 항해 요충지였다. 마조는 ‘선원의 수호신’이다. 순풍을 불게 하여 뱃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조는 중국 해안가의 절대신이다. 중국 남부사람들이 동남아시아 등 각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마조도 함께 갔다.

베트남은 중국과 오랜 세월 대립항쟁을 거듭해왔다. 베트남 해역권은 중국과 무관하게 독자적 발전을 걸어왔다. 그러나 역시 남중국으로부터의 남진, 동남아로부터의 북진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었다. 중부지역 다낭 근처의 호이안은 오랜 중개무역지였다⁶. 인근에 참파문명의 거점이 자리 잡았다. 참파문명에는 인도문명의 요소가 결합하여 있다⁷. 호이안에는 중국인 집단거주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슬람 도자기 등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남방 이슬람 상인도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호이안은 동남아 일대에 베트남 도자기를 수출하는 전략기지이기도 했다.

고대문명사적으로는 메콩 델타의 푸난(Funan)문명의 본거지 옥에오(Óc Eo)가 중요하다. 푸난은 일찍이 중국 『한서』에 등장한다. 오(吳)나라 사신 강태(康泰)와 주응(朱應) 등의 방문기록도 전해온다. 메콩 델타를 중심으로 넓게 퍼진 푸난의 성립연대는 1세기 무렵이다. 중국 사서에는 부남(扶南)으로 등장한다.

로마인이 동남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인도와 동남아 사이에 정기 무역 루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인도 상인도 동남아로 진출하여 중국의 풍부한 시장을 만끽하고 있었다. 여기서 푸난은 어떤

5. 福建博物院 編, ‘Splendor of Maritime Silk Road’, 福建教育出版社, 2013.

6.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cient Town of Hoi An’, Glol,Ha-Noi, 2003.

7. Andrew Hardy, ‘Champa and the Archaeology of Ny Son’, Nus Press, Singapore, 2009.

역할을 했을까. 안다만해에서 말라카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오가던 노선은 5세기경에야 본격 가동된다. 초기 동서무역에서 인디아선박은 말라카해협보다는 말레이반도 서쪽 해안에 닿았다. 태국 남부에서 말레이반도를 관통하여 동서 바다를 연결하는 크라지협(Isthmus of Kra)의 수로가 동서교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타일랜드만을 가로지르면 곧바로 메콩델타에 닿으며, 강을 따라 옥에오에 고대항구도시가 성립되었다. 말라카해협을 관통하여 싱가포르를 돌아서 중국해 쪽으로 진입하는 항해루트는 더 후대에 설립되었다.

푸난은 단순히 유럽과 중국의 동서교류 중개지만을 뜻하지 않았다. 인도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메콩강가를 지나가던 배에서 내린 브라만 카운딘야(Koundinya)가 토지신 나가(naga)의 딸인 소마(Soma)여왕이 지배하는 메콩델타에 당도한다. 둘이 결혼하여 마침내 푸난왕국을 만든다는 개국신화는 외래와 토착세력의 결합을 뜻한다. 호치민역사박물관에서 만난 옥에오 석상의 대부분이 불교와 힌두 혼재양식임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박물관에는 푸난왕국의 산스크리트 비문도 전해온다. 헬레니즘과 로마양식의 요소를 가진 간다라미술도 옥에오에 영향을 미쳤다. 불교와 힌두, 그리고 그리스양식이 융합적으로 메콩강에서 만나 새로운 해양문명을 만들어냈다.

제2권역.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해역권

해양문명사에서 중요한 해협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아프리카 북서부와 유럽 서남부 꼭짓점을 연결하는 지브롤터해협으로 그리스시대부터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불리며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해온 전략 요충지다. 동양권에서는 단연 말라카(Malacca)해협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켜, 마침내 유럽의 서진과 동양의 동진이 교류·충돌·융합한 해협이다.

말라카해협의 해양문명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말라카만으로는 부족하다. 말레이반도 북단에 훗날 영국인이 본격적 거점으로 만들어낸 인도양 길목 페낭(Penang), 남단의 태평양 관문 싱가포르⁸, 무엇보다 해협 건너편 수마트라의 메단(Medan)과 팔렘방(Palembang), 수마트라 북단의 반다 아체(Banda Ache)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들 도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해양문명 자체가 항구도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협의 본질은 ‘통로’이며, 통로의 본질은 ‘흐름’이며, 흐름의 모든 과정은 ‘융합’일 수밖에 없다. 해협의 이러한 전 과정을 종교만큼 잘 말해주는 문명 요소도 없다. 말라카해협 일대는 온갖 종교가 정착, 육성, 실험을 거듭한 ‘종교박람회장’이다.

본디 7세기~11세기에 걸쳐 중국과 인도 사이의 동남아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스리위자야(Sriwijaya)왕국(683~1025)이 말라카해협을 장악하고 있었다. 왕국 수도는 해협 건너편 수마트라 팔렘방·말라카해

8. John N. Miksic, ‘Singapore & The Silk Road of The Sea 1300-1800’, National Museum of Singapore, 2015.

협·순다해협을 포함한 수마트라, 킬리만탄, 서부 자바 등이 모두 관할 구역이었다. 중국과 인도로 가는 정기 항로가 개척되었고,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시키고 있었다.

중국 승려 의정(義淨, 635~713)이 서역으로 가는 길에 팔렘방에 당도했을 때, 불경 번역 등 국가적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리위자야는 바다로 전래된 남방불교의 완전한 불교왕국이었기에 중국명으로 삼불제(三佛齊)였다. 스리위자야를 이어서 해상권을 장악한 마자빠히트(Majapahit)왕조(13~16세기)는 불교·힌두신앙을 믿었다. 향료시장이 커지면서 차츰 차츰 말라카가 주목을 받자 마자빠히트는 몰락한다.

이슬람이 인도양을 가로질러 수마트라와 말레이반도에 당도하면서 사태가 바뀐다. 14세기 무렵, 무슬림이 주도하는 말라카왕국이 성립된다. 동남아 해상주도권이 말라카로 넘어간다. 말라카 무역망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동부아프리카, 페르시아, 지중해, 일본까지 닿고 있었다. 식량과 주석, 금과 후추 등 온갖 박래품이 중계무역도시인 말라카를 통해 거래되었다. 말라카왕국 성립 당시의 동남아 패권은 시암(태국)이 쥐고 있었다. 시암은 불교왕국으로 신흥 말라카와 동남아해상무역 패권을 놓고 경쟁했다.

말라카 바바노나박물관에 가보면 다인종 징표가 한 눈에 다가온다. 말레이반도 전체가 융복합적 혼합의 상징적 매개지임을 암시한다. 중국인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이주해온 뜻을 담은 청윈팅(靑雲亭, 1673년) 사원은 항해가 정화를 모셔놓았다. 정화 함대는 말라카를 통해 일곱 차례 대원정에 나섰다. 해협을 오가면서 무력시위를 벌여 시암을 견제하고 말라카왕국이 국제무역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중국 무역상인은 수마트라의 후추를 사들여 부를 축적했고, 함대는 해협의 해적을 청소해 항로의 안전을 확보했다.

말라카 네덜란드광장의 박물관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 국기와 인물 모형이 순서대로 서 있다. 말라카를 식민지배했거나 일시 점령했던 나라다⁹. 가장 먼저 당도한 나라는 역시 포르투갈이다.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1498년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지 불과 20여 년 뒤인 1509년, 아폰수 드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가 함대를 이끌고 말라카를 점령한다. 사티아고 요새의 포르모사(Formosa) 정문이 그날의 역사를 웅변한다. 말라카에는 어쩌면 이들 포르투갈보다도 훨씬 전에 당도했을 인도 상인과 말레이 여인이 결합하여 후손이 이어져온 캄퐁 치티(Kampung Chitty) 공동체도 존재한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사 역시 말레이반도와 연동되어 있다. 세마랑에 삼포공(Klenteng Sam Poo Kong, 三保洞) 사찰이 있다. 1405년에 자바에 당도했고 이슬람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정화함대가 세마랑을 찾는다. 오늘날 정화는 거대 규모로 성역화되었다. 정화 함대가 세마랑을 통해 자바로 들어선 역사가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되어 전승되었다는 증거다. 또한 중국에서 자바에 이르는 항해루트가 일상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다. 함대는 세마랑에서 수마트라 팔렘방을 거쳐 말라카해협으로 떠났다. 세마

9. Victor T.King, 'Unesco in Southeast Asia', Nias Press, Copenhagen, 2016, p.140.

랑의 차이나타운이 고색창연한 이유는 정화함대로부터 근 6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 때문이다. 세마랑에는 VOC(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물류창고가 즐비하다. 술라웨시와 말루쿠 등지에서 수집된 향료들이 세마랑으로 집결했고, 다시 유럽으로 향했다.

세마랑의 계통 송고(Getung songo) 힌두사원과 데막(Demak)의 아궁(agung) 이슬람사원은 두 종교가 자바섬과 맺은 깊은 관련성을 말해준다. 해발 1000여 미터 고지에 자리 잡은 계통 송고는 8세기경에 비슈누와 시바에게 받쳐진 사원군이다. 인도로부터 거침없는 힌두문명의 물결이 자바 북부까지 미쳤다는 결정적 증거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족자카르타의 프람바난(prambanan) 힌두사원과 연계된다. 세마랑 시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데막은 지금은 내륙으로 들어와 있으나 본디 해안가였다. 이슬람이 처음 자바섬에 상륙한 지점이다. 마자파히트 힌두왕국이 멸망하고 자바가 무슬림사회로 변한 역사적인 장소다. 그리하여 1466년 자바섬에서 가장 오랜 아궁사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이슬람이 포교된 곳은 아체다. 아체는 플라카해협을 통한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들어오던 길목이며, 향료무역의 길목이며, 온갖 침략과 전쟁의 길목이기도 하다. 아체는 후추(pepper)의 땅이기도 하다. 많은 후추가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도 건너갔으며, 일부는 한국으로도 건너왔다.

인도네시아 후추의 본산은 말루쿠해역이다¹⁰. 술라웨시 주도인 마카사르는 동인도네시아의 관문으로, 네덜란드는 이곳에서 동서 물류를 관장했다. 중간지대에 집산처를 만들어 유럽으로 향료를 실어 날랐던 전략적 거점이었다. 말루쿠 암본은 비교적 큰 북부와 작은 남부로 이어지는데 북부는 대체로 이슬람권, 남부는 기독교권역이다. 문명의 충돌이 격심했음을 증거한다. 암본은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하다. 포르투갈의 암본 첫 정착은 1521년이다. 동방에 천주교를 처음 퍼뜨린 프란체스코 사비에르 신부는 암본을 거점으로 삼았다. 사비에르는 암본을 거쳐서 남방향로를 통하여 일본에 천주교를 전파하였다.

말루쿠는 육두구(肉荳蔻, nutmeg), 정향(丁香, clove)의 본산지였다. 페스트 등 역질이 돌 때마다 향료는 그 신비로움이 부풀려져 만병통치약으로 신비화되었으며 금값에 거래되었다. 동방에서 중동을 거쳐 베네치아로 집결되어 전 유럽에서 유통되는 이들 향료가 어디서 오는지 유럽인은 알 길이 없었다. 머나먼 동쪽에서 온다는 신화가 유럽에 널리 퍼졌고, 황금을 가져오는 향료를 찾아서 동쪽으로 배를 몰게 했다. 마침내 포르투갈 선단이 동방을 경략하여 배에 향료를 가득 싣고 귀환한다. 수백 년 간에 걸친 베네치아의 독점시대가 포르투갈 때문에 막을 내린 것이다. 포르투갈은 1605년 신흥 네덜란드에 의해 축출된다. 그 다음 암본에 들어온 영국 상인도 VOC에 의해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1623년 이른바 ‘암보니아 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제3권역. 벵골만 해역권

10. Giles Miton, 'NATHANIEL'S NUTMEG', Thinking Tree Publishing co, London, 2002

미얀마 항구는 기본적으로 해항(海港)이 아니라 강항(江港)이다. 미얀마의 강은 동고서저에 따라서 쪽 뱅골만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북서쪽이 고산준령으로 가로막힌 미얀마는 전적으로 뱅골만 영향권이다. 뱅골만은 곳곳에 삼각주를 형성하고 안전 항구를 만들어내는 천혜 요충지다. 북서부 라카인 주에는 미얀마 해양사의 숨겨진 보고가 숨겨져 있다¹¹. 라카인은 역사적으로 아라칸이라 불리던 무슬림의 땅이다. 프라옥 우는 1430년부터 1784년까지 354년간 위대한 라카인의 수도였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무라옥 우 역시 강항도시였다. 도시가 개설되고 얼마 되지 않아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들어온 흔적이 남아 있다. 무라옥 우의 고고학박물관에서 포르투갈 유물을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일종의 자유무역항이었다. 17세기에 이 강항도시를 찾았던 예수회 수사 파리나(A. Farinha)는 ‘제2의 베니스’란 헌사를 바쳤다. 궁궐 남쪽의 강변에는 다인지 팻이라 부르는 유럽인 집 단거주지가 존재했다. 옛그림에서는 높고 기다란 성벽, 솟구친 궁궐과 사찰 건물들, 강가에 밀집한 엄청난 규모의 살림집, 코끼리부대, 심지어 낙타 떼까지 보인다. 외국인 거주지로 보이는 앞의 주택군을 부각시킨 이 그림에서 ‘제2의 베니스’ 헌사가 ‘허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강항도시는 인도와 아랍의 강력한 영향도 받고 있었다. 무라옥 우 고고학박물관에서는 시바여신의 남근을 두루 만날 수 있다. 아랍계 유리와 타일도 꽤 많다. 이슬람세력은 라카인 해안으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 이 일대까지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 박물관에서는 중국 수입도자기도 다수 눈에 들어온다. 뱅골만에 힌두, 불교, 이슬람, 아랍, 중국문명의 중첩적으로 교차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재미있는 것은 쇼군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포르투갈 사람을 따라 망명해온 나가사키의 사무라이들이 한때나마 국왕의 호위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왕국의 위엄 내세우기용으로 이국적 사무라이를 경호부대에 편성했다. 무라옥 우 전성시대인 민빈방(1531~53)은 1만 척 해군함대를 거느리며 뱅골만과 오늘날의 양곤 앞바다인 마르타반(Martaban)을 지배했기에 이러한 국제적 경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바다로 연결된 강을 따라 곳곳에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이 흔적을 남겼다. 무라옥 우 앞에 다나와디(1~6세기), 웨탈리(3~11세기), 렘로(11~15세기) 세 왕조가 초석을 깔았다. 무라옥 우를 포함한 이들 네 왕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융합으로 역사를 전개해나갔다. 이후 만달레이 중심의 미얀마왕국에 포섭되어 이른바 불교국가로 이름이 나게 되었으나, 그 근본은 역시나 해양문명의 본질이 의미하는 중첩적 세계였다.

문명사적으로 뱅골만은 대륙과 해양문명이 충돌하는 경계선이다. 역사적으로 고대와 중세까지는 북방 대륙문명, 15세기 이후에는 바다로 들어온 해양문명의 압력이 이 지역에서 충돌했다. 뱅골지역은 ‘두 강의 땅’으로 압축 묘사된다¹². 두 강은 갠지스를 뜻하는 강가(Ganga)와 브라마푸트라를 뜻한다.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갠지스 강에는 힌두교뿐 아니라 자이나교·불교·시크교 등의 성지가 즐비하다. 티베

11. BHONE TINT KYAW, ‘The Ancient History of PYU-BYAMMAR before Anawrahtar’, U Kyaw Zin, Yangon, 2015.

12. Nitish Sengupta, ‘Land of Two Rivers’, Penguin Books, India, 2011, pp.3~15.

트에서 발원하여 갠지스와 합류하여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브라마푸트라 강도 ‘신의 자식’으로 불린다. 강이 바다와 만나서 비옥한 삼각주를 만들고, 마침내 벵골만은 ‘고대문명의 종착역’이 되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주요 교통수단이 선박이며, 뱃길이야말로 생명줄이다. 고대와 중세에도 사정은 같았다. 벵골은 강과 바다로 연결 지으며 문명의 동맥을 이어갔다. 다카 역시 초기 문명은 불교 혹은 힌두교 영향권이다. 8세기 중엽에 북방에서 내려온 팔라 왕조가 세워졌고 불교가 번영했다. 터키족 침략으로 가우르(Gaur) 왕조가 설립되었고, 이후 이슬람이 확산되었다. 벵골만의 힌두와 불교왕국은 마침내 이슬람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¹³.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의 나라로만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곳 역시 힌두와 불교의 땅이었다.

다카에는 국가사원으로 지정된 천년을 뛰어넘는 다케스와리(Dhakeswari) 힌두사원, 벵골의 실력자 후세인 사(1493~1519)와 연결되는 후세인 달란 이슬람사원(1642년 건립) 등이 병렬로 존재한다. 무굴제국에서 세운 랄바그 요새(1677년 건립 시작)에 보관된 이슬람 도자기와 타일, 중국 도자기는 동서의 만남을 증거한다.

벵갈인에게 벵갈(bengal) 혹은 방글라데시(bagladesh), 방가데시(bangadesh)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을 일컫는 같은 표현일 뿐이다¹⁴. 벵갈은 고전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할 정도로 오랜 명칭이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벵갈 모어권은 영어, 스페인어, 힌두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음으로 세계 6위다. 무려 2억 5000여 명이 벵갈어를 쓰며, 주로 방글라데시와 서벵갈주·아삼주 등 인도 여러 곳에 거주한다. 2억 5000여 인구가 강과 수로와 바다로 얽혀져서 하나의 거대 문명으로 존속해왔다. 적어도 분리 독립의 불씨가 마련된 1911년, 국제정치적으로는 완전 독립이 이루어진 1947년까지는 ‘하나’였을 뿐이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은 일명 힐이라 부르는 구릉과 산이 길게 이어지는 해안으로 이어진다. 치타공은 벵골만에서 카르나폴리 강을 약간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는 항만 도시다. 중국이 산맥을 넘어와 바다로 나가는 ‘일대일로’의 출구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아랍·포르투갈의 선박이 기항한 벵골만의 양항이다. 포르투갈이 고아에 도착한 1510년, 고아 말고도 몇 개의 항구 거점을 설정했다. 치타공도 그때부터(1517년) 서구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1534년 고아 총독은 5척 200여 명의 군대를 보내어 치타공을 거점으로 벵갈과의 무역을 도모했다. 그때 최초로 정착촌이 만들어진다. 포르투갈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이 들어왔다.

비행기로 한 시간여 거리의 콜카타, 양곤, 다카는 각각 다른 종교를 ‘국교’로 믿는 국민국가 시스템에 결박되어 있다. 힌두와 불교와 이슬람은 벵골만 트라이앵글을 규정짓는 경계이고, 철학이며, 존재근거이기도 하다.

캘커타(Calcutta)는 2001년에 들어와서 콜카타(Kolkata)로 공식적으로 바뀐 도시다. 도시 명칭에 깔리어신이 숨겨 있기 때문에 콜카타는 ‘깔리어신의 항구’로 불리기도 된다. 4/5를 차지하며 깔리를 숭상하는

13. Richard M. Eaton, ‘The Rise of Islam and the Bengal Frontier 1204-176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93.

14. Nitish Sengupta, ‘History of The Bengali Speaking People’, UBSPD, Kolkata, 2014.

콜카타 힌두 틴새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자이나교도와 불교도, 시크교도는 소수자다. 깔리여신이나 시바여신은 워낙 스케일이 커서 종교 차이나 다툼 따위는 관여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속세의 힌두들 사정은 다르다.

콜카타는 어쩔 ‘인도의 운명’을 바꾼 도시 중의 하나다. 영국이 인도와 만나면서 벵골의 운명이 바뀌었고, 콜카타는 어느덧 벵골의 중심이 되었다. 콜카타는 당연히 인도에 속한다. 그러나 콜카타 사람들은 ‘인도보다 벵골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남인도가 확고부동의 타밀나두 정체성이라면, 콜카타는 인도 이전에 벵골이다. 깔리도 원래 벵골에서 숭상하던 여신이다.

벵골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벵골문예운동은 콜카타를 현대 인도문학과 예술사상, 인쇄와 출판, 레크리에이션 등의 본산으로 만들어냈다. 서점이나 공공건물 곳곳에서 마주치는 시인 타고르는 단순히 시인만이 아니었다. 벵골사람 타고르는 1937년 벵골 전통음악과 춤을 현대적으로 결합시킨 킴퍼런스를 창조해냈고, 그 전통은 지금껏 이어온다. 그리하여 벵골만의 독특한 문화가 창조된 것이다. 덕분에 벵골만에서는 벵골어·영어·힌디어·우르두어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양실크로드 문명사에서 볼 때도 항구도시 콜카타의 ‘탄생’은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다. 1601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제1차 동방항해 때, 아시아에 보낼 선박 역량은 고작 5척 수준이었다. 1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으로, 200년 후에는 광대한 대륙을 차지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동인도회사는 1857년에 일어난 일명 세포이항쟁으로 인도 통치권을 잃고 해체에 내몰렸지만 무려 250여 년이나 존속했다.

영국의 콜카타를 통한 벵골만 지배는 해양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라비아해는 전통적으로 아라비아 상인의 주무대였다. 인도 남서부 캘리컷 등 말라바르해안에는 끊임없이 아라비아 상인이 들이닥쳤다. 남동부 코르만델 해안은 상대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저평가되던 지역이다. 더군다나 북방 벵골만은 ‘무주공산’까지는 아니어도 아라비아상인 같은 확고부동의 해상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 동남아와 중국의 바닷길이 미치지만 강력하지 못하였던 공백지대다. 무굴제국은 방대한 영토와 그로 인한 수입이 확보되었지만 해양 인식은 저급하였다. 영국의 벵골만 장악은 이 모든 공백을 가로채는 독점세력의 출현을 뜻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벵골만 콜카타를 기반으로 동쪽으로 나아갈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셈이다.

벵골의 콜카타는 미얀마의 양곤, 말레이시아의 페낭, 플라카,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해양벨트가 완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쪽에서 동쪽을 들이치는 거대한 원동력이 1772~1912년 옛 영국령 인도의 수도 콜카타에서 나온 것이다¹⁵. 벵골만은 고대로부터 ‘미얀마-윈난성-쓰촨성’으로 이어지는 육상루트와도 연결되었다.

인도 남동부는 타밀나두 해역권이고, 그 중심은 열려진 창구인 첸나이항구다. 북방 유목민 아리안 족

15. Michael Edwardes, 'British India 1772-1947', Rupa, New Delhi, 2011.

이 밀어닥쳐 원주민 드라비다인을 남쪽으로 세차게 밀어냈다. 오늘날 카스트제도의 근간이 그로부터 기초가 다져졌을 것이다. 남쪽으로 밀린 드라비다인은 역사적으로 '반 힌디적'이다. 마침내 1950년대 후반에 드라비다 나두(드라비다인의 고향)를 만들어냈다. 타밀호랑이 등 분리주의 깃발은 사그라졌지만, 힌두어 대신에 타밀어(Brahmi)를 쓰는 등 타밀의 자부심은 여전하다. 이미 2세기에 독자적인 타밀어가 쓰이기 시작했으므로 사실상 힌두어와 무관한 언어권역이다.

첸나이는 전설의 예수제자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헌정하고 있다. 도마는 파르티아제국의 국제적 교역망을 통하여 오늘의 첸나이로 들어왔다. 고대사적으로 첸나이 일대는 미라포레(mylapore)라 불리던 오랜 항구다. 그레코-로만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2세기)가 이 항구를 언급했으며, 인도양을 가로질러 무역에 종사하던 아랍인은 '로마인 타운'이란 뜻으로 베투마(Betumah)라 불렀다. 1293년 마르코 폴로도 도마성지를 방문하여 경배를 드렸다. 4세기에 기독교 국교화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인된 공관과 달리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외경으로 밀려난 도마복음이 이곳까지 전파되었다. 도마는 이미 로마-인도와 연결되던 당대 항로를 손쉽게 이용했을 것이다.

코르만델 해안의 고대 동서교류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는 의외로 많다. 첸나이에서 해변을 따라 90여 분 달리면 마하발리뿌람에 당도한다. 빨라바 왕조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이곳도 한때 인도의 중요 무역항이었다. 오늘날 동남아에 뿌리내린 인도문명의 흔적은 이 지역 사람의 대항해 결과물이다. 심지어 인근에는 폰티체리 같은 프랑스 식민지까지 있다. 그만큼 외국과의 교섭이 많았던 전략적 해안이라는 뜻이다. 폰티체리는 프랑스가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완전한 무역도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폰티체리는 코르만델 해안의 '아시아의 열린 도시'였다. 중국, 말레이반도, 페르시아, 아프리카, 몰루카 도서들과 무역거래를 했다. 농산물, 쇠 등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비단, 금, 은, 아라비아에서는 말, 몰루카제도에서는 향료를 들여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폰티체리를 'Podoke'로 언급했다. 강 언덕에서 로마시대의 주거지도 발견되었다. 폰티체리 박물관에는 로마시대 동전이 줄지어 전시되고 있다. 폰티체리가 프랑스 식민화를 포함하여 오랜 국제적 장기지속의 항구도시였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식민지화는 해양실크로드의 교역의 주도권이 뒤바꾸는 충격이기도 했다.

3. 스리랑카로부터 동아프리카까지의 해양실크로드 권역

제4권역. 서인도와 파키스탄 해역권

스리랑카 남서부의 네덜란드 식민항구 곶의 해양박물관에는 거대한 둥근 돌판에 지도가 각인된 만다라가 있다. 스리랑카를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한 만다라 형상의 고지도다. 일찍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할 정도의 고대적 해양관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다. 스리랑카는 실제로 항로의 한가운데에

있으므로 ‘세상의 배꼽’ 이자 ‘항로의 허브’다. 진주를 귀하게 여긴 아랍 상인들은 스리랑카를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불렀다.

스리랑카 전통선박은 현외(舷外) 장치가 달린 아웃리저(outrigger)다. 아웃리저는 인도네시아 발리나 마이크로네시아에서도 발견된다. 선박 구조로 볼 때, 동남아와 태평양과 상관관계가 있다. 중부해안 서쪽의 콜롬보 항구에서 만난 배는 다르다. 인도양에서 보편적인 삼각돛 다우(dhow)이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서부해안은 아라비아의 강력한 자장권역임이 확인된다. 이처럼 스리랑카는 동서를 모두 흡수한 융복합 해양문명의 중간지대로 파악된다. 가히 세상의 ‘배꼽’ 이자 ‘진주’다.

유럽 지도에 스리랑카만큼 일찍 등장한 아시아의 섬도 없다. 유럽 스리랑카 해양실크로드의 비밀을 알려면 비엔나국립도서관에 가서 포이팅거(Peutingger)라 부르는 두루마기 지도를 펼쳐보면 된다. 12세기, 혹은 13세기 초반 로마제작 도로지도다. 고지도 전문가들은 1세기경 제작 지도를 4세기경에 다시 만들고, 중세에 복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아일랜드와 영국으로부터 스리랑카에 이르는 방대한 여정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적어도 2000여 년 전부터 유럽인이 스리랑카에 이르는 노정을 파악했다는 결정적 증거물이자 해양실크로드의 고대적 실체가 확인된다¹⁶.

스리랑카의 지리적 중요성은 이미 프톨레마이오스(A.D.83~168년경)의 지도에 등장할 정도다. 그는 스리랑카를 너무 크게 생각하여 인도의 1/3, 인도양의 1/25쯤 크기로 생각했다. 지도 원본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대화재로 소실되었으나, 1478년 로마와 볼로냐에서 다시 제작된 지도는 스리랑카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항구, 산과 강, 수도인 아누라드푸라, 심지어 코끼리 서식지까지 나온다.

스리랑카에서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중국 등 다양한 동전이 발견되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정으로 이미 인도 북서부 편자브까지 그리이스인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네들이 스리랑카를 드나들었음은 발굴된 당대의 동전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리스인은 남인도 말라바르 해안이나 스리랑카와 인도 사이의 타밀해협에서 향료시장을 구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해군사령관 오네시크리투스(Onesicritus)가 스리랑카를 찾은 기록이 전해온다. 아라비아 아덴만에서 우연히 바람에 밀려서 표류한 로마인 세리도 있었다.

홍해, 페르시아만 무역상인이 동아시아로, 중국 상인이 서쪽으로 가자면 스리랑카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¹⁷. 특히 아랍의 가장 오랜 항구 아덴과 남인도 말라바르 해안 사이의 교역은 스리랑카의 부상에서 그 동력을 얻었다. 그런 와중에 스리랑카 북서쪽 만타이(Manthai) 같이 거류민단이 형성되어 국제무역거점으로 부각된 고대항구도 생겨났다. 광저우·푸저우 등 중국 남부에 줄기차게 당도하던 아랍상인 다수도 스리랑카를 중간 거점 삼아서 거쳐 들어왔을 것이다.

해양교섭에서 문순은 결정적인 동력이다. 스리랑카는 북동과 남서 문순에 따라서 동서 항구를 자연

16. ‘Maritime Heritage of Lanka’, Centural Culture Fund, Srilanka, 2013.

17. Pierre-Yves Manguin` A,Mani`Geoff Wade, ‘Early Interractions between South and Southeast Asia’, Manohar, Singapore, 2011.

스럽게 번갈아 이용하여 문명교류의 출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북서풍이 부는 겨울몬순, 남서풍 부는 여름몬순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무역선을 움직였다. ‘몬순의 아시아(Monsoon Asia)’란 표현이 가능하다.

남인도에는 콜람, 압랍삐이, 코치, 칼리쿠드 같은 유수의 항구들이 즐지어 있다. 이름하여 말라바르 해안이다. ‘스파이스 루트의 꽃’ 과도 같던 무역항이다. 플라카제도 등에서 실어 나른 향료가 말라바르 해안에 도착하면,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로 실려 갔다.

말라바르 바다는 매우 일찍이 이슬람 상인이 오가던 무역의 바다였다. 그 흔적이 융복합적인 건축물과 다양하게 섞인 언어, 식당에서 파는 아라비아 음식, 가게에 보이는 말린 대추야자에서 잘 보인다. 물경 1500여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무슬림 사회는 오늘날까지 계속된다. 마필라라 부르는 이들 아랍의 후손 덕분에 현존 케랄라 주민의 25퍼센트가 무슬림이다. 이들 무슬림은 무슬림 국가와의 종교적 연고를 찾아서 아랍 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백만이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실현 중이다.

콜람은 케랄라 수로로 이어지는 조용한 항구다. 아라비아 상인이 향료와 캐시미아 직물을 구하기 위해 찾던 무역항이다. 묵까다 시장은 본디 향료의 본거지였다. 아주 오래 전에 아라비아해의 상선이 찾아오던 해변으로 이후에 포르투갈, 영국 등이 순서대로 찾았다.

알랍삐이는 아자수로 둘러싸인 쾌적한 운하도시다. 북부운하와 남부운하가 도심을 가로지르며, 국제상인의 거래가 이루어지던 교역장이 있다. 케랄라 운하는 ‘문명의 고속도로’ 였다. 거친 아라비아해의 위험한 해안을 피하여 아늑한 수로로 물산을 유통시켰다.

코친은 600년 이상 상인이 찾아오던 항구다. 코치의 명물은 중국식 어망이다. 1400년에 쿠빌라이 칸 황실 상인이 처음 전했다고 한다. 정화가 아프리카로 갈 때도 말라바르 해안에 자주 들렀다. 남인도 서해안이 그만큼 중국 측에서도 페르시아나 아랍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였다는 증거다. 일찍이《한서》지리지에 광저우에서 인도로 가는 노선이 등장한다. 승려 의정은 광저우에서 페르시아 상선을 타고 인도로 구법활동을 떠났다. 무수히 많은 당나라 승려들이 천축국으로 떠났음은 인도-중국 네트워크가 정착되었던 사정을 말해준다. 중국을 뜻하는 지나(Cina)는 B.C.4세기~A.D.2세기 기간의 2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이미 등장할 정도로 기원전부터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코친 항구 옆에는 유대인 거주지가 있으며, 오늘날도 향료 거래의 중심지다. 놀랍게도 이미 72년에 유대인 수천여 명이 코치 북쪽의 코둔갈루르(일명 무지리스)로 피신을 온다.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유대인이 살아왔다는 뜻이다. 코둔갈루르는 이미 고고학 발굴로 로마 동전이 쏟아져 나왔다. 로마시대 지도에도 이미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기원 전후에 동서교류가 활발했던 오랜 항구다.

동일 시대인 70년경 이집트의 그리스상인이 로마령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인도까지 항해한 기록인《에리트라해 안내기(Periplus of the Erythraean)》에 무지리스가 등장한다. 후추와 여타 향신료, 금속공예품 등이 거래되었고, 많은 그리스 선원들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록을 남겼다. 유대인 수천여 명이 오늘날의 코치 근처로 집단 이주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아라비아해의 문명적 헤게모니는 바다를 건너온 무슬림에다가 그 이후에 들어온 기독교까지 합쳐져 복합 형태를 갖추었다. 중국문명의 힘은 인도 서부해안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코친이 대표격이다¹⁸.

제5권역. 페르시아 해역권

페르시아문명권에 구자라트의 로탈은 인도로 들어가는 입구다. 로탈은 고대의 ‘입’으로 불린, 언어학적으로 ‘죽음의 장소’라 해석된다. 모헨조다로도 ‘죽은 자의 흙무덤’이다. 로탈과 모헨조다로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수천 년 고대문명이 거품으로 사라지고 남긴 것은 벽돌뿐이다. 유물이야 20세기 들어와 발굴된 것이고, 이곳을 살아가는 원주민에게 고대의 기억은 무너진 벽돌더미로만 남아 있다. 그러하니 죽음의 공간이며, 이는 문명의 부침을 일상의 언어로 함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은 로탈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대항해에 적합한 항구 조건에서 벗어나지만, 항구가 대체로 강항(江港)에서 해항(海港)으로 진화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쓰나미, 태풍 등으로부터 해항은 위험하기도 했다. 문명은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와 강 언저리 둔덕에 자리 잡았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문명도 모두 인더스 강의 계곡에 밀집되었다. 강은 바다로 이어지는 동맥이었으며, 다시금 바다에서 강을 통하여 문명의 본거지로 접근 가능했다.

로탈의 문명사적 위상과 의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초기 인도인의 정착사는 흔히 ‘언어의 화석학’을 통해 이야기된다. 고언어의 궤적은 종족 변천의 맥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베다(Veda)』는 문학작품이기는 하지만, 초기 인도인의 사회종교적, 정치경제적 복합적 존재양태를 잘 알려주는 결정적 사료다.

미궁의 고대문명이 1922~23년 모헨조다로 유적 발굴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힌두, 혹은 신디(sindh)라고도 부르는 거대한 유적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최소한 2700여 년을 앞선다. 하라파 문명도 같은 시대에 발굴되었다. 신석기와 청동기를 병용하는 인더스 문명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름하여 인더스밸리 문명이다. 이로써 기원전 3000년경에 인도 문명이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문명과 동일 반열에 서있었음이 증명되었다.

인더스밸리 문명은 방대한 도시를 품고 있었다. 극도로 파괴된 문명의 흔적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세련된 도시계획을 보게 된다. 오늘날의 인도 문명은 이들 고대문명과 단절적이지 않다¹⁹. 인더스밸리 문명이 중요 요소로 취급한 모든 요소가 여러 문화의 퓨전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쌓인 결과물이 오늘날의 인도 문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탈은 그러한 문명의 대외적 창구, 즉 해양문명 교류의 국제적 창구로서 기능했다. 로탈은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출구이자 관문이었다.

18. 인도 서부해안의 고아, 뭄바이 등에 관해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19. Georg Feuerstein, 'In Serch of The Cradle of Civilization', Motilal Banarsidass, Delhi, 2008, p.62.

로탈의 건너편에는 페르시아상인들이 버티고 있었다. 이란남부의 고도 파르스에서 기원전 6세기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세상에 페르시아와 페르세폴리스란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알렉산더대왕에 의해 그 화려했던 제국도 멸망하고 안식국(파르티아)을 거쳐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다시 탄생한다. 중국 문헌에 파사로 등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오늘의 이란이다.

226년에 흥기한 후, 7세기 초 대식국이 흥기하면서 사산조도 쇠퇴한다. 놀랍게도 400여 년 존재한 서아시아 최강국 사산조의 시기는 중국 남북조, 수대, 당나라 초기에 해당한다. 중국과 밀접한 페르시아는 아랍제국의 속박 속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했다. 수년 전 자바 해역에서는 중국을 오가던 페르시아 선박이 수중 발굴되어 엄청난 보화와 도자기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페르시아는 동서 중간거점에 자리 잡아 상호 이득을 취했다. 파시는 455~648년까지 193년에 걸쳐 열세 차례나 공식 사절을 중국에 보냈다. 사산조가 대식국(아랍)에 멸망한 상태에서도 일부 잔존한 페르시아 제후국에서 여전히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시선(詩仙) 이태백이 술집에서 페르시아 무희의 춤을 지켜보며 여흥을 시에 담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세속에서 페르시아풍이 유행할 정도로 동서는 혼합되었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만에서 근거리다. 페르세폴리스가 위치한 시라즈는 오랜 실크로드 도시로서 초원로를 거쳐 들어온 대상이 머물던 교역로다. 말하자면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만의 해양실크로드와 초원실크로가 만나는 교차점이었다. 페르시아 시라즈 상인의 활동 영역은 아프리카에서 미쳤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사렘에는 시라즈 상인들의 옛 도시가 전해온다. 아프리카 동부의 뎀바섬에는 페르시아 마을이 전해온다. 한때 이 섬을 잔혹하게 지배하던 폭군이 페르시아인이었다. 페르시아 마을의 흔적은 고대 이래로 페르시아 상인들이 아프리카에도 정착하였다는 좋은 증거다.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오늘날 이라크의 바스라 항이 위치하며, 거기서 북상하면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육상실크로드의 종착점이자 페르시아만을 통해 북상한 해양실크로드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이처럼 페르시아만은 육상과 해상의 오랜 육로와 해로가 마침내 접합되는 문명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오늘날의 남중국 광저우에는 아랍인, 첸저우와 저장 해안에는 페르시아인이 모여 살았다. 첸저우에 살고 있는 5만여 명의 무슬림은 페르시아 후예로 여겨지며, 지금도 대체로 상업에 종사한다. 정(丁), 하(夏), 곽(郭), 포(浦) 등의 성씨가 그들이다.

첸저우를 중심으로 남해무역으로 명성을 떨친 포수경(蒲壽庚, 1245~1284)이란 독특한 인물이 있다. 송말 원초에 무려 30여 년간 바다를 주름잡았다. 제거시박(提舉市舶), 즉 무역·선박관리를 위임받은 해양 사업가였다. 이란계 내지 아랍계의 피를 이어받아 쿠빌라이 정권의 해양 글로벌화와 통상 확대에 기여했다. 아랍과 페르시아는 분명히 구분이 되었지만, 그네들의 해양세계는 서로 병립하면서도 동서 무역과 문명교류를 함께 이끌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페르시아 상인은 당연히 중국보다는 인도와 더 많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8세기경 회교도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란을 탈출한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인도의 파르시족을 형성했다. 뭍바이 곳곳에서 간

관을 만날 수 있는 인도 거대기업 타타그룹이 그들의 후예다.

페르시아만 해양실�크로드의 길목은 당연히 호르무즈다. 오늘날 이란 최남단 해상거점인 반다르아바스에서 뱃길로 이십 여분이면 호르무즈 섬에 당도한다. 황량한 바람이 부는 사막에 무너진 성터만 있을 뿐이다. 작은 포구가 있고 먼지 날리는 자동차가 메마른 들판을 지나간다. 산과 산에 의지하여 가파른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낭떠러지 아래로 푸른 호르무즈 해협이 펼쳐진다. 이븐 바투타는 14세기에 호르무즈를 지나가면서 아랍어, 파르시어, 영어, 힌두어, 포르투갈어가 들리는 곳이라 했다. 그 당시에도 신 호르무즈, 즉 섬에 형성된 이란 측의 호르무즈가 존재하고 있었다.

호르무즈 안으로 접어들어 페르시아 만 내에 있던 연안의 작은 나라들은 어떤 해양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을까. 페르시아만 경제활동의 세 축은 연안무역과 고기잡이, 진주조개잡이였다²⁰. 페르시아만은 마치 닫힌 분지 같고, 거대한 호수 같다. 이 호수 같은 바다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는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곡식과 옷은 오만의 무스카트와 이란, 건축 재료는 무스카트와 바레인과 이란, 나무는 인도와 동아프리카해안, 비단, 견과일, 말은 이란, 구리는 이라크의 바스라에서 들여다 썼다. 대추야자는 바레인과 바스라에서 왔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에서 다우무역의 중요 허브였다. 작은 다우선이 바스라, 쿠웨이트, 아라비아, 이란, 오만 해안으로 연결되었다. 다우선은 곡물, 카펫, 장작, 살아있는 동물 등을 이란으로부터, 과일과 사탕은 오만에서 수입했다. 선박용 천은 바스라, 고급갈대 매트는 이라크와 이란으로 수출했다. 카타르는 100여 척의 다우선으로 바레인, 바스라, 오만, 혹은 이란 해안으로 갔다. 이들 다우선은 바레인이나 이란에서 온 목수들이 건조했다. 19세기의 정황이다.

오늘날 해상활동이 사라진 쿠웨이트도 이란·이라크 등과 매우 역동적인 해양무역에 종사했다. 호시절에는 모두 고기잡이나 연안 무역으로 나가버려 연안이 텅 비었다고 했다. 쿠웨이트는 쌀, 담배, 생대추야자, 장작, 야채, 곡물 등을 이란에서 가져왔다. 생수는 다우선으로 이라크에서 가져다 먹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나즈드에서 매년 20여 카라반이 도착하는 종착역이었다.

제6권역. 아라비아와 동부아프리카 해역권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조금 아래의 칼하트(Qalhat) 항구는 오만의 오래된 2세기의 도시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 14세기에는 이븐 바투타가 들렀다. 당시에도 인도에서 끊임없이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적 도시였다. 항해가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었고, 인도무역으로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 국제 개방도시였다. 아랍이되 충분히 혼합적 도시라는 뜻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서 인도양을 바라보며 줄지어 선 항구도시는 대추야자와 흰색 아라비아풍 건물, 은연중 들어온 서구풍, 바자르의 인도식 공예품과 바

20. Esmond Bradley Martin`Chrysee Perry Martin, 'Cargoes of The East', Gallery, Zanzibar, 2007.

다를 건너온 향신료가 낮은 이방인을 환영한다.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아라비아 상인, 한국 역사에서는 대식국(大食國)이라 불렀던 천하의 국제무역 상인이 인도양을 휘젓고 인도와 중국 심지어 한국(고려)까지 넘나들었다. 기원전 10세기경 지중해와 홍해, 아라비아의 해상교역이 이미 존재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서는 이미 8세기경에 바빌론-인도 해상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일찍이 2세기의 프톨레마이오스는 무스카트를 '잘 숨겨진 항구'로 묘사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와디(사막)계곡이 이어진다. 앞으로 펼쳐진 바다로 나가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입지다. 중국의 푸저우가 산에 둘러싸여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어 화교의 본산이 된 것과 비슷하다. 육지 쪽에서는 좀처럼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멘 쪽에서 건너온 초창기 정착민은 전적으로 바다에 의존하는 삶을 선택했다.

오만에 인도배만 몰려든 것이 아니다. 바그다드 태생의 아랍 여행가이자 역사가인 마수디(Masudi, 896~956)는 중국배가 항상 오만, 바레인, 바스라 등으로 향했다고 했다. 『신당서』 권43에 등장하는 몰손국(沒巽國)은 오만 북부의 수하르 항구다.

8세기 이후 아랍인은 유태인, 인도인을 대신하여 1498년에 포르투갈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남부서 말라바르 해안에 출현하기 이전까지 인도양 패권을 독점했다. 아라비아 상인은 지중해 해양세계, 인도양, 중국을 연결시키는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광저우에는 아랍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무슬림 사원이 들어섰다. 광저우 회성사(懷聖寺)는 오만에서 출발한 상인들이 당나라 초기에 조성한 중국 최초의 회교사원이었다. 아랍상인 술레이만은 대식상인이 페르시아만에서 광저우까지 활약한 정황을 여행기(851년)에 적어 두었다. 이라크 바스라, 혹은 오만의 시라프와 무스카트항을 경유하여 아라비아해를 통해 인도 남서부 꼴람에 닿은 후, 스리랑카, 벵골만, 안다만섬, 니코바르섬, 수마트라, 베트남 참파 등을 지나 남중국에 도착했다.

오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고풍스러운 항구도시가 하나 더 있다. 신드바드의 고향인 소하르(Sohar)다. 1000년 전에는 큰 항구였다. 무스카트가 번성하기 전에 소하르는 오만 자체를 가리켰다. 옛 이름은 마잔(Majan)으로 이미 3세기경에 구리제련으로 유명했다. 소하르는 메소포타미아와 오늘의 바레인으로 구리를 수출하여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 이 정도의 오랜 해양력을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인도로, 중국으로, 심지어 고려 벽란포까지 배를 들이밀었다. 오만은 동부 아프리카 해역에 식민지를 개척했다.

케냐의 몸바사는 '동부아프리카에 활짝 핀 아프리카의 꽃'이다. 바스코 다 가마가 몸바사에 도착한 해는 1498년. 적대적인 원주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1589년에 거대한 성을 마련하였다. 1741년 오만의 술탄이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아라비아의 오만과 포르투갈은 엇치락뒤치락 공방전을 벌인다. 유럽세력에서 그만큼 동부아프리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희망봉을 돌아서 모잠비크를 거쳐 동부아프리카를 접수하면 인도양 공략에 결정적 교두보가 확보된다. 동부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이슬람의 집중 공략으로 '무슬림의 바다'로 접수된 상태였다. 흑자는 아에

인도양을 ‘이슬람의 호수’로 명명하였다²¹. 이러한 바다에 거점을 마련함은 구유럽 세력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오늘날 소말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뿔’은 홍해의 길목이자 인도양 출구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의 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 조건을 갖춘 몸바사가 주목된다.

무슬림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오랜 싸움 끝에 결국 포르투갈을 쫓아냈다. 포르투갈이 전방위적으로 아시아 바다를 식민화시킨 것으로 착각하나 그네들은 전략 포스트에 성채를 마련하여 항로를 관리하였을 뿐이다. 온전히 나라 전체를 식민화하여 경영한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유럽식 역사관에 중독된 오리엔탈리즘적 세계사에서는 바스코 다 가마 중심의 역사를 가르칠 뿐, 아랍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의 해양시는 배제되어 있다. 포르투갈이 인도로 나아갈 때, 고작 원주민 수로안내인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기술된다. 유럽세력이 당도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인도양을 무대로 바다를 넘나들던 스와힐리문명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부인한다. 아프리카 해양시는 ‘부인된 역사’이고 ‘몰각된 역사’이기도 하다.

스와힐리문명은 모잠비크 북부로부터 소말리아 남부에 이른다. 1500km에 달하는 광범위한 동부아프리카 연안에 퍼져 있다. 아프리카원주민 문화와 아랍문화, 인도문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스와힐리문명권은 언어와 풍습 등에서 단일 영역을 확보한다.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식의 국민국가는 유럽제국의 금긋기로 탄생한 것일 뿐, 이들 나라끼리 스와힐리어 소통에 장애가 없다. 동부아프리카 해변은 아프리카원주민, 아랍, 인도 게다가 15세기 이래로 유럽인 핏줄까지 섞여서 인종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스와힐리문명의 대표적 상징은 잔지바르다. 원주민은 아프리카계다. 무스카트에 본거지를 둔 오만은 세력을 확장하여 아예 술탄의 본거지를 잔지바르로 옮겼다. 고색창연한 스톤타운 비좁은 골목에 아랍식 건축물이 빼곡하다. 무려 50개가 넘는 이슬람모스크가 번성하였으며, 인도인이 찾는 시바신전도 하나 있다²². 페르시아목욕탕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페르시아 상인의 흔적도 확인된다. 이렇게 온갖 언어와 피부색과 관습이 혼합되어 스와힐리문명을 탄생시켰다.

잔지바르의 변화한 옛 거리에는 더러운 노예무역의 흑역사가 숨어 있다. 노예시장은 공식적으로는 1873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돈이 되는 최고의 장사를 노예상인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잔지바르 북서해안에는 비밀리에 운영되던 노예창고가 존재한다. 산호석을 뚫어 지하를 파고 지붕은 견고하게 산호콘크리트로 덮었다. 집단 수용하였다가 해외로 수출하였다. 많은 노예가 죽어 갔으며, 험난한 악조건에서 살아남는 노예는 건강하다는 증표가 되어 비싼 값에 팔렸다.

노예는 외국으로만 팔려나갔던 것은 아니다. 많은 노예가 잔지바르 도시국가의 번성에 기여하였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잔지바르의 우아한 도시경관을 떠받친 것도 노예노동이었다.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코끼리사냥에 동원되어 상아를 날랐다. 상아는 비싼 값에 세계로 팔려나갔다.

21. Abdul Sheriff, ‘Dhow Cultures of the Indian Ocean;Cosmopolitanism,Commerce and Islam’, Uurst & Company, London, 2010, pp.51~61.

22. ‘Zanzibar Heritage’, Bega Kwa Bega, Copenhagen, 2005.

코끼리가 죽어가며 남긴 희생물에 인간들은 높은 품격을 부여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조각공예를 선보였다. 상아가 배로 수출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해양실크로드에 ‘노예 루트’, ‘아 이보리 루트’를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²³. 중국은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상아가 흘러들어왔다. 태국, 인도의 상아도 있었겠지만, 동부아프리카 상아도 끼어 있다.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향료를 싣고 유럽까지 가기에는 무역로가 너무 길었다. 아랍인은 잔피를 내었다. 술탄이 잔지바르에 수도를 정한 이래로 본격적인 플랜테이션에 착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대적 국가프로젝트였다. 잔지바르와 북쪽 펨바섬의 플랜테이션은 ‘스피이스 루트’의 흔적을 잘 보여준다.

제7권역. 홍해에서 지중해해역권

동부아프리카의 뿔을 지나면 곧바로 홍해로 접어든다. 이 일대의 가장 중요한 해양거점은 아덴과 오래된 도시 시나이이다. 아덴은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연결하였으며, 홍해는 이슬람 이후에 메카로 들어가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집트문명은 오로지 ‘나일강’만은 아니었다²⁴. 이집트문명은 동쪽 시나이 반도와 홍해, 북쪽의 지중해, 남쪽의 수단 등 전체를 보아야 제대로 보일 것이다. 오로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사를 논해온 것도 일종의 편향이다.

신왕조 유적이 널린 룩소르 북방 62킬로미터, 강이 휘어져 북상하고 서부사막에 달려온 도로가 홍해로 뻗어나가는 교차로에 케나(Qena)가 있다. 홍해의 큰 도시 사파가(Safaga)와 후르가다(Hurghada) 항구로 연결되는 교통거점이다. 케나는 홍해 거점 알 쿠사이르(Al-Quseir)와도 연결된다. 오토만제국 시대에도 쿠사이르는 아라비아 메카 하지 순례단이 오가는 길목이었다. 쿠사이르는 여러 도시의 홍망성쇠가 거둬진 나일 벨리와 홍해를 이어주는 무역 중심이었다. 이집트 왕조 몰락 이후에도 오토만제국이 16세기에 다시 성채를 축성했을 정도로 중요했다. 영국은 프랑스를 쳐서 이곳을 지배했다. 한동안 인도에서 뱃길로 출발한 향료가 쿠사이르를 거쳐 나일강을 따라 북상하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다.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하면서 홍해-지중해가 직결되며 중세적 무역로는 끝났다.

왕조 말기인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 만든 크눔(Khnum) 신전이 있는 에스나(Esna)에는 몰락한 시장이 있다. 골목에서는 여전히 양복쟁이가 재봉틀을 돌리고, 기름가게에서 수백 년 된 육중한 기계로 기름을 짜고 있다. 오토만시대의 카라반 건물은 한때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에서 온 상인이 머물던 곳이다. 소말리아가 동북아프리카의 인도양 창구였음을 고려한다면, 이집트는 홍해와 인도양을 통해 인도 등과 이어졌다.

이집트 마지막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의 힘으로 세워졌으나 이집

23. Cynthia Salvadori, ‘Slaves and Ivory Continued’, Shama Books, Addis Ababa, 2006.

24. Robert Partridge, ‘Transport in Ancient Egypt’, Rubicon Press, London, 1996.

트 전통을 수용하면서 통치술을 발휘했다. 나일강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본격적으로 지중해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축가 디노크라테스에게 명령한 시점은 기원전 331년이다. 동방원정 중에 사망해 완성을 보지 못하지만, 계승자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창건하고 수도로 삼는다. 기원전 80년 프톨레마이오스 10세 때, 로마 영향권에 들어간다. 카이사르가 이집트 내전에 개입,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반기를 든 이후 왕조가 멸망한다. 근년의 수중고고학 발굴로 클레오파트라궁이 도심 바로 앞쪽 수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건축가는 격자형 구획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로, 궁전, 도서관이 딸린 박물관, 알렉산드로스 묘가 있는 소마 등의 거대 건축군을 축조했다. 그 도시에 파로스 등대와 도서관이라는 2개의 문명사적 상징이 장기지속 중이다.

파라오는 조선업 중심지인 이 도시를 거점으로 나일강과 지중해, 홍해의 해군방어와 교역을 위한 선단을 보유했다. 아라비아의 이국적 향수와 인도양을 건너온 계피 같은 인디아 향료, 지중해를 통해 목재, 올리브기름, 포도주가 당도했다. 나일강 상류에서는 내륙에서 금, 상아, 노예, 흑단은 물론 야생생물이 유입되었다. 서부의 카라반 길을 따라서 말리광산의 암염을 포함해 사하라 사막의 물품이 들어왔다. 아프가니스탄 산 청금석, 향기로운 레바논 삼나무, 유태와 몰약이 담긴 막대한 금액의 흑단상자가 쌓여지는 물류 집산지였다.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역시 지중해와 동방의 문명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파피루스와 바다를 건너 그레코로만의 문서들이 집적되었다. 도서관은 불에 타버렸어도 지적 지속성은 이어졌다. 철학자, 수학자 등이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 선진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찾았다.

알렉산드리아 거주 그리스인 프톨레마이오스가 펴낸 8권의 지리학에 포함된 한 장의 세계지도에는 스리랑카에 이르는 '동방으로 바닷길'이 상세히 등장한다. 지도는 이 도시가 동서문명교류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한다. 세계지도의 발명은 해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훗날 바그다드의 압바스 왕조는 고대 그리스의 사라진 문헌을 대대적으로 번역 복원해 그리스 문명의 자양분을 흡수했다.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서양에 의해 번역되어 유럽 르네상스의 자양분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아랍문명 연구자 예일대 디미트리 구타스 교수는 '그리스 사상을 창조적이며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슬람 사회의 지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 이슬람 왕조도 고립되지 않고 지중해 해양세계의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었음을 주목한다.

4. 해양실크로드 문명의 미래전망

글로벌적인 해양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항해시대 이래 제2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유

럽 이전의 아시아가 도래하고 있다²⁵.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해륙복합으로 유라시아를 엮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노선을 분명히 하고 오선 글로벌전략에 나섰다. 일대일로는 고전적 의미에서의 동서바닷길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뛰어넘는 중층적 복합적 개념이다. 각각의 항구는 육상벨트와 연결되어 거미줄 망상(網狀)으로 세계를 엮어낸다.

전통적 실크로드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화 원정대가 동부아프리카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원정을 감행한 사실은 너무도 알려진 사실이라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몸바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공사 현장은 중국 정화의 실크로드 대항해가 이제 일대일로로 다시 꽃을 피워 아프리카 내륙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영국이 아프리카 내륙의 자원을 빼돌리고 인도양과 소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우간다-나이로비-몸바사 철도가 일대일로로 거듭나는 중이다. 공사 구호는 자그마치 '인도양을 넘어 대서양으로!' 이다.

한국에서 해양실크로드 연구가 주목 받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도 그 배경이 된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섬' 나라다. 지난 60여 년간의 경제발전은 수출과 수입, 즉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 근간인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하여 오고간다. 오일, 가스 등 상당량의 에너지자원이 고전적 실크로드 노선을 통하여 운반되고 있다. 무역강국으로서 해양루트에 관심을 갖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등에 이르는 환동해 해양문명권에 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미래비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 해빙에 따른 북극해항로가 미래의 새로운 루트로 다가오는 중이다²⁶. 고전적 항해 루트에서 전혀 새로운 항해 루트가 미래 비전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나 고전적 항해 루트의 가치가 손상 받은 것은 아니며, 수천 년 넘게 그 루트는 여전히 작동중이다. 한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개통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태평양노선이나 오세아니아노선 등 다양한 항로에 관해서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가 주로 고전적 항로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25. K.N.Chaudhuri, 'Asia Before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26. Joo Kang Hyun, 'The History of East Sea Rim Civilization; The Lost Corridor of Civilization', Dol-Bae-Gye, Seoul, 2015.

발표문3

해양실크로드 개괄 - 8~16세기 인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국(비인도계) 유물을 중심으로

Yogesh Mallinathpur. M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 학예사

개요

동부 연안의 항구들

모투팔리에 대한 외부인들의 언급

서부 인도의 교역항 유적들

발표문3

해양실크로드 개괄

- 8~16세기 인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국(비인도계) 유물을 중심으로

Yogesh Mallinathpur. M

인도 뉴델리 국립박물관 학예사

개요

인도 반도는 고대부터 많은 물품이 거래되던 교역의 현장이었다. 당시 고대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던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연구, 분석되면서 인도 반도가 해상과 육로를 잇고, 교역의 점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인도의 서부와 동부 연안에 걸친 다양한 고대 교역로로 코로만델 연안(Coromandel coast)의 까베리빠따남(Kaveripattanam), 벵골만 연안(Bengal coast)의 첸드레이크츄거(Chandraketugarh),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의 모투팔리(Motupalli), 말라바 연안(Malabar coast)의 빠따남(Pattanam), 서부 연안에 있는 차울(Chaul), 댁홀(Dabhol) 및 소파라(Sopara), 그리고 구자라트 연안(Gujrath coast)의 바루치(Baruch)와 같은 곳을 탐구하고 조사해왔다. 이 글은 인도 반도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서기 8~16세기 동안 있었던 교역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실크로드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서기 8~16세기 인도와 지중해 지역과의 교역량은 증가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 실크를 비롯한 다른 재화와 상품의 교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10세기경 아시아는 그 변환기를 맞이하여 신흥 왕조들이 주요 문명 지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주요 세력들로는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Fatimids, 서기 969),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는 남부 인도의 주련국(注輦國(Colas), 서기 985), 앙코르의 크메르(Khmers, 서기 944), 파간(Pagan)의 버마 사람들(서기 1044), 북부 베트남의 리(Ly) 왕조(서기 1009),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서기 960) 등이 있다. 이러한 신흥 세력들이 새롭게 그 기반을 잡아가면서 아시아 해양 무역의 판

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는데, 거래 시장들의 규모는 그 위치를 옮겨 다니며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상인들 또한 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글은 고대인도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나 인도 문화권 내의 유적들과는 다른 비인도계(Non-Indian) 유물들을 그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증거로 보고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인도 동부와 서부 연안의 무역항에서 발견된 유물들 위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중세 인도에서는 타국 여행자들이 가져온 외래 문헌과 물품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부 연안의 항구들

인도 동부 연안에는 탐랄립티(Tamralipti)라는 매우 유명한 항구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서벵골주(West Bengal) 미드나푸르(Midnapur) 지역후글리(Hugli) 강 어귀에 있는 탐루크(Tamluk)에 해당한다. 다사쿠마라카리타(Dasakumaracharita, The narrative of ten young men)라는 문학 작품에는 이 항구가 갠지스강보다 바다에 가까워 교역과 해상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의 오리사(Orissa)에 해당하는 칼링가(Kalinga)는 갠지스강의 어귀로부터 남부의 고다바리강(Godavari River) 어귀까지 이르렀다. 프톨레마이오스(Ptolemy)는 나나이감(Nanaigam, 현재의 푸리(Puri) 지역) 및 Konagar(Konark)와 같은 칼링가(Kalinga)의 주요 항구들이 Puri, Kosambi(Balasore 지역) 및 Palur(Ganjam 지역)에 위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rahmanda Purana(서기 10세기) 역시 Chilika호(Puri 지역)가 대규모 항구였으며 항해하는 선박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Dantapura로 알려진 Palur는 현장(Hiuen Tsang) 시절에 번성한 중요한 항구였다. 인도의 고고학 조사팀이 수행한 발굴 작업을 통하여 Palur가 12세기까지 항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lka호 가까이 Puri 지역에 있는 Manikapatna(Adigram)는 Orissa의 또 다른 항구로 추정되고 있다. Manikapatna에서 진행된 최근의 발굴 작업에서는 일부 중국 도자기가 발굴되었다.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이 발굴 작업을 통하여 Orissa의 Puri 지역 연안에 있는 Boitakuda 및 Banijpur와 같은 일부 다른 항구들을 확인하였다.

Puri의 해안 지역 가까이 Khalkata Patna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을 통해서 Kalinga가 중국 및 아랍 국가들과 가진 해상 교역 관계가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과 아랍 도자기, 사각 구멍이 있고 한자가 새겨진 구리 동전 발굴로 Khalikata Patna가 12세기 동안에 동·서양과의 해상 무역 관계를 맺은 항구 도시였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으로부터 약간 아래 Andhra Pradesh에 있는 Srikakulam 지역에는 고대 항구도시 Kalingapatanam가 있었다. Kalinga의 통치자들은 해상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Kalinga의 왕족 후예들은 선박 운항과 해상 무역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했다. Kalingapatanam은 이전에는 Kalinganagara, Katikar-

dana 및 Karttikeyadhama 등으로 칭했었다.

현재 Chennai시의 일부인 Mylapore는 Ptolemy가 Mylarpha라고 부른 곳으로, 7~9세기 팔라바(Pallava) 왕조 당시 주요 항구였으며 팔라바의 왕들은 자신들을 Mylapore의 수호신(Mayilaikkavalan)이라고 자칭하였다.

동부 해안 첸나이(Chennai) 남쪽 40km에 있는 마말라푸람(Mamallapuram)은 Talachayanam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어촌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타밀나두(Tamilnadu) 지역 유수의 항구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팔라바 유적으로 유명한 이곳은 외국 상인을 끌어들이기만큼 잘 관리되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했기 때문에 팔라바의 왕들은 이곳에 아름다운 사원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팔라바 왕조 이후에 권력의 중심이 출라(Chola) 왕조로 옮겨가면서 이 항구도 그 중요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출라 왕조는 마하발리푸람을 왕실의 통제 속에 두고, 항구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나가과타남(Nagapattinam)으로 옮김에 따라 마말라푸람은 이차적인 항구로 격하되었다.

탄자부르(Thanjavour) 지역의 나가과타남은 초기 중세 시절부터 매우 활발한 항구였다. 아랍 상인들은 동부 해안의 중요한 항구로서 발린(Ballin)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는 곧 나가과타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랍 기록자의 설명에는 마니파탄(Manifattan) 또는 말리파탄(Malifattan)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나가과타남인 것이다.

첸나이 바로 북쪽에 있는 티루바단다이(Tiruvadandai)는 Rajaraja의 통치 당시 중요한 항구였다.

코로만달(Coromandal) 해안 위쪽의 비사카파타남(Visakhapattanam)은 1076년경에 Rajaraja Mummadi Chola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며 그 명칭이 Kulottungacholapattinam으로 변경되었다.

아랍인들은 출라 지역의 여러 항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Qayrah (Kaveripattanam), Abatu (Adirapattam), Tanda (Tonidi), Daqtan (Devipattanam) 및 Fatni (Kilakarai)가 그러한 항구들이었다.

탄자부르에 있는 카베리파타남(Kaveripattinam; IAR 1962-63: 13; 1963-64: 20; 1966-67: 21)은 초기 주런국의 항구 도시였으며, 지금은 타밀나두 동부 연안의 자그마한 어촌이다. 여기서 카베리(Kaveri) 강이 벵골만과 합류한다. Silappadikaram, Manimekalai 및 Pattinapalai와 같은 타밀의 문학 작품을 통하여 이곳의 상업, 배치 계획, 주택 등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 1962~1967년에 ASI가 실시한 발굴 작업을 통하여 우물 등과 같이 모래로 덮인 고대의 주거 흔적이 발굴되었다. 주런국의 문장을 담고 있는 사각형의 구리 동전의 각 면에는 호랑이와 코끼리가 보이며, 그 외에도 흑색과 적색 그릇 파편 및 준보석으로 만든 목걸이 등이 발굴되었다. 회색과 흑색의 흙으로 만든 토기(The Rouletted ware)도 발견되었으며 Valaiyan Iruppu라는 곳에서는 로마 시대의 동전도 발견되었다. Malapperumpallam과 같은 곳에서는 몇 점의 아름다운 테라코타 조각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3곳의 발굴 장소에서는 벽돌로 축조한 부두, 저수지 및 불교 사원 같은 매우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었다. 특히 카베리파타남 지역의 Melaiyur 구역에서 발굴된 불교 사원은 사방이 2.4m인 총 7개의 방을 가진 중요한 사원이다. 이곳 근처에서 스투코(stucco) 칠을 한 상과 그림을 가진 장식적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이 방 중 한 곳에서는 좌선(坐禪) 상태의 정교한

청동 불상이 발견되었다.

우라이우르(Uraiyur; IAR 1964-65: 25-26; 1965-66: 26; 1967-68: 30-31)는 카베리강 남부 연안에 있는 타밀나두의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티루치치라팔리(Tiruchchirappalli)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인도의 상암(Sangam) 시기에 초기 주련국의 수도였는데 Uraiyur, Urandai, Koli 또는 Koliyur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Ahananura나 Purananuru와 같은 상암 시기의 유물에는 이 도시의 그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중요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고대부터 우라이우르는 면방직의 중심이었으며, 실크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Periplus라는 고대의 해양 안내서는 이곳을 면제품 교역의 중심지로 소개하고 있다. 발굴 작업을 통하여 이곳의 유적과 유물이 크게 두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서기 3~4세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의 시기로 대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다시 A기와 B기로 구분된다. A기는 전반적으로 5~10세기경에 해당하고, B기는 그 이후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적 구별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도자기 형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시기에서는 흑색과 적색 도기 및 그와 관련된 흑색, 적갈색 및 작은 선공(roulette) 양식의 그릇이 발견되었다.

카루르(Karur)(Nagaswamy 1981: 337-39)는 티루치치라팔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 상암 문학에서의 고대 반지(Vanji) 또는 카루루(Karuru)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로마 양식의 암포라(amphora) 항아리, 선공(roulette) 형태의 그릇, 로마 양식의 구리 동전, 흑색과 적색의 그릇 및 일부 낙서들이 발견되었다.

바사바사우드람(Vasavasamudram)은 칭글레푸트(Chingleput) 지역에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두 개의 우물이 발견되었다. 도자기에는 선공 양식의 그릇과 암포라들이 있다 (Raman 1992: 125-33).

알라간쿨람(Alagankulam)과 카라이카두(Karaikadu)(Raman 1992: 125-33)는 남부 아르코트(Arcot) 지역에 있는 곳으로, 발굴 작업 결과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의 인도-로마 교역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목걸이와 준보석 유물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도자기들은 세 부류, 즉 (1) 적색의 레드 슬립(Red-Slipped) 토기, (2) 흑색 및 적색 그릇, (3) 선공 양식의 그릇으로 크게 나뉜다. 붉은 입자의 붉은 흙으로 만든 원뿔 형 바닥의 암포라 조각도 다수 발견되었다.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의 경우, 발굴된 해안 유적의 수는 비교적 적다. 그중 잘 알려진 곳으로는 칼링가파트남(Kalingapatnam)(IAR 1958-59: 65), 살리훈담(Salihundam)과 아마라바티/다라니코타(Amaravaty/Dharanikota)(IAR 1963-64: 2; 1964-65: 2; 1973-74: 4-5; 1974-75: 4) 등이 있다. 넬로레(Nellore) 지역의 코타파트남(Kottapatnam)은 1993년에 K.P. Rao에 의하여 발굴되었다(1994a: 21).

프라카삼(Prakasam) 지역의 모투팔리(Motupalli)는 초기 역사시대와 중세 시대의 항구였다. 라자라자(Rajaraja)의 주련국 동전, 중국 명나라의 동전, 철물 및 도자기를 토대로 추정할 때 모투팔리는 11~12세기인 것으로 파악된다(IAR 1973~74: 7).

모투팔리에 대한 외부인들의 언급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Ptolemy(서기 2세기)는 내륙 도시에 관한 해적들의 설명에서 모우소팔리(Mousopalli) - 분명 모투팔리(Motupalli)를 의미한 듯 - 를 대도시로 표현하고 있다 (Book VII, Chap. I 84, cit. in Mazumdar 1981: 379). Kakatiya의 왕비 Rudramadevi의 재위 기간(서기 약 1280년) 동안 Marco Polo는 모투팔리를 방문하였다(Parabrahma Sastry 1978: 119-28, 256). 그는 무트필리(Mutfil), 즉 모투팔리의 다이아몬드와 ‘거미줄과 같은 조직’과 같은 정교한 면제품 옷을 칭송하였다 (Nilkanta Sastri 1939 : 174-75 ; Yule 1926, II : 359 - 62).

모든 대륙과 섬, 외국 및 타 도시에서 오는 외국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칙령(abhaya sasana)인 1244~1245년의 Kakatiya Ganapatideva를 E. Hultzsch 교수가 편집 한 바 있다 (1914-15: 188-97).

라메스와람(Rameswaram)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람나드(Ramnad) 지역, 페리아파티남(Periyapattinam)의 Nattakkadu라 불리는 코코넛 농장에서 중국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 이후 1987년에 1~2.5m 깊이의 유적에서 13~14세기경의 동전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중국 도자기는 청자(60%), 백자(15%), 청화 자기(10%) 및 갈색 유약의 자기(10%)로 구성되었다. 청자는 룡취안(龍泉)과 푸젠(福建)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다. 청화 자기들은 유명한 징더전(景德鎮)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며 14세기에 해당하는 원대(元代)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ashima는 페리아파티남을 남해 지역의 국가들을 기록한 중국의 14세기 지리책인 도이저략(島夷誌略)에 언급된 도시인 다바단(Dabadan)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곳은 14세기에 Ibn Battuta등에 의하여 파탄(Fattan)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Ibn Battuta는 이곳이 마두라이(Madurai) 지역의 활기 넘치는 항구라고 하였다(Nilkanta sastri, 1972: 281-83). Kappalarurani라는 이름의 큰 연못은 현재의 주거지역 남쪽과 남동쪽에 있으며, 고대 유적으로부터는 500m, 바다로부터는 약 1km가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선박의 정박을 위한 기둥으로 보이는 약 2m 높이의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석호의 일부로 생각된다 (Subbarayalu 1996).

페리아파티남 남서쪽 약 14km에 있는 킬라카라이(Kilakkarai)에서는 14세기경의 중국과 유럽 도자기 몇 점만이 발견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곳은 이곳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팔라야-카얄(Palaya-Kayal)이다. 팔라야-카얄은 트루첸두르(Truchendur)에서 북쪽으로 10km, 투티코리안(Tuticorian)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다. 바다로부터 약 3km 떨어진 이곳은 Marco Polo가 언급한 판드야(Pandya)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유명한 항구 도시 Cail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Palya-Kayal”이라는 명칭은 “옛 카얄(Kayal)”이라는 뜻으로 즉, 이곳이 본래의 카얄이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1876년에 Robert. Caldwell가 주장한 바 있다(Caldwell, 1877: 81). 이곳에서는 다양한 품질의 중국과 아랍 도자기 파편이 발굴되었다. 대부분의 도자기는 룡취안(龍泉)과 푸젠(福建)에서 생산된 청자였으며, 일부 더화(德化) 및 광둥(廣東) 지역에서 생산된 갈색 유약의 도자기 파편도 있었다. 하지만 원대의 청화 자기 흔적은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도자기의 대부분이 13세기나 그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Marco Polo가

다녀간 지 오래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며, Malik Kafur에 의한 침략과 그 이후 1335년경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슬람계 마두라이(Madurai) 왕조의 설립이나 판드야 왕조가 지배하던 지역의 정치적 흥망성쇠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메스와람(Rameswaram) 섬 북쪽 대부분의 항구 유적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의미하는 일부 도자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중세의 판드야 명문들에서 애덤스브릿지(Adam's Bridge) 북쪽에 위치하며 팔크 만(Palk Bay)에 면한 항구라고 언급된 데비파티남(Devipattinam)에서는 다량의 도기 조각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명대(1368~1644)의 청자와 청화 자기였다.

한편 11세기 초에 스리비자야(Sri Vijaya) 왕에 의하여 세워진 불교 사원으로 유명한 나가파티남(Nagapattinam)은 좀 양상이 다르다. 즉, 주련국(Colas)이 중국 송대(宋代; 960~1279)와 활발한 외교적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대의 도자기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대 불교 사원이 있던 곳과 가까운 해안에서는 다량의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15세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도로 건설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많은 매립 자재가 유입되었다.

퐁디셰리(Pondicherry) 인근의 잘 알려진 초기 역사시대 유적지 아리캄드(Arikamdeu)에서는 송대의 청자 조각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11~12세기 동안에 융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리캄드와 나가파티남 사이에 있는 식민지 시대의 중요 항구였던 트란케바르(Tranquebar) 및 포르토 노보(Porto Novo)에서는 15세기 이전의 중국 도자기 일부 파편만 발견되었다. 이는 마하발리푸람(Mahabalipuram)에 가까운 사드라스(Sadrass)도 마찬가지이다.

연안 지역과는 별개로 내륙에도 도자기가 발굴된 곳이 여러 곳 있다. 티루치라팔리(Tiruchirapalli) 지역에 있으며, 수마트라(Sumatra)의 스리비자야(Sri Vijaya) 왕국에 맞서서 해양 원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Rajendra I세(1012-44)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수도 강가이콘다출라푸람(Gangaikondacholapuram)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11~12세기의 청백자(靑白磁)와 백자가 일부 발견되었다. 주련국의 또 다른 왕가의 중심부 쿰바코남(Kumbakonam)에서 가까운 다라수람(Darasuram)에서는 징더전(景德鎮) 형태의 백자와 11~12세기 룡취안(龍泉) 및 원대의 청자 조각이 발견되었다. 남부 타밀나두주, 마두라이 남서쪽으로부터 80km에 있는 서 가츠(Western Ghats) 산맥 기슭의 세투르(Settur)에서는 13세기나 14세기로 추정되는 녹색 유약을 칠한 보기 드문 도자기가 다수의 철제 도구(끌개, 작살, 보습 모양의 물건)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북아르코트(North Arcot) 지역, 비자야나가르(Vijayanagar) 왕국의 최후 보루인 벨로르 요새(Vellore Fort)에서는 중국 명대와 청대의 청화 자기 및 법랑 자기들이 발견되었다.

해상 교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인도와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2세기 중국과 서양으로부터의 물품은 국제 교역로를 통하여 거래된 품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록에 의하면 인도의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은 진주, 산호, 빈랑, 카다몸 차(cardamom) 및 면 제품을 수출한 곳이다(F. Hirth 및 W.W. Rockhill, Chau-Ju-kua: 12~13세기 중국과 중동 간의 교역에 대한 저서(Chu-fan chi); St. Petersburg, 1911, p.96). 현대의 기록 또한 향신료와 향료, 염색제, 광택제, 약초, 인도의 실크, 특

히 면화제품, 진주 등이 남부 인도 항구의 시장에서 거래된 품목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S.D. Goitein, “중세 시대 인도 교역에 관한 기록들”(Letters and Documents on India Trade in Medieval Times), Islamic Culture, 37, 3 (1963), p. 196). Goitein은 중세 시대 전문가들만이 활용해 온 고문서인 “Cairo Geniza”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언급하고 있다. Geniza 고문서는 10~12세기 동안 유대 상인들이 주고받은 다양한 서신, 상업 거래에 대한 기록 등 각종 문서의 집합체로 이중 일부는 인도양의 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이 문서들은 구 카이로(Old Cairo ; 푸스타트(Fustat))에 위치한 사원 내의 어느 밀실 내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푸스타트의 상인들은 말라바르(Malabar)와 코로만델 연안의 항구에 본거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남부 인도 간의 상거래는 역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진다. Goitein이 번역한 Geniza 고문서에 의하면 양 대륙 간에는 서신이 정기적으로 왕래했다고 한다.

현지 사원의 명문과 외국 기록은 당시 실크가 인도 남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타밀 지역 실크 제품인 퍼투(pattu)는 구체적으로, 누에로부터 생산된 뽕나무 실크로 정해졌다. 뽕나무는 고지대에서도 재배할 수 있지만 인도 남부 중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현재의 타밀나두와 케랄라(Kerala) 및 카르나타카(Karnataka)와 접경의 닐기리(Nilgiri) 언덕이다(Sir George Watt Industrial Products of India, London, 1908, p. 994). 12세기 중국 기록에 의하면 뽕나무는 출라(Chola) 왕국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견사들이 면제품에 직조되어 코로만델 연안의 항구로부터 수출이 되었다고 한다(Hirth 및 Rockhill). 흥미로운 것은 1139년의 Geniza 고문서 내 서신에 의하면 이집트 실크가 인도 시장에서 잘 팔렸다는 사실이다(S.D. Goitein, Letters of Medieval Jewish Traders (Princeton, 1973), p. 190). 이를 통해 볼 때 비록 인도 현지에서도 실크가 생산되었지만 뛰어난 품질의 외국산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실크, 도자기, 장뇌, 정향, 백단향, 카다몸 및 가루(gharu)가 동부로부터 말라바르(Malabar) 연안으로 수입되었다고 한다(Hirth 및 Rockhill). 이러한 중국 기록에는 또한 말라바르 항구에서의 교역은 일반적으로 금화나 은화를 사용하여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남부 인도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비록 이집트의 디나르(dinar)가 먼저 사용되었으나, 금이나 실크도 가끔 사용되었다고 하는 Geniza 문서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Goitein, Jewish Traders, pp. 190-195).

국제 무역상들이 남부 인도 항구에서 산 물건들 — 진주, 빈랑 열매, 향신료 및 면화 제품 — 의 성격상 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내륙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현지 생산 물품이 연안 지역에 당도하여 국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푸두꼬파이 왕국(Pudukkottai State)의 명문 기록에 의하면 두 명의 순회 무역상이 빈랑 잎과 열매를 출라 지역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련국 당시 내륙과의 상거래는 현지 상인과 순회 상인 간의 체계화된 관계로 인하여 물품이 내륙의 상업 중심지로부터 연안의 항구로 원활하게 거래되었다(Kenneth R. Hall, “초기 중세 시대 남부 인도에서의 가격 결정 및 시장 체계”(Price-Making and Market Hierarchy in Early Medieval south India),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출라 왕조(서기 850~1279) 동안 순회 교역은 현지의 시장 중심지

뿐만 아니라 순회 상인이 강력한 초지역적 상업 주체로 변모해감에 따라 체계화되었다. 출라 왕조 시대의 명문에서도 볼 수 있는 'ticaiyayirattainnurruvar' ('500인의 상인에 의한 1,000곳의 지역'이라는 의미)에서와 같이 이러한 순회 상인 조직은 출라의 항구에서 상업 활동에도 참여하였으며 아울러 내륙의 주요 시장 - 'erivirapattinam' ('거리의 영웅이 상업을 지배하는 곳'이란 의미) - 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었다. 출라시대 명문에 의하면 항구는 귀족들이 순회 상인, 현지 조직과 함께 운영하여 외국과의 교역과 그 수익을 관리했다.

서부 인도의 교역항 유적들

바루치(Bharuch)는 나르마다강(Narmada) 우측에 위치하며, 산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곳이다. 이미 전술한 된 기록에서는 이곳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즉, Bharukachcha(Moti Chandra: 1977:63), Barugaza(McCrindle: 1879: 140), Bargosao(McCrindle: 1979: 78), Barigaza(Nagegowda: 1964: 108), Polu-ka-chepo(Nilakanta Sastri: 1939: 107), Pi-li-sha(Nilakanta Sastri: 1939: 139), Baruz(Nainar: 1923: 27), Bihroj(Nilakanta Sastri: 1939: 131), Baruj, Barwas 및 Barus(Nainar: 1924: 27-28)와 같다.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McCrindle: 1979: 104)는 Bharuch항과 수로 안내 서비스, 교역 활동 등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걸프만으로 진입하는 길은 좁아서 바다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진입하기가 힘들다. 이곳에서의 해류는 매우 강해서 배가 좌우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수면 아래 암초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 강은 해안이 낮고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표식도 없으므로 접근이 쉽지 않다. 항구로부터는 감송향, 코스투스, 브텔륨, 상아, 오닉스, 도자기,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면, 실크, 견사, 고추, 긴 고추 등이 수출되고, 술, 황동, 구리, 납, 주석, 산호, 금, 은, 일반 천, 다양한 종류의 소합향, 전동싸리, 수수, 말 등이 수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1500년에서 서기 1300년까지 콩칸(Konkan) 지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온 소파라(Sopara)는 바세인(Bassein) 북서쪽으로 6km, 비르다르(Virdar) 역 남서쪽으로 6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바세인만은 17세기까지는 칼리얀(Kalyan)과 비완디(Bhiwandi)까지 운항이 가능했으며 지금은 수로가 소파라 쪽에 있다(Ray: 1988: 15). 소파라는 서기 6세기 이후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가 9세기가 되는 무렵 쇠퇴하는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9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그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이후 14세기까지 서부 연안의 중심적 항구로 번성하였다. 서기 1094년의 실라하라(Silahara) 기록에서는 수파라카(Suparaka; Sopara)가 당시 번성하는 항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슬림의 기록자들인 Masudi, Istakhri, Ibn Hawqal, Maqdisi, Idrisi, Dimishqi, Abul Fida 등이 이 항구 도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Nainar: 1942: 78-80), Alberuni(Nilakanta Sastri: 1931: 131) 역시 이 항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부 아랍 기록자들이 언급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Masudi(Nainar: 1942: 78-80)는 이 지역이 샌들로 유명하다고 하였으며, Idrisi(Nainar: 1942: 78-80)는 이곳에서 진주 잡이 활동이 이뤄졌다고 하였다. 한편 Abul Fida(Nainar: 1942:

78-80)는 이 항구가 해적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칼리안(Kalyan)은 아라비아 해와 만나는 울라스강(Ullas)에 위치하는 곳으로 적색의 광택 토기와 목걸이가 발굴된 곳이다. 이곳은 서기 1세기부터 6세기까지만 번성한 곳으로 황동, 블랙우드(참깨) 및 의복 자재를 수출하였다(McCrindle: 1979: 161; D'Costa: 1966: 693-98).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Gopalachari: 1979: 113)에서는 칼리안을 'Calliena' 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만일 배가 자연 현상으로 의도치 않게 그곳에 정박하게 되면 Elder Saraganus 왕이 배에 경비병을 붙여 Barygaza(바루치)로 돌려보냈다고 적고 있다. Ptolemy(McCrindle: 1879: 127)는 이곳을 'Soupara' 라고 칭하고 있다.

타나(Thana)는 봄베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같은 명칭의 지역 중심으로부터 약 34km 떨어진 곳에 있다. 타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다른 기록에는 그곳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Tanah 또는 Tabeh(Nainar: 1942: 80-82), Tana (Nilakanta sastri: 1939: 131), Lana (Nagegowda: 1966: 64), Tu-na-ho (Nilakanta sastri: 1993: 139), Sthanaka (CII:VI: 6-39) 등이 그러한 예이다. 북부 실라하라는 이곳('Tana')을 자신들의 수도로 정하였다. 북부 공간의 실라하라는 서기 800-1260년 동안 이곳을 지배했다(Appadorai: 1990: 591). 인도의 해상 역사에서 이곳은 서기 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그 중요성이 더해진 것은 9세기부터이다. Masudi(Nainar: 1942: 80-82) (서기 913)는 이곳을 두 가지의 명칭, 'Tanah' 와 'Tabeh' 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곳이 중요한 해안 도시라고 하였다. 한편 Nainar는 아랍 기록자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Thana를 'Tana' 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Nilakanta Sastri(1939: 139)는 Alberuni (서기 1030)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이곳을 'Tana' 라고 부르고 있다. 타나는 가죽 제품, 면제품, 버크럼, 방향식물 등을 수출하였으며 금, 은, 구리, 말 등을 수입하였다.

초울(Chaul)은 쿤달리카강(Kundalika)의 북부 강변에 위치하며, 봄베이항 남쪽의 약 40km 위치에서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이 쉽게 들를 수 있는 항구가 있는 로하만(Roha) 상류에 소재한다(Ray: 1988: 61). Hiuen Tsang은 서기 642년에 이곳을 'Chimola' 라고 불렀다(Nilakanta Sastri: 1939: 89). 10~12세기 아랍 여행자의 기록에 초울은 'Saimur' 및 'Jaimur' 로 나타난다(Imp. Gaz.:X:184-85). Al Masudi, Istakhri, Ibn-Hawqal, Maqdisi, Aldirisi, Yaqut, Qazwini 및 Dimishqui에 의해서는 Saymur라고 언급되고 있다(Nainar: 1942:69-72). Panjim plaes of Jayakesin(CII:VI:XV)은 아랍 상인 Aliyama가 체물라(Chemulya)에 정착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초울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까지 북부 공간을 지배한 타나 실라하라의 중요한 항구였다(Appadorai: 1990: 591). 이 항구는 방향 식물, 특히 '헤나(henna)' 로 유명하였다. 사카력(the Saka year)으로는 1016년인, 서기 1094년에는 Sri Sthanka (Thana), Suparaka (Sopara), Chemulya (Chaul) 및 Kandamulya로부터 방문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구 이용료를 면제시켜 주는 Anantapala 또는 Anantadeva I의 Kherepatan Plates가 공표되었다(CII:VI:XVI and 115). 초울은 방향 식물, 알로에, 쌀 등을 수출하였으며, 허브와 알로에는 이 항구를 통한 주요 수입 품목이기도 했다. 서아시아의 도기들은 사산왕조-이슬람식 터키식 채도기, 분홍색 채도기, 스크라피아토(Sgraffiato) 기법의 도기, 담황색 도기, 흰색 슬립 도기, 계란껍질 모습의 도기, 흰색 유약 칠의 도기, 레드 슬립 핑크(red slipped pink) 도기(노젓기 무늬가

있거나 없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도기로는 일반 도자기, 흰색 바탕 위 청색의 도자, 청자 및 사기그릇 등이 있다(Gogte et.al 2006).

고아(Goa)는 만다비강(Mandavi) 어귀에 있는 도시이다.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에



초올의 중세 초기 페르시아 유약칠 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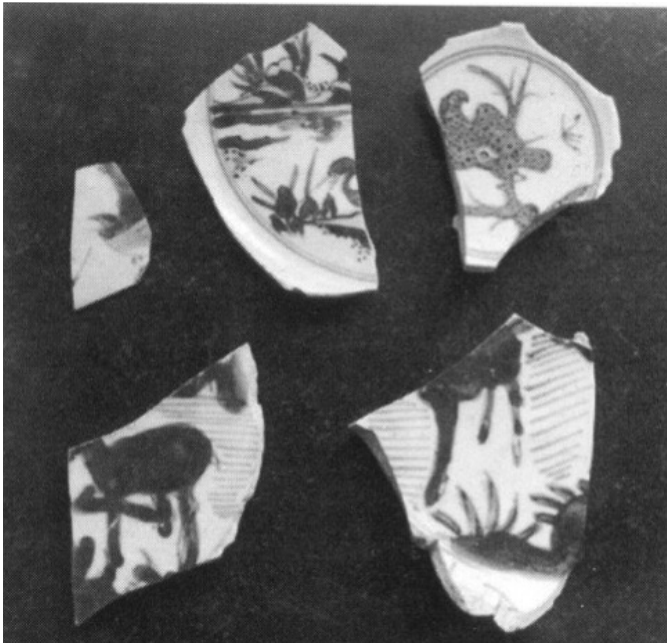
초올의 중세 초기 페르시아 스킴피토 도기

는 'Aigi-dioi' 또는 'Aegidi' 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McCrindle(1879:130)는 이곳이 고아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아랍 기록자에게 고아는 'Sindabur' 라고 알려져 있었다(Appadorai: 1990:593). 서기 11세기 이후에도 항구로서의 중요성이 있었던 고아는 비자야나가라(Vijayana-gara) 기간 동안 쌀, 설탕, 철, 후추, 생강, 향신료,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 말 등을 수입하기 위한 항구로 이용되었다(Appadorai: 1990: 593). 이러한 상황은 12세기 말과 13세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다쉬브가드(Sadashivgad)는 카르와르(Karwar) 북쪽, 칼리강(Kali)의 북부 강변에 위치하는 곳이다. Nainar (1942: 69-72)는 아랍 지리학자의 작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산다부르(Sandabur)가 이곳임을 파악했으며, 또한 Idrisi, Dimishqi, Abul-Fida 및 Ibn-Batuta 이란 곳도 이곳임을 밝혀냈다(Nilakanta

Sastri: 1939: 216).

하노바라(Honnava)는 바트칼(Bhatkal) 북쪽과 카르와르(Karwar) 남쪽에 있는 샤라파티강(Sharavati) 북쪽 강변에 위치하는 곳이다. 이곳을 방문한 외국의 방문자들은 이곳에 대해 다양한 지리적 묘사를 남겼다.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McCrindle: 1891: 130)는 이곳을 'Naoura' 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슬림 저자인 Abul Fida(Nainar: 1942: 61)와 Dimishqi는 이곳을 각각 'Hunnura' 및 'Honnur' 라고 부르고 있으며, Ibn-Bututa(서기 1335~45)(Nilakanta Sastri: 1939: 216)는 'Hunawara' 또는 'Onore' 라고 부르고 있다. 항구들은 향신료 및 기타 농산물의 교역을 위하여 강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후추, 생강, 설탕, 약초, 귀한 목재, 방향성 식물 같은 품목들이 이 항구들을 통해 수출되었을 것이다. 한편 수입의 경



초울의 제비, 왜가리, 매, 사슴 그림의 중국 청화 자기

우는 말, 코끼리 및 당시에 수요가 많았던 사치용품들이 수입되었다.

바트칼(Bhatkal)은 호나바라(Honnava-
ra) 남쪽으로 약 40km의 아라비아 해와
합류하는 소규모 하천 어귀에 위치한다.
언덕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는 이곳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람들로부
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Kosmas(D' Costa: 1966: 693-
98)에 의해 이미 6세기 초부터 이곳이 언
급되고 있는데, 그는 이곳을 'Parti' 라고
불렀고 D' Costa 역시 이렇게 불렀다. 외
국 방문자인 Friar Jordanus (서기 1321)

(Imp. Gaz: VIII: 80), Dimishqui(서기 1325)(Nainar: 1942: 26) 등이 이곳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Jor-
danus(Imp. Gaz: VIII: 80)는 이곳을 'Battical', 그리고 Dimishqui(nainar: 1942: 26)는 'Barqali' 라고 부르
고 있다. 비자야나가르(Vijayanagar) 제국 통치 동안 이 항구는 후추, 쌀, 설탕, 코코넛, 천 및 철을 수출
하였고 말을 수입하였다 (Appadorai: 1990: 530-38).

쉬루르(Shirur)는 쿤다푸라(Kundapura) 북쪽으로 약 32km, 남부 카나라(Kanara)의 북쪽 경계를 형성
하는 작은 만에 위치한다. 바인두르(Baindur) 항구의 담당 및 통제 속에 있던 이곳에 대하여 Nainar(1942:
69-72)는 아랍 기록자가 'Saymur' 라고 한 곳을 이곳이라고 판단하였다.

바사루루(Basaruru)는 강골리강(Gangolli)의 남쪽 강변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쿤다푸라(Kundapura) 동
쪽 약 6km에 위치한다. Pliny의 Barce에는 이곳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Imp. Gaz.VII: 106), 금석학적
기록에서는 이곳을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 이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서기 1175~76년의 명문에서는 이
곳을 'Basururupattana' 라고 불렀으며(SII:IX-I:394) 또한 'Basurepattana', 'Barkalur' 및 'Vasupura' 라고
도 불렀다 (Gururaja Bhat: 1969:3). 중세시대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아랍의 기록자에 의하여
'Bracalor', 'Brazzalor', 'Bracelor' 등으로 다르게 불렀다(MDM:SC:II:242). Ibn-Battuta(Nilakanta Sastri:
1939: 216)는 이곳을 'Abu-Sarur' 라고 불렀으며, 또한 Abul-Fida가 이곳을 그 당시에 'Basur Mangalore'
라고 정확히 불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Ibn-Battuta(Nilakanta Sastri: 1939: 216)는 이곳이 만에
위치하였으며 코코넛이 풍부하다고 설명하였다. Barbosa(Appadorai: 1990: 531)에 의하면 바사루루는
아덴(Aden)으로 쌀을 수출하였다.

바라쿠르(Barakur)는 우두피(Udupi) 북쪽에서 약 16km 떨어진 시타강(Sita) 어귀에 위치한다. Sun-
dara(1990:39-44)는 흑적색 도기들이 생산되던 때가 바라쿠르 연안의 초기 역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야 한다고 하였다. 서기 11~12세기 동안에 이곳은 알루파스(Alupas)의 수도였으며(Guraja Bhat: 1969:2), Ballala II 재위 기간 중 호이살라 왕조의 보조적 수도 역할을 하였다(Ramesh: 1970: 139). 아랍의 기록자 중 Yaqut와 Dimishqi가 이 항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Yaqut(Nainar: 1942:33)는 'Faknur'가 후추가 풍부했던 말라바르(Malabar)의 중요 도시 중 하나라고 하였다. Dimishqi는 이곳이 호나바라(Honnavara)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후추로 유명했다고 하였다. Ibn-Battuta(Nilkanta Sastri: 1939: 216)도 이곳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이곳이 큰 만에 위치하여 사탕수수가 풍부했다고 하였다.

말페(Malpe)는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의 닥쉬나 카나다(Dakshina Kannada) 지역인 우두피(Udupi) 서쪽 약 4km 지점에 위치한다. 이 고대 항구 도시는 말페 또는 우다야바라(Udayavara)라고 하는 강 어귀에 위치하였다. 이 항구의 서쪽 바다에는 3개의 암석으로 된 섬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은 'Daria-Bahadurgad'라고 불리고, 중간 섬은 'Daria-Gadara-Kallu'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Kari-Ilad-kallu'라고 불린다. 이러한 섬들과 해안 사이의 바다는 사시사철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었던 자연이 제공한 최고의 정박지였다(Kar. Gaz, SK:724). Ptolemy(Nagegowda:1964:119)는 'Malippala'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말페이다.

우다야바라(Udayavara)는 우두피(Udupi)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말페강(Malpe) 북쪽 강변에 위치한다. 이곳은 약 7세기부터 비자야나가르(Vijayanagar) 제국 통치 기간까지 알루파(Alupa) 왕조의 수도였다. 이곳의 명칭은 여러 명문에서 'Udayapura', 'Udevura', 'Odayavara' 등과 같이 다르게 언급되고 있다(Ramesh et. al, 1978:6, 25 and 33). 우다바라(Udyavara)의 고대 유적지는 서기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Gururaja Bhat:1969:23).

망갈로르(Mangalore) 항구 도시는 네트라바티(Netravati)와 구루푸라(Gurupura) 강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그 어귀로부터 총 8km까지 선박 운항이 가능한 강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 이곳은 항구이자 어업의 중심인 닥쉬나 카나다(Dakshina Kannada) 지역의 중심부이다. Ptolemy(Nagegowda:1964:109)는 서기 2세기 초에 이곳이 네트라바티강(Netravati)의 오른쪽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liny(McCrindle: 1979:111)('Elder')는 이 항구를 'Nitraas'라고 불렀으며, Kosmos Indisopleustes(McCrindle: 1979:161)는 이곳을 Mangalore에 해당하는 'Mangarouth'라고 불렀다. 12세기의 유명한 중국 문인 자오뤄취(趙汝适)(Nilkanta Sastri: 1939: 134)는 이곳을 'Fang-ya-lo'라고 불렀다. 아랍의 문인인(Nainar: 1942: 61) Dimishqi와 Abul-Fida는 이곳을 설명하면서 'Manjarur'라고 부르고 있다. Dimishqi는 'Manjarur'시가 같은 이름을 가진 강의 어귀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또한 이곳은 후추가 풍부하다고 한다. Abul-Fida는 이곳은 호나바라(Honnavara) 및 바사루르(Basarur) 남쪽에 위치하며 말라바(Malabar)의 큰 도시라고 하였다. Ibn-Battuta(서기 1342)(Nilkanta Sastri:1939:238) 역시 이곳을 'Manjarur'라고 언급했고, 페르시아와 예멘의 상인들이 활동했다고 설명하였다.

인도 연안의 항구, 부두 및 정박지, 특히 사우슈트라(Saurashtra) 연안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하라파(Harappan) 문화와 초기 역사시대를 지나 중세시대에 다다른 고고학적 유적을 광범위하게 고찰할 수

있었다(Gaur and Sundaresh 1994). 다음과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드와르카(Dwarka)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석재 조각들과 6~8m의 수심에 잠겨있는 125개의 석재 닻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닻은 여러 구조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형식(석회암 블록, 삼각 형태에 박 줄 구멍과 2개의 하단 직사각형 구멍 및 중량은 16~496kg)과 인도-아랍 계통(긴 암석 블록을 절단하여 위로 가늘어지고 하부는 둥근 구멍과 블록의 양쪽 면으로 직사각형 구멍이 있으며 중량은 82~668kg), 중량이 20~245kg인 고리형 석재 닻으로 구분된다.

베트 드와르카(Bet Dwarka)는 카치치(Kachchh) 만의 초입, 드와르카(Dwarka) 북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는 섬이다. 발견된 많은 양의 암포라(amphora) 항아리 파편은 그 형태로 보아 4~5세기 로마 시대의 암포라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도기들은 로마제국에서 생산된 술과 올리브 오일을 수출하는데 사용되었다. 복합적 구조를 가진 석재 닻과 인도-아랍 계통의 석재 닻들이 현재의 베트 드와르카(Bet Dwarka) 부두 근처의 6~8m 수심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복합형 닻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석이 가능한 석회암 블록을 절단한 것이다. 이 닻들의 상부 원형 구멍은 깨진 것이 많지만 하부의 직사각형 구멍들은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아랍 계통의 닻들은 주로 현무암과 같은 경질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핀다라(Pindara)는 카치치만(Kachchh)의 사우라슈트라(Saurashtra) 북쪽 연안에 위치한다. 다듬은 석회암 블록들로 구성된 바닥이 잘 보존된 상태이나 대규모 시바(Shiva) 사원 때문에 상부 블록은 7~10세기경에 훼손된 상태이다.

비스와다(Visawada)는 포르반다르(Porbandar) 서쪽 약 40km, 미야니(Miyani) 동쪽 약 20km에 위치하며 물 드와르카(Mul Dwarka)라고도 불린다. 여기서부터 길게 킨다리 만(Kindari Creek)이 지나는데, 그곳의 수심 5~6m의 깊이 부근에서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여기서 발굴된 14개의 석재 닻은 복합형, 인도-아랍 계통, 고리형으로 구분된다.

숨나트(Somnath) 사원 남서쪽 400m 지점의 바다에서는 지금까지 35개의 고리형 닻이 발굴되었다. 이곳의 수심은 7~15m 수준이며 고리형 닻은 8m 미만의 수심에서 발견되었다.

코디나르(Kodinar)(물 드와르카(Mul Dwarka))는 주나가드(Junagad) 지역 코디나르(Kodinar) 인근의 작은 해안 마을이다. 서기 10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대 사원이 바다 근처에 솟아오른 땅 위에 지어져 있다. 잘 다듬은 석회암 블록들로 축조된 4m 높이의 Diva Dandi 등대라 불리는 원형 구조물 또한 그곳에서 발굴되었다. 만일 이 구조물이 당시에 등대의 역할을 했다면 아마도 사우라슈트라(Saurashtra) 연안에서는 그 등대가 발견된 유적 중 최초의 등대 유적일 것이다. 조사 진행 중에 퇴적암으로 만든 복합형 석재 닻이 썰물 때 노출되어 발견되었는데, 상부에는 원형 구멍이 있고 하부에는 사각형의 구멍이 2개가 있다. 상부는 반원형이고 모서리들은 날카로운데, 이 닻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져 12cm에서 20cm가 되고 역사시대와 중세시대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드와르카와 베트 드와르카의 것들과 유사하다(Gaur et al. 2008).

작은 마을인 미티 비르디(Mithi Viridi)는 탈라자(Talaja) 남부 30km에 있으며 해안가 가까이 있는 용기 한 대지 위에 위치한다. 유적은 마을로부터 약 1km 떨어진 농토에서 발굴되었다. 약 1km의 넓이에 걸친 이 농토에서 서로 유사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직사각형의 단면과 상하 마름모꼴 형태에 역암 재질로 2개의 하부 구멍과 상부에는 구멍이 없는 닻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고가(Gogha)는 바브나가르(Bhavnagar) 지역의 캄바트(Kambhat) 만의 서부 연안에 있는 소도시이다. 이곳에 있는 자인(Jain) 사원은 서기 10~1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초기 아랍 명문에는 1170년쯤으로 나와 있다(Oza 1885: 2). 고조선(高潮線, high water line)으로부터 100~200m 거리에 많은 수의 석재 닻들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은 인도-아랍 계통이고 복합형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유약이 발라진 도기(녹색, 청색 및 갈색)의 파편들도 찾을 수 있다.

하타브(Hathab)는 초기 역사시대의 유적으로, 고대 해양 안내서인 Periplus of the Erythraen Sea에서는 'Astacampra' 라고 불리고 있으며 내륙으로 1km 정도 들어간 이곳에서는 인도-아랍 계통의 닻이 발견되었다.

고프나트(Gopnath)는 캄바트(Khambhat) 만에 진입하는 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2.2m이고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 2개의 하부 구멍과 1개의 상부 구멍을 가진 인도-아랍 계통의 석재 닻이 물 높이가 낮아진 간조 시점에 발견 되었으며 이것은 밀물이 된 연안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케랄라(Kerala) 연안의 거의 모든 항구 유적들 - Kannur (Cannanore), Dharmadam, Mahe, Pandalyini Kollam, Quilandi, Calicut, Ponnami, Kodungalur (Caranganore) 및 Kollam (Quilon) — 에서는 17~18세기의 도자기들이 일부 발굴되었다(중국 명나라 및 청나라 시대). 일부 유적에서는 더욱 이른 시기의 도기도 발견되었다. 코둔갈루르(Kodungallur)에서는 1946~47년에 코친주(the Cochin) 고고학 팀에 의해 시행된 발굴 작업을 통하여 13~14세기의 청자 파편이 발견되었다(ARADCS 1947 and 1948).

근래 발굴 지역 중 가장 흥미로운 두 곳은 판달라이니(Pandalayini)와 콜람(Kollam)인데, 이 두 곳 모두에서는 13~14세기의 정교한 청자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판달라이니(판달라이니-콜람이라고도 함)는 아랍 저자들이 'Fandarina' 라고 부르는 칼리쿠트(Calicut)로부터 약 40 km 떨어진 북쪽에 있다. Ibn Battuta의 언급대로 판달라이니에는 다수의 신구 모스크들이 있으며, 'Nakarewaram' 이라고 불리는 브라만교 사원이 있고, 'Jamayath Palli' 라 불리는 오래된 유명한 모스크가 해변의 언덕 위에 있다. 그리고 'China Palli' 라 불리는 중국인들의 모스크가 있다. 이러한 모스크들이 있는 부근에서 많은 도기 파편이 발견되는데, 이곳에서 진행된 다른 발굴 작업에서 약 0.9m의 문화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이곳의 상부 절반에서는 도자기 파편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다. 청자는 룡취안(龍泉)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며 청화 도기들은 징더전(景德鎮)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인데, 이 모두는 13~14세기의 것이다. 이곳에서는 광둥(廣東)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갈색 유약의 도기들도 발견되었다.

트리바난타푸람(Trivanthapuram) 북쪽 50km에 있는 콜람(Kollam)에서는 지표면에서 몇 점의 청자와 청화 자기 파편이 유럽 도기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그러나 콜람의 교외인 탕가세리(Tangasseri)에서

는 등대 주변으로 침식에 의한 약 1m 깊이의 긴 해변 구간 중 약 50cm~1m 깊이에서 14세경의 뛰어난 청자들(롱취안 양식)이 많이 발견되었다. 판달라이니와 램에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보호구역이 있었다. 칼리쿠트(Calicut)에서는 단지 몇 점의 도기 파편이 수거되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내 장소의 이름이 흥미로운데, 이를테면 'Silk로'라는 거리가 있지만 현재는 더이상 실크가 거래되지 않는다. 그리고 Silk로에는 현지에서 'Chinakotta'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는 '중국 요새'를 의미한다.

상기 자료와 고고학적 유적지, 그리고 청화 자기나 유약 칠 도기 등 중국 도자기와 같은 유적과 유물들을 비인도계 요소로 판단할 때 일부 유적은 일정한 기간에만 그 전성기를 맞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배자 또는 귀족 계층이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교역을 어떤 특정 항구로부터 자신들이 선호하는 조건들로 교역하도록 한 결과일 수 있다. 이를테면 출라(Chola) 왕조때 나가파티남(Nagapattinam)이 교역의 요충지가 됨에 따라 마말라푸람(Mamallapuram)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인도와 중국의 지배자들이 해상 교역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였다는 사실도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출간된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서기 8~16세기 동안 해상 교역의 측면에서 중요하였던 고고학적 유적을 짧은 기간에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많은 항구 유적에서 당시 교역이 이뤄졌던 정확한 시기나 대상 물품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Nagaswamy, R. (1981) Roman Sites in Tamilnadu: Recent Discoveries. In Madhu: Recent Researches in Indian Archaeology and Art History, pp. 337-39. Delhi.
2. NRaman, K.V (1992) Further Evidence of Roman Trade from Coastal Sites in Tamilnadu. In V Begley & R.D. De Puma, eds., Rome and India. The Ancient Sea Trade, pp. 125-33. Wisconsin University Press, Wisconsin and Oxford University Press, Delhi.
3. Rao, K.P. (forthcoming) New Archaeological Evidence Revealing South India's Early Contacts with China. In Theme Papers, World Archaeological Congress. New Delhi, December 4-11, 1994.
4. Parabrahma Sastry, P.V. (1978) The Kakatiyas of Warangal, Publ. of Govt. of Andhra Pradesh, Hyderabad.
5. Nilakanta Sastri, K.A. (1939) Foreign Notices of South India. University of Madras, Madras.
6. Hultzch, E. (1914-15) Motupalli Pillar-Inscription of Ganapatideva A.D. 1244-45. Epigraphia Indica, 12, pp. 188-97. Calcutta.
7. Karashima, N., 1989a, Trade Relations between south India and China during the 13th and 14th Centuries,

- Journal of East-West Maritime Relations, Vol. I: 59-81.
8. Nilakanta Sastri, K.A., 1972, Foreign Notices of South India, Madras University.
 9. Subbarayalu, Y., 1996. Chinese Ceramics of Tamilnadu and Kerala Coasts. In Tradition and Archaeology Early Maritime Contacts in the Indian Ocean (Etd. Himanshu Prabha Ray and Jean-Francois Salles) Manohar, New Delhi.
 10. Annual report of the archaeology department of cochin state for the year 1945-46 (1947): 2-3
 11. Annual report of the archaeology department of cochin state for the year 1946-47 (1948)
 12. Ray, H.P., 1988. Monastery and Gui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hi.
 13. Oza, V.G. (1885), Old research collection of Bhavnagar, Bhavnagar.
 14. Gaur, A.S., Sundaresh and K.H. Vora. 2008. Under water Archaeology of Dwarka and Somnath (1997-2002), New Delhi: Aryan Books International.
 15. Moti Chandra, 1977. Trade and trade Routes in Ancient India, Abhinav Publications, Delhi.
 16. John W. McCrindle, 1979. Ancient India as described in Classic Literature, Oriental Books Reprint Corporation, Delhi.
 17. John W. McCrindle, 1896. Ancient India as described by Ktesias the Knidian, Calcutta.
 18. John W. McCrindle, 1973. The Commerce and Navigation of the Erythrean Sea, Phillow Press, Amsterdam.
 19. Nagegowda, H.L., 1964-1983. Pravasi Kanda India. Vol. 7 Prasaranga, University of Mysore, Mysore. (in Kannada Language)
 20. Nilakanta Sastri, K.A., 1939. Foreign Notices of South Indian Coins, Vol. I, II and III. New Era Publishers, Madras.
 21. Nilakanta Sastri, K.A., 1967. The Age of Nandas and Mauryas, Motilal Banarasidas, Delhi.
 22. Nilakanta Sastri, K.A., 1980. Advanced History of India, Allied Publishers Private Ltd. Delhi.
 23. Nainar, S.M.H., 1924. Arab Geographer's Knowledge of South India, University of Madras, Madras.
 24. Ray, H.P., 1988. Monastery and Gui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lhi.
 25. Corpus Inscriptionum Indicarum Volumes I, VI and XVI.
 26. Gopalachari, K., 1979. Early History of Andhra Country, University of Madras, Madras.
 27. Appadorai, A., 1990. Economic Conditions of Southern India, Vols. 2, University of Madras, Madras.
 28. Imperial Gazetteer.
 29. Gogte, V., Pradhan, S, Abjith Dandekar, Sachin Joshi, Rukshana Nanji, Shivendra Kadgaonkar and Vikram Marathe. 2006. The Ancient Port at Chaul. Journal of Indian Ocean Archaeology. Vol. 3.

토론문

해양실크로드 개괄

- 8~16세기 인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국(비인도계) 유물을 중심으로

주 경 미

충남대학교 강사

먼저 멀리 인도 뉴델리 박물관에서 오신 Yogesh Mallinathpur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 학계의 해양실크로드 연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대회라고 생각합니다.

Yogesh Mallinathpur 선생님의 발표는 인도 아대륙에 분포한 고대 및 중세시기의 고고학적 유적들과 각종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중세기 해양실크로드의 현황과 인도 내 항구들에서 이루어진 교역 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집대성한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발표자는 인도 연안의 고대 항구 유적들에 대해서 명칭과 고고학적 발굴 상황 및 주요 유물들을 종합하여 80개소 이상의 항구 및 도시 유적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항구 도시 및 유적은 인도 동부 연안 지역의 44개소 및 서부 연안의 40개소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명과 명칭들이 나오므로, 청중들을 위해서 우선 토론지는 발표자의 연구에 언급된 항구 및 도시명은 다음의 <표 1>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한국내 학계에서는 인도 고고학 유적 연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자의 백과사전과도 같이 자세한 자료는 향후 한국내 해양실크로드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표 1〉 인도 연안의 항구 도시

	지명 (논문에서 기술된 순서에 의함)
동부 연안 항구 도시	1. Tamralipti, 2. Nanaigam, 3. Konagar, 4. Kosambi, 5. Palu, 6. Palur, 7. Manikapatna, 8. Boitakuda, 9. Banijpur, 10. Khalkata Patna, 11. Kalingapatanam, 12. Mylapore, 13. Mamallapuram, 14. Nagapattanam, 15. Tiruvadandai, 16. Visakhapattanam, 17. Qayrah, 18. Abatu, 19. Tanda, 20. Daqtan, 21. Fatni, 22. Kaveripattinam, 23. Uraiyur, 24. Karur, 25. Vasavasamudram, 26. Alagankulam, 27. Karaikadu, 28. Kalingapatnam, 29. Salihundam, 30. Amaravaty, 31. Kottapatnam, 32. Motupalli, 33. Nattakkadu, 34. Kilakkarai, 35. Palaya-Kayal, 36. Devipattinam, 37. Arikamdeu, 38. Tranquebar, 39. Porto Novo, 40. Sadras, 41. Gangaikondacholapuram, 42. Darasuram, 43. Settur, 44. Vellore Fort
서부 연안 항구 도시	1. Bharuch, 2. Sopara, 3. Kalyan, 4. Thana, 5. Chaul, 6. Goa, 7. Sadashivgad, 8. Honnavara, 9. Bhatkal, 10. Shirur, 11. Basaruru, 12. Barakur, 13. Malpe, 14. Udayavara, 15. Mangalore, 16. Dwarka, 17. Bet Dwarka the island, 18. Pindara, 19. Visawada, 20. Somnath, 21. Kodinar, 22. Mithi Virdi, 23. Gogha, 24. Hathab, 25. Gopnath, 26. Kannur, 27. Dharmadam, 28. Mahe, 29. Pandalyini Kollam, 30. Quilandi, 31. Calicut, 32. Ponnami, 33. Kodungalur, 34. Kollam, 35. Kodungallur, 36. Pandalyini, 37. Kollam, 38. Tangasseri, 39. Calicut, 40. Balipatana,

이러한 여러 해양실�크로드 관련 유적지와 항구 도시들의 존재는 8세기부터 16세기경의 해상 국제 교류에서 인도 연안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여러 해양실�크로드 상의 항구 도시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꾸준히 인도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한국 학계에서는 인도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도 고고학과 한국 학계의 상호 교류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인도 고고학과 지리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발표자의 자료 소개와 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발표자가 미리 보내주신 발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80여개소의 항구들이 모두 고고학적 조사가 완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고, 발굴보고서의 간행 상태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발굴을 더 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최근에 발굴 중이거나 발굴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학자들이 그러한 유적을 방문하여 답사나 조사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러한 항구도시들에서 이루어진 수출 및 수입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해양 실크로드와 관련된 지역에서 중국 도자기가 발굴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청자는 이집트 푸스타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송대부터 명대까지의 청자와 백자, 청화백자는 아프리카 동남부 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도자기의 발굴 범위로 볼 때, 인도 아대륙 연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국 도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 내에서 이러한 중국 도자기 연구자가 많은지, 구체적으로는 발표자 이외의 어떤 분께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인도 연안의 항구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물건 중에는 금이나 은, 그리고 특이하게 말(horse)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금, 은, 말은 모두 인도 내에도 있을 만한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원후 천년경 정도에 왜 이러한 물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품의 원산지는 어디였을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말의 원산지는 중국 쪽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랍쪽이었다고 보시는지 양쪽 모두였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인도 연안의 도시들은 아랍과 서양,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전 세계의 물품들을 중개무역하면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말의 교역 루트와 시기 및 원인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많은 항구들 중에서, 특히 동아시아 해상 교역활동과 관련하여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항구는 어디였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동부 연안의 항구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추정되지만, 발표자의 발표문 중에서는 탐마립티, 코나락, 혹은 마말라푸람, 나가파티남, 아리카메두 등 지금까지 잘 알려진 유적에서의 동아시아 관련 출토 유물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항구 도시에 혹시 중세 차이나타운이나 신라방과 같이 non-Indian 으로서의 동아시아인들이 거주했던 주거지 유적이나 흔적 등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향후 조사나 연구를 위해서 한국 학계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문4

부남(扶南)과 해양실크로드

Ven Sophorn

시엠립 앙코르국립박물관 학예사

요약

서론

부남 왕국

부남인

부남의 수도

부남의 대외 관계와 영향

앙코르 보레이

옥에오

결론

발표문4

부남(扶南)과 해양실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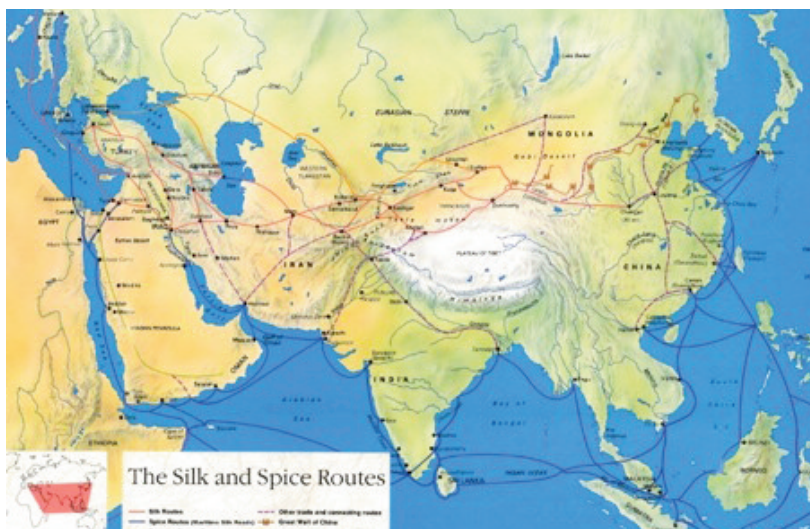
Ven Sophorn

시엠립 앙코르국립박물관 학예사

요약

본고는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 및 옥에오(Oc Eo) 2개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 하나이자 3~6세기경 중국, 인도, 로마, 페르시아 제국을 잇는 해양실크로드와 연결되는 중요 무역항을 보유했던 부남(扶南)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 부남, 해양실크로드, 앙코르보레이, 옥에오



지도 1: 해상로, 출처: <http://en.unesco.org/silkroad/about-silk-road>

서론

역사적으로 수 세기 동안 중국으로부터 동유럽을 연결하며 “실크”를 주요 무역 상품으로 수송하였던 육로를 “실크로드”(Silk Road: 지도 1 참조)라고 불려 왔다.

중국산 실크는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인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이 육로는 실크 물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그 육로 주위로 다양한 문화를 교류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리스시대 초기에는 실크 수요 증가로 인하여 해양 무역로가 개척되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해안을 통과하는 새로운 해양실크로드가 생겨났다(Lynda 2015: 18). Michael Vickery에 따르면, 3세기 초 중국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오(吳)나라는 적국인 위(魏)나라와 진(晉)나라로 인해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육로가 봉쇄되었다. 물자의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하여 인도와 중동으로 가는 새로운 해상 교역로를 찾아야만 했다(Vickery 2001-2002). 동남아시아와 접촉하기 위한 초기 해상 루트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며 광둥이나 판위(番禺)같은 곳을 주요 항구로 두고 거쳐야 했다(Angela Schottenhammer 2012: 63-86). 아울러 한서(漢書)의 기록과 동남아시아와 인도 해안의 고고학적 증거를 비교해볼 때 당시의 선박은 허포(合浦) 또는 취원(徐聞)에서 출항하여 부남의 항구인 옥에오에 도달하였다. 이후 태국만을 통과하여 말레이반도 크라지협(Kra Isthmus)의 동쪽 연안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물품은 아마도 크라지협의 아주 좁은 통로를 건너서 하역되고, 육지로 수송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선박들은 벵골만 방향으로 운항하였다. 그 이후에도 선박들은 스리랑카의 동부 연안, 인도 남부의 항구 아리카메두(Arikamedu) 또는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에 있는 항구로 운항을 계속했다(Angela Schottenhammer 2012: 68). 인도의 동부 연안에서 활동하면서 상인들은 중국의 실크를 직접 교역하기 위한 해상로를 찾기 시작했다. 갠지스강 어귀를 출발한 선박들은 벵골만을 따라 운항하여 말레이반도에 이르렀고, 이후 남쪽을 따라 가장 협소한 지점인 크라지협으로 운항한 후에는 부남에 이를 때까지 태국만 연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했다(Lynda 2015: 20).

지금부터는 부남 왕국과 해양실크로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남 왕국

중국의 3국 시대 중 위나라 자오저우(膠州)성의 성주인 육달(陸達)은 강태(康泰)와 주응(朱應)을 부남에 사신으로 보내었는데, 이들은 귀환 후에 부남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Khoo 2003: Si Khai: 43). 부남은 드넓은 만에 위치한 린이(林邑; 북중 베트남)로부터 서쪽으로 3,000리(1,20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폭은 동서로 약 3,000리가 되었으며 서쪽 또는 북서쪽으로부터 바다로 향하는 커다란 강

이 있었다(Vickery 2001-2002). 부남은 내륙 남동쪽의 광활한 지역을 점하고 있었으나 그 경계는 명확하지 못하였다(Vickery 2003/2004, Kang 2013). Mae Chee Huynh Kim Lan에 의하면 최고 전성기 당시의 부남의 영토는 라오스와 태국 및 미얀마 일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오늘날의 베트남 남부도 포함하였으며 말레이반도까지 이르렀다고 한다(Mae Chee Huynh Kim Lan 2010: 11). 1903년에 Paul Pelliot이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에 게재한 “부남 왕국(Le Funan)”이란 글은 부남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부남에 관한 21점이 넘는 중국의 기록들을 소개한다(Vickery: 2001-2002:1). 그 중의 하나로 부남의 건국 기원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에 신인(神人) 혼전(混填)이 꿈에서 신으로부터 활을 받고 현몽(現夢)에 따라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그는 절로 가서 그러한 신궁(神弓)을 받게 되었으며, 이윽고 항해를 하여 부남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배를 본 부남의 선주민족의 여왕 유엽(柳葉)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혼전이 그의 활을 들어 배를 향해 쏘아 배안의 누군가를 맞힘에 따라 놀란 유엽이 항복을 하였으며, 결국 혼전은 유엽과 혼인을 하였다. 유엽은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혼전은 천으로 그녀를 감쌌다. 이와 같이 하여 부남 왕국이 세워졌는데, Pelliot은 이 시기를 서기 1세기경으로 보았다(Pelliot, le Founan: 256). 또 다른 건국 신화는 서기 658년에 이르는 참(Cham)족의 명문(銘文)에서 발견된 캄부자(Kambuja)의 수도 바외뿌라(Bhavapura)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카운딘야(Kaundinya)라는 한 브라만이 드로나(Drona)의 아들인 아스바타만(Asvatthaman)으로부터 받은 창을 땅에 심었다고 한다. 나가(Naga) 왕과 그의 딸이자 왕국의 공주였던 소마(Soma)는 왕족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워 살았는데 브라만 카운딘야(Kaundinya)가 이들을 정복하고 소마와 혼인을 하였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캄부자 연대기에 이러한 내용이 18세기 전쟁 중에 사라졌으며, 그 세기 말에 가서 다시금 재작성되었다는 것으로, 인드라프라스타(Indraprastha; 델리)의 왕 아딧야밤사(Adityavamsa)가 그의 아들인 프라 통(Prah Thong)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왕국으로부터 추방하였다고 한다. 왕은 콕톨록(Kok Thlok; ‘톨록(Tholok) 나무의 땅’)에 도착하여 참족의 왕자를 폐위하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어느 날 밤 해안가의 파도 소리에 이끌린 그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나기(Nagi)라는 여인이 해변으로 놀러 왔는데, 그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혼인을 하게 된다. 나기의 아버지인 나가-라자(Naga-rajā)는 나라를 덮고 있던 물을 빼내어 사위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도움을 세운 후 이 왕국의 이름을 캄부자(Kambuja)로 명명하였다(Chatterji: 1964:2-3). 또한 Vo Si Khai는 그의 글 “부남 왕국과 옥에오 문화(The Kingdom of Funan and the Culture of Oc Eo)”를 통해 인도의 카운디나와 소마 전설을 기반으로 중국 사료상의 혼전과 유엽의 전설을 반영한 부남의 건국(1~2세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전설은 Coedès이 쓴 책 “동남아시아의 인도화 국가(State of Southeast Asia (Les états Hindouisés d'Indochine et Indonésie))”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카운디나라는 이름의 이방인이 부남으로 이주해왔으며, 그의 이주가 부남의 인도화의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적혀있다. 이후 관체만(Fan Che Man)의 재위 기간 중 왕국이 정점을 이루어 대형 선박을 보유하고 보다 넓은 바다로 향했으며 10개 이상의 왕국을 공격하였고 영토를 5~6천리 이상

확장하였으며 말레이반도마저도 상당 부분 정복한 것으로 보인다. Catterji는 판체만 왕을 2세기 부남이 크게 성장한 데 기여를 한 스리마라(Sri Mara) 왕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 특히 Vickery는 5세기(424-453 AD) 중국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바르만(Varman)을 왕의 새로운 별칭으로 언급하고 있다. 470~480년 이후의 기간 중 부남의 왕은 점차 자야바르만(Jayavarman)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톤레바티(Tonle Bati)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남의 비석 명문 K.40에 부합이 된다. 이러한 명문은 그 특징으로 보아 아마도 앙코르인 이전의 시기에 새겨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자야바르만의 재위로부터 7세기 까지 중국 사료에는 부남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대신 첸라(Chenla)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Vickery 2001-2002: 8).

부남인

부남인들은 초기 크메르 오스트로 아시아(Austro-Asiatic)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Pater Schmidt에 의하면 인도 차이나 지역 대부분의 부남인들이 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Lawrence Palmer Briggs 1951). 최근 메콩 델타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견과 관련하여 언어학자 및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본토 및 섬들에 남부 아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2개 언어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았으며, 1944년에 옥에오의 Canh Den에서 발굴된 고대의 유골들 중 일부를 토대로 볼 때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족의 평균 신장은 남자가 162cm, 여자가 160c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Khoo 2003, Vo Si Khai:35-86). 또한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부남인들은 피부가 검고 불품이 없었으며 곱슬한 머리에 옷이나 신발도 신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부남인들은 덩치가 있고 자신들이 꾸민 집에 살았는데, 인심이 좋고 많은 가축을 키웠으며 옷을 입지 않고 살며 문신을 하는 풍습과 함께 머리는 등 뒤로 길게 늘어트렸다(Khoo 2003, Vo Si Khai:35-86). 한편 Geoffrey Goble에 의하면 부남인들은 꼭 같은 모양의 탑 형태와 말뚝 울타리, 그리고 풀잎으로 엮은 가옥에 살았다고 한다. 왕은 코끼리를 타고 다녔으며 사람들은 닭싸움과 돼지 싸움을 즐겼다. 세금은 금과 진부 및 향료 등으로 냈다(Geoffrey Goble 2014: 13). 또한 Miksic은 “한마디로 말해 부남인들은 크메르인들”이었다고 주장했으며, Coedès는 부남인들이 몬크메르(Mon-Khmer) 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Khoo 2003, Miksic: 22).

부남의 수도

중국의 사료에도 나오듯, 부남의 수도는 바다로부터 약 500리(200km)가 떨어져 있으며 (Coedès 1968:37, Vickery 2001-2002) 그 명칭은 “d' k-miuk”이었다. Coedès는 d' k-miuk은 사냥꾼을 의미하는 “dalmak” 또는 “dmak”를 중국어로 표기한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캄보디아의 바프놈(Ba Phnom)에서 발견된 10세기 명문에는 “Vyadhapura”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크메르어의 d' k-

miuk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번역이다. 따라서 Coedès는 부남이 바프놈에 위치했다고 생각했으며, 그 위치는 현재 캄보디아의 프레이벵(Prey Veng) 주에 해당한다. 이외는 다른 견해로, Pelliot과 Etienne Aymonier는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가 고대 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바 있다(Vickery 2001-2002). 또한 Michael Vickery는 부남의 수도가 현재는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 또는 프놈다(Phnom Da)라고 불리는 타케오(Ta Keo)였을 것이라는 프랑스의 금석학자 Claude Jacques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Khoo 2003, Miksic: 1-34).

부남의 대외 관계와 영향

Wang Gungwu(王赓武)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한족은 통킹 주 남쪽으로 대외 교역을 하는 몇 개의 왕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왕국들은 인도로 향하는 일련의 교역망을 형성하고 있었다(Wang 1958: 17-19). 서기 2~5세기경에 중국의 사절단이 인도를 방문했을 무렵, 그들은 말레이반도를 건너 인도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말라카해협을 통하여 돌아왔다(Wang 1958: 20). 아마 현재의 윈난(雲南)성 남서쪽 산(Shan) 고원지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Shan) 왕국은 육로와 더불어 해상로도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버마 서쪽으로부터 베트남 남부에 걸친 동남아시아 중부의 넓은 지역에 살았던 몬(Mon)족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260년에서 서기 220년까지의 한나라의 기간 동안 양쯔강 어귀에서부터 베트남 북부까지 걸친 중국 남부 연안은 해상 교역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Khoo 2003: Miksic: 8-9).

한나라가 서기 220년에 멸망하자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들 중 한 곳인 위나라가 중국 남동부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나라의 서쪽 육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 지정학적 필요성으로 해상 교역에 보다 치중을 하게 되었는데, 통킹 남부의 몇 개 왕국들은 이렇게 새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위나라에 조공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업적인 교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남 역시 중국에 조공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위나라는 서기 245~250년 동안에 2명의 사신(강태(康泰) 및 주응(朱應))을 부남에 보냈다(Khoo 2003, Miksic: 8-9). 서기 244년에는 수도 난징 외곽에 부남의 음악, 음악인들과 관련된 관청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Wang 1958:35). 이후 서기 280~300년의 기간은 비교적 평화로운 번영의 기간이었으며 부남은 다시 285, 286 및 287년에 사신을 보냈다(Wang 1958: 35). John Miksic에 의하면 서기 3세기 초 또는 그보다 앞서 부남의 선박 운항자들은 이미 인도로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해상로는 부남에게는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부남의 Fanshiman 왕은 군대를 보내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시킨 후 대형 선박들의 건조 및 Zhanghai(태국만)를 건너 Judukun, Jiuzhi, Diansun 등 10개의 국가들을 추가로 공격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Vickery는 이 기간 동안에 인도의 왕 또한 4마리 말과 함께 부남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였다.

Vickery는 이 때를 부남의 Fan Sun왕 재위 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때는 중국이 230년에 사신 강태와 주응을 보낸 시기이기도 하다(Vickery 2001-2002:8). 아마 강태와 주응의 사신 경험과 관련된 서기 3세기 말경의 삼국시대 관련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부남인들은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Briggs 1951: 34). 5세기 들어 부남에서는 불교가 많이 퍼졌는데 이는 부남 승려들이 중국을 방문한 것, 그리고 향과 금, 백단나무 조각상, 상아 사리탑 장식, 사원의 의식 때 사용된 유리 그릇과 같은 귀중한 물품들을 484년에 부남이 조공으로 보낸 기록과(Wang 1958: 48), 다수의 중국 승려들이 460~524년의 기간 및 503년에 인도로부터 귀국하는 길에 부남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중부 지역 Cham 연안에 좌초한 부남의 상인들과 함께 귀국하던 Bhikhu Sakya Nagasena는 육로를 통하여 부남으로 돌아 갔다(Mabbett 1986: 295). 인도와 부남간의 해상 교역은 중국 양나라 때 활발했는데, 부남은 502~539년의 시기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으며, 양국 간의 일반적인 교역은 주로 금과 은 제품, 조개 장식품, 향료용 식물, 상아, 공작의 깃털, 거북 껍질, 루비, 에메랄드, 인도산 백단, 산호, 불투명 유리, 면직물, 울금 및 조합향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부남이 서양으로부터 수입하던 것들이었다(Wang 1958:48). 546년에는 중국의 요청에 의하여 부남의 왕이 불교 승려 - Paramartha 또는 Gunaratna - 를 240편의 경전과 함께 중국에 보냈다(Vo Si Khai 1997: 213). 중국 남제(南齊)의 초기 역사 기록에서는 부남 사람들이 힌두교의 시바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Coedes 1968: 61). 또한 Kang에 의하면, 부남왕 Jayarman은 양나라에 최소 10회 사신들을 보냈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503년에는 중국 황제로부터 부남뿐만 아니라 안남(安南)도 통치하라는 위임을 받기도 했다(Kang 2013). 부남은 하늘의 정령을 숭배하는 풍속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2개의 얼굴과 4개의 팔을 가지고 있거나 4개의 얼굴과 8개의 팔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팔이 아기, 새, 네발 짐승 혹은 해나 달을 들고 있는 청동 이미지들을 만들었다(양나라의 역사(서기 502-556)). 아울러 어떤 부남 왕은 중국의 황제에게 불교와 관련된 선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한 선물들은 2개의 상아로 만든 사리탑 장식과 산호로 만든 불상이었는데, 이는 불교의 사상과 의식이 당시 왕족에게도 이미 스며들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두 명의 부남 승려인 Sanghapala Thera와 Mandra Thera는 서기 6세기 초에 중국으로 가서 황제에게 불교와 명상에 대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Sanghapala Bhikkhu는 중요한 불교 경전인 Vimuttimagga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그 내용은 전통적 상좌부(上座部, Theravāda) 불교이며, 서기 1세기경의 스리랑카 출신의 유명한 승려였던 Arahant Upatissa의 것 중 일부로 추정된다(Angela Schottenhammer 2012: 63-86). 또한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539년, 부남으로부터의 마지막 사신이 살아 있는 코뿔소를 중국에 조공으로 바쳤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부남에서 즐기는 돼지싸움을 좋아했으며, 닭싸움은 즐겨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였다(Briggs 1951: 14). 중국의 南齊書, 梁書 및 南史와 관련하여 Kang은 또한 부남의 귀족 계급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으며 부남과 중국 남부 왕조의 승려들 간에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고 하였다(Kang 2013). Martin Stuart-Fox는 3세기 중에 부남에는 중국에 3차례의 조공을 위한 사신들이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7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357년에 한 명의 사신 및

434~438년 사이에 일련의 사신들이 방문하였다. 그 이후에 다시 약 50년의 공백기 있는 후에 484~539년 사이에 10차례의 사신들이 방문했고, 559년과 마지막 사신이 방문한 588년 사이에 3차례 방문이 더 있었다(Martin Stuart-Fox 2003: 26).

한편 부남(扶南)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이 명칭은 순수한 중국어라고 할 수 있는데, Aymonier는 그 의미가 “보호된 남쪽”이라고 하였고, 이탈리아 학자인 Col.G.E Girini는 크메르어로 산을 의미하는 ‘바남(banam, 즉 phnom)’의 중국어 번역이라고 하였다. 이후 Louis Finot은 이 단어가 ‘Nagar bhnom’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Briggs 1951:12-13), Hun Tien과 Liu Ye의 전설은 인도의 영향을 보여준다. Finot은 Hun Tien과 Liu Ye의 전설이 브라만 카운디냐(Kaudinya)와 소마 공주 및 나가(Naga)왕의 딸인 나가 소마(Naga Soma)의 인도 전설에 대한 현지 각색본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중국의 기록은 찬다나(Chandana)의 계승자 중 한 명인 Chiao Chen Ju가 인도의 브라만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Briggs는 Chiao Chen Ju를 Kaudinya라고 설명하고 있다(Briggs 1951:24). 이는 서기 657년에 쓰여진 것으로 연대가 추정된 Cham의 명문에서 카운디냐가 소마와 혼인하였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18세기 말의 캄부자 관련 기록에서도 프라통(Prah Thong)이 콕틀록(Kok Thlok: 캄부자의 크메르어 명칭)에 도착했다고 하였으며 나기(Nagi) 공주와 혼인하였다고 하였다(Chatterji 1964:2-3).

인도네시아의 옛 왕국 스리비자야(Srivijaya)의 살리엔드라(Sailendra) 왕조 역시 나가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중국의 교역에 관한 기록인 조여팔(趙汝适)이 쓴 제번지(諸蕃志)에서는 채터지(Chatterji)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삼불제(三佛齊) 또는 스리비자야(Srivijaya)의 사람들은 Pelliot이 ‘나가(Naga)의 씨’를 번역한 명칭으로 붙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넘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도의 경우, 팔라바(Pallavas) 왕조의 도읍 칸지(Kanchi)에는 9세기경의 명문이 2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드로나(Drona) 아들인 아스바타만(Asvatthaman)이 나기와 혼인하였으며, 팔라바 왕들의 조상인 스칸다시야(Skandasisya)를 낳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명문에서는 브루카차(Vrukarcha)가 나기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나기의 이야기는 13세기의 주달관(周達觀)에 의한 기록에서 보듯 13세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카운디냐(Kaudinya)라는 단어의 경우, Paul Wheatley는 5세기 초에 카리스마가 있는 왕위 찬탈자가 2세기 인도 마이소르(Mysore)의 한 유명한 브라만 족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5세기에 시바교가 시작되었을 때 소위 팔라바 경전을 사용하였으며 왕족의 문양으로 바르만의 요소들을 혼합하였고 나기니 소마(Nagini Soma)의 신화 등을 채택하였다. 당시 수마트라와 자바 서부 및 동부 칼리만탄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뛰어난 역사학자 Vickery는 서기 5세기 경(424~453년)의 중국 기록에 의거, 왕의 시호가 바르만(Varman) 즉, “Chhe-li-pa-mo”(pamo= Varman)으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Jaya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Ram Chandra Jain은 Jaya에 관한 긴 학술적 발표문을 내놓은 바 있다. 마하바라타(Mahabharata) 이야기에서도 Jaya라는 단어를 군사적 또는 정신적

승리와 관련하여 사용을 하였다. 마하바라타는 찰제리(刹帝利; Ksatriya)들에게 성공과 유복에 대한 비결로 크리슈나(Krsna)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슈나 베다(Krsna veda)라고도 불린다. 찰제리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전장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통한 승리와 안전 및 구원을 의미하며, 만일 전장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하늘에서 영혼적인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Jan 1979:3).

부남의 해양 교역과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위해서는 앙코르보레이 및 옥에오 유적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다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앙코르보레이

이곳은 캄보디아 타케오주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의 메콩강 삼각주 서단에서 발견된 곳이다(지도 2).



지도 2: 앙코르보레이의 위치 (출처: Stark 1998: 189)

벽체와 해자가 있는 융기된 지역인 이 앙코르보레이의 고대 유적(사진 1)에는 동일한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농부와 어부 및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Stark 1998:188).

이 도읍 남쪽 프놈다(Phnom Da)의 언덕에는 고대 사원(Phnom Da 및 Asrama Maharosi 사원)이 있다. 1996년에는 미국의 Miriam Stark와 그의 발굴팀이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싱가포르 및 프랑스 팀들과 공동으로 “메콩 고고학 프로젝트(Mekong Archaeological Project)” 하에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Stark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앙코르보레이에서 캄보디아의 가장 초기의 크메르어 명문과 블록식 건축 및 조각상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프놈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프놈다 소재 사원들에는 초기 크메르의 예술적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고고학적 자취들이 있다. 발굴 프로젝트는 3회(1996, 1997 및 1999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현장의 배치와 연대 조사, 기원전 500년 - 기원후 500년 시대의 자연환경과 수문학을 재구성하기 위해 샘플의 채집이 이뤄졌다. 1996년에 채집 결과물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방사성탄소 시험결과 앙코르보레이에는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사료보다는 훨씬 빠른 약 400 또는 기원전 500 ~ 600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7,000점 이상의 도자기 조각과 토기, 석기,



사진 1: 개략적 현지 유적 지도
(출처: Stark 1998: 190)

유약을 칠한 그릇 등이 발견되었고, 요리와 음식 제공, 의식을 위한 용기들과 석재 및 철재 박편과 고대에 제작된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1997년에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후 1999년의 왓콤누(Wat Komnou)에서의 발굴 작업에서는 사람의 뼈와 돼지의 두개골, 원형의 붉은 토기 등을 포함, 최소 18구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매장 유적을 복원하였다. 1996년에 발굴된 것들 중에는, 앙코르 보레이의 어느 벽돌 건축물에 대한 제거 작업 중 발견한 석재 조각품이 있으며, Coedès의 발굴 작업 중에는 서기 7세기 초에 이르는 두 개의 앙코르보레이 명문들(K.557 및 K.600) (Figure 1)이 발견되었다(Figure 2).

이러한 것들 외에도 프랑스 건축가 George Groslier도 많은 크메르의 불교 조각품들을 수집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앙코르 보레이에서 발견된 와불 (L: 181.7 cm, B: 696 B: 10,3) (사진 3).

사진 2: 명문 K.600

사진 제공: Sophorn 및 Pathomrath (앙코르 보존 위원회 (Angkor Conservation Depot)) - 2010

프레이 크라바스(Prei Krabas)에서 발견된 부처 입상 (H: 95.6 cm, B: 150 B: 10,8), 밧롬로크(Vat Romlork)에서 발견된 부처 입상 (H: 134.5 cm, B: 235 B: 10,15) (사진 4) 등 타케오 주의 밧롬록에서 발견된 돌로 제작된 부처 입상의 제작 연대에 대하여 Groslier는 입상들의 그레코-굽타(Greco-Gupta)의 예술적 영향을 토대로하여 서기 6세기경으로 추정했다. 외



사진 3: 와불, 캄보디아국립박물관, 시암, L: 181.7 cm, B:696 B:10,3.

사진 제공: Phoeung Dara 및 Tho Thon

부 모습에 있어서 이 입상은 탁월한 석상 조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과 엉덩이 및 무릎이 굽혀진 3굴입(三屈立, tribhanga)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그 불의(佛衣)는 매우 얇고 젖은 천처럼 몸에 달라 붙은 듯하며 왼쪽은 가리워져 있으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나 있고, 둥근 얼



사진 4 : 석불 입상, 사암, Vat Rom-lok, Prei Krabas, Ta keo, H: 134.5 cm, B: 235 B: 10, 15 (캄보디아국립박물관).
사진 제공: Phoeung Dara 및 Tho Thon

굴에 눈을 반쯤 감은 듯하여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의 불정(佛頂)은 아름답게 굽은 모발로 정교함을 드러내고 있다. 뱃팍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입상으로 키가 0.93cm인 사암으로 제작된 불상이 있는데, Jessup은 이 불상의 연대를 7세기로 추정하였다. 이 불상은 3굴입의 모습에 양쪽 어깨에는 매우 얇고 투명한 수도승의 불의를 걸치고 있으며 나선형으로 굽은 모발과 함께 몸통과 사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특징적인 부처 입상은 미국 클리블랜드예술박물관(Cleveland Museum of Art)의 큐레이터 Stan Czuma가 설명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왼손은 옷자락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 Abhaya mudra)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세밀함과 아울러 깃과 어깨뼈, 무릎 및 등 전체가 잘 묘사된 드바라바티(Dvaravati) 양식의 불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앙코르보레이의 불상에는 부처가 대반열반(大般涅槃, Mahaparinirvana)에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와불이 있는데(181.7 cm, B: 696 B: 10,3)(사진 4), 두툼한 몸통(torso)에 투명한 불의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팔과 다리 아래 부분들은 부러졌는데,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매우 아름답고 크기도 컸을 것이다.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Khun Samen은 이 와불의 연대를 서기 6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유적의 발굴 작업은 1996, 1997 및 1999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유적의 배치도와 표본의 채집, 기원전 500년~서기 500년에 걸친 수문학 및 자연 환경이 재구성되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앙코르보레이에는 기원전 약 400년, 즉 중국의 기록보다는 약 500~600년 앞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7,000점의 토기, 석기 및 유약을 바른 그릇들이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식기와 의식용 그릇, 연마 석기, 철물 및 광채가 발굴되었다. 유골은 최소 18구가 발굴되었는데, 일부 인간의 뼈와 함께 돼지 두개골, 공모양의 붉은 색 토기, 석재 조각물, 석재 명판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Khoo 2003: stark: 35). Marc Oxenham과 Hallie Buckley가 2016에 발표한 도서 'The Routledge Handbook of Bioarchaeology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Oxen, 2016)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선사 유적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들은 철기시대 (기원전 500년-기원후 500년)에 속한다고 하였다. 마노, 홍보석 및 유리 비즈 등과 같은 물질 문화의 특유한 물품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당시 동남아시아는 각 지역간의 교류와 교역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묘지들에서는 준보석과 유리 비즈 및 청동 장식들이 출토되었다. 예를 들어 EFEO는 바라이(Baray) 서쪽에서 6개의 앙코르 이전의 유적들을 발굴하여 27개의 묘지와 매장 흔적, 59

구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 유골 중 19구는 성인(여성 5구, 남성 7구 및 성별 판별 불가능 7구), 7구는 어린이 및 태아가 1구 있었다. 또한 앙코르보레이에서는 그 중앙 지역에 위치하는 왓콤누(Wat Komnou) 아래에서 선사 시대의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부남 시대에 속하는 캄보디아 남부 타케오(Ta Keo) 지방에서의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앙코르보레이는 지난 1940년대에 베트남에서 발굴된 옥에오 유적과 종종 비교가 된다(Malleret 1959s). 왓콤누의 묘지들에서는 33구의 유골들이 발견되었으며, 44기에서는 매우 정교한 비즈 등이 출토되었다(Ikehara-Quebral 2010). 유골들은 도기와 함께 돼지 두개골, 유리 및 돌 비즈와 매장되어 있었다(Marc Oxenham 및 Hallie Buckley, 2016: Dougald O' Reilly 및 Louise Shewan : 45).

옥에오

이곳은 현재 베트남 남부 안장(An Giang) 주에 위치한 곳으로 1932년에 Hanri Pamentier가 부남의 예술에 대한 조사로 처음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Luis Malleret가 1938년에, 그리고 1944년에는 Malleret이 과학적인 발굴 작업(1959-1963)을 수행하였다(Khoo 2003: Si khai:36). Malleret에 의하면 옥에오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3km 및 1.5 km 길이의 직사각형의 성벽을 갖고 있었으며 그 면적은 450ha에 달하였다고 한다(Higham 2013). Malleret의 보고서에 의하면 발굴 작업을 통하여 총 1,200g이 넘는 918개의 금 구슬을 포함한 1,312점의 금 장식품과 주로 동전 모양을 한 60점의 은 장식품을 발굴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약 100점의 구리 장식품 및 316점의 주석 또는 납 장식품들과 아울러 옥에오의 전반적 지역에 걸쳐서 광재(iron slag)가 발굴되었으며 수천 점의 유리 구슬과 준보석들도 발굴되었다. 옥에오에서는 또한 도자기 생산 장소들도 많아서 정교하고도 밝은 색상의 도자기들이 생산되었으며,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 연대가 서기 152년인 로마 황제 Antoninus Pius 또는 Marcus Aurelius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3점의 금 및 구리 메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Khoo 2003: Miksic: 1-10). Mi-chael Mitchiner에 의하면,



사진 5.1: 보석 및 동전,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hy-2016

옥에오에서 발견된 가장 뛰어난 동전 유물들 중 하나는 “일출/사원”(Rising Sun/Temple)”(사진 5.1, 5.2, 5.3)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러한 종류의 동전은 태국의 U-Thong, Prachinburi, Nakorn Pathom 및 기타 지역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Pamela Gutman에 의하면, 옥에오의 모든 동전들과 아라칸국(Arakan)의 동전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슈리밧샤(Srivastsa) 무늬라고 한다. 모든 초기 동전들의 뒷



사진 5.2 보석 및 동전, 베트남 안장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ithy-2016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이 무늬는 당시에 커다란 의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풍요의 여신인 Sri를 상징하거나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였으며 불교와 힌두교의 도상학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형태를 의인화한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Sri의 관정(灌頂) 의식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조각들에서 공통적으로 연꽃 위에 앉은 여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2마리의 코끼리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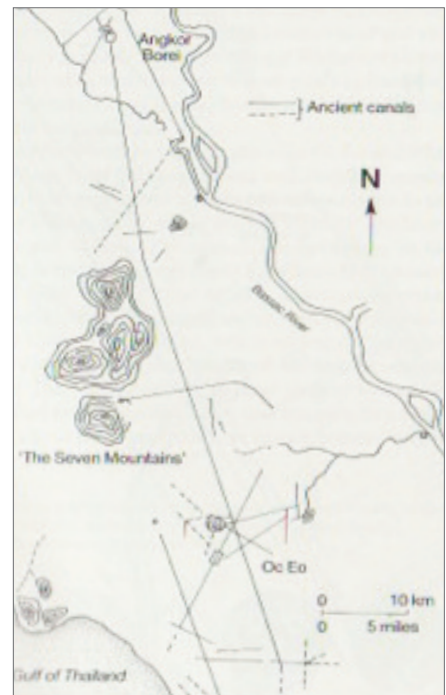


사진 5.3: 일출(日出) 동전,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ithy-2016

배치한다. 이 형태는 인도 초기의 동전들과 초기 불교 및 자인(Jain)교의 예술, 그리고 비슈누(Vishnu) 신의 이미지의 가슴에도 나타나는 상징이다. 슈리밧샤 및 일출 무늬의 동전들은 옥에오, U Thong, Beikthano, Halin, Sriksetra 등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식화된 인간의 형상을 마감하는 전형적인 외부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옥에오 유물 중 보다 흥미로운 것은 36점의 작은 철제 조각 새김 장식물과 음각 세공물, 반지, 그리고 구리와 주석, 금 및 홍옥수로 만든 인장에 최초의 글자화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식물들 상의 작은 문안들은 이곳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생활의 일면을 보여 주는데 그 내용은 초기의 인도 문자인 브라흐미(Brahmi)라고 하는 문자로 새겨졌다. 비록 글자들의 모습을 달랐지만 1~2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수백 년 동안의 오랜 세월이 걸쳐 새겨진 것들이다. De Casparis(1979)는 1세기 및 2세기 초에 걸친 옥에오에서의 초기 인도 문자들과 5세기 경의 일부 인도 문자 내용들로 보아 부남은 수세기 동안 관리 체제와 상업을 잘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태국 남부 라농(Ranong)주의 푸카오통(Phu Khao Thong)에서 발견된 타밀-브라미 명문이 새겨진 수입 도자기들의 조각과 역시 라농 주 방클루아이녹(Bang Kluai Nok)에서 발견된 금 도장의 것과 유사하다 (John Guy: 2014, Bèrènice : 23). Claude Jacques와 Philippe에 의하면 1998~2002년 사이에 프랑스-베트남 팀에 의하여 몇 차례의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옥에오 유적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38~1945년 사이의 폭넓은 조사와 1944년의 Louis Malleret에 의한 부분적인 발굴 작업을 통하여 거의 2톤 가량의 도자기 파편들 및 관련된 목재 물품들이 발굴되었다. 탄소 14 연대 측정법에 의하면 옥에오는 최소 1세기부터 최대 10세기까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들에 의한 이러한 예비 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3개의 주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 1세

기경부터 3세기까지의 기간으로, 동 지역과 인도 및 그 이상의 지역에 걸친 교역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기간이다. 그 연대가 서기 152년인 로마 황제 Antoninus Pius를 묘사하고 있는 금 메달 및 다수의 품목들은 당시 일상 생활과 아울러 부남인들의 교역과 세공 기술 및 의식, 그리고 흙을 사용한 생산 활동(벽돌, 타일, 도구 등)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깊은 고고학적 단층에서 발견된 매장용 토기와 함께 발견된 작은 도자기 화병에 적힌 내용으로 볼 때 인도의 종교가 전파된 시기를 앞서는데, 이러한 화병은 간다라(Gandhara)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는 대들보를 위한 삼각형 구멍이 있는, 지금 35cm의 큰 목재 기둥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 기둥의 하단에는 돌이 박혀있었으나 구멍의 윗부분은 부러져 후에 이 부분이 장대로 마감되었다. 이에 대한 탄소 14 연대 측정법 결과 시기는 기원전 50~기원후 14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라심하(Narasimha)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주석을 박은 메달이 베트남 안장주 박물관에 있다. 유리 구슬철제, 구리 공예품과 금 세공품 및 조각을 한 보석, 그리고 일부 도자기들이 인도로부터 수입이 되었다. 두 번째 단계 - 4세기~7세기, 기둥 위 가옥, 흙으로 구축한 성채와 같은 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많은 수로들을 파서 몬순 계절 이후 평지에 대한 배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부남 문명의 뛰어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기의 종교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 - 주거 지역과 운하 체제들을 점차적으로 버리게 되나 7세기 중반에 들어 프놈바트(Phnom Bathe)의 언덕 쪽에는 여전히 벽돌 탑 형태의 종교적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었다.(Claude Jacques, Philippe Lafond 2007: 52-58). Charle Higham은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그는 옥에오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 물품들이 많았으며, 유리 구슬과 제반 종류의 금속과 보석, 다이아몬드 및 수지 등, 보석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석재 틀, 원자재들이 인도로부터 수입이 되었다고 하였다. 옥에오는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많은 금이 생산되었으나 일부 보석류와 주석, 구리 및 철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되었다. 이곳은 무역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운하나 해자, 주변의 벽체, 사원의 건축을 위한 벽돌의 생산을 위한 충분한 노동력이 있었다. 옥에오로부터 앙코르보레이까지 연결된 운하는 길이가 아마 90 Km 정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지도 3), 그 기능은 몬순에 의한 바람이 많은 비를 동반하여 히말라야로부터의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5월과 11월에 많은 양의 물이 빨리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심에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Highm 2013: 294-295); 1998년에는 Lign Soeum에 의하여 옥에오 주위의 산인 Ba의 경사지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7세기경으로 추정되



지도 3: 옥에오와 앙코르보레이를 연결하는 고대 운하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Oc_Eo



사진 6: 목불 입상,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ithy

는 나머지 벽돌 구조물을 찾을 수 있었고, 이듬해 1999년에는 Go Kaythi가 옥에오의 평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진행했었다.

한편 실체적 문화, 특히 종교적 조각 작품들을 살펴 보면, 1944년 옥에오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메달, 빈흥(Vin Hung)에서 발굴된 어린 시절의 Pan 동상, 1998년 동탑(Dong Thap)에서 발굴된 6세기 비슈누 입상, 현재는 호치민박물관에 있는 6세기의 돌로 만든 비슈누 두상, 현재 안장박물관에 있는 6세기의 무카링가(Mukhalinga) 상 등이 있다. 이와 아울러 안장의 탑(Thap) 언덕에서 발견된 목불(사진 6)과 옥에오에서 발견된 청동상, 옥에오에서 발견된 힌두, 비슈누의 청동상, 하리하라(Harihara)상 등이 있다.

그리고 6세기 이전의 일부 초기의 상들도 발견이 되었는데, 탑(Thap)의 목재 상 및 혼속(Hon Soc)의 석재 불상 등과 같이 세심한 선과 온화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70~4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Khoo 2003: Si Khai:

35-86); 가장 초기의 목재 부처상 및 보살상들은 그 크기들이 30cm부터 3m까지 매우 다양한데, 주로 습지에서 발굴이 되었고 그 연대는 서기 200~300년 정도이다 (Canh & Khoo 2003:135). 미술사가 Coomaraswamy는 이러한 초기의 불상들이 인도(Amaravarti, Sarnath 및 Gandhara)로부터 예술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며, 안장박물관에 있는 2세기경 제작된 Amaravati 양식의 목재 부처상(표면이 많이 훼손되었고 팔도 없으나 입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불의가 달라붙는 기법으로 표현되어 두 다리의 윤곽이 명확함)이 그러한 것이다. 한편 고탑(Go Thap)에서 발굴된 5세기경 제작 추정된 Amaravati 양식 목재 부처 입상은 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따라서 얼굴과 몸통이 명확하지 못하기는 하나 기단 위의 입상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탑(Dong Thap)에서는 5~6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관음보살 두상이 발굴되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옥에오의 기타 교역지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의 경우, 미토(My-Tho)에서는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청동 불상이; 짜빈(Tra-Vinh)에서는 포세이돈(Poseidon)의 상이; 타인호아(Thanh-hoa)에서는 디오니소스(Dionysius) 및 판(Pan) 신의 인도화된 상이; 그리고 하노이 서부, 한나라 시대의 무덤에서는 서기 138년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와 415~450년의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 그리고 5세기의 비잔틴 시대의 것을 포함한 5개의 동전이 든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Khoo 2003: Miksic: 1-34). 태국의 경우, 옛날 몬(Mon) 지역에서는 태국 서부 V Thong 유적에서 빅토리누스(Victorinus) (서기 260-270) 로마 황제의 구리 동전이 발견되었다. 이 V Thong 유적은 옥에오의 것에 준하는 크기의 타원형 해자가 둘러 싸고 있다. 한편 타캐(Tha Kae)에서는 도장과 금 구슬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옥에오의 것과 비교가 된다. 태국 북부 방파콩(Bang Pakong) 강의 무앙프라롯(Muang Phra Rot)에 있는 풍푼(P'ong Tuk) 유적에서는 옥에오의 것들과 유사한 주석 부적을 위한 도자기 형태의 틀, 그리스 로마 양식의 등잔, 아마라바티(Amaravati) 양식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태국 중부의 찬센(Chansen)에서는 옥에오의 것과 비교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주석과 금 반지, 보석 및 돌로 만든 쌍각(bivalve) 형태의 틀, 천에 무늬를 찍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흙 도장, 작은 구리 종, 삼지창 형태의 동전, 그리고 2개의 중국 유물과 옥에오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물건들, 실론에서 제작된 8개의 금속제 흑도기, 그리고 인도풍의 상아 빗이 발견되었다(Khoo 2003: Miksic: 1-34). 특히 흥미로운 것은 차오프라야(Chao Phraya) 강 서부에 있는 서기 350~400년경의 반동타펫(Ban Don Ta Phet) 유적에서는 인도와의 교역을 증명해주는 가장 초기의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인도의 유리와 준 보석들로 만들어진 구슬들이었으며, 특히 투명하고 연한 녹색의 육각형 구슬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옥에오와 반치앙(Ban Chiang), 파세마(Pasemah) 및 남부 수마트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아래 쪽 부분에 손잡이가 달린 그릇들이 20~30개 발견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북부 탄호아(Than Hoa)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탁실라(Taxila), 오리사(Orissa), 벵갈 및 갠지스 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태국의 반도 지역 야랑(Yarang)에서는 5세기경 페르시아 사산 왕조 시대의 페르시아 동전을 포함, 일부 로마 양식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기타 3~6세기경의 유적지들로는 태국 남부의 관룩팻(Khuan Luk Pat), 관푼핀(Khuan Phun Pin) 및 푸카오통(Phu Khao Thong) 등이 있다(Khoo 2003: Miksic: 1-34).

이제 옥에오 및 동남아시아의 기타 지역들에서 발견된 브라흐미(Brahmi) 문자의 경전과 마노, 홍옥수, 유리로 만든 구슬 및 로마시대의 동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V. Raman 은 로마제국과 타밀나두 지역 간의 접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도 동남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타밀나두에서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된 유적의 예로 Kanchi, Vasavasamudram (Mamallapuram 인근), Arikamedu (최근 재발굴; Pondicherry 인근), Karaikadu (Cuddalore 인근), 카베리(Kaveri) 강 어귀의 Kaveripumpattinam (Thanjavur Dist), 체라 왕조의 고대 수도였던 Uraiyur (Trichy Dist), Karur, 그리고 라메쉬와람(Rameshwaram)에 가까운 Alagankulam을 들었다(Raman 1990). 특히 남부 아르코트(Arcot) 지역의 카라이카두(Karaikau, Kudikadu, Nathamedu라고도 불림)에서는 정교한 룰렛(Roulette) 문양을 가진 수많은 도자기 파편들과 외국에서 온 2중 손잡이의 암포라(Amphora), 원뿔형 항아리, 수정이나 마노 및 옥수와 같은 준보석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구슬들이 발견되었다(Raman 1990). 그리고 고대 해상로의 동부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Dr. Priyatosh Sharma는 인도 연안의 룰렛 문양의 도기들이 벵갈만과 아라비아해

에 걸친 총 124개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무역상 또는 도자기 제작자들의 이름을 타밀-브라흐미, 브라흐미, 스리랑카 브라흐미, 카로슈티(Kharosthi) 문자들과 그라피토(Graffito)들로 새긴 롤렛 문양의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Sharma 2011).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브라흐미 문자가 불교의 전파에 앞서서 기원전 4~5세기경에 인도 무역상들에 의하여 스리랑카로 전래되었음을 보여준다(Sharma 2011). 아울러 Dr. Priyatosh Sharma는 벵갈 지역의 그릇이나 도장 및 석판에 새겨진 브라흐미와 카로슈티 문자들은 무역상들이 말을 거래했으며 그러한 말들은 중앙 아시아로부터 출발하여 인도 북서부를 거쳐 벵갈 지역으로 온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이 말들은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었다(Sharma 2011). 한편, 고대 운하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해자 유적에서는 드러나 보이는 나무 기둥의 상부, 아마 부두를 지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나무 발판, 배의 노가 아래 부분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Claude Jacques, Philippe Lafond 2007: 54). 그리고 Sila Tripathi는 인도 동부와 서부의 고고학적 발굴 작업들을 통하여 부두와 방파제, 창고 및 등대의 주변에서 17세기 하라파(Harappan)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닻과 통나무, 화물 잔해, 동전, 구슬, 부적, 도장 등이 발견된 발굴 사례를 든 바 있다. 이를 테면 인도 동부 연안 카베리강 어귀의 폼푸하르(Poompuhar)(또는 Puhar, Kaveripattinam, Kaveripumpattinam 라고 불리기도 함)에서의 해상 구조물은 인도 동부의 카베리강과 벵갈만의 합류 지점에 있는 중요한 항구의 역할을 하였다. 폼푸하르는 출라 왕조 초기(기원전 3세기~서기 3세기)에 걸쳐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발굴 과정을 통하여 부두가 최소한 2단계에 걸쳐 축조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첫 단계는 직경이 15cm인 튼튼하고 긴 기둥들이 강바닥으로 최소 수 미터의 깊이로 박혔으며(Sila Tripathi 2009), 아울러 물 위로는 판자를 가로질러 걸쳐 설치했는데, 이는 물건들의 하역을 위한 것이었다. 벽돌들은 석회와 모래 모르타르로 쌓은 것이었는데 강물로 인해 많이 손상되었다(Sila Tripathi 2009).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청, 한, 양, 수 및 당 왕조 등과 관련된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과 동남아시아 및 기타 관련 지역, 특히 2곳의 유적지 앙코르보레이와 옥에오에서의 발굴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앙코르보레이 유적은 캄보디아 타케오주, 메콩 델타의 서쪽 가장자리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메콩강 하부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Lower Mekong Archaeological Project)’(1996, 1997 & 1999)에 의한 현지 발굴 작업의 결과 이곳에는 벽과 해자로 둘러진 융기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앙코르보레이에는 기원전 400년, 즉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기록보다 500~600년 앞선 시기에 사람이 정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만 7개 이상의 도자기 파편과 도자기 그릇, 석재 그릇, 유약을 바른 그릇들과 함께 요리, 식사, 제사용 그릇과 석재 박편, 철물, 고대 산업의 부산물, 최소 18구의 유골, 인간의 뼈와 돼

지의 두개골, 적색 토기, 돌 조각상(힌두교 및 불교)이 발굴되었다. 옥에오는 베트남 남부 안장(An Giang) 주에 위치하는 곳으로 Luis Malleret팀(1938~1945년; 특히 1944년)과 프랑스-베트남 팀(1998~2002년)이 각각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곳에는 각각 3km와 1.5km의 직사각형의 벽이 둘러져 있으며, 면적은 450ha이다. 옥에오에서는 수많은 도자기 파편과 불상을 비롯한 목재 유물, 힌두 신을 위한 석재상, 918개의 구슬과 주로 구슬 형태인 60개의 은 제품, 1,312개의 금장식, 100여 개의 구리 물품, 그리고 316개의 주석 또는 납으로 만든 물품들이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옥에오 전반에 걸쳐 광재(Iron slag)가 발굴 되었다. 중국 거울, 이란 동전, 지중해 지역 보석, 페르시아 램프 받침대, 수천 개에 달하는 유리, 준비석으로 만든 구슬과 일부 금 및 구리 장식들 외에도 서기 152년의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Antoninus Pius) 시기의 동전들이 발굴되었다.

이와 같은 기초적 발굴 작업의 결과, 앙코르보레이와 옥에오는 중국, 인도, 로마, 페르시아 제국을 연결하는 해양실크로드의 한 연결축 고리로 활약을 하였던 부남의 수도이자 중요한 항구였으며, 서기 3~6 세경에 지역적인 상호 교역이 진행된 곳으로 파악이 되었다.

참고문헌

1. Lawrence Palmer Briggs, the Ancient Khmer Empire, Philadelphia, 1951.
2. Kang, Heejung, the Spread of Sarnath-Style Buddha Images in Southeast Asia and Shandong, China, 2013.
3. Vijay Sakhuja, Jan Chan, China's Maritime Silk Road and Asia, Delhi, 2016.
4. Michel Jacquethergoualc'h, The Malay Peninsula Crossroads of the Maritime Silk Road, translated by Victoria Hobson, Netherlands, 2002
5. Li Qingxin, Maritime Silk Road, translated by Willian W.Wang, 2006.
6. Kirti N.Chandhuri, Trade and Civilization in Indian Ocean: An Economic History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 Cambridge 1985.
7. Ralph Kanz, Aspects of the Maritime Silk Road: from the Persian Gulf to the East China Sea, Germany, 2010.
8. Vadime Elisseeff, The Silk Roads Highways of Culture and Commerce, Chapter 5: Ian C.Glover, The Southern Silk Road, Archaeological Evidence of Early Trade between India and Southeast Asia, UNESCO, 2000.
9. Lynda Norene Shafter, Maritime Southeast Asia to 1500, New York, 2015.
10. Robert S.Wicks, Money, Markets, and Trade in Early Southeast Asia,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monetary systems to AD 1400, USA, 1995.
11. Jeong Su-il, The Silk Road Encyclopedia, 2016.

12. Jame DiBiagio, *The Story of Angkor*, 2013.
13. Lee, Hye Jin, *Maritime History, The South China Sea until the late 19th century*, 2012
14. Lynda Norene Shaffer, *Maritime Southeast Asia to 1500*, USA, 2015.
15. John Guy,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Bérénice Bellina: South–east Asia and the Early Maritime Silk Road*, 2014.
16. Marc Oxenham and Hallie Buckley, *The Routledge Handbook of Bioarchaeology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2016.
17. Nao Hayashi (UNESCO), *Our Common Heritage*, France, 2015.
18. Sovath Bong, *The Ceramic Chronology of Angkor Borei, Takeo Province, Southern Cambodia*, Ph.D Dissertation, 2003.
19. K.V.Raman, *Roman Contacts with Tamilnadu (southeastern India), Recent findings*, India, 1990.
20. Geoffrey Goble, *Maritime Southeast Asia: The View from Tang–Song China, Nalanda–Sriwijaya Centre*, working paper series No.16, Singapore, 2014.
21. Martin Stuart–Fox, *A Short history of China and Southeast Asia: Tribute, Trade and influence*, Singapore, 2003.
22. Tansen Sen, *Maritime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India: Coastal India and the Ascendancy of Chinese Maritime Power in the Indian Ocean*,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Volume 2 (May 2011): 41–82
23. Miriam T. Stark, *The Transition to History in the Mekong Delta: A View from Cambodia*,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ical Archaeology*, Vol.2, No.3, 1998.
24. Ven Sophorn, *Khmer Buddhist Art in Funan*, p.102–119, published in *The Buddhist Sculptures of Southeast Asia* book,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orea, 2011.
25. James C. M. Khoo, editor, *Art & Archaeology of Fu Nan, Pre–Khmer Kingdom of the Lower Mekong Valley*, Bangkok, 2003.
26. R. C. Majumdar, *Ancient Indian colonisation in South–East Asia*, Baroda, B.J. : Sandesara, 1963.

토론문

부남(扶南)과 해양실크로드

고 정 은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또 ‘동’과 ‘서’와의 교섭이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 동남아시아라는 직물을 엮어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세계화를 향한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성장 이면에는 외부문명과 내부 세력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대 열강세력과의 대화, 그리고 근대이전에는 16세기 이후 특히 동남아시아 도서부에 붙어 닥친 이슬람과의 대화가 있었고, 13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는 왕권과 결합한 상좌부불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에 걸친 인도문명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에는 완만한 경우보다는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동남아시아가 있기까지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외부세계와의 대화 및 문화적 교섭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국립박물관의 Ven Sophom 선생님의 발표는 이러한 외부문명과의 첫 대화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발표는 먼저 부남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발굴유물에 관해 설명 하였고 두 번째로 앙코르 보레이의 고대유적과 출토유물, 세 번째로 옥에오의 발굴성과 및 출토유물, 네 번째로 기타 교역지의 소개 및 출토유물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에오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경전과 유리구슬 및 로마 시대의 동전 등 최신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앙코르 보레이와 옥에오라고 하는 부남의 항구도시들이 동남아시아 고대에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유럽이라는 외부세계와의 상호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논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남의 건국신화에 대해 비문사료와 중국 측의 사료를 언급하면서, 부남인의 정체성, 그리고 부남이 현재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견해를 정리해주셨습니다. 부남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는데, 발표자는 현재의 고고학적 성과로 미루어 보아 그 위치가 어디로 비정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앙코르 보레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앙코르 보레이에서 출토한 불상들은 삼곡자세와 옷주름의 표현이 거의 없고 신체에 밀착한 불의를 착용한 점 등 인도 굽타시대 불상과의 연관성이 보이는데, 인도와 동남아시아 불교조각의 연관성이란 점에서 미얀마의 초기불상에서도 인도 굽타시대 불상과 유사한 작품이 현존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에오의 발굴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에오에서는 금, 은, 구리, 주석, 납, 유리 등 다양한 재질로 제작된 장식품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수천 점의 유리구슬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유리구슬의 성격이 무엇인지, 특히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유리구슬로 제작된 장신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해양을 통한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에오에서 발견된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그 외의 작품들의 성격을 통한 그 당시의 신앙체계는 어떠한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에오를 포함한 주변 교역지에서 출토한 다양한 유품들을 통해 인도와 중국, 그리고 동유럽과의 교역이 성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외부세계로의 전파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외부세계와의 교역을 통한 문화의 수용단계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제작된 유물과 문화가 외부세계로 혹은 동남아 내부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앙코르 보레이와 옥에오를 중심으로 한 3-6세기경의 동남아시아의 해상실크로드가 그 후의 동남아 내부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동남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해상실크로드의 근거지가 된 항구도시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고고학적 발굴성과 및 앞으로의 진행상황 및 보존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앙코르 보레이와 옥에오 라고 하는 고대의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의 역할을 지금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지 외부세계로 향한 현지점의 동남아시아의 ‘문화 아이템’은 무엇인지 끝으로 여쭙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발표문5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Nguyen Dinh Chien Ph.D

(전)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부관장

요약

혼까우 난파선

까마우 난파선

발표문5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Nguyen Dinh Chien Ph.D

(전)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부관장

요약

이 논문은 베트남 해안에서 발견된 2척의 고대 선박 혼까우 난파선(1690)과 까마우 난파선(1723~1735)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이다. 이 두 척의 난파선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서양의 주문에 따라 전통 중국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글은 발굴된 도자기의 형태와 장식을 분석하여 17~18세기경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1990~2002년, 베트남 해안에서 15~18세기 동안 베트남, 중국 및 태국의 도자기를 싣고 가던 5척의 난파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이 5척의 선박에서 인양된 다양한 도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Nguyen Dinh Chien - Pham Quoc Quan, 2008).

이 논문에서는 혼까우와 까마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도자기로 살펴본 당시 동서양의 국제 교역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중국 내 도자기 생산 가마에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장식의 주문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가 생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전통의 형태와 디자인에 유럽스타일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1. 혼까우 난파선 (Ba Ria – Vung Tau) (1690년 경)

1990년 6월, 베트남 봉따우(Vung Tau)의 혼까우섬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의 수심 약 40m, 0.6~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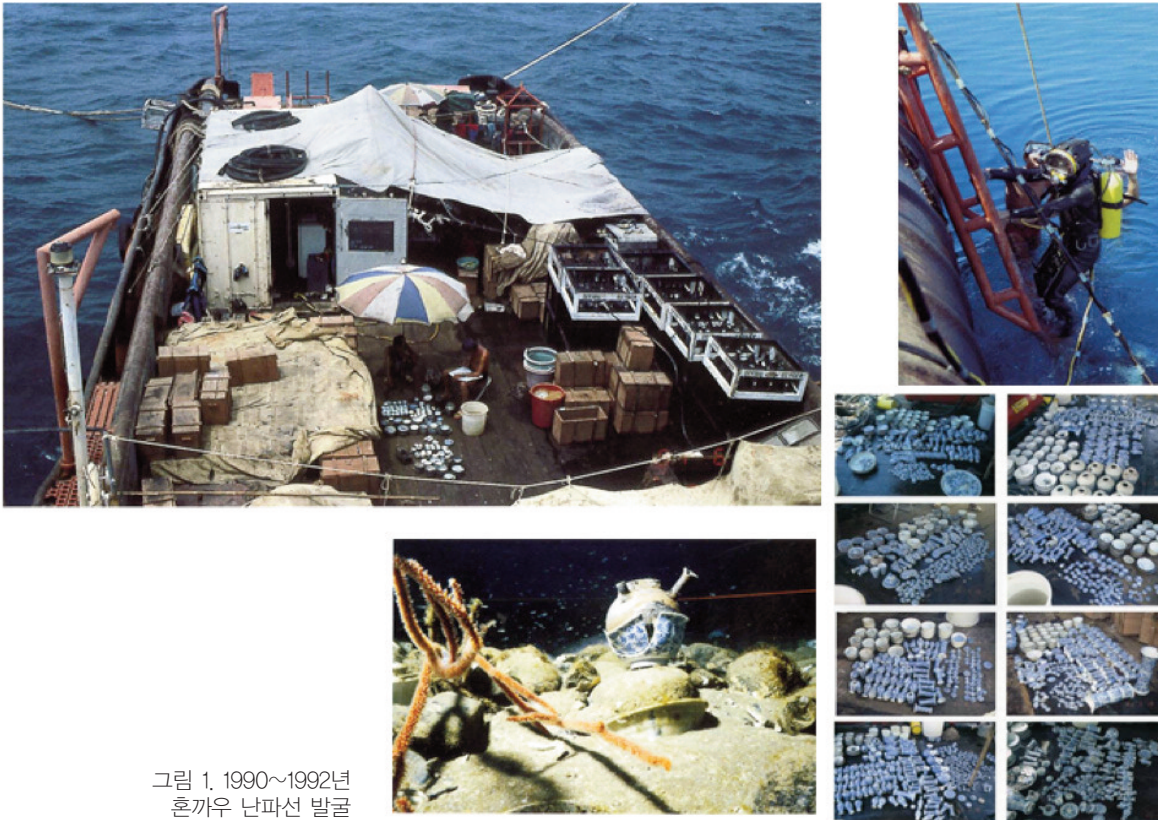


그림 1. 1990~1992년 훈카우 난파선 발굴

깊이의 모래 아래에서 난파선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난파선 발굴을 위해서 Visal Company는 스웨덴의 Hallstrom Holdings Oceanic Company와 공동으로 미국 잠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미국, 영국 및 캐나다 잠수부가 참여하는 발굴 작업의 허가를 받았다. 발굴 작업은 1991년 7월에 완료되었다. 이 난파선의 크기는 길이 32.71m, 너비 약 9m였으며 잠수부들에 의하여 6만여 점 이상의 유물이 인양되었다. 유물 대부분은 1690년대 생산된 중국산 도자기였다. 많은 베트남 및 외국 잠수부와 함께 고고학자 M. Flecker 도 본 유물 인양 작업에 참여하였다(Flecker, Michael, 1992).

도자기는 소녀, 어린이, “8가지 보물(무한한 매듭(卍), 동전, 소라껍데기, 물고기 한쌍, 보물함, 영지버섯 등)”의 상징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이 장식은 훈카우 도자기가 중국 청조 강희제(康熙帝) 시대로 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만력(萬曆), 순치(順治) 및 강희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자 명문을 새긴 유물은 불에 탄 먹의 가장자리에 새긴 연도로 볼 때 16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도는 강희제의 재위 27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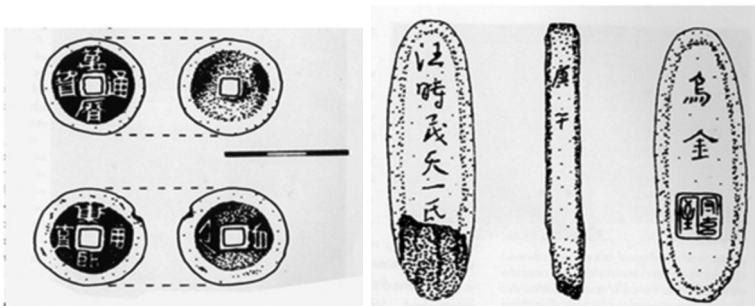


그림 2. 훈카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동전과 먹 (좌) 만력(萬曆) 과 강희(康熙) 통보(通寶) (우) “庚午”라고 한자 표기된 먹 (1690)

- 혼카우 난파선 도자기는 중국 푸젠(福建)성의 더화(德化) 소재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이다. 종류로는 사발이나 합, 잔, 접시, 숟가락, 통, 꽃병, 술잔 등이 있다. 그중에는 한 손에는 동자(童子)를, 다른 한 손에는 보병(寶瓶)을 들고 있는 연화 좌대에 앉은 관음을 묘사한 높이 13.5cm의 관음상도 있다. 또한 어린이상, 흰 토끼, 일각수, 계 등을 표현한 작은 상도 있다.
- 주문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중국 남부 가마에서 직접 생산되어 수거된 청화 사발과 접시는 사자, 풍경, 용, 불사조, 꽃, 꽃잎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짙은 청색이나 회청색으로 하회칠을 한 뒤 잿빛의 흰색 유약이 두텁게 발라져 있다. 또한 다소 그 만듦새가 정교한 술병, 꽃병, 손잡이가 달린 다기, 향로와 더불어 다채로운 색의 장식이 있는 잿빛의 흰색 또는 흰색 유약을 바른 것도 있다.
- 이 선박에서 인양된 청화 자기에는 국화, 난, 모란, 산수, 소녀나 어린이와 같은 중국 전통의 문양이 생생하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담겨 있다. 당시 국화, 매화, 연꽃과 난초는 사계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청화 꽃병, 물병, 술병, 사발 등의 국화꽃과 잎은 사선, 수직 묶음 또는 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



그림 3. 사발, 숟가락, 관음보살, 불교 신자와 장수(長壽) 상, 사자와 계 상 (백색 유약)

한 많은 꽃병이나 술병에는 당시 사람들이 꽃을 만끽했던 스타일처럼 둥근 기단의 사각형 틀에 풀, 꽃, 잎이 그려져 있다. 개화하는 연꽃은 마치 잘린 꽃잎이 장식적인 묶음으로 물병이나 꽃병에서 일렬로 배열한 것처럼 보인다. 동물 장식의 경우, 말, 토끼, 물고기, 새 등을 볼 수 있다. 접시, 사발, 물병이나 꽃병 등에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작은 새가 그려져 있다. 사람 장식도 많이 있다.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서 있는 말 탄 모습, 말에 탄 채 활을 쏘는 모습, 폭포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모습, 밝은 청색 유약에 표현된 산 등의 신비로운 배경을 뒤로 하는 모습, 고기 잡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이 있다. 난간 옆에 긴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소녀, 꽃송이나 잎사귀를 들고 있는 벌거벗은 어린이의 장식은 인상적인 중국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 서양의 주문으로 제작된 도자기는 전통적 스타일과는 매우 다른 다양한 형태, 색상과 무늬를 가지고 있다. 바로크양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서양인에게 친숙한 포도주잔 및 유리, 은 또는 알루미늄으로 된 고족배(高足杯) 같은 일상적 사물을 모방한 것도 볼 수 있다.

1690년에 제작된 많은 종류의 병과 사발 등을 신고 있는 혼카우 난파선은 유럽의 미적 스타일과 중국의 도자기 제조 기술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Nguyen Dinh Chien, Pham Quoc Quan, 2008, pp 254-256, 279, 281,282). 특히 유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사선 또는 묶음 형태의 꽃을 포함한 식물 및 잎사귀 그림이 혼카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다양한 종류의 병과 쟁반, 고배(高杯)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Nguyen Dinh Chien - Pham Quoc Quan , 2008, pp 300~305).

혼카우선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모양은 여러 종류의 단지와 뚜껑이 있는 병, 꽃병, 술병, 사발, 잔, 쟁반, 그릇 등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그중 일부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는 다르지만 그림은 유사하다. 또한, 일부는 붓통, 꽃병, 뚜껑이 있는 사발, 물병 등 세트나 쌍을 이루고 있다. 비록 스



그림4. 뚜껑과 저부가 있는 청화 단지



그림 5. 뚜껑이 있는 청화단지와 병



그림 6. 청화 고족배(高足杯)

타일은 다르지만 그림의 주제나 유약의 색상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서양 실내 공간에서 문이나 창문, 난로 또는 벽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럽 스타일의 특징은 꽃과 잎사귀를 사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물병이나 꽃병의 표면에는 꽃과 잎사귀가 사선으로 표현되고 안쪽은 해당 부분이 어둡게 표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동양에서는 볼 수 없었고 17세기 네덜란드 천 예술에서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일부 쟁반과 찻잔에는 10개의 꽃잎이 그려져 있는데, 각 꽃잎은 꽃과 잎이 한 가지씩 장식되어 있고 꽃잎의 가운데 부분은 크라크(Kraak) 도자기와 유사하게 원 안에 나비가 날고 있는 3개의 꽃이 장식되어 있다.

유럽적인 느낌은 서양의 왕과 왕비가 왕홀(王笏)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찻잔의 뚜껑에 표현되어 있다. 뚜껑의 가장자리에는 10개의 네모꼴이 있는데 이 중 5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5개는 꽃과 잎이 그려져 있다.

높이 59cm의 단지와 높이 46.5cm의 찻잔 형태의 꽃병은 높이 33cm의 단지 및 붓통과 같은 모습을 띠

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이다. 여기에는 높이에 따라 절반 정도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운하에서 볼 수 있던 뾰족한 지붕의 집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절반에는 중국식 국화와 난초가 그려져 있다.

2. 까마우 난파선 (1723~1735)

1998년 8월~ 1999년 10월,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은 Visal Company 및 까마우박물관과 공동으로 까마우 바다에서 난파선 발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발굴팀을 이끈 Nguyen Dinh Chien 박사는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의 고고학자 및 3.1U 국제 등급을 보유한 Visal Company의 잠수부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난파선은 수심 35m에 가라앉아 있었으며, 크기는 길이 24m, 너비 8m였다. 이 배에서는 총 6만 점 이상의 유물이 인양되었는데, 대부분이 청색 그림이 그려진 백자 또는 다양한 색상이 결합한 도자기로 중국의 옹정제(雍正帝) 기간(1723~1735)에 생산된 것이었다. 이 발굴 작업은 순전히 베트남 잠수부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발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인 “까마우 난파선의 고고학적 해저 발굴작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finding of underwater archaeological excavation of Ca Mau shipwreck; Nguyen Dinh Chien, 2002a)”가 발표되었다. 또한 까마우성 문화정보부와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은 관련 도서 “까마우 난파선 1723~1735 (The Ca Mau shipwreck, 1723 - 1735; Nguyen Dinh Chien, 2002b)”의 편집과 출판 작업을 지원해주었다. 이후 2005년에는 이 까마우 난파선의 유물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 “베트남 고고학의 1세기(A century of archaeology in Vietnam; Nguyen Dinh Chien 2005)”를 개최하였다. 전술한 까마우 난파선 연구 도서는 이후 일부 다른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소개되었다. 2006년 홍콩에서 개최된 “해저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학술대회(Conference on the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Nguyen Dinh Chien, 2006b)”, 2007년 대만에서 개최된 “16~18세기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문화 교류(Cultural exchange of 16th - 18th centuries between Europe and Southeast Asia held; Nguyen Dinh Chien, 2007b)”같은 학술대회가 그러한 행사였다.

또한 까마우 난파선 발굴은 2007년 암스테르담에 있는 소더비(Sotheby's)의 경매 카탈로그에도 소개되었다(Sotheby's Amsterdam, 2007, pp 11~13). 그리고 2002년 출간된 Zenik박사의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라는 학문적 분석의 도서(Gyorgyi Fajcsalk, Nguyen Dinh Chien, Ja'nos Jelen, 2009, pp 22~66)를 통하여 독자들은 까마우 난파선 유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2개의 강희통보(康熙通寶) 동전과 함께 20점 이상의 도자기와 하회칠의 청색 사발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밑면에는 “雍正年製”(옹정 시대 제조)라는 4글자가 쓰여 있다. 이와 더불어 청자 및 백자 그릇도 발견되었는데, 지름이 12cm, 높이가 5.2cm인 이 그릇에는 꽃과 장수를 의미하는 글자 및 밑면에는 “大清雍正年製”(청조 옹정 시대 제조)라고 새겨져 있다.



그림 7. 저부에 옹정(雍正) 연호가 새겨진 청화 그릇과 찻잔

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은 선박에서 발견된 도자기가 청조 옹정 시대(1723~1735)에 제작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까마우난파선에서 발견된 것 중 특이한 것은 돌 도장(The Ca Mau Shipwreck, p.25의 사진과 사진 234)으로, 마카오대학 역사학과 Paul A. Van Dyke 부교수가 그 의미를 해독하였다(Sotheby's Amsterdam, 2007, pp14~15). 그에 의하면 18세기 동안 약 30여 척의 중국 배가 동남아시아로 운항하였으며, 다수의 배가 바타비아(Batavia: 현재의 자카르타)로 매년 운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 배 일부에는 Zhang, Ye, Cai, Qiu, Yan, Chen 및 Pan 등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까마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도장에는 "Pan Tingcai"라고 새겨져 있는데, 아마 까마우 난파선에 실린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선장의 조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옹정 시대는 단 12년 만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선박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각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지방별로 분류된다(Nguyen Dinh Chien, 2002b, pp52-54). 돌이나 구리로 만든 물품은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선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구리 대야, 자물쇠, 통, 돌 부적(The Ca Mau Shipwreck, p25) 및 버루는 중국인의 특징적인 소지품이었다(The Ca Mau Shipwreck, pp 26~27). 아울러 동 선박은 2.4톤에 달하는 금속 물품도 싣고 있었는데, 그 중 특히 상하부는 직사각형, 두 측면은 사다리꼴을 하고 각각 15~18kg이 되는 386개의 철제 블록이 있다. 빈투언(Binh Thuan) 문화정보부가 분석한 성분을 보면 99%가 아연(Christiaan J. A. Jorg 교수; 경매 카탈로그 중 '까마우 도자기 화물'의 글)이었다.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는 강희제 시대 및 강희제 시대로부터 발전한 또 다른 형태인 옹정 시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1725년쯤으로 추정된다(Sotheby's Amsterdam, 2007, pp16-19).

까마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약을 바른 도자기의 분류를 통해서 다양한 유약의 수많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물품들은 중국 장시성의 징더전(景德鎮)과 그 인근 지역, 푸젠성 더화(德化) 지역의 가마, 그리고 광둥성의 광저우(廣州)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다.

광둥성의 도자기는 일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옹크린 원숭이 모양의 갈색과 흰색 찻주전자의 경우 양손으로 구부러진 주전자 주둥이, 매화 잎, 과일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뚜껑은 원숭이 머리 위로 배치되어 있다. 원숭이 몸 전체와 머리는 갈색 유약으로 칠해져 있으나, 얼굴에는 칠해져 있지 않으며 주둥이에는 흰색 유약이 칠해져 있다. 물소나 일각수, 시슴 등 모양의 상에는 갈색과 흰색의 유약이 칠해져 있다. 갈색 하회칠과 흰색 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상회칠을 한 많은 종류의 다기와 뚜껑 달린 작은 병 및 필통도 광저우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아울러 그릇과 쟁반, 잎사귀 모양의 숟가락, 용 모양의 배 형태 도자기, 층이 있는 배 형태 도자기, 뚜껑 달린 병과 흰색, 녹색, 황색, 갈색과 같은 범랑칠이 되어 있는 여러가지 상이 있다. 이러한 상에는 물소를 타고 있는 소년이나 말을 타고 있는 두 남자, “세친구”와 앵무새 등이 있다. 지름이 21.5cm인 쟁반에는 꽃과 잎사귀, 꽃과 새, 사자와 공, 비상하는 불사조, 그리고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잉어 등의 모습이 상감되어 있다.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에는 유약이 발라져 있었다.



그림8. 다채색의 접시, 숟가락, 가마상, “세친구”

- 유약 위에 갈색 그림이 그려지고 흰색 유약이 칠해진 도자기로는 사발, 쟁반, 필통, 물병과 뚜껑 달린 주발 등이 있다. 유약 위에 또 다른 색상의 그림이 그려진 흰 유약의 도자기는 총 14가지가 있으며, 사발, 쟁반, 필통, 물병, 주전자, 꽃병, 병, 접시, 큰 물병, 상과 숟가락 등이 있다.
- 청화 자기는 여러가지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향로, 대야, 풍경, 사람 모습을 그린 주전자, 청색 하회칠을 한 사각 상자, 높은 키의 병, 육각형, 마름모꼴 또는 원형의 모습을 한 일련의 그릇 및 쟁반, 청색이

나 다양한 색상의 하회칠 또는 갈색 유약을 칠한 기타 주전자와 항아리, 상자와 상이 그러한 것이다.

- 다색 도자기로는 짙은 청색 및 다색의 향로, 그릇, 쟁반 및 병이 있다. 이러한 도자기는 청조 도자기 중에서도 드문 형태이다.

- 청록색 및 짙은 청색 칠을 한 도자기로는 사발, 꽃병, 물병, 그릇, 향로, 상자와 상이 있다. 그릇에는 바깥쪽으로는 청록색 유약이, 안쪽으로는 짙은 청색 유약이 발라져 있다.

가장 품질이 뛰어난 도자기는 청화색의 17가지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로,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되었던 큰 크기 및 중간 크기의 쟁반, 찻잔 받침과 사발, 그릇, 주전자, 향로, 대야, 물병, 꽃병, 상자 등이 있다. 이 도자기에 그려진 무늬로는 쟁반 199개, 사발 181개, 뚜껑 73개 및 주전자와 상 위에 그려진 25개의 무늬가 있다. 그중 가장 수가 적은 것은 3개의 무늬만 가진 작은 술병과 2개의 무늬만 가진 배 모양의 도자기다(Nguyen Dinh Chien, 2002b, p92).

까마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도자기의 장식 주제는 중국 전통 및 서양의 주문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상감, 압인, 청색 하회칠, 상회칠 다색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중국 전통의 주제도 볼 수 있다

- 큰 쟁반, 대야, 손잡이 달린 꽃병, 주전자 등에 표현된 명조 시대의 복장 형태: 쟁반, 술잔, 꽃병 등에 그려진 어린 소녀 모습, 쟁반 위의 어린이 모습

- 쟁반, 주전자와 술잔 위에 새겨진 풍경과 인물은 같은 주제: 이 그림의 주요 인물은 노인과 그 옆에 어린 하인이 있는 모습이다. 말, 물소, 어린 물소를 타고 있는 사람, 북을 들고 춤을 추는 사람, 벽을 오르는 사람, 버드나무를 자르는 사람, 대화를 주고받는 어부나 농부 등도 많이 그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관련 주제도 있다. 가마를 부채질하거나, 물을 끓이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물을 거둬들이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 닭싸움하는 사람,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어부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 동물을 그린 주제로는 용, 불사조, 사자, 말, 물소, 사슴, 백조, 공작, 작은 새, 물고기, 게, 새우, 벌, 나비와 잠자리 등이 있다. 그리고 조합 주제로는 “버드나무 안의 술, 버드나무, 접시꽃과 꿩”이 있다.

- 꽃의 주제로는 연꽃잎, 레몬 꽃, 국화, 매화, 모란, 소나무, 벽오동 등이 있다.



그림9. 청화색 법랑 상회칠 한 뚜껑 달린 주전자와 접시

- 다른 주제로는 회문(回文), 병렬형문구, “복”(福), “만”(卍), “수”(壽)자 또는 유교와 도교에서 가르치는 “팔복”(八福) 등이 있다.



그림 10. 청화 법랑 하회칠한 단지들



그림 11. 뚜껑이 있는 청화 단지와 주전자

모든 주제는 비록 단순하든 또는 복잡하든 모두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물소를 타고 있는 사람 및 버드나무와 두 마리의 새”의 모습은 마름모꼴 또는 육각형의 쟁반, 그릇, 물병 및 찻주전자 등과 같은 청화 자기에 표현되고 있다.



그림 12. 뚜껑 있는 청화 주발, 주전자 및 그릇



그림13. 청화접시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 중 유럽 주제는 청화 도자기 세트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이 세트 들은 지름 20.5~29.2cm, 높이 2.6~3cm 정도에 이르는 5가지 크기로 크게 나뉜다. 쟁반은 수평적으로 잘 펼쳐진 모습에 낮고 폭넓은 받침을 가지고 있다. 쟁반의 가운데에는 일본 데지마(Dejima)섬의 어촌 풍 경이 그려져 있는데, 둔덕으로 소와 두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는 남자, 등대, 고기잡이배 옆 교 회의 지붕 등이 보인다. 쟁반의 가장자리에는 동그랗게 말린 파도 모양을 볼 수 있다. 쟁반의 바깥쪽으 로는 3쌍의 꽃과 잎사귀가 그려져 있다 (사진 참조).



그림14. 데지마섬의 풍경을 그린 청화 쟁반

알려진 바 있는 이 형태의 쟁반은 일반적으로는 네덜란드 스펜닝언(Scheveningen) 지역의 풍경 묘 사라고 하지만, 17세기 후반 및 18세기에 걸쳐 네덜란드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데지마의 풍경으로 알려 져 있다.

18세기부터 이 쟁반은 1778년 카탈로그에서 “스헤베닝언 풍경”의 쟁반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국 쟁반은 주문에 맞춰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 중국 도자기”라고 불렸다. 그로닝거 미 술관(Groninger Museum) 관장인 Chritiann J.A. Joerg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사한 주제를 가진 일본 도자기가 1700년대에 아리타(Arita) 지역 가마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사진참조).



그림 15. (좌)일본(1710 -1730, N 198, "World Ceramic exposition in Saga' 96", p 114),
(우)중국 (~1700, "Made in imperial China", p74)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스헤베닝언 풍경” 도자기라고 불렸다. 이 쟁반은 네덜란드 델프(Delf) 지역 무늬를 기반으로 하여 데지마 섬의 네덜란드인에 의하여 대량 제작 주문된 것이다. 이 쟁반들의 장식적 주제는 음식 용기와 기타 주방 도구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발과 쟁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도자기는 18세기의 이른 초반에 제작되었으며, 1730년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Chritiann J, A. Joerg 교수는 까마우 난파선의 청화 도자기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지름은 29.5cm~37cm, 중심부는 2개 가지의 꽃과 잎사귀, 주변부는 Kraak 그림의 패턴과 함께 귀중한 물품의 상징을 꽃과 잎사귀와 함께 표현한 격자무늬로 구획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역시 네덜란드인들의 주문으로 생산된 일본의 전통 청화 도자기에서도 볼 수 있다.

까마우 난파선에서는 곧은 주둥이와 원통형 목, 부푼 형태의 하부, 안으로 들어간 바닥, 초승달 형 손잡이가 달렸으며 지름이 8.5cm이고 높이가 20~20.5cm인 물병이 인양되었다. 이 손잡이가 달린 물병은 아마 술을 담은 병으로 보이는데, 그 중국적 장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로는 처음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물병에 표현된 장식은 중국의 풍경 또는 꽃이나 잎사귀를 표현한 것이다(Nguyen Dinh Chien, 2002, pp 158-159). 이와 더불어 주둥이의 지름이 4.2cm이고 높이가 15.7cm인 파파야 모양의 물병도 있다(The Ca Mau, 2009, pp 187-188). 바깥쪽에는 성체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Idemitsu museum of Arts, 1984, p13).

이처럼 1725년 까마우 난파선의 손잡이 달린 물병과 17세기 일본의 손잡이 달린 이마리 도기,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손잡이 달린 Bristol 도기 간에는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Idemitsu museum of Arts, 1984, p15).

일부 유럽 및 서양식 도자기를 포함하여 까마우 난파선에서 수많은 종류의 도자기가 인양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도자기 모두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Batavia)와 서양으로만 향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점은 10년 전에 발견된 혼까우 난파선의 경우와 비슷한데, 즉 이러한 도자기는 중개상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바타비아로 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는 중국 장시성의 징더전(景德鎮) 가마에서 생산된 것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자기는 동남아시아의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을 것이다. 이 도자기가 네덜란드어로 주문된 상품을 취급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확실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것들이 동인도 회사에 의해 거래된 비공식적 상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혼까우와 까마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도자기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와 무늬의 찻잔과 쟁반은 중국산 도자기가 17세기 및 18세기 초에 걸쳐 강력한 수출 품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혼까우와 까마우 난파선은 당시 광저우에서 출발하여 상품을 최종적으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하여 바타비아로 향하던 중국의 수출용 선박이었다.

중국 남부로부터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송대 및 원대 도자기 역시 11~14세기 동안 중국 선박이 활발하게 수출에 참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2013년에는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Quang Ngai) 지역의 빈선(Binh Son) 바다에서 6번째 난파선이 발견되었는데, 이 빙쩌우 난파선은 13~14세기 중국 원대의 선박이다(Nguyen Dinh Chien - Pham Quoc Quan, 2013, pp 83~87). 이는 소위 베트남 바다가 “해양실크로드”의 무대 중 일부였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추가적인 증거이다.



그림 16. 베트남 해안에서 유물이 인양된 6척의 난파선 지도

14세기부터 “해양실크로드”의 존재를 통하여 중국의 장거리 무역이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명대의 장군 정화(鄭和; 1371~1435)에 의한 7차례의 운항을 통하여 중국의 보석과 도자기 및 실크가 동아프리카로 전해지게 되었다. 중국의 무역선은 또한 베트남과 태국 및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물자도 수송하였다.

동남아시아 바다의 경우, 많은 수의 네덜란드 선박이 운항하였고 또한 바닷속에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한 예로 Quinam(1633)호는 대만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운항한 평저선이었으며, Kempphaan(1633)호는 100톤 이상 급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으로 선장 Kornelis Hendritesz Denijs에 의하여 1632년 12월 17일에 갈레(Galle, 현 스리랑카)를 떠나 대만으로 운항하였다. 같은 회사의 240톤급 Grootbrock호(1635)는 1631년 4월 28일에 바타비아에 도착하였고, 200톤급의 Keizerin호는 1636년

10월 29일 대만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에 중부 베트남 해역의 Padanan만에서 침몰하여 그 도자기 화물도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이 난파선의 위치는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300톤급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Gouden Leeuw호(1674)는 1666년 6월 18일에 바타비아에 도착하였다. 이로부터 8년 후에 이 선박은 통킹만의 Tiger 군도에서 침몰하였다.

1604년부터 1657년까지 중국에서 유럽으로 도착한 중국 도자기는 3백만 점이 넘는다. 1700년의 어느 하루만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이 유럽의 한 항구에 146,748점의 물품을 쏟아 내었다. 이는 중국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의 많은 도자기가마들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무늬와 형태 및 장식을 맞춰주어야 했다. 따라서 중국 전통의 무늬 외에 유럽 스타일의 새로운 장식 형태가 탄생하였다. 까마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돌도장에 새겨진 이름이 광저우의 유명한 가문 출신의 선박 소유자인 Pan Ting Cai라고 해독됨으로써 까마우 난파선은 수출용 도자기를 바타비아로 수송하던 중국 선박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수송 화물이 유럽으로 가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나 대부분은 18세기 초 네덜란드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조사 기록은 관련 전문가인 암스테르담대학교의 John Kleinen 교수와 함께 상의하였다. 이 기록은 2003년 4월 11일 베트남역사과학협회 및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이 개최한 까마우 난파선에 관한 토론회 중에 제시되었으며, 이후 “Past and Now” 신문에 게재하기 위하여 재편집되었다. 2007년에 필자는 Macau대학교의 역사학과 Paul A. Van Dyke 교수 및 암스테르담에 있는 소더비의 경매 카탈로그와 관련하여 Christiaan J. A. Joerg 교수와 논의를 하였다.

본건과 관련한 두 명의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하여 동서 국제 교역의 차원에서 혼카우 및 까마우 난파선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보다 심화하고 명확해졌다.

참고문헌

1. Christie's Amsterdam, 1992. The Vung Tau cargo, Chinese export porcelain. Auction Catalogue.
2. Fick ford, Nigel, 1994. The Atlas of Shipwrecks Treasure. Printed in Spain.
3. Flecker, Michael, 1992. "Excavation of an Oriental of c. 1690 off Con Dao, Viet Nam". International Journal of Nautical Archaeology (1992), Vol 21, 3, pp 221-244.
4. Gyorgyi Fajcsak, Nguyen Dinh Chien, Ja'nos Jelen, 2009. The Ca Mau Shipwreck Porcelain from the collection of Dr. Zelnik, Jelnet Ltd. Volume 1. Budapest.
5. Idemitsu museum of Arts, 1984. Inter-influence of ceramic art in East and West (in Japanese and English)
6. Jog, J.A. Christiaan – Michael Flecker, 2001. Porcelain from the Vung Tau wreck: The Hallstrom Excavation. Sun Tree publishing, UK.

7. Kleinen, John, 2004. " Which connection existed between the shipwreck from Ca Mau and Holland ?" Newspaper "Past and Present". No Spring 2004: pp 61-67 (Vietnamese)
8. Nguyen Dinh Chien, 2002a. Report on the archaeological underwater excavation in Ca Mau shipwreck (1998-1999). National Museum of Vietnamese History. Hanoi. (Vietnamese)
9. Nguyen Dinh Chien, 2002b. The Ca Mau shipwreck, 1723-1735. Cultural and informational Department of Ca Mau and National Museum of Vietnamese History published (Vietnamese and English)
10. Nguyen Dinh Chien, 2005." Archaeological excavation in the Ca Mau shipwreck." One Century of Vietnamese Archaeology.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Hanoi: pp 309-313 (Vietnamese)
11. Nguyen Dinh Chien, 2006a." Ceramics on shipwrecks of Viet Nam." Viet Nam Social Sciences, No 3 (113) :pp 63-74
12. Nguyen Dinh Chien, 2006b. " Archaeological underwater Excavations in Viet Nam." Fisyhing the Interrupted Voyage, paper of UNESCO Asia - Pacific workshop on the 2001 conserv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Ed. by Lyndel V. Prott : pp 55-58.
13. Nguyen Dinh Chien, 2007a." Excavation Archaeology of Ca Mau shipwreck." Catalogue Auction Sotheby's Amsterdam: pp 11-13.
14. Nguyen Dinh Chien, 2007b." Ceramics on shipwrecks of Viet Nam ." Pros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Exchange of Material culture over the seas: Contacts between Europe ,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16th - 18th Centuries (31 October - 2 November 2007,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Taipei, Taiwan)
15. Nguyen Dinh Chien, Pham Quoc Quan, 2008. Ceramic on five Shipwrecks off the coast of Viet Nam. National Museum of Vietnamese History published (Vietnamese and English)
16. Nguyen Dinh Chien, Pham Quoc Quan, 2013." Excavation Archaeology of Binh Chau shipwreck, the 6th ship off the coast of Viet Nam. " Bulletin of science National Museum of Vietnamese History (Vietnamese), NO 2, pp 73-87.
17. Sotheby's Amsterdam, 2007. Made in Imperial China, 76,000 pieces of Chinese Export porcelain from the Ca Mau Shipwreck, circa 1725. Auction catalogue Amsterdam.
18. The Kyushu ceramic museum, 1990. Hizen wares abroad, the 1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Japanese and English)
19. The Kyushu ceramic museum, 1993. World's Blue and White (Japanese and English).

토론문

훈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김 영 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해양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외국이 상업무역과 문화를 교류했던 해상 노선이다. 진한시기부터 형성되어 당송시기에 번영했고 송대부터 도자기무역이 발달하여 주요 화물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해양실크로드'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 오대와 송원 시기 대량의 중국 무역도자기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명 초기에는 해금 정책으로 도자기 수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명 중기부터 용천요 청자의 수출이 활발했으며 그 이후는 경덕진요 청화자기가 중심이 되었다.

중국 도자기의 섬세한 공예, 다양한 문양, 정교한 도안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며, 15세기~16세기 해양실크로드라는 새로운 항로를 연 후 유럽에 이를 수 있었는데 유럽인의 물질 수요와 문화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서아시아 터키 톱카프궁 박물관과 이란 국립박물관은 원청화와 용천요청자, 그리고 명청시기의 무역자기를 다량 소장하고 있다. 아르데빌 사원과 톱카프 궁전 소장하고 있는 명대 중기까지 무역자기를 보면 중국 전통의 기형과 문양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자기가 유럽에 점차 알려지면서 16세기에 포르투갈은 아시아와 무역관계를 세우고 아시아의 화물을 '카라카스 선'(크라크 선)에 싣고 유럽으로 옮겼다.

17세기 중국 도자기무역은 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주도 했다. 동인도 회사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동남아, 서아시아, 유럽까지 동서양 항선의 서로 요구하는 물품을 경영하였다. 1602년부터 회사가 성

립되고 중국 도자기는 그들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청대에 들어오면 康熙 시기에 가장 흥성하고 雍正, 乾隆 시기에도 대량으로 수출되었다. 17세기부터 유럽 일부 국가는 각자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량의 중국 화물을 유럽으로 실어 날랐으며, 도자기는 여전히 주류 상품이었다. 이 시기의 도자기는 유럽풍, 중국풍, 그리고 중국풍과 유럽풍이 결합한 산품이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해상교역로의 반드시 거치는 거점이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6척의 침선을 발굴하여 몇만 점의 도자기를 인양하였다. 지금까지 인양된 도자기는 중국 원대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청백자, 명청시기 경덕진요, 푸젠 지역의 청화자와 각종 채색자기, 베트남 海陽省(Hai Duong kiln) 朱豆窯, 升龍窯(Thang Long kiln) 등지에서 제작한 제품을 비롯하여 태국 청자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에서 수출도자기를 날랐던 무역선은 13~14세기 것부터 17~18세기에 이르는 것까지 발견되었다. 원의 13~14세기에 해당하는 침몰선은 Binh Chau에서 발견되었다.

Cu Lao Cham 해저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15세기 만기 베트남 海陽省(Hai Duong kiln) 朱豆窯, 升龍窯(Thang Long kiln) 등에서 생산된 생활용기, 문방용구 등이 있으며, 품종은 청화자기와 홍록채, 彩繪描金, 鏤雕瓷 및 백자, 등은 기형, 소성공예, 장식문양은 지방특색이 강하다. 그밖에 경덕진요 등지의 청화, 霽藍釉, 흑갈유, 黃釉浮彫 등이 있다.

Binh Thuan 해저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明 萬曆時代(1573-1620) 광둥 汕頭窯, 푸젠 漳州窯의 수출도자기 일상 생활용기 위주이다. 기형에는 완, 반, 관, 분합이 있으며, 청화, 백유홍록채, 靑黃釉堆粉 등으로 장식된 문양 소재는 민간 기복신앙과 길상을 담은 것이 많다.

Hon Cau 해저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淸 康熙時代(1662-1722) 장시 景德鎮窯, 광둥 汕頭窯, 푸젠 덕화요가 있다. 문양장식은 중국 전통 풍을 담은 것과 유럽풍이 담겨진 것이 있다. 태국 Sawankhalok kiln 생산 청자도 포함되어 있다.

Ca Mao 해저선에서는 淸 雍正時代(1723-1735) 장시 景德鎮窯, 廣東窯 무역도자기가 발견되었다. 기형에는 중국식과 유럽식이 있으며 음식용기, 생활용기, 문방용구, 塑像玩具, 진설용기 등이 있다. 품종에는 청화, 청화홍채, 청화유하삼채, 소삼채, 紫紅, 녹유각획전채, 백유채회, 장유백화, 소태백화, 당색유 등이 있다. 기물 장식문양은 중국의 전통문화 소재인 花鳥山水, 漁耕, 역사인물, 희곡고사 등이 있으며 서양풍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의 베트남 해저유적에서 발견된 수출도자기는 동서간의 물질과 정신문명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귀한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 Ca Mau 침몰선의 항로와 관련하여 유럽식 도자기와 중국 각 지역의 도자기, 그리고 일본풍의 도자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들 도자기가 모두 바타비아 또는 서양으로만 향했던 것은 아닐 것이며, 일부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흥미로웠다. 중국 저장성 Ningbo에서 출발하여 일본 하카타를 향해 출발하였으나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신안선에서는 일본의 유적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경덕진요 청백자 철반문 물소 탄 동자모양 연적 등이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어 신안선의 최종 목적지가 일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신안선에 실린 후추, 정향 등 각종 향료와 자단목 등은 산지가 대부분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신안선의 교역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Ca Mau 침몰선의 교역 범위를 추정하게 하는 도자기 외의 상품 즉 차와 향신료 등 당시 유럽인들이 열광했던 아시아의 상품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기 바란다.
2. 베트남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자기를 생산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12세기의 백유도자부터 시작해서 점차, 청유, 흑유, 갈유 등 도자기를 생산하였는데 베트남에서의 시기별 중국도자기 수입 경향과 중국도자기와의 기술교류 관계에 대해 알려주기 바란다.

발표문6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齐东方

中国 北京大學 教授

동경 (銅鏡)이 주는 시사점

자기(瓷器)의 새로운 발견

금은기와 상호(商胡)

흑석호와 양주

발표문6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제 동 방

중국 북경대학 교수

망망대해를 사이에 두고 연구자들은 각자 다른 세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높은 파도 이면으로부터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서문(徐聞)과 합포(合浦)에서 시작하여 남해 각국으로 향하는 항로를 알고 있었다¹. 삼국 동오(東吳)시기 주영(朱應)과 강태(康泰)는 남해의 여러 국가를 유람했고, 귀국 후 각각 『부남이물전(扶南異物傳)』, 『오시의국전(吳時外國傳)』을 저술하였다².

동진(東晉)의 승려 법현(法顯)은 장안에서 출발해 사막을 거쳐 인도로 갔고, 바다를 건너 귀국한 후 〈불국기(佛國記)〉라는 여행기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당시 항해기술과 남해 항로의 거리,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³. 현재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광주 황기강서한묘(廣州橫枝岡西漢墓), 광주서한남월왕묘(廣州西漢南越王墓), 강소한강현감천진(江蘇邗江縣甘泉鎮)의 2호 동한 묘에서 로마의 유리병, 파사(波斯, 페르시아)의 은합과 상아, 향료 등 서양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⁴.

1. 「지리지」하, 『한서』권28하, 중화서국, 1983년, 1671쪽.

2. 「제이」, 『양서』권54, 중화서국, 1992년, 783쪽.

3. 동진법현 지음, 장손 주석, 『법현전교주』, 상해고적출판사, 1985년.

4. 광주시문물관리위원회 등, 『광주한묘』, 문물출판사, 1982년, 239쪽; 광주시문물관리위원회,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광동성박물관, 『서한남월왕묘』, 문물출판사, 1991년, 도판 122, 209-212쪽; 남경박물관 : 「강소한강감천2호한묘」, 『문물』, 1981년 11호.



광주횡지강서한묘



강소한강현감천진의 2호동한묘



광주서한남월왕묘

또한 광동성 축계현 변만촌 인근 해안가 남조교장에는 중앙아시아 고문자가 새겨진 은제사발, 사산 왕조의 동전 20개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⁵. 비록 중국선박이 원양 항해만 하였다거나 외국선박이 정박만 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외부 물품은 남해 각국 간에 간접 무역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대(唐代) 『신당서(新唐書)』에는 주로 남해에 있는 30여개의 나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언급된 국가나 지역은 그보다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가릉(현 인도네시아 자와섬)은 당나라, 남아시아, 서아시아 해상의 중요 요충지였다⁶. 이 해상 통로는 해적이 출몰하고 배가 자주 침몰하여, 대량의 신비한 보물과 암초가 산재해 있는 수역이다. 독일의 워터즈프는 1997년 이곳에서 명나라 침몰 선박인 ‘응담호(鷹潭號)’를 발견하였고, 1998년에는 11세기 송나라의 ‘마열니호’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세기 중엽의 당나라 보물을 가득 실은 ‘흑석호(黑石號)’를 발견하기도 했다.

흑석호의 인양으로 수많은 보물이 수면 위로 드러나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확인된 유물만 6만여 점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도자기였다. 그 중에는 형요(邢窯), 월요(越窯), 궁현요(鞏縣窯)의 도자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호남 장사요(長沙窯)의 도자기도 5만여 점이나 발견되었다. 도자기 중에는 1m가 넘는 백유녹채병(白釉綠彩瓶), ‘영(盈)’, ‘진봉(進奉)’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백유녹채병, ‘보력(寶曆 826년) 2년 7월 16일’ 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장사요의 사발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청화자기 접시 3점, 은제 접시와 은제 잔 22점, 금제 접시 7점과 금제 잔 및 다량의 동경(銅鏡)이 발견되었

5. 축계현박물관 : 「광동축계현에서 발견한 남조교장금은기」, 『고고』, 1986년3호.

6. 「남만전」하, 『신당서』권222하, 중화서국, 1975년

다. 이러한 유물은 모두 9세기 초·중기의 것이다⁷.

인도네시아 자바섬 등의 해역은 해상실크로드의 필수코스이자 이상적인 중간 환적 장소였다. 왕래하는 선박들은 이곳에 정박하여 식수와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였고, 동시에 상업적 교역도 진행하였다. 이 항로는 중동이나 더욱 먼 지역을 향한 항로였다. ‘흑석호’에서 나온 물품들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종류의 기물들로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연구 방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상 남아시아 무역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동경(銅鏡)이 주는 시사점

‘흑석호’에는 외관상 투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동경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는 고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찾고 있던 보물 강심경(江心鏡)이었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은 동경을 반복적으로 제련 및 주조하면 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맑아진다고 생각하였다. 산지는 양주이고, 양자강 일대에서 제조된 강심경은 제조기법이 복잡하여 백련경(百煉鏡), 수심경(水心鏡)이라 불리우기도 하며, 주로 궁정에서 많이 사용되었다⁸. 이 동경은 8세기 당나라 현종시기(712~756년)때부터 제작되었고, 덕종(779~805년)이 즉위한 이후 근검절약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경 제작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⁹.

정교하고 아름다운 강심경은 어떠할까? 『이문록(異聞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당나라 천보(天寶) 3년 5월 15일 양주에 수심경 한 점이 들어왔는데 가로-세로 길이 9촌(寸)에 청색 빛깔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뒷면에는 길이 3척(尺)4촌(寸)5분(分)의 생동감 넘치는 반룡(盤龍)이 그려져 있어, 현종의 관심을 사기도 하였다. 진경관(進鏡官) 양주참군 이수태(李守泰)가 말하기를 거울 제작 중 용호(龍護)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중략), 또 다른 위경장(謂鏡匠) 여휘(呂暉)라는 사람은 그 노인은 어렸을 적부터 동경을 주조하였고...(중략), 여휘 등 몇몇은 선박 안으로 이동하여 보니 5월 5일 정오가 되어서도 거울을 제작 중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당나라 사람들은 동경을 좋아하고 동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백居易(白居易)의 〈백련경(百煉鏡)〉에서도 동경을 노래하고 있다.

7. Shipwrecked: Tang Treasures and Monsoon Winds(「당대보장화이품」)(미국)스미스 소니언 아서 새클러박물관, 2010년.
8. 「양주공」조 「국사보」, 『태평광기』권232, 중화서국, 1961년, 1776쪽 인용 : “양주에서는 강심경을 진상하며 4월 4일에 양자강의 중심에서 백번을 제련하고 육칠십여 차례 다시 제조하고 그치더니 이는 깨지기 어렵더라.”
9. 「덕종기상」, 「구당서」권12, 중화서국, 1975년, 322쪽 : “이미 양주에서는 매년 단오에 강심경과 유주에서 녹항을 진상하고 있다.”
10. 「기완」3, 이수태 조 「이문록」인용, 「태평광기」권231, 중화서국, 1961년, 1771쪽.

- 일진(日辰)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강 한복판 물 위에 뜬 배에서 주조하였나니 5월 5일 정오의 시각이라 옥분(玉粉)과 금고로 몸을 갈고 닦으니 한 조각 가을 못 물처럼 맑구려 거울을 들어 봉래궁을 비추니 양주장사의 손으로 스스로 봉하여 인간세계의 신첩이 함께하지 못하니 뒤에는 하늘을 나는 용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천자경이라 부르며 나는 태종황제인가 물으니 태종황제는 인간으로 거울을 삼아 옛날과 오늘을 비추지만 어렵구나 사해의 안위가 손안에 있고 백왕이 난을 일으키고자 하나 천자에게는 거울이 있는 걸 알고 있으나 양주의 백련경은 아니라네.



흑석호 동경 및 명문
"양자강 백 번을 단련해서 만든 당건원 2년 무술 십일월 십구일 양주에서"

강심경이나 백련경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적도 없고, 전해 내려오지도 않았다. 최초로 사람들 앞에 전시 된 이것은 비록 깨져있지만 확실하게 명문(銘文)을 엿볼 수 있었다.

- '양자강 한 복판에서 백 번 두드려 만들어 내니, 이때가 건원 원년 무술11월 29일 양주라'

이는 강심경 또는 백심경을 증명하는 것으로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강심경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팔괘문(八卦紋)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반룡의 형상은 아니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새겨져

있는 당대의 사신경(四神鏡) 수량은 매우 적다. 모두 괴수라 보기에는 어려워 사수경(四獸鏡)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팔괘경(八卦鏡)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신(四神)이 새겨져 있는 것은 찾아 보기 드물다.

강심경이나 백련경은 당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문헌 『이문록(異聞錄)』에 따르면 양주가 진상한 수심경은 장안(長安)의 내고(內庫)에 보관 중 이었는데, 천보7년(748년) 도사 엽법선(葉法善)이 발견한 후 도가(道家)의 기우행사에¹¹ 사용되었다. 흑석호의 동경에는 사신팔괘(四神八卦)가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도가의 법사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가의 법사 활동 용도로 제조된 동경은 매우 드물다.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는 길흉을 물을 때 "9촌 크기의 동경을 사용하여 자신을 비취보고 생각이 떠오른다면 칠석(七夕)에 신선(神仙)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경(明鏡)을 하나 혹은 두 개 사용할 경우 일월경(日月鏡)이라 부르고, 4개를 사용하면 사규경(四規鏡)이라 부른다. 사규경의 사용법은 명경을 앞뒤 그리고 좌우로 배치하는 것이다. 사규경을 통하여 신

11. 「기완」3, 이수태 조 「이문록」인용, 앞의 책, 1771, 1772쪽.

을 보았다는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¹². 흑석호의 강심경은 팔괘와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이 결합한 것으로, 법사 활동 전용 거울로 만들어 진 것 같기도 하다.

동경의 기본적인 용도는 얼굴과 형상을 비추기 위한 것으로 광선에 비추면 물체의 형상이 보이는 기능이 있다. 옛 사람들은 그것이 길흉을 보여주며, 사악한 기운을 멸하는 신기한 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동경을 묘지 가장 윗부분 또는 묘지의 사각(四角)이나 관 위에 고정하여 놓기도 하였다. 송대 문헌에는 “동경을 관 위에 고정하여 죽은자를 비추는 것은 광명을 얻고 어둠을 깨뜨리기 위함이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집의 정문 위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사악한 기운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 낼 수 있다고 믿기었기에,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중국에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동경의 해외 수출은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도가에서 사용하는 법사 활동의 전용 거울이라면 왜 수출이 되었을까? 사실 동경의 용도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각종 제사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개성(開成) 4년(839) 5월 2일…(중략) “일몰(日沒)에 배 위에서 천신지기(天神地祇) 제사를 지내는 데 이때 관리들이 비단, 동경 등을 신에게 바친다¹⁴.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나라 시기 출항을 위해 지내는 제사에서 동경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흑석호의 강심경 역시 이러한 용도 사용되었을까?

흑석호에서 발견된 수많은 동경 중 포도문양이 새겨져 있는 포도문경(葡萄紋鏡)도 주목할 만하다. 이



흑석호포도문동경

12. 『포박자내편교석』권15, 중화서국, 1985년, 273쪽.

13. (송)주밀, 오기명 교감, 『신해잡식』, 중화서국, 1988년, 202쪽.

14.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권1, 상해고적출판사, 1986년, 57쪽.

는 당대에 수량이 가장 많은 동경의 종류 중 하나이다. 동경에 대한 연구는 1세기 가량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동경은 당대 전기의 것으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중기에 제작하여, 유행하였던 동경이다. 하지만 흑석호에서의 발견은 이러한 생각에 혼란을 가져왔다. 대량의 도자기 등 유물의 연대로 보아 흑석호 침몰의 연대는 당나라 만기(晩唐)로 추정할 수 있다. 선박 안에 있던 다른 동경 예를 들어 절지문(折枝紋)동경 등은 당대 후기에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포도경(葡萄鏡)이 제작되지도 않았고, 유행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포도경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 특이한 점은 중만당(中晩唐) 시기에 방제경(倣製鏡)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제경은 중만당(中晩唐) 시기에 제조된 동경으로써, 전 왕조나 당나라 초기의 동경을 복제한 것을 말한다. 양주(揚州)는 동경의 집산지로 시장에서 초기에 제조된 동경도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선박에서 발견된 수나라 동경과 한나라 동경을 참고해 보면, 양주 시장에서 옛 동경을 판매하였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흑석호포도문동경

자기(瓷器)의 새로운 발견

흑석호에서 발견된 물품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청화자기 접시 3점이다.

이는 중국 최초의, 그리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청화자기로 매우 귀한 유물이다. 청화자기는 원-명-청(元明清) 시기에 유행한 것으로 코발트를 이용해 자기에 문양을 그려 넣는 것이다. 굵기, 간격, 농도 등 선(線)의 필법에 따라 각기 다른 도안을 표현한 후 투명 유약을 사용해 고온에서 제작된다.

청화자기의 매력은 청색과 백색의 간격에 있으며,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중국 회화(繪畫)는 우아한 느낌을 녹여낸 예술적 경지를 이루었고, 문인묵객(文人墨客)이 추구하는 담백함과 뚜렷함, 고요함이 더해져 한 시대의 자기를 대표하는 품목이 되었다.

사람들은 청화자기가 언제부터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했다. 처음에는 명대일 것 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 원대라고 생각하였지만 계속되어 발견되는 원대 물품을 보았을 때 자기를 굽는 기술이 매우 발달된 것으로 보아 원대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청화자기의 기원은 연구자간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1975년 양주(揚州) 당성(唐城)유적지에서 는 청화자기 한 조각이 발견되었고, 이 청화 자기의 연대는 논의해 볼만한 문제로 오직 연구자들에게만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발굴 책임자는 땅 속에서 발견된 이 조각이 당대의 것으로 확신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 리는 것에는 망설였다. 당시 저명한 도자기 학자 풍선명(馮先銘)은 이 조각의 연대가 당 나라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였으



양주에서 출토된 당대 청화자기 조각

며, 공현요(鞏縣窯)의 상품¹⁵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1983년에도 당나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 화자기 조각이 땅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자기의 문양을 살펴보면 종려엽문(棕櫚葉紋), 산엽가릉형문(散葉加菱形紋), 매화 점문(梅花點紋), 배점문(排點紋), 수조문(豎條紋) 등 이슬람식 느낌을 띄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청화백 자가 당대의 것이 확실하며, 외국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¹⁶.

어떤 연구자들은 신장(新疆) 위구르에서 출토된 당대 백지남화자기(白地藍花瓷片) 조각 20여 점을 근 거로 당대 청화자기가 출토된 양주에서도 페르시아 도자기(波斯 靑陶)가 출토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당대에 페르시아 도자기가 수입되었다면 백지남화자기 역시 수입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 다. 또한 당시 서아시아에서는 당나라 느낌을 모방하는 유행이 있었기에 이라크 사하라 지역에서 당대 청화자기와 페르시아 도자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양주에서 출토된 당대 청화자기가 서아시아 ¹⁷에서 왔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관점이 서로 다른 중요 원인은 바로 당대에는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

15. 남경박물관 등, 「양주당성유적 1975년 고고학 작업 간략보고서」, 『문물』, 1977년 9호 ; 풍선명 주편집, 『중국도자사』, 상해고 적출판사, 1994년, 454쪽.

16. 마문관, 「당대청화자기연구 - 중국청화자기 코발트를 이용한 일부 문제에 대한 담론」, 『고고』, 1997년 1호.

17. 상강, 『당대공예미술사』, 절강문예출판사, 1998년, 145쪽.



하남정주상가구발현일좌당대소형토동묘, 묘에서 출토된 토량건 청화자기 탑식관



양주성북당묘, 낙양북교당묘청화집호

문이다. 흑석호의 청화자기 접시와 중만당(中晚唐) 시기에 만들어진 대량의 자기가 동일한 배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고 당대에 이미 코발트 유약을 사용하여 청화자기를 만들었으며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하남의 공의(鞏義) 황치요(黃冶窯) 발굴에서 백자와 삼채가 발견되었고, 만당 문화층(晚唐文化層)에서는 고온에서 구운 바탕이 깨끗한 백유남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정색제(靑色劑)는 산화 코발트로 바로 청화자기의 원료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보아 황치요

는 청화자기를 구워낼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공의시 황치요에서 19킬로미터 떨어진 하남 정주의 거리에서 당대의 작은 토굴묘가 발견되었는데, 이 토굴묘에서 탑 모양의 청화자기 탑식관(塔式罐) 2점이 발견되었다¹⁸. 낙양의 백거이 마을, 양주성 북당묘(揚州城北唐墓), 낙양북교당묘(洛陽北郊唐墓)에서는 각각 주전자, 관, 합 등의 청화 유물이¹⁹ 발견되었으며, 이는 당대의 청화자기 제작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흑석호의 청화자기 분석 결과, 착색원소는 저(低)망간, 저철, 저구리의 코발트이며, 이는 공현요(鞏縣窯)의 남유(藍釉)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도자기의 성분은 하남의 삼채와 유사하고, 유약은 석회유(石灰釉)로, 이는 당대 하남 석회유와 비슷하며 이를 구운 지역은 하남성의 공의(鞏義) 일대로 추정된다.

18. 정주시문물고고학연구원 등, 「정주상가협와당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2009년 1호.

19. 정주시문물고고학연구소 편저, 『하남당삼채와 당청화』 그림 602, 605, 627, 628, 631, 과학출판사, 2006년, 417, 430, 432쪽.



흑석호의 완벽한 청화자기

청화자기 특유의 멋스러움과 심미적 분위기의 효과는 외국인들을 매료 시켰으며, 이들은 간단한 진흙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어 낸 것을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였다. 14세기 이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으며, 대량으로 유럽에 수출된 시기는 16세기 이후이다. 완벽에 가까운 흑석호의 청화자기 3점은 기적적이라 할 수 있다. 이국 타향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청화자기 제작 여부에 대한 역사적 의문점도 해결했다. 나아가 양주에서 출발한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아 청화자기가 시공을 초월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화자기 세 점의 문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구성과 재료는 똑같다. 모두 파초잎(또는 종려나무잎)의 색채를 지닌 식물모양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간에 하나의 네모난 틀이 있고, 이 사각형에서 잎사귀가 뻗어나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와 특색적인 문양은 양주에서 출토된 자기 조각에서 발견되었다²⁰. 이는 당시 양주에서 이 자기를 사용하고 판매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하남 정주거리의 당나라 묘에서 출토된 청화탑식관(靑花塔式罐)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다. 이는 이러한 청화자기의 산지가 하남 공의임을 증명한 것이다. 만약 자기 접시 상의 문양과 선박에서 발견된 금제 접시의 문양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문양 스타일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양은 당대 도자기, 금은기에서는 드문 것이다. 그렇다면 제작 시에 구매자가 참여하고, 설계하여 맞춤형 기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화자기가 단정한 질푸른 색이라고 한다면, 장사요의 자기는 화려하고 무늬가 다양하다. 아쉬운 것은 발견된 도요지는 모두 폐쇄된 장소라²¹ 출토 기물들의 파손이 심하다는 것이다. 흑석호에서 발견된 5만여 점의 장사요 자기는 당시의 제품인 것으로 기물이 완벽하고, 수량이 방대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당대의 장사요에는 형요(邢窯), 월요(越窯) 등과 같이 문인의 기록과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저 만당의 이군옥(李群玉)(808~862)의 시(詩) 〈석저(石渚)〉 한 구절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20. 정주시문물고고연구소 편저, 『하남당삼채와 당청화』 그림 607, 608, 과학출판사, 2006년, 418, 419쪽.

21. 장사요과제조 참고, 『장사요』, 자금성출판사, 1996년.

과 같다.

- ‘오래된 골짜기에 도자기 그릇이 있는데²² 높은 숲에서 불을 태우니 화염이 상포구에 이르르고 연기는 동정호를 흐리며, 먼 들에 석탄이 어지러이 날리니 먼 하늘에서 폭발소리 진동을 하는구나. 지형이 뚫리고 무서움이 묘지에도 이른다’.

이는 매우 찾기 어려운 기록으로 시인은 장인이 나무로 불을 피워 자기를 굽고 화염이 하늘높이 솟구치는 장면에 감탄하며, 장사요의 도자기 제작이 매우 번창하였음을 노래하고 있다.

장사요가 발전하는 시기였던 천보(天寶)14년(755), 중국 북방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전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하²³했으며, 수 많은 기술도공이 북방의 도자기 채화 기술과 삼채 기술을 강남에 전수하였다. 고고학에서 발견된 장사요 중 최초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묘는 보응(寶應) 2년(763년)의 익양현혁산묘당묘(益陽縣赫山廟唐墓) M30²⁴이다. 장사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원화(元和)3년(808년), 대중(大中)9년(855년), 대중10년(856년) 등의 글자가 쓰여 있다. 이를 통해 9세기 전-후가 장사요의 최고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다.

중만당(中晚唐) 시기에 발전한 장사요 상품은 매우 강한 평민의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기물의 문양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었으며 당시에 유행했던 민간속담, 속어, 시문 등이 적혀 있었다. 이는 백성들의 감상 취향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 개인의 감정도 전달하였다. 주 사용자가 일반 백성이기에 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었고²⁵, 국내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곧바로 외국에서도 자기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안사의 난(安史之亂) 이후 육상실크로드는 쇠락했고, 상강(湘江)변의 장사요는 수운을 통해 양주, 광주, 남안 등과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깨지기 쉬운 도자기는 대규모 이송에 부적합한 장거리 육로 운송 대신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 것이다. 해상실크로드는 이렇게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흑석호에서는 장사요 자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해당 자기의 외국 수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장사요 자기는 단조로운 갈색이며, 갈색과 녹색이 혼합된 유물이 많았다. 색깔이 화려하고 농담이 달라 여러가지 색깔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서, 채색이 중요한 심미 기준이었던 전통을 타파했다. 문양은 대체로 식물, 동물, 인물, 기하학적인 도형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지럽게 흩어진 색채로 구성

22. 이근옥, 「석저」, 『금당시』권569, 중화서국, 1999년, 6585쪽.

23. 「지리지」, 「구당서」권319, 중화서국, 1975년, 1552쪽 : “양과 등의 백성들은 강과 상지역에 옷들을 파니 이는 형남경읍보다 10 배 높은 가격 때문이다.”

24. 익양현문화관, 「호남익양현혁산묘당묘」, 『고고』, 1981년 4호.

25. 장사요의 1점의 반구 목이 얇은형, 유병오문의 명문이 있는 주전자

된 추상적인 도안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하채(釉下彩) 특징의 문양이 유약으로 인해 색이 퇴색되지 않았다. 이러한 독특한 외관은 국내외에서 사랑을 받았다. 오늘날까지 한반도,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 장사요 자기가 발견되고 있다.

해외시장의 수요로 장사요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품의 형태 및 문양이 다양화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것이 아닌 기이하고 독특한 문양도 볼 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시아데아 스피누로사의 나무와 대추야자나무 문양이 있으며, 나아가 호인(胡人)의 각종 공연의 도안도 있다. 심지어 아랍 문자까지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중만당(中晩唐) 시기의 어떤 도요지에서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외국 수출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발굴품은 장사요 도요지의 상황, 상품의 특징, 시대적인 변천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상품이 양주에서 출토된 것은 대외 무역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자기는 수로를 통해 먼저 양주로 옮겨진 후 다시 해외로 수출되었다. 대량의 장사요 자기가 흑석호에서 발견된 것은 당시의 자기가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은 흑석호에서 ‘영(盈)’, ‘진봉(進奉)’ 이란 글자가 새겨진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당대 ‘영’ 자의 관이 찍힌 자기는 오랜 논란의 대상였지만, 일반적으로 황실의 대영고(大盈庫)에 보관되고 있었다²⁶. 이러한 자기 대부분은 형요(邢窯) 도요지에서 출토되었기에²⁷ 사람들은 ‘영’ 자가 새겨진 기물을 형요 상품이라 하였고, 9세기 초기 이후 주로 황실에 공급되어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흑석호 “보력 2년(826년) 칠월 십육일” 장사요완으로 명문이 쓰여 있으며 아랍문자가 그려져 있는 사발

이러한 견해가 정론으로 인정될 때 흑석호에서도 ‘영’ 자 관이 있는 기물이 발견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백자가 아닌 녹유화구완(綠釉花口碗)이 발견된 사실이

26. 육명화, 「형요 “영(盈)”자와 정요 “역정(易定)”을 고려」, 왕장기, 『서안시에서 “한림(翰林)”, “영(盈)”자관이 있는 형요백자관, 지광정, 『당대형요공자기 “영(盈)”자관을 연구』, 여성룡, 『당대형요 “한림(翰林)”, “영(盈)”자관이 있는 백자관에 대한 소견』, 『형요유적연구』, 과학출판사, 2007년, 256-262, 408-409, 514-521, 479-482쪽; 현대시문물관리처 등을 참고; 팽선국, 「“영(盈)”자관 자기 시험분석」, 『고고와 문물』, 2007년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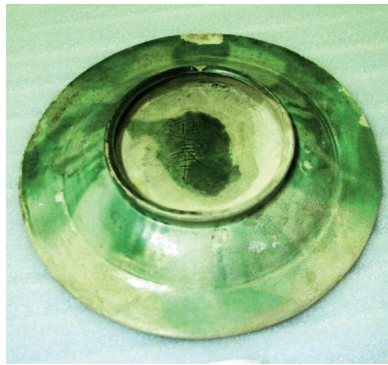
27. 내구현문물보관소, 「하북내구현형요조사 간략보고서」, 『문물』1987년 9호.

다. 예전의 고고학 발굴에 근거하면, 이는 하남 공의요 상품에 해당하며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은 형요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만약 이전 결론에 근거하여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이 황실의 대영고에 보관되어 황실이 사용하는 자기라면, 왜 흑석호에서 발견이 되었을까? 이는 흑석호의 물품은 상품으로 양주 일대에서 구매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을 양주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발견을 참고해 보면 ‘영’자의 관이 있는 백자는 당나라 장안 대명궁(大明宮)외에도 서명사(西明寺), 청룡사(靑龍寺), 서안당신창방(西安唐新昌坊)에서도 출토되었다²⁸. 또한 형태시(邢台市)와²⁹, 하북



흑석호 ‘영’자의 관이 있는
녹채자기 사발



흑석호 ‘진봉’이란 관이 있는
녹채자기 사발

의 역현(易縣)³⁰에서는 당대 귀족의 당묘(唐墓)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영’자가 새겨진 자기가 직접 대영고에 보관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은 당대 황실전용이 아니며, 민간과 시장에서 사용하고 구매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흑석호에서 ‘진봉’자가 새겨진 백유녹채자기(白釉綠彩瓷)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영’, ‘진봉’자가 있는 관의 기물이 시장으로 유입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흑석호에서 발견된 백유녹채대과병(白釉綠彩帶把瓶) 한 점에는 새 부리 형태의 물대, 얇고 긴 나팔모양의 굽(다리)이 있다는 사실이다. 몸통 부분은 둥근 북 모양이고, 몸통과 물대 사이에는 손잡이가 있다. 이러한 병은 본래 ‘호병(胡瓶)’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백유녹채호병의 높이는 거의 1m에 달해 크기가 매우 크다. 당대에 유행했던 호병은 높이가 대략 25cm에서 45cm 정도이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도구인 썸이다. 반면, 흑석호의 호병은 아주 크다. 비록 일반적인 호병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기물은 아니며 기능적으로 볼 때도 해당 기물은 실용적이지 않다. 만약 호병에 액체라도 담으려면 손잡이 자체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장식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이하고 독특한 병은 선박에서 발견된 매우 보기 드문 기물로 과거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부장품으로 출토되었다. 바로 하북 울현유간당묘(河北蔚縣榆澗唐墓)의 녹유대과병으로 높

28. 상길민, 정림천, 「서안남교에서 새로 발견된 당장안의 신창방 “영(甞)”자관이 있는 자기 및 관련문제」, 『문물』, 2003년 12호.

29. 이은위, 「형태시형강동생황구당묘 발굴보고서」, 『문물춘추』, 2005년 2호.

30. 해당 묘지에서 출토된 묘지석, 묘지주인은 당 역현의 녹사이다. 하북성문물연구소 : 〈하북역현북한촌당묘〉, 〈문물〉1988년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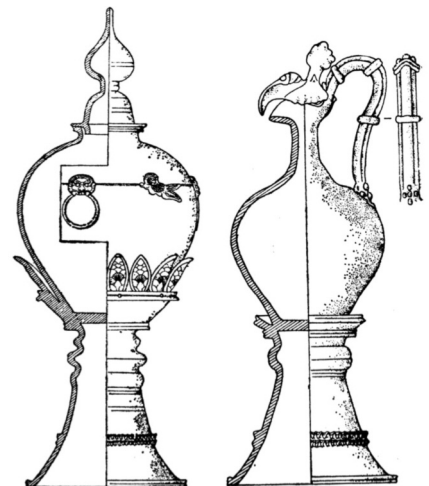
흑석호에서 발견된 봉수호

이는 74cm이다. 하북 울현유간당묘에서는 유사한 대형 탑식관(塔式罐)³¹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례·제례용품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무역을 하는 흑석호에서 제례용품이 발견된 것일까? 부장용품은 특정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원래의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다. 이 유물의 장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중국의 유사한 대형 병 또는 탑식관은 연화장식이 있으며,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연관이 있다. 흑석호의 호병은 목 부분과 굽(다리)부분에 봉황 장식이나 공작의 꼬리 문양이 있고, 몸통 부분의 사각형 틀 안에는 식물 문양이 있다. 이런 문양은 선박에서 발견된 사발에서 볼 수 있으나, 중국에서 발견된 대량의 자기 중에는 이러한 문양이 거의 없다.

금은기와 상호(商胡)

8세기 후반 중국의 양주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당나라 전신공(田神功) 장군은 난을 제압하는 동시에 백성과 상인의 자산을 몰수하였으며 잔인하게 수 천명의 아랍 상인들을 죽였다. 그는 장안으로 돌아와 대량의 금은기를 포함한 보물을 황제에게 바쳤다³². 외국상인들을 살해한 행위가 외세를 배척한 정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를 노략하기 위한 탐욕이었다. 이 사건은 양주에는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 준다.

양주 일대를 절서(浙西)라 불렀는데, 중만당 이후 산업, 상업의 발달로 금은기 제작이 점차적으로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는 3차례 중대한 발견으로는 강소 단도정묘교(丹徒丁卯橋)에서 발견된 은기 950³³점과 절강 장흥현 하신교(長興縣下莘橋)에서 발견된 은기 100여점³⁴, 절강 임안수구씨묘(臨安水邱氏墓)에서 발견된 은기 38점이다.³⁵ 정묘교, 하신교의 은기는 같은 종류의 것이 매우 많으며, 대부분이 새 것이고 완제품인 것으로 보아 전문적으로 예약 제작된 상품일 확률이 높다³⁶.



당묘지 중에서 출토된 봉수호

31. 울현박물관, 『하북울현유간당묘』, 『고고』, 1987년 9호.
 32. 『전신공전』, 『구당서』권124, 중화서국, 1975년, 3533쪽.
 33. 주도현문교국 등, 『강소주도류교출토 당대 은기요 보관』, 『문물』, 1982년 11기.
 34. 장흥현박물관, 『절강장흥현에서 발견된 당대은기』, 『문물』, 1982년 11호.
 35. 명당산고고팀, 『임안현당수구씨묘 발굴보고서』, 『절강성문물고고학소 단행본』 1981년.
 36. 제동방, 『당대금은기연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9년, 286-288쪽.

흑석호에서 발견된 금은기는 양주일대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래 당대에 제작한 금은기의 중심은 수도 장안이었고,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금은작방원(金銀作坊院)에서 생산되었다. 8세기 중엽부터 금은의 주 생산지는 대부분 남방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의 금 92%, 은 94%가 남방에서 제조되었다. 영남도(嶺南道), 강남도(江南道) 일대는 금은기 제작원료의 공급지가 되었다³⁷. 당시 황제는 갑자기 명을 내려 대량의 금은기를 요구했고, 관원들은 빠른 원료 확보와 금은기 제작을 위해³⁸ 생산지를 양주 일대로 정하였다. 9세기 초 회남 절도사로 임명된 왕파(王播)는 3차례에 걸쳐 황실에 금은기 5,900점을 진상했다³⁹.

고고학 연구 조사 결과 당대 수도 장안에서는 해바라기꽃 모양의 은 접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9세기 중엽 절서관찰사, 염철사로 임명된 경희(敬晦)가 진봉한 것이다⁴⁰. 당대 금은기 중 호화스러움의 극치였다고 불리는 법문사원앙문은접시(法門寺鴛鴦紋銀盆)는 절서(浙西)에서 제작하여 황실에 받쳐진 것으로 후에 황실이 법문사에 하사한 것이다⁴¹.

흑석호에서 발견된 금은기 중 대부분이 은합인데 모두 굽은 꽃잎 형태로 꽃과 구름을 닮았다. 이 문양은 식물들이 서로 얽혀있고, 새가 날고 짐승이 달리는 모양이다. 해당 조각은 기물의 굴곡 변화를 강조했다. 전반적인 모양은 아름답고 시원하다. 이는 당시 보편적인 유행이었다. 동일한 유형의 형태와 문양의 기물이 당대 기물 중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서안동교18가 당묘의 가곡타원은합(西安東郊十八街唐墓的四曲橢圓銀盒), 섬서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곡근삼각형은합(多曲近三角形銀盒), 섬서남전양가구(陝西籃田楊家溝) 및 낙양언사행원(洛陽偃師杏園)에서 출토된 구름 문양의 은합 등으로 흑석호의 은합과 매우 비슷하다⁴². 흑석호의 은쟁반 한 점에는 코뿔소 문양이 있다. 이는 낙양언사행원당묘지에서 출토한 은기와 유사하다⁴³.

37. 가등번, 「당송시대금은의 연구」, 중화서국, 2006년, 401, 405쪽.

38. 「이덕속전」, 「구당서」권174, 중화서국, 1975년, 451-452쪽 : “황제가 즉위한 년이 7월이라 절서에서 은기를 만드는 곳에 20일 내로 진상하라 명한다. 절감서도 관찰사 이덕속은 금은이 우리 시에 없사오니 다른 곳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조를 올렸으며 2월 중에 태선령에 은잔이 필요하니 은 9,400량을 준비하고 2, 3백량은 시장에서 사들일 것이라고 명하였다. 모두 시장에 나가 거두어 들이며 진상하며 은은 13, 000량으로 금은 130량으로 금은을 진봉하라 명하니 차사가 파견되어 거두어 들고 다시 돌아다니는 곳마다 거두고 만든다.”

39. 「제왕부 공물헌납」, 장경 4년(824년), 『책부원귀』권169 중화서국, 1960년, 2034 상란 : “회남절도사 왕파 은장 2기를 진상하다” ; 「방계부희지문」, 보력원년(825년), 『책부원귀』권510, 중화서국, 1960년, 6118상란 : “다시 은잔 200개를 진상하고 은사발 100개와 사발 2000개를 진상하다.” ; 「왕파전 태화원년(827년)」, 『구당서』권164, 중화서국, 1975년, 4277쪽 : “들어간 은사발만 3, 400개라”

40. 류향군 등, 「섬서성취현 유림배월촌에서 출토된 당대금은기」, 『문물』, 1966년 1호.

41. 섬서성고고연구원, 법문사박물관, 보계시문물국, 부풍현박물관, 『법문사고고발굴보고서』, 문물출판사, 2007년, 138-141쪽.

42. 갑진안 주편집, 『섬서역사박물관 금은기 소장』 그림105-107, 섬서인민미술출판사, 2003년, 107-108쪽.

43.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언사행원당묘』도판26 : 2, 과학출판사, 2001년.



흑석호의 은기



흑석호의 은쟁반

금잔의 모양과 문양은 당대에서도 발견되었다⁴⁴. 침몰선박의 금은기는 중국에서 생산된 남방의 양주 일대 제품이다.

침몰선박의 금은기는 중국에서 생산된 남방의 양주 일대 제품이다. 흑석호의 은합은 구부러진 꽃잎 문양과 구름 문양이 있다. 중만당(中晩唐)의 금은 작품은 일반적으로 다곡선의 꽃잎조각 기물의 형태가 유행했으나, 남방 기물의 구부러진 꽃잎과 장식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북방은 비교적 함축적이다⁴⁵.

44. 갑진안 주편집, 『섬서역사박물관 금은기 소장』그림36, 섬서인민미술출판사, 2003년, 55쪽 ; 보전, 「서안에서 출토된 당대 이면이 진봉한 은기」, 『고고와 문물』, 1984년 4호 ; 낙양시 제2문물작업팀, 「이천아령 당제국태부인묘」, 『문물』, 1995년 11호.

45. 진강시박물관, 섬서성박물관, 『당대금은기』 오꽃잎은완(그림197), 마름호형 은접시(그림198), 매화꽃모양은 찻잔받침(그림204), 해바라기형 은 차접시(그림205), 남방상품, 정묘교의 소면다곡은완(그림193), 정묘교소면마름꽃형 은쟁반(그림119), 정묘교 쌍꽃잎해바라기 은찻잔받침(그림310), 정묘교해바라기형 은찻잔받침(그림311), 문물출판사, 1985년.



흑석호의 금장 잔

이러한 방법은 기물의 곡선변화를 강조하며, 구연 부분이 오목하고, 볼록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활짝 핀 꽃과 같다.

한 잔에는 코뿔소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낙양 언사행원당대목종묘(洛陽偃師杏園唐代穆棕墓)에서 출토된 은합의 도안과 비슷하다. 남방 지역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동물을 새기는 것을 좋아하여 동물을 새기는데 있어 더욱 신경을 썼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그러했다. 강서 신간(新干)에서 출토된 상대 동기(商代銅器)는 사람의 얼굴로 도철문(饕餮紋)을 대신한다. 호남에서 출토된 청동 존(尊)에는 4마리의 양이 기물의 몸통 부분에 장식되어 있다. 사천광한삼성퇴(四川廣漢三星堆)에서는 놀라운 동물 장식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동진 남조시기 도자기에는 계수호(雞首壺), 개구리형 수주(水註), 양 모양 삼기 등이 있었다. 남방의 기물에 새겨진 생동감 있는 동물문양과 도상은 기물 본연의 형식까지 덮어버렸으며, 지방 예술적 특징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명백히 느낄 수 있다.

당대 남방의 금은(金銀) 장인들의 혁신성은 비(非) 중원 장인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감탄하는 남방 스타일을 보여주며, 남북 간의 전통적인 풍속과 예술품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양주는 금은기를 제조하는 중심지역이자 집산지였으며, 당나라 황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는 공급지였다. 흑석호 발견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양주 일대의 금은기가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은 전례에 없었던 것이다. 사각형의 금제 접시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 모양이 매우 독특한 것 외에도 문양의 주제가 파초 식물 잎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중간에는 만(卍)의 도안이 있다. 가장자리 장식은 각종 식물잎을 나열하여 만든 것이며, 대부분을 세밀한 꽃잎 조각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중만당(中晚唐) 금은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卍)자는 불교유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동경(銅鏡)에서 찾아보기란 극히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길상의 부호라고 해석하지만, 금은기에서의 발견은 처음이다. 또한 꿀벌(또는 나비) 문양도 발견되는데, 이는 과거 정묘교 은제 그릇(丁卯橋銀器)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정묘교 능형 은합(菱形銀盒)의 주요 문양은 나비인데, 이 나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당대 후기 남방지역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양이다. 사각형 금제 접시의 문양은 네 잎 꽃 형태의 둥근 금제 접시와 유사하다. 사각형의 금제 그릇은 고독한 작품으로 문양이 특이하고, 새로운데 아마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흑석호의 방형 금쟁반

흑석호에는 대과잔(帶把杯)도 있었으며, 이는 부피가 매우 크고 팔각 모서리의 잔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호인이 팔각면에 새겨져 있다. 땅의 문양은 없고, 진주문양으로 조각하여 만들어 결코 볼록하지 않다. 출수구(出水口) 아래로는 네 잎이 한 쌍을 이룬 문양이 새겨져 있다.

굽은 연꽃 잎 문양으로 연대는 9세기이다. 당대 전기에 이미 출현한 대과의 팔각잔은 소그드인의 영향을 받은 기물이다⁴⁶. 주로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당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흑석호의 발견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 모양은 당나라 전기 동류의 잔과 매우 가까우며, 호인의 머리를 세 부적으로 장식한 것 또한 동일한 스타일에 속한다.

이 유물은 양주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새로운 작품은 아니다. 사람들은 역사서에 기록된 전신공이 양주에서 외국 상인을 살육했고, 그들의 금은기를 빼앗은 사건을 생각하게 한다. 또는 양주의 외국상인이 금은기를 매매와 제작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부피가 매우 큰 팔각 대과잔이 가진 전통과 특별함에 있어 외국인들이 이러한 것에 더욱 친숙하였고, 외국인들의 의도나 그들이 제공한 디자인대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흑석호에서 발견된 제량은호(提梁銀壺)그림의 형태는 편장형의 기물이다. 유사한 기물은 항주 오대오월시기의 뇌봉탑탑기중(雷鋒塔塔基中)과 내몽고 토이기산요묘(吐爾基山遼墓)의 출토품이다⁴⁷. 편장형의 제량은호는 유목민족의 생활방식에 적합했다. 들고 다니기 편해 중원 내륙의 기물 제작까지 영향을 미쳤다.

46. 제동방, 「당대 소그드식 금은파대잔」, 『당대금은기연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9년, 345-367쪽.

47.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뇌봉탑유진』, 문물출판사, 2002년, 102쪽.



흑석호의 팔각 잔

기물의 모양과 문양은 문화적 기밀이다. 비(非) 당대에 본토 스타일 기물의 첫 발견과 재 출현은 적어도 양주 장인이 제조와 판매를 할 때 구매자가 참여했고, 제작 목적도 감상과 재력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상품으로 구매하여 중국에서 반출하였다.

흑석호와 양주



흑석호의 은호

흑석호가 침몰하던 시기 양주는 찬란한 곳이었다. 중국의 운하 옆과 바다를 나가는 출구에 위치해 있었다. 대중(大衆)2년(848) 시인 두목은 여기를 지나가며 매우 유명한 시를 남긴다.

- '물안개 차가운 물에 드리우고, 달빛은 모래를 덮는데 이 밤 진 회강가 술집 가까이에 배를 대었다. 술집의 아가씨들 나라 잃은 설움을 알지 못하고 강 건너에서 오히려 망국의 노래 "후정화"를 부르고 있노라'

라는 내용이다. 상녀란 양주의 기녀를 의미하고, 그녀들이 매일 귀족관료들과 밤에 불을 켜고 술잔을 들이키며, 국가의 흥망성쇠도 모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목(杜牧)의 <견회(遣懷)>에서도

- '방황에 빠져서 술병 들고 강호를 노닐 적에 가냘픈 개미허리 계집들 손바닥에 가벼웠지 양주서의 십년간 놀아난 꿈 홀연 깨어보니 청루의 망나니 방탕아란 이름만이 남았구나'

라는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 이 두 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시구이다. 당시 양주 부호들이 주지육림의 향락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양주는 경관이 매우 빼어나고, 그 곳의 생활은 풍요로웠다. 또한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천혜의 장점을 가졌으며, 양주와 연결된 대운하라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근 산물이 풍성하게 모이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중만당의 생산기지, 무역기지가 되었으며, 천하의 재화가 모인다 하여 ‘양주일익이(揚州壹益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⁴⁸.

양주의 부흥은 수나라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수양제가 집권할 때 기적적인 두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중국 남북 대운하 토목사업이고 두 번째는 서순(西巡)활동으로 중국의 동서남북이 소통하게 되었다. 남북 운하의 교차점이자 해상 출구가 된 양주는 이를 계기로 신속히 발전하였고, 당대에 와서는 운하까지 만들어졌다. 정원(貞元) 4년(788년), 보력(寶曆)2년(826년)에 양주성 내에 운하를 만들고, 시하(市河)를 개장해 성 안팎의 소통이 가능해졌다⁴⁹.

양주는 신흥항구로 육상실크로드가 쇠퇴할 무렵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나라는 양주에 군정합일의 대 도독부와 회남 절도사 및 운송 사무를 관장하는 염철전운사를 설치하여, 양주에 상주토록 하여 양주가 동남지역의 정치 중심이라는 지위를 보장했다. 각 지역의 물품이 양주로 오고, 이후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해외무역 또한 각종 인원, 각국 상객들이 양주에 모이도록 만들었고, 감진(鑑真)이 일본으로 갈 때 양주에서 대량의 물자를 구매하여 출국하였다⁵⁰. 이런식으로 양주를 왕래하는 상객들은 이국의 물품을 중국으로 들여왔다.

흑석호에서 나온 몇 가지 유물은 이슬람도관(陶罐)이 있으며 한 개의 유리병, 남아시아 동경이 있다. 이는 선원들의 생활용품일 것이다. 동일하게 이슬람의 남록유대도호(蘭藍綠釉陶)가 양주에서 몇 백 개의 조각으로 발견되었고 만당시기에 땅 속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1점의 완벽한 쌍이녹유대도호(雙耳綠釉大陶壺)⁵¹가 출토되었다. 양주에서는 대량의 이슬람 납갈습 유리잔해가 나왔으며 출토지는 일반적인 거주민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의 저택인 호인의 상점이었다⁵².

48. 『용재수필』 권9, 중화서국, 2005년, 123쪽 : “당나라에서는 염철전운사를 양주에 파견하고 권익을 파악하며 판관이 수십 명에 달했으며 매매는 꼼꼼히 감독되어 ‘양일익이’라는 명칭이 붙어 천하에 유명하니 양주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던라”

49. 「두아전」, 『구당서』 권146, 중화서국, 1975년, 3963쪽 : 두아가 양주 장사로 임명받다. 회남절도관찰사 제수 “양주관 하진에는 배가 몰려들고 관료와 상인이 다들 와서 집을 지으며 이곳을 지나가면 꼭 돈을 써야 하며 다시 개발을 하니 관과 민이 모두 기뻐하니 가히 그 사치가 성대하다 하겠다.” ; 「왕파전」, 「신당서」 권167, 중화서국, 1986년, 5113쪽 : 왕판 회남절도사로 임명받다. “깊이 찬 칠리에 이르는 하구에 배가 쉽게 들어오니 이에 기대어 이익을 보더라.”

50. (일)진인개원 서술, 왕향룡 주석 : 『당대화상 동정전』, 중화서국, 2000년, 47쪽.

51. 고품 : 〈양주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도기 및 해당 발견의 의의를 간략하게 논하다〉, 엽혁량 주편집〈이러학, 중국논문집〉, 북경대학출판사, 1993년, 21-28쪽.

52. 양주성고고팀, 「강소양주시문화궁당대건축기지발굴간략보고서」, 『고고』, 1994년 5호.

이러한 유리조각들의 두께는 1mm도 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이슬람에서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주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⁵³. 이는 당대 자기 등이 대량으로 외부로 판매되는 동시에 외국 물품이 당나라로 유입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흑석호와 양주의 고고학 발견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공하였다. 9세기 중엽, 아시아 역사상 대사건이 발생한다. 서아시아 사산제국이 멸망⁵⁴하고 751년 당나라와 대식국이 중앙아시아에서 탈라스 전쟁을 치루고 당나라는 패배한다. 755년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이 3대 사건의 결과로 아시아의 정치와 세력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각 지역 간의 기존 거래방식이 파괴되었고 한 때 크게 번성했던 육상실크로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흑석호"의 이슬람 도관(陶罐)

그러나 대외개방의 문이 열린 상황에서 완벽하게 장기간의 쇠국은 불가능 함으로 타 지역 재물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사람들이 새 통로를 찾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교역하도록 촉진 시켰다. 9세기 이후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여전히 소통하였고 그 중심에는 해로가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53. 안가요, 「유리고고삼척」, 『문물』, 2001년 1호.

54. 페르시아 사산왕조 말, 대제왕 야즈다기르드 3세(Yazdegerd III, 632년~651년), 「사산전」, 『구당서』권198, 중화서국, 1975년, 5312~5313쪽 중에 야지데게르드 3세와 대식인의 전쟁, 병사들은 패배하여 토차리스탄으로 도망가다 피살. 그의 아들 Peroz 질릉성에 거주. 당은 이를 사산도독부로 지정하고 페로즈를 도독으로 임명. 페로즈는 함향 년간에 활동(670~673년). 당으로 건너와 난을 피함. 「사산전」, 『신당서』권221, 중화서국, 1986년, 6258~6259쪽에서는 "이사후"로 명명.

토론문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한 성 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발표자께서는 1998년 인도네시아 불리통섬(Belitung Island) 주변 바다에서 발굴 조사된 흑석호를 통해 海路를 이용한 문물의 소통과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9세기 중엽 침몰한 흑석호에서出水된 도자기와 금속기 등 6만여 점의 유물을 자세히 분석한 다음 그 성격을 제시하고 해로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와 문헌 자료 등을 통해 매우 자세히 검토하고 있어 특별한 의문 사항은 없으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먼저 “黑石號”의 命名 연유와 규모, 최종 목적지는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금속품 이외의 船積品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중계무역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로 항해하였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즉, 흑석호에 실린 물품이 확인되는 지역(국가)이 궁금합니다.
2. 江心鏡의 경우 중국에서는 道家法師의 용도와 제사 활동 등에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 거울을 수입한 동남아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요?
3. 元代 이후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청화자기 3점의 확인은 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전된 청화자기가 매우 소량 생산되었던 배경은 무엇인지요? 또한, 중국과 외국에

서 唐代 청화자기가 확인되는 지역과 수량, 용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흑석호에서는 특징적으로 5만여 점의 長沙窯 생산 자기가 선적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토 수량이 매우 적은 장사요 자기가 동남아에서 선호된 이유와 이를 선호한 특정 지역(국가)이 있는지요? 그리고 船積된 장사요 자기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장사요 자기가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유통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과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5. 선적품 가운데 외국의 주문때문에 생산된 도자기와 금속품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唐代에 신라의 주문 또는 신라 상인들에 의해 제작된 특별한 물품과 기록 등이 중국에 남아 있는지요?
6. 중국은 동남아와 동북아 등 다양한 나라에 많은 문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도자기처럼 지역 또는 국가에 따른 선호도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른 수출품의 유형과 특징, 배경 등이 밝혀져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 끝으로 해양실크로드의 더욱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외래문물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수출되었던 국내 유물의 조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였던 고대인들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남아 있는 금속기 등 신라와 고려 공예품에 대한 현황이 조사되었다면 소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논고

8세기를 깨우다 - 16세기의 중국 침몰선

尤泽峰

녕해(寧海) 해사박물관 관장 / 옥덕(玉德) 중국 고선박 연구소 소장

요약

1. 개요

2 고대 침몰선

2.1 천주만해선

2.2 봉래고선

2.3 남해 I호

3.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공법

4. 결론

논고

8세기를 깨우다 - 16세기의 중국 침몰선

우택봉

녕해(寧海) 해사박물관 관장 / 옥덕(玉德) 중국 고선박 연구소 소장

요약

고대 침몰선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 해저에서 100년간이나 깊게 잠들어 있던 고대 침몰선을 깨우는 것은 해상실크로드에서 활동한 고선박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해상실크로드의 발전과 변천을 깊게 이해하게 한다.

이런 침몰선박은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다. 본문에서는 해상실크로드에서 발굴한 3척의 배를 검토하고자 한다. 8세기부터 16세기를 대표하는 침몰선박 ‘천주만(泉州灣)해선’, ‘봉래(蓬萊)고선’, ‘남해(南海)I호’를 통해 해당 선박의 구조, 선박 적재물품, 항로 및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당대 중국전통 조선공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동아시아 지역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고대 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신비한 수수께끼를 풀어내고자 한다.

키워드 : 해상실크로드, 고대 침몰선, 수중고고학, 고대무역

1. 개요

고대 침몰선박을 발굴하는 작업은 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연해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침몰선박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중고찰 하는 과제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100여 년간 물속에 잠겨있던 고선박은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천주 만해선, 봉래고선, 남해 I호선은 연대, 지역, 역사적 배경에 있어 모두 대표적 특징을 지닌 고대 침몰선박으로 해당 선박들의 구조, 적재물품, 항로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고대선박을 실마리로 하여 8세기부터 16세기의 중국전통 조선 공법 및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항해문화를 파악하여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변천에 대해 깊은 이해를 더 하고자 한다.

2. 고대 침몰선

2.1 천주만해선

1974년 중국 복건성 천주만 후저(後渚)항에서 송대 목조 항해화물선이 발견되었다. 해당 목조 선박은 중국의 중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세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손꼽힌다. 선체 상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파손되었고, 선박은 밑 부분만 남아 있었다. 선수에는 첫 기둥과 일부 선박 잔해 판자가 있었고, 선신 중간은 낮았으며, 현측판과 방수격창 보존은 매우 양호했다. 선저좌와 선저판은 매우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이 고대 침몰선박의 잔해는 길이 24.20m, 너비 9.15m, 높이 1.98m이다. 각 선벽 및 머리부분, 꼬리부분의 윤곽선을 따라서, 가장 낮게 잡더라도 선체 길이는 30m에 달하며 잔해의 너비가 9.15m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횡단선(橫剖線) 바닥에서 갑판부분까지 너비는 적어도 10.5m에 달해 만재 흘수선의 폭은 10.2m에 달한다. 수많은 사료에는 송나라 시대 원양선박의 만재흘수선 깊이가 항해 능력을 결정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바닷속의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대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¹, “항해할 때 깊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열음을 두려워한다. 배의 밑부분은 평평하여 만약 간조가 되면 전복할 수가 없어 밧줄로 축연수를 시도했다.”²

1979년 3월 천주에서 시작한 ‘천주만해선 과학연구회’에서 천주만 선박의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는 고대 침몰선박의 연대가 포함되어 있어 천주만 선박이 송나라 시기의 선박으로 판명됐다. 배에서는 대규모 도자기 파편이 발견됐으며, 이 중 복원할 수 있는 유물은 총 58점이었다. 도자기의 형태, 유약색, 무늬장식을 보면 이러한 도자기 파편들에는 모두 송나라 도자기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송나라 이후의 자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배에서 504점의 동전이 발견됐는데, 이 중 33개의 당나라 엽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송나라의 엽전으로 판명됐다. 동전 중 가장 늦은 것은 뒷면에 ‘칠(七)’이 적힌 남송 시대의 함순원보(咸淳元寶)로 함순 7년(1271)년에 주조된 것이다. 이는 선박의 침몰 시기 절대연대의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³. 여기에서는 침몰선박 지점의 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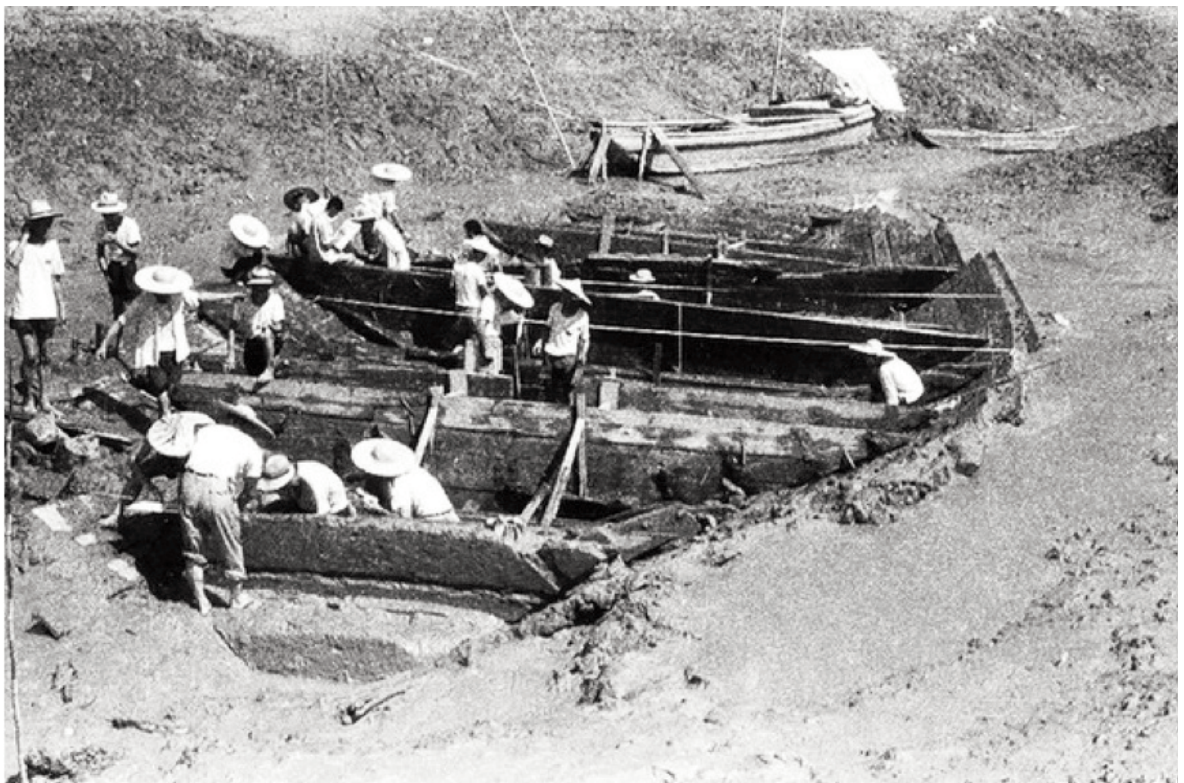
1. 북송 주옥 평주가담 권2

2. 송 서경,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4

3. 천문, <천주만송대환원관련 문체에 대한 탐구>, <해교사연구> 1978, (창간호) 제51p.

샘플을 통해 해안의 침적환경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침몰선박이 매장 된 지 7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⁴. 이러한 결론으로 이 선박이 송대의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 천주만 선박의 항로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가 도출한 결론은 바로 남양(南陽)에서 출발해 귀항하는 원양선박이라는 것이다. 배의 격벽에서 출토된 유물 중 수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향료와 약품이다. 강진향, 침향, 단향 등의 향료목하후추, 빈랑나무, 유향, 주사, 수은, 대모 등의 약품이 있다. 이러한 향료 약초의 주요생산지는 남양의 여러 국가와 아랍 연안지역으로 속칭 ‘남로화(南路貨)’라고 부르고, 해당 화물을 적재하는 배를 ‘남로선’이라 부른다. 북송원우(北宋元祐) 2년(1087년) 정부가 천주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였는데, 남송시기 천주는 남양의 중요한 관문이므로 해당 선박이 남양을 향해했다는 것은 역사, 지리적 조건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국 고선박의 조선공법을 보면 갑판은 쇠못을 이용해 못질하고 그 틈은 대마로 유회하여 메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선박 바닥 용골 결합부분에 ‘생명구멍’을 뚫어 중간에는 동경과 동전철을 놓는다. 해당 배열 형태는 ‘칠성반월(七星伴月)’로 배열하는데 이는 현지에서 배를 만드는 전통적인 습관이다⁵.

천주만 선박은 현재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의 고선박 진열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중국 송대 해선의 중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이다.



복건성 천주 후저항에서 송대침몰선박 발굴 현장(1974년 촬영)
(복건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제공)

4. 임화걸, <천주만송대침몰환경에 대한 탐구>, <해교사연구>1982년, 제4기, 제42-51p.

5. 천문, <천주만 송대환원 관련 문제 탐구>, <해교사연구>1978, (창간호) 제51p.

2.2 봉래고선

봉래 1호 고선은 1984년 봉래수성에서 진행된 대규모 준설 과정 중에 발견된 것이다. 해당 침몰선박의 연대는 연대(煙臺)시 문물관리위원회와 봉래현 문화국직원이 편찬한 준설보고서 <산동봉래수성준설 고선박 발굴>을 통해 상응하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선박 안에서 출토된 고족배(高足杯)는 감정결과 원대의 용천(龍泉)계열로 판명되어 연대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현존하는 배의 길이, 넓이에 근거하여 이 배는 명대 초기에 건설한 수성의 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배의 연대는 늦어도 원말명초(元末明初)를 넘지 않는다.” 봉래1호선의 제조지는 사용한 재료가 대부분 남방의 질 좋은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술 문헌에서 “본 선박은 남방에서 건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본 선박의 용도에 대해 상술문헌에서는 “해양을 순시하고 왜(倭)를 방비하는 전투용선박(戰船)이다.” 라고 하였다. 2005년 봉래에서는 3척의 침몰선박이 출토됐으며 3척의 옛 선박 중 2호 옛 선박은 1호 옛 선박과 같은 시기의 것이며 같은 유형의 명나라 전선(戰船)에 속한다. 그러나 출토된 다른 2척의 옛 선박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몇 년간의 연구와 인증을 통해 기본적으로 3호, 4호 선박이 고려 선박 또는 고려의 조선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대 침몰선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고선박의 발굴은 중세기 중국 조선기술과 그 당시를 연구할 수 있는 진귀한 학술 가치가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 기술교류의 중요한 상징물이다.

봉래 고선박의 기본특징

4호 고선박은 파손이 매우 심하다. 잔존해 있는 선박갑판으로 볼 때 4호 선박과 3호 선박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항 목	봉래 1호	봉래 2호	봉래 3호
잔해 L	28.6m	22.5m	16.8m
잔해 B	5.6m	5m	6.2m
잔해 D	1.1m	1.2m	1.28m
선박유형	복선계열(절선, 浙船)의 갈치 전함형	복선계열(절선, 浙船)의 갈치 전함형	뗏목으로 내하에 도달하는 선박으로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선박으로 발전
선박유형 특징	주용골, 평이 작고 낮다. 큰 원의 배 만고부, 수선이 갈치형에 가깝다.	주용골, 평이 작고 낮다. 큰 원의 배 만고부, 수선이 갈치형에 가깝다.	방수, 방미, 바닥의 평평함이 세로로 흐르는 형이다.
돛대	수돛대 높이 21.25m, 전 경사 25도, 주 돛대 높이 26.72m, 미돛대 높이 12.5m.	수돛대 높이 21.25m, 전 경사 25도, 주 돛대 높이 26.72m, 미돛대 높이 12.5m.	수돛대 높이 12.5m, 후 경사 10도, 주 돛대 높이 15.2m.
현측	현벽 높이 1m	현벽 높이 1m	현에서 뻗어나온 갑판

고증에 따르면 1호와 2호 고선박은 근해의 대형 전함이며(刀魚戰棹) 3호 고선박은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호 고선박의 침몰연대는 원말에서 명초기로 논증되었다⁶. 이 시기는 당시 한반도의 고려에서 조선 시대까지에 해당한다.

양국은 경제무역활동, 문화교류, 인적 교류 및 선박기술교류에서 매우 관계가 긴밀했다. 이러한 교류의 전통은 문헌기록으로 보면 송대로 거슬러 간다. 봉래선박은 이 시대의 고선에 속한다. 3호 선박의 기본 항행 및 가공 공법은 한국 선박의 특징을 보인다. 봉래에서 출토된 고려 고선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외국 고선박이다. 고려 선박은 중국과 외국 교통 역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준 진귀한 해외 교통사의 유물이자 중국 고대 항해사의 중대한 발견이며 역사 및 과학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봉래고선박이 발견되는 현장 (등주박물관(登州博物館)에서 제공)

2.3 남해 1호

남해 1호는 남송 초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자기를 해외로 운송하다가 실수로 침몰한 목재 재질의 고선박이다. 선체 길이는 21.58m, 폭은 9.55m, 적재중량은 400톤이다. 1987년 광둥 양강해역에서 발견됐으며 중국에서 발견한 최초의 침몰선박 유적이다.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최대의 송대선박이다.

소나무와 삼나무를 주요 목재로 하여 건조되었으며 외측선현이 다중의 목판으로 긴밀하게 구성된 점을 근거로 판단하면 이러한 선박의 유형은 주로 복건성의 복선에 속한다. 2007년 남해 1호의 선체가 인양되어 해상실크로드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발굴작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초보적 발굴조사를 거쳐

6. 산둥성 문물고고연구소, 암체아시박물관, 봉래시문물국, 《봉래고선》.

선상에 6만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금, 은, 동, 철, 자기류 유물 4,000여 점은 이미 발굴작업을 거쳐 정리되었다. 여기에는 30품종이 넘는 2,000여 점의 완벽한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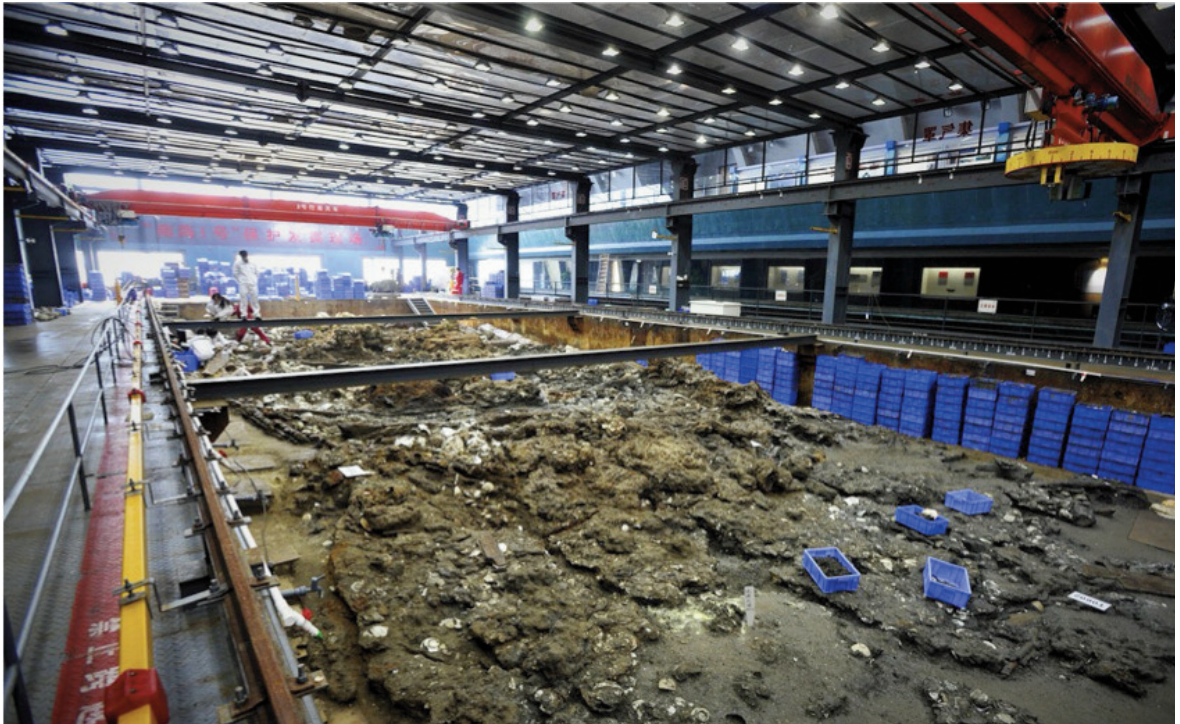
이러한 자기는 복건성의 덕화요(德化窑) 백자, 하북의 자주요(磁州窑) 자기, 강서의 경덕진요(景德鎮) 영청자(影靑瓷), 절강 용천요(龍泉窯) 청자 등 송대의 유명한 자기로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중 수 많은 도자기가 국가 1내지 2급 보물로 최고급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해 I호에서 발굴된 유물은 연대가 오래되고 도요지는 더 풍부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기에 담겨있는 역사적 정보들은 고고학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침몰선박은 중국의 고대 조선공법과 항해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전형적인 표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남해 I호의 발굴은 해상실크로드의 역사, 도자사를 복원하는데 아주 귀중한 실물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헌 및 육상고고학은 제공해 줄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동남아는 고대 중국이 인도양 해역을 왕래하는 필수지역이었다. 동남아 해저에는 다량의 고대 침몰선박이 잠자고 있다. 관련된 고고학 자료로 볼 때 한대시기에 광주(廣州), 합포(合浦), 서문(徐聞)항은 이미 동남아 지역과 함께 해상무역 거래를 시작하였다. 당송 이후 동남아 해역은 인도양 해역의 중요통로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항로는 문헌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가탐(賈耽)의 <광주통해이도(廣州通海夷道)>에 따르면 변주(邊州)에서 네 개의 오랑개국(四夷)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옮겨 신는다. 주요 노선은 두 가지다. 광주에서 시작해 지금의 베트남 중부, 남부 연해지역과 부근 도서를 지나 싱가포르 해협을 건너 자바 섬, 수마트라 섬, 니코바르제도를 거쳐 사자국(지금의 스리랑카)에 도달한다. 다시 인도양 반도 연안을 거쳐 페르시아 만을 거치고 유프라테스강 하구의 우블라에 도착하고 여기서 육로를 이용하여 바그다드(현 이라크 수도)에 도착하게 된다.

상술한 노선은 인도반도 서안에 도착하고,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동부의 삼란국(현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일대)에 도착한다. 북쪽을 향해 수십 개 소국을 거쳐 우블라와도 통하게 되면서 첫 번째 노선과 부합하게 된다. 6세기 말 이전에 부남국(현 캄보디아)은 동남아의 최고 강력한 국가였으며 티크나무와 박달나무를 활발하게 생산하였다. 이 나무들은 배를 건조하는 양질의 목재로 유명했다⁸. 발달한 조선업은 무역 발전을 촉진했다. 부남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와 말레이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제했다. 또한 당시 동남아 주요 교통노선을 통제하여 왔다. 당시 결남상선(挾南商船)은 홍비항을 출발하여 중국 - 남해 - 인도양 항로를 따라 무역을 했다. 434년~588년까지 부남 사절단은 20여 명에 달했고 중국으로 산호, 유리, 대모, 상아탑, 소합향 등 각종 진귀한 보물을 가져왔다. 7세기에 진랍(真臘)은 부남을 대체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국이 됐다. 당시 진랍의 큰 배는 철 못을 사용하였다. 진랍 상인이 사용한 배는 어유, 석회를 이용하여 코팅한 나무 범선이었고, 인도차이나 반도와 광주, 천주 간을 왕

7. 양정걸, 《행주치원-양범해상실크로드의 길》, 256p.

8. 초자현, 《남제서.부남전》



남해1호의 현장을 발굴하고 사진 (광둥 해상실�크로드 박물관에서 제공)

래하였다⁹.

시암(태국)은 동남아의 해운대국이며 100여 척의 선단이 외국과 자주 전쟁을 했다. <해국견문록(海國見聞錄)>의 기록에 따르면 ‘시암은 큰 배를 만들어 만여 섬을 적재하였으며 심산의 큰 나무를 사용하여 돛대를 만들었다. 또한, 수나라에서 파견한 사신이 태국의 적토에 도착했을 때 왕은 30척의 배로 사신을 맞이하였으며 북을 치고 연주를 하며 무척 시끌벅적했다.’¹⁰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200년간 필리핀 마닐라의 범선선단은 중국 비단 등의 물품을 적재하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으로 이동했으며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무역거래를 개척하고 촉진했다. 라틴아메리카인은 중국화물을 적재한 마닐라선박을 중국의 선박이라 칭하였다.

3.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공법

‘천주만해선’, ‘봉래고선’ 및 ‘남해 1호’의 세 선박은 모두 8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고선박으로 중국 전통 목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형에는 중국의 ‘제기상상(制器尚象), 도법자연(道法自然)’의 문화 관념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격물치지’의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¹¹. 중국인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자연 사물에 대해 개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여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

9. 하정 참고, 《진랍풍토교주》, 제169쪽.

10. 위정등, 《수서·적토전》.

11. 《봉래고선등주항국제학술연구토론회문집》 봉래고선 공창기.

미도 담겨있다.

하나의 자연 사물이 체현한 일반적 구조와 기능에 내재한 자연적 성질을 통해 디자인을 구상하면 새로운 창조적 발명을 할 수 있다. V형 단면의 선박형태는 저항력이 매우 좋고 항해에 적합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당송시기 중국인은 “위쪽은 평행하고 아래쪽은 칼과 같아서 파도를 뚫고 항행할 수 있다”¹²는 V형의 단면이 있는 선형을 개발했다. 이러한 V형의 날카로운 바닥 갑판(尖底甲)의 상방형 선두와 선미는 선박이 바다에서 파도를 뚫고 흔들림을 줄이게 되어 수직총강도(總縱強度)를 개선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세밀히 연구해 보면 중국고대 선박문화와 중국건축문화는 일맥상통한다. 목선 건조 기술은 수상건축물에 활용되었다. 조선기술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동구형세(同口形勢)이며 장부와 장붓구멍(樅卯) 구조로 되어있는데, 중국의 대형 건물 지붕에서 연원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수격창(水密隔艙)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와 장붓구멍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조가 고정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여 남아있는 저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우수한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는 중화건축술의 뛰어난 장점이다. 용골(龍骨), 복판(復板), 대랍(大拉)은 세로로 선실입구로 통하며 선실입구 스트링거는 중국 선박의 특징인 종적(縱向)으로 강한 구조재이다. 이러한 구조재의 국부, 치수, 형태 및 힘을 받는 상황은 합리적이며 아름다운 미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선박강도이도(船舶強度理度)에서의 구조에 대한 요구 조건과도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이 선박들은 중국 선박제조자의 지혜와 창조정신을 통해 건조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과 동남아 조선기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천주만 선박의 소나무 용골의 단면 길이는 12.4m, 넓이는 0.42m, 두께는 0.27m였다. 선미부분에 접해진 길이는 5.25m의 용골이 있고 헤드 앤드에는 녹나무 수주(首柱)를 접목했다. 용골은 접두 부분의 굵기가 적고 1/4 정도되는 부위에 가까운 것을 선택했다. 구조는 직각동구(直角同口)의 장부와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못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접두의 형식은 각종 외부의 힘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장인의 심사숙고한 점이 충분히 보인다.

방수창벽은 효과적으로 선박의 방수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항해에서의 횡적강도를 지지해 준다. 창벽옥(艙壁) 선체 사이에 못의 위치를 정하고, 강도를 보장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 역시 중국 목선에만 있는 공법이다. 천주송선(泉州宋船)은 12개의 방수창벽이 설치되어 있고 13개의 화물창고로 나누어져 있다. 창벽판의 두께는 12-100mm이며 거의 삼나무이다. 가장자리 틈은 장부(樅)로 연결하여 코킹 콤파운드로 메웠다. 그리고 가장 밑부분의 벽 판은 녹나무를 이용하여 부식을 먹고 용골 가까운 부분에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들었다. 중국의 선박에 대해 마르코 폴로는 일찍이 “최대 선박에는 최대 선창 13곳이 있으며 두꺼운 판으로 이를 나눈다. 그래서 선박이 산호초에 닿거나 고래에 부딪혀 해수가 유입되는 일

12. 송 서경, <선화봉사고려도경>

등의 위험을 방지한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한데 선박의 깨진 부분에서 물이 흘러들어온다. 선원이 선박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침수되는 선창의 화물을 옆 칸으로 옮기고 여러 선창의 벽을 끼워서 수직으로 세우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다시 옮겨왔던 화물을 해당 선창으로 옮겨온다.”고 말하였다¹³.

중국 해양 선박의 방향키는 올리고 내릴 수 있다. 방향키를 내리면 방향키의 효능을 높일 수 있고 횡으로 이동하는 데 유리하다. 방향키를 올리면 방향키는 보호된다. 이런 발달한 기술은 발굴된 3척의 고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4. 결론

침몰한 선박 한 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집약하고 있고 항해 시대의 축소판이자 흔적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상실크로드의 유력한 증거이다. 중국의 해상실크로드는 한나라 시대부터 관련 기록이 있으며 당시 중국의 선박은 광둥, 광서 등의 연안항구에서 바다로 나갔으며 중남반도 동쪽 연안을 따라 항해하여 동남아 각국에 도착했다. 8세기~16세기에는 항해기술과 조선기술의 진화로 해상실크로드 항로는 더욱 늘어났으며 무역 또한 번영하였다. 외국상선이 지속해서 발굴되고, 이 시기의 고대 침몰선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점점 고대 해상실크로드가 더 알려지게 되면서, 이 무역로드가 동아시아 국가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 및 동남아 등 각국을 관통하는 매우 발달한 무역 로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선박구조, 조선공법 등 방면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복선(福船) 구조는 먼바다를 항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박형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인양된 “신안선”과 “남해 1호” 두 척의 침몰선 선형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복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기술의 발달은 해상실크로드의 교류를 크게 촉진했다.

침몰한 선박의 고고학적 발견 이전에 학자들은 단지 여기저기 흩어진 몇 개의 문헌기록을 통해서만 번영했던 해상실크로드의 역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무역노선과 무역방식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대 침몰 선박이 속속 발굴되고, 중국의 자기 및 기타 문물들이 대량으로 인양되면서 우리는 항로노선에 대한 구체적 정황들을 조금씩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고대 침몰선박에 대한 조사연구는 해상실크로드의 베일 한 부분을 벗겨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발굴해 낼 수 있으므로 해상실크로드 연구 여정은 앞으로 더 길고 깊어질 것이다.

13. 위정등, 《수서·적토전》

제1회 국제학술대회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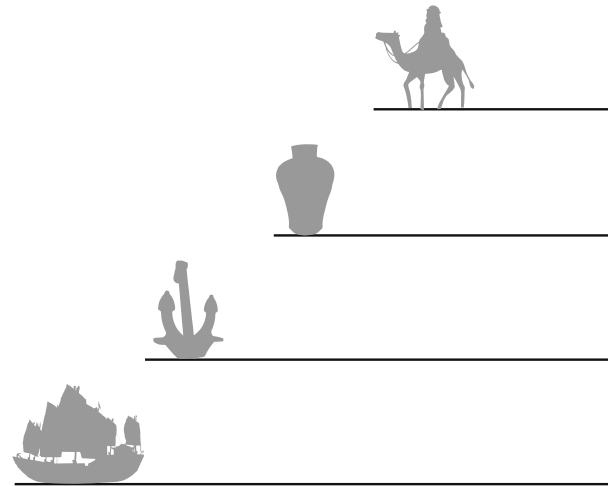
해양 실크로드

각국의 인식과 미래전망
Perception and Perspective of Each Country
on the Maritime Silk Road

2016. 11. 29. Tue 10:00 ~ 17:00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

Main Auditorium,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발행일 2016. 11. 25.
발행 국립해양박물관
디자인 디자인예원 (T.051-631-6510)